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

양보경
이현군
문상명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속의 백두산

Window to Baekdu Mountain

: Mount Baekdu in the Old Maps of Korea

지은이 양보경 · 이현군 · 문상명

발행인 김호섭

발행일 2016년 ♣월 ♣일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 임광빌딩

전화 02,2012,6000 팩스 02,2012,6175

홈페이지 www.nahf.or.kr

연구협력 박 경(성신여자대학교)

연구보조 이은영(성신여자대학교) 이영선(성신여자대학교) 정가희(성신여자대학교)

사진촬영 및 이미지 협조(가나다순)

한국 고려대학교도서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녹우당,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신경준가, 영남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일본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내각문고, 동양문고, 천리대학 도서관

편집 · 디자인 · 제작 민속원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37-25 (토경로 25길 41)

전화 02,804,3320, 805,3320, 806,3320(대) 팩스 02,802-3346

이메일 minsok1@chollian.net, minsokwon@naver.com

홈페이지 www.minsokwon.com

사진 촬영 김도형

ISBN ♣

© 동북아역사재단, 2016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

양보경 · 이현균 · 문상명

서문

백두산은 한국인의 성산聖山이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을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산을 포함한 땅을 삶의 원형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한국의 많은 산 중에서도 백두산白頭山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산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제사의 대상이었다. 백두산은 한국인의 감정적, 정서적 상징성을 지니는 국민적 장소場所이다.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것은 한국의 자연에 대한 한국인의 공통 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백두산은 지리적으로 남쪽의 남북한과 북쪽으로 만주·시베리아, 서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러시아 연해주로 연결되는 동북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백두산은 한반도와 중국의 경계이며 변경이었다.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사상이 만나는 접경지였고, 양국의 중심에서 먼 미지의 땅이자 피난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 지역은 한국인에게는 한국 고대 문명의 중심지 중의 하나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무대였으며, 고려와 조선에서는 회복해야 할 옛 영토로 인식되었다. 중국에서는 요·금·원·청 등 변방에서 성장한 왕조의 무대였다. 이러한 만주 지역에서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은 백두산 일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청왕조는 백두산과 원지圓池를 시조의 발상지로 중시하였으며, 백두산에 제사를 지

냈다. 백두산은 한국과 중국의 경계지대로 흔히 생각하지만, 아시아 동단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에서 대륙과 내륙으로 연결되는 교차점에 위치한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삶 속에서 백두산 및 연결된 산지들은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등 주요 하천, 그리고 하천의 지류들, 호소, 폭포의 발원지로서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하천이 있는 곳에 인간의 거주지가 형성이 되며, 인간의 삶터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거주 영역이 되었을 때 공간은 의미체로서의 지역화,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된다. 백두산은 하천 유역을 포함할 때 점에서 면으로 공간인식이 확장될 수 있다. 공간과 지역은 면적面積 존재이다. 점과 선들로 연결된 면으로 지역을 인식할 때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 인간이 만든 사회적 구성물들이 어우러진 종합적 실체로서의 지역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백두산은 주변의 하천 수계와 함께 고찰할 때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지역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쟁점도 주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왔다.

고지도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풍부한 역사적, 지리적 시각 자료이다. 고지도는 국가와 지역의 군사·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지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지역민들의 지역 인식과 그 변화, 사회적 필요성, 과학과 예술성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지도집은 한국에서 제작, 편찬된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린 고지도를 종합 정리하여 백두산과 백두산과 연관된 수계水系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집성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한국의 고지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 소장의 고지도 및 일부 개인 소장 고지도 약 150종이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의 고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해석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중국을 통해 백두산과 주변 지역 및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답사했다.

본 지도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백두산이 표현된 한국 고지도의 수집과 이 지도들의 지도적 완성도의 구현이었다. 지도의 촬영과 편집, 인쇄 과정에서 아름다운 한국의 고지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리기 위해 새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편집과 디자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 지도집을 기초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백두산 고지도집은 백두산이 포함된 한국의 고지도 도판을 수록하고, 백두산 관련 지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논고, 도판해설, 그리고 부록으로 백두산 세부도 모음, 수록된 지도의 상세 서지, 색인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본 지도집

에서는 백두산과 북방 변경지역을 그린 고지도의 정리와 해석을 통해 백두산의 표현과 변모, 백두산에 대한 인식과 변화, 이의 배경이 되는 역사·사회·정치적 변화를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제작된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관방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주변의 수계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백두산 동쪽 수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 그것은 지도뿐만 아니라 지리지 및 근대 이후의 자료들, 중국 및 일본의 지도에 나타난 백두산에 관한 연구가 종합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도 특히 고지도 작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북아역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공동 연구진으로 고생한 이현군 박사, 문상명 박사, 성신여대 대학원 및 학부 재학생인 이은영, 이영선, 정가희 양, 그리고 백두산의 자연지리 집필과 답사에 동행하신 성신여대 박경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양보경 씀



[차례]

도판

I. 양계지방 지도 속의 백두산	17
1. 백두산과 만주	19
2. 백두산과 북계	49
II. 백두산과 정계비	77
III. 조선전도 속의 백두산	89
1. 백두산과 흑룡강	91
2. 백두산과 토문강·분계강	103
3.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	117
IV. 도별지도 속의 백두산	161
1. 백두산과 토문강·분계강	163
2.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	185
V. 군현지도 속의 백두산	207
VI. 세계지도 및 아시아지도 속의 백두산	235
1. 백두산과 세계지도	237
2. 백두산과 아시아지도	259
논고 - 백두산과 한국의 고지도	271
도판 해설	337
부록 - 백두산 세부도	465
도판 목록	475
색인	497

I. 양계지방 지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만주

도판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17
도판 2	서북양계도西北兩界圖	19
도판 3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20
도판 4	서북계도西北界圖	20
도판 4-1	서북계도 제 1~2첩	22
도판 4-2	서북계도 제 3~4첩	23
도판 4-3	서북계도 제 5~6첩	23
도판 5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	23
도판 5-1	요계관방지도 세부도	30
도판 5-2	요계관방지도 세부도	30
도판 6	해동지도海東地圖 조선여진분계도 朝鮮女真分界圖	31
도판 7	전세보 傳世寶 조선·만주지도 朝鮮·滿州地圖	31
도판 8	해동지도海東地圖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	31
도판 9	여지대전도輿地大全圖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	32
도판 10	해동지도海東地圖 서북피아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	33
도판 1-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세부도	34
도판 2-1	서북양계도 세부도	35
도판 3-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세부도	35
도판 10-1	서북피아양계전도 세부도	35
도판 11	각국도 일 서북피아교계도西北彼我交界圖	35
도판 11-1	서북피아교계도 세부도	37
도판 12	영고탑총람도寧古塔總覽圖	37
도판 13	여도輿圖 영고탑도寧古塔圖	38
도판 14	여지도輿地圖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39
도판 15	각국도 일 성경전도盛京全圖 청일통지본淸一統志本	40
도판 16	중국고대각성별전도中國古代各省別全圖 성경전도盛京全圖	41
도판 17	화이지계華夷地界 성경盛京	42

도판 18	각국도各國圖 성경전도盛京全圖	44
도판 19	대한지리도大韓地理圖 성경도盛京圖	44
도판 20	고지도첩古地圖帖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45
도판 21	여도輿圖 성경전도盛京全圖	46
도판 22	각국도各國圖 북경노정기北京路程記	47
도판 23	여지도輿地圖 의주북경사행로義州北京使行路	47
도판 24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	48
	고구려북도금강의강역도高句麗北都及江外疆域圖	48

2. 백두산과 북계

도판 25	북관지도北關地圖 관북지도關北地圖	49
도판 25-1	[관북지도] 세부도	50
도판 26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	51
도판 27	북계지도北界地圖	52
도판 28	양계지도兩界地圖	53
도판 26-1	관서관북도	54
도판 27-1	북계지도	55
도판 28-1	양계지도 세부도	55
도판 29	북방강역도北方疆域圖	57
도판 29-1	북방강역도 세부도	57
도판 30	서관총람지도西關總覽之圖	58
도판 31	서북양계지도西北兩界地圖 서관총람도西關總覽圖	58
도판 33	청남도淸南圖 관서전도關西全圖	60
도판 34	청북도淸北圖 청북전도淸北全圖	60
도판 35	여도輿圖 압록강도鴨綠江圖	62
도판 36	압록강변계도鴨綠江邊界圖	62
도판 37	관서청북전도關西淸北全圖	64
도판 38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	64
도판 39	폐사군국경수어도廢四郡國境守禦圖	67
도판 40	폐사군도廢四郡圖	68

도관 41	관북전도關北全圖	71
도관 41-1	관북전도 세부도	71
도관 42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 표지	72
도관 43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 목록	72
도관 44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 녹둔도도鹿苴島圖	73
도관 45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 연추영도延秋營圖 · 혼춘도琿春圖	74
도관 46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 해삼위도海蔘崴圖	75

II. 백두산과 정계비

도관 47-1	백두산정계비지도 세부도	78
도관 47	백두산정계비지도白頭山定界碑地圖	78
도관 48	동국여도東國輿圖 제 3책 함경도 백두산도白頭山圖	80
도관 49	여지도輿地圖 임진정계지도壬辰定界地圖	81
도관 50	조선정계비강역약도朝鮮定界碑疆域略圖	82
도관 51	백두산정계비지도白頭山定界碑地圖	82
도관 50-1	조선정계비강역약도 세부도	83
도관 52	장파지도長坡地圖	84
도관 53	북관장파지도北關長坡地圖	85
도관 54	장진지도長津地圖	86
도관 54-1	장진지도 세부도	87
도관 55	갑산지도甲山地圖	88

III. 조선전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흑룡강

도관 56	팔도지도八道地圖	91
도관 57	조선국도朝鮮國圖	92
도관 58	조선도朝鮮圖	93
도관 56-1	팔도지도 세부도	93

도관 57-1	조선국도 세부도	93
도관 58-1	조선도 세부도	93
도관 5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조선 부분	94
도관 60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94
도관 61	팔도총도八道總圖	95
도관 62	동국팔도여지도東國八道輿地圖	95
도관 63	동국여지도東國輿地之圖	96
도관 60-1	조선방역지도 세부도	97
도관 62-1	동국팔도여지도 세부도	97
도관 61-1	팔도총도 세부도	97
도관 63-1	동국여지도 세부도	97
도관 64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98
도관 64-1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세부도	99
도관 65	조선팔로지도朝鮮八路地圖	100
도관 66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摠覽圖	100
도관 67	조선팔도총람지도朝鮮八道摠覽之圖	101
도관 65-1	조선팔로지도 세부도	101
도관 66-1	조선팔도고금총람도 세부도	101
도관 67-1	조선팔도총람지도 세부도	101
도관 68	팔도총도八道總圖 조선전도朝鮮全圖	102

2. 백두산과 토문강 · 분계강

도관 69-1	동국대지도 세부도	104
도관 69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04
도관 70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06
도관 71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	106
도관 72	조선전도朝鮮全圖 조선총도朝鮮總圖	107
도관 73	각도지도各道地圖 조선전도朝鮮全圖	107
도관 74	동국지도東國地圖	108
도관 75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조선전도朝鮮全圖	108

도판 70-1	동국대지도 세부도	109	도판 93	고지도첩古地圖帖 조선전도朝鮮全圖	129
도판 71-1	조선팔역도 세부도	109	도판 94	지도地圖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	130
도판 72-1	조선총도 세부도	109	도판 94-1	조선국팔도통합도 세부도	130
도판 73-1	조선전도 세부도	109	도판 95	조선팔도여지지도朝鮮八道輿地之圖	131
도판 74-1	동국지도 세부도	109	도판 96	동국지도東國地圖	131
도판 75-1	조선전도 세부도	109	도판 97	여지도輿地圖 아국총도我國總圖	132
도판 76	청구관해방총도靑丘關海防摠圖	111	도판 9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132
도판 76-1	청구관해방총도 세부도	112	도판 97-1	아국총도 세부도	133
도판 77	조선지도朝鮮地圖	113	도판 98-1	조선팔도지도 세부도	133
도판 77-1	조선지도 세부도	113	도판 99	해좌전도海左全圖 목판본	134
도판 78	여도輿圖	114	도판 100	해좌전도海左全圖 사본	134
도판 78-1	여도 세부도	115	도판 101-1	대동여지전도 세부도	135
도판 79	동국지도東國地圖 총도總圖	116	도판 101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135
3. 백두산과 압록강 · 두만강		117	도판 102	청구도靑邱圖 본조팔도주현도총목本朝八道州縣圖總目	136
도판 80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동국대총東國大摠	118	도판 103	청구도靑邱圖 본조팔도성경합도本朝八道盛京合圖	136
도판 81	지도地圖 조선국朝鮮國	119	도판 104	청구도靑邱圖 제 3층 8·9	137
도판 8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조선전도朝鮮全圖	120	도판 105	동여도東輿圖 제표총목諸標總目, 팔도분표八道分儀	138
도판 83	해동총도海東總圖 조선총도朝鮮摠圖	121	도판 106	동여도東輿圖 제 3층 8·9	139
도판 84	지도地圖 조선총도朝鮮摠圖	121	도판 107	청구도靑邱圖	140
도판 85	지도地圖 조선도朝鮮圖	122	도판 108	청구도靑邱圖 제 1층 3	140
도판 86	지도地圖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123	도판 109	청구도靑邱圖 제 3층 8·9	141
도판 87	여지도輿地圖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124	도판 110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 2첩 백두산 부분 목판본	142
도판 8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조선팔도대총지형朝鮮八道大總地形	125	도판 11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 2첩 백두산 부분 사본	143
도판 89	천하도天下圖 팔도총도八道總圖	126	도판 112	조선지방도朝鮮地方圖 제 1첩 백두산 부분 사본	144
도판 90	좌해여지도左海輿地圖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127	도판 113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 2첩 백두산 부분 사본	145
도판 91	조선팔도朝鮮八道	128	도판 114	좌해여도海左輿圖	146
도판 92	동국지도東國地圖	128	도판 115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46
도판 91-1	조선팔도 세부도	129	도판 116	동여도東輿圖	147
도판 92-1	동국지도 세부도	129	도판 117	동여도東輿圖	147
			도판 114-1	좌해여도海左輿圖 제 2첩 · 3첩	149

도관 115-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 2첩 · 3첩	151
도관 118	동여東輿 제 1첩 · 2첩	153
도관 119	동여도東輿圖 제 2첩 · 3첩	155
도관 120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	156
도관 120-1	대한여지도 세부도	156
도관 121	대한전도大韓全圖 대한전도大韓全圖	157
도관 121-1	대한전도 세부도	157
도관 122	근역강산맹호기상도謹域江山猛虎氣像圖	158

IV. 도별지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토문강 · 분계강

도관 123	북관지도北關地圖 북도십읍北道十邑	163
도관 124	여지도輿地圖 함경도咸鏡道	164
도관 125	조선전도朝鮮全圖 함경남도咸鏡南道	165
도관 126	조선전도朝鮮全圖 함경북도咸鏡北道	166
도관 126-1	함경북도 세부도	166
도관 125-1	함경남도 세부도	167
도관 127	동국지도東國地圖 함경남도咸鏡南道	167
도관 128	동국지도東國地圖 함경북도咸鏡北道	168
도관 129	도리도표道里圖標 함경도咸鏡道	168
도관 129	도리도표道里圖標 함경도咸鏡道	169
도관 130	동국지도東國地圖 관서關西	170
도관 131	동국지도東國地圖 관남關南	170
도관 132	동국지도東國地圖 관북關北	171
도관 132-1	관북 세부도	171
도관 133	이동여지도我東輿地圖 평안도平安道	171
도관 134-1	함경도전도 세부도	172
도관 135-1	함경도관북 세부도	172
도관 134	이동여지도我東輿地圖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172
도관 135	이동여지도我東輿地圖 함경도관북咸鏡道關北	173
		173

도관 136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 함경도咸鏡道	174
도관 137	기봉요도箕封瑤圖 함경북도咸鏡北道	175
도관 138	해동팔역여지도海東八域輿地圖 관북關北	175
도관 139	관서도지도關西都地圖	176
도관 140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176
도관 141	팔도분도八道分圖 함경도咸鏡道 : 남도南道	177
도관 142	여지도輿地圖 함경도咸鏡道 : 북도北道	177
도관 143	좌해지도左海地圖 함경도 : 남도십삼주咸鏡道南道十三州	178
도관 144	좌해지도左海地圖 함경도 : 북도구주咸鏡道北道九州	178
도관 145	조선팔도여지전도朝鮮八道輿地全圖 평안平安	179
도관 146	조선팔도여지전도朝鮮八道輿地全圖 함경咸鏡	179
도관 147	여지도輿地圖 평안도도平安道圖	180
도관 148	여지도輿地圖 함경도도咸鏡道圖	181
도관 149	대한전도大韓全圖 평안북도平安北道	182
도관 150	대한전도大韓全圖 함경북도咸鏡北道	183

2. 백두산과 압록강 · 두만강

도관 151	해동도海東圖 함경도지계리수咸鏡道地界里數	185
도관 151	해동도海東圖 함경도咸鏡道	186
도관 152	해동도海東圖 함경도咸鏡道	187
도관 153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함경도咸鏡道	188
도관 153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함경도咸鏡道	188
도관 154	천하지도天下地圖 함경도도咸鏡道圖	189
도관 154	천하지도天下地圖 함경도도咸鏡道圖	189
도관 155	대한지리도大韓地里圖 평안도平安道	190
도관 155	대한지리도大韓地里圖 평안도平安道	190
도관 156	대한지리도大韓地里圖 함경도咸鏡道	190
도관 156	대한지리도大韓地里圖 함경도咸鏡道	190
도관 157	지도地圖 함경도咸鏡道	191
도관 157	지도地圖 함경도咸鏡道	191
도관 158	함경남북도도읍전도咸鏡南北道都邑全圖 함경전도咸鏡全圖	192
도관 158	함경남북도도읍전도咸鏡南北道都邑全圖 함경전도咸鏡全圖	192
도관 159	좌해여지도左海輿地圖 함경도咸鏡道	193
도관 159	좌해여지도左海輿地圖 함경도咸鏡道	193
도관 160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함경도咸鏡道	194
도관 160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함경도咸鏡道	194
도관 161	천하도天下圖 함경이십이관咸鏡二十二官	195
도관 161	천하도天下圖 함경이십이관咸鏡二十二官	195
도관 162	삼한일람도三韓一覽圖 함경도咸鏡道	196
도관 162	삼한일람도三韓一覽圖 함경도咸鏡道	196
도관 163	지도地圖 함경도咸鏡道	197
도관 163	지도地圖 함경도咸鏡道	197

도판 164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함경도咸鏡道	198	도판 191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 위원군渭原郡	216
도판 165	지도地圖 함경도咸鏡道 서울역사박물관	199	도판 192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 이산부理山府	217
도판 166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 함경도 세부도	200	도판 193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 벽동군碧潼郡	217
도판 167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 함경도 세부도	201	도판 194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 창성부昌城府	217
도판 168	해동총도海東總圖 함경도咸鏡道	202	도판 195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 삭주부朔州府	217
도판 169	해동총도海東總圖 관북關北	202	도판 196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 의주부義州府	217
도판 170	북관지도北關地圖 [북관지도北關地圖]	203	도판 197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무산부茂山府	218
도판 171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전도平安道全圖	204	도판 198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회령부會寧府	218
도판 172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205	도판 199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종성부種城府	218
도판 173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평안도平安道 국립중앙도서관	206	도판 200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온성부穩城府	219
도판 174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함경도咸鏡道 국립중앙도서관	206	도판 201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경원부慶源府	219

V. 군현지도 속의 백두산

도판 175	관북지도關北地圖 표지	207	도판 202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경흥부慶興府	219
도판 176	관북지도關北地圖 서문序文	208	도판 203	관북지도關北地圖 무산부茂山府	220
도판 177	관북지도關北地圖 서문序文	208	도판 204	관북지도關北地圖 무산부茂山府	220
도판 178	관북지도關北地圖 서문序文	209	도판 205	관북지도關北地圖 무산부茂山府	221
도판 179	관북지도關北地圖 갑산부甲山府	209	도판 206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무산부茂山府	221
도판 180	관북지도關北地圖 갑산부甲山府	210	도판 207	북관지도北關地圖 무산茂山	222
도판 181	관북지도關北地圖 삼수부三水府	210	도판 208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무산부茂山府	222
도판 182	관북지도關北地圖 삼수부三水府	211	도판 209	조선지도朝鮮地圖 함경도 무산茂山	223
도판 183	관북지도關北地圖 무산부茂山府	211	도판 210	함경남북도도읍전도咸鏡南北道都邑全圖 무산전도茂山全圖	223
도판 184	관북지도關北地圖 무산부茂山府	212	도판 211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무산부茂山府	224
도판 185	관북지도關北地圖 온성부穩城府	212	도판 212	무산지도茂山地圖	225
도판 186	관북지도關北地圖 온성부穩城府	213	도판 213	청북도淸北圖 의주부義州府	226
도판 187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갑산부甲山府	214	도판 214	청북도淸北圖 강계부江界府	226
도판 188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삼수부三水府	214	도판 215	갑산부지도甲山府地圖	228
도판 189	해동지도海東地圖 함경도 폐사군廢四郡	215	도판 215-1	갑산부지도 세부도	228
도판 190	해동지도海東地圖 평안도 강계부江界府	215	도판 216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회령부會寧府	230
		216	도판 217	회령부지도會寧府地圖	231
			도판 218	함경남북도도읍전도咸鏡南北道都邑全圖 함흥전도咸興全圖	232
			도판 219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함흥咸興	232

도판 220 | 동국여도東國輿圖 | 함경도 함흥부咸興府 233

도판 221 | 동국여도東國輿圖 | 평안도 평양부성도平壤府城圖 234

VI. 세계지도 및 아시아지도 속의 백두산 235

1. 백두산과 세계지도 237

도판 222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239

도판 223 |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 240

도판 224 |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摠便覽圖 241

도판 225 |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摠便覽圖 241

도판 226 | 천하지도 부 조선유구국天下地圖付朝鮮琉球國 |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摠一覽之圖 242

도판 227 | 여지전도輿地全圖 243

도판 228 | 여지전도輿地全圖 244

도판 228-1 | 여지전도 세부도 244

도판 229 |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 245

도판 230 | 각국도各國圖 | 천하전도天下全圖 246

도판 230-1 | 천하전도 세부도 246

도판 231 | 고지도첩古地圖帖 | 천하산천맥락도天下山川脈絡圖 247

도판 232 | 각국도各國圖 | 천하총도天下總圖 248

도판 233 | 축벽도丑闢圖 | 천하도天下圖 248

도판 234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 천하지형天下地形 250

도판 235 | 각국도各國圖 | 천지전도天地全圖 251

도판 236 | 해동삼국도海東三國圖 252

도판 236-1 | 해동삼국도 세부도 253

도판 237-1 | 천하도지도 세부도 254

도판 237 | 여지도輿地圖 |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254

도판 238-1 | 중국역대팔폭병풍 세부도 256

도판 238-2 | 중국역대팔폭병풍 세부도 256

도판 238 | 중국역대팔폭병풍中國歷代八幅屏風 257

2. 백두산과 아시아지도 259

도판 239 |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 중국도中國圖 261

도판 240 | 지도地圖 | 중화도中華圖 262

도판 241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 중국지형中國地形 263

도판 242 |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 중국지도中國地圖 264

도판 243 | 지도地圖 | 중국도中國圖 265

도판 244 | 대한지리도大韓地理圖 | 천하중국도天下中國圖 266

도판 245 | 중국전도中國全圖 266

도판 245-1 | 중국전도 세부도 267

도판 246 | 중국지도中國地圖 268

도판 247 | 여지도輿地圖 | 중국지도中國地圖 269

도판 248 | 지도地圖 | 중국도中國圖 270



VII

논고

백두산과 한국의 고지도

백두산과 한국의 고지도

I. 머리말

백두산은 지리적으로 남쪽의 남북한과 일본, 북쪽으로 만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러시아 연해주로 연결되는 동북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백두산은 한반도와 중국의 경계이며 변경이었다.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사상이 만나는 접경지였고, 양국의 중심에서 먼 미지의 땅이자 피난의 장소이기도 했다. 이 지역은 한국인에게는 한국 고대 문명의 중심지 중의 하나인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무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조의 발상지로 중시되었던 곳이다. 중국에서는 요·금·원·청 등 변방에서 성장한 왕조의 활동지였다. 그러나 백두산과 만주 일대는 926년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된 후 통일 왕조의 균일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 또한 농경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의 거주지였으므로 거주민의 이동과 흥망이 많았던 곳이다. 만주 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곳이자 가시적인 상징은 백두산 일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의 삶 속에서 백두산은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등 주요

하천, 그리고 하천의 지류들, 호소, 폭포의 발원지로서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하천이 있는 곳에 인간의 거주지가 형성이 되며, 인간의 삶터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거주 영역이 되었을 때 공간은 의미체로서의 지역화,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인간에 의해 인공적인 건조물이 들어서며, 집단과 조직 간의 부딪힘에 의한 관계망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백두산은 주변의 하천 수계와 함께 고찰할 때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지역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쟁점도 주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 조선 후기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수계의 표현에 관해서는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고지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고지도 소재 파악의 미흡, 고지도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안되었던 데에 기인한다. 최근 고지도 소장처들이 자료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수록함으로써 고지도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있으나, 연구를 위한 정밀한 수준의 고지도에의 접근은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작, 편찬된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린 고지도

를 종합 정리하여 백두산 연구의 기초자료를 집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현재 한국의 고지도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 소장의 고지도 및 일부 개인 소장 고지도를 허가를 받아 전문 사진가에게 의뢰, 새로 촬영하거나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소장처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이 표시된 연구대상 고지도는 약 150종이다. 수록 지도의 소장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신경준가, 영남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토지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해남 녹우당, 그리고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내각문고, 동양문고, 천리대학 도서관 등이다. 한국의 고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해석하기 위해 두 차례의 답사를 진행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 연구진은 중국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그리고 북과, 서과, 남과를 통해 백두산과 주변 지역을 답사했다. 이 책에 수록한 사진은 답사 당시 촬영한 것이다.

본 지도집에서는 백두산과 북방 변경지역을 그린 고지도의 정리와 해석을 통해 백두산의 표현과 변모, 백두산에 대한 인식과 변화, 이의 배경이 되는 역사·사회·정치적 변화를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제작된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관방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고지도에 표현된 백두산 주변의 수계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백두산 동쪽 수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가시적 이미지의 고지도는 ‘선’의 개념인 ‘국경’의 안과 밖, 주변을 모두 담고 있다. 고지도를 그린 사람들이 살았던, 또는 보고 관찰하며 느꼈던 ‘변경-지역적 성질(zonal characteristics)’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에 충분하다. 또한 고지도는 문헌자료와는 달리 당대

인의 지역에 대한 인식 태도를 보여주며 다양한 지역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어서 사료로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활용될 경우 역사상을 해명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¹

본 지도집에 수록된 백두산 관련 지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논고에서는 먼저 백두산의 자연지리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백두산의 기후, 지형, 지질, 토양, 식생 등 자연환경은 인문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어 백두산과 백두대간, 만주의 역사지리적 의미와 우리 역사 속에서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지도에 그려진 백두산과 백두산 주변을 백두산 주변의 하천수계의 표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유형을 분류해 조선후기 백두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II. 백두산의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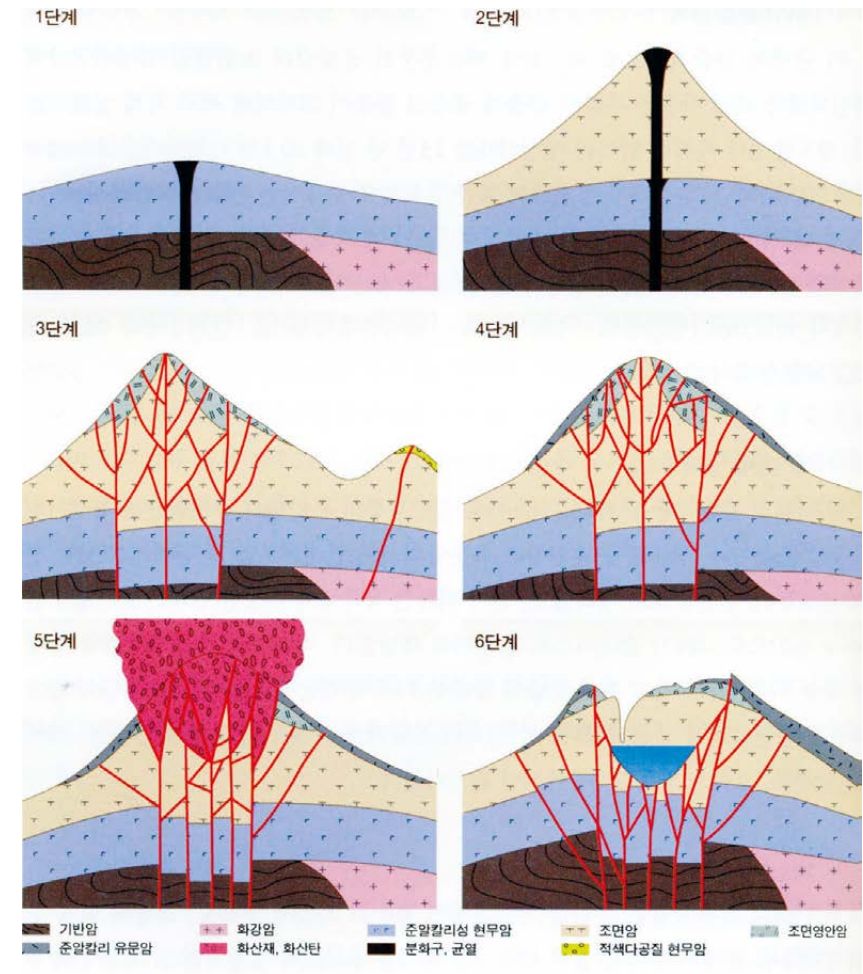
백두산은 북동-남서 방향의 장백산맥(長白産脈, 창바이산맥)과 북서-남동방향의 마천령산맥의 교차점 상에 있으며, 행정상으로 북한의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의 지린성 안투현 얼다오바이허진(二道白河鎮)이 접하는 국경지대에 걸쳐 위치한다(북위 41°31′~42°28′, 동경 127°9′~128°55′). 해발고도는 2,750m로 아시아대륙 북동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남쪽으로 마천령산맥을 따라 백두대간의 기점이 된다. 백두산 정상부는 해발고도 2,500m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60°이상의 급경사를 이루면서 칼데라 호수인 천지를 둘러싸고 연봉을 이루면서 외륜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고봉은 장군봉이고 해발봉과 향도봉이 뒤를 따른다.

1. 지질과 화산활동

백두산은 구성암석과 지질구조에 의해서 크게 5부분의 수직구조로 파악된다. 백두산의 기반암석은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류이며, 중생대 백악기 이후 지체구조운동 및 화성활동과 같은 구조지질학적 진화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특히 신생대 제3기말의 현무암대지, 제3기말의 경사 현무암고원, 제4기 플라이스토세 동안에 이르는 동안 13회 이상의 반복된 화산활동에 의한 알칼리 조면암류와 현무암, 부석의 순서로 덮여 있다. 백두산의 밑바닥을 이루는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류는 평안북도에서 함경북도에 걸치는 평북육괴·함북육괴를 구성하는 암석으로 백두산의 지표에서는 극히 일부분의 침식산지를 빼고는 노출되어 있지 않다. 제3기에 들어서 지표로부터 60~70km 깊이의 지하에서 상부 맨틀을 구성하는 암석 가운데 방사능원소들이 붕괴되면서 열점이 만들어졌다. 이의 영향으로 당시의 지표암석인 화강편마암류에 수직방향의 쪼개진 틈(열곡구조)이 만들어졌다.

해발고도 1,000m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현무암대지이다. 이는 제3기말인 310만~1,990만 년 전 6회의 화산분출로 200~400m 두께의 현무암대지가 만들어졌다. 이는 방사능원소들의 붕괴로 만들어진 열점에서의 열에 의해서 암석들이 부분적으로 녹아서 지하 3~5km의 마그마 챔버(magma chamber)에 모였다가, 자체 압력이 증가되면서 열곡구조의 약한 틈(약선대)을 따라서 분출한 현무암이다. 이 현무암은 잘 흐르는 염기성 용암이 굳어진 것으로 천지 주변의 200~300km 범위에 흘러서 3만km²의 백두산 화산암의 분포지가 되었다.

백두산의 중국 쪽의 사면에서는 해발고도 1,000~1,800m, 55km의 거리, 경사도 8~12°의 완만한 현무암고원이다. 이는 제3기말에서 제4기초의 제2차 염기성 용암의 분출(약 260만~290만 년 전)로 만들어진 녹회색의 현무암으로 470m 두께로 덮여 있다(그림 2-3). 해발고도 1,800m까지, 즉 현무암대지와 경사 현무암고원까지가 순상화산을 이루는데 이는 잘 흐르는 염기성 용암이 여



- 1단계: 준알칼리 현무암질 용암의 유동성 분출(제II 분출 단계)
 2단계: 조면암질 용암의 유동성 분출(제V 분출 단계)
 3단계: 적색다공성 현무암질 혹은 조면암질 용암의 폭발성 분출(제VII 및 제VIII 분출 단계)
 4단계: 준알칼리 유문암질 용암의 유동성 분출(제IX 분출 단계)
 5단계: 부석질 용암의 폭발성 분출(제X 분출 단계)
 6단계: 화구의 붕락

그림 1. 백두화산의 생성과 발달(출처: 김정배 · 이서행 외, 2010)

러 번 분출된 까닭이다. 해발고도 1,800~2,500m는 보다 급경사(35~40°)의 종모양 화산을 나타낸다. 이는 제4기에 21만~61만 년 전, 13만 년 전, 9만~10만 년 전의 3회에 걸쳐 잘 흐르지 않으며 점성이 큰 산성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조면암이기 때문이다. 그 두께는 약 650m이다(그림 1).

천지 주변의 해발고도 2,500m이상의 백두산 꼭대기 지표면은 40~60m 두께의 회백색 부석으로 덮여 있다. 이는 가스가 많고 폭발력이 큰 화산에서의 분출 마지막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공중 분출물이 떨어져 덮인 것이다. 부석은 고온의 마그마가 지상에 분출됨에 따라서 이에 용해되어 있었던 휘발성분과 수증기 등의 가스가 증발되어 바위 부스러기에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된 것으로, 가벼워서 물에 뜬다. 이와 같은 천지 주변의 부석더미는 백두산 화산활동의 최후시기를 나타내며, 천지 형성과정과 그 시기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천지는 수면의 해발고도 2,190m, 평균수심 213.3m, 가장 깊은 곳 384m, 남북거리 4.85km, 동서거리 3.55km, 둘레 14.4km, 면적 9.165km²로 매우 넓고 깊은 호수이다. 일반적으로 마그마의 분출만으로 이루어진 화구는 그 둘레가 2km 이상을 넘지 못하지만, 천지 둘레는 이보다 훨씬 길며 주변의 외륜산에는 화산폭발의 최후시기를 나타내는 부석이 두껍게 덮여 있다. 따라서 천지는 이 부석의 공급원이 되었던 화산폭발과 함께 화구가 함몰하여 이루어진 칼데라에 빗물 등이 모여서 된 칼데라호이다. 천지를 만든 백두산의 화산폭발은 매우 강대하여 화산재가 대륙권 상층까지 도달하였으며 이곳에서 부는 강한 서풍인 제트 기류에 의해서 백두산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일본의 동북지방 북부에서 홋카이도(北海道) 남부까지 흩어져 있다.

이 화산재는 그 성분이 천지 주변의 회백색 부석과 같으며, 가까운 동해 밑바닥에서는 10cm 내외의 두께이고 멀리 떨어진 일본 북부에서는 5cm 내외로 보다 얇아진다. 일본에서는 이 화산재가 헤이안(平安) 시대 후기의 유물포함층에 존재하여 10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에 화산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두산 정상부에서 부석으로 덮여 있는 탄화된 나무등걸을 이



그림 2. 백두산 남파에서 확인된 탄화목

용한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값도 1050 ± 70 년 B.P., 1120 ± 70 년 B.P.를 나타낸다(그림 2). 따라서 천지를 만든 백두산의 대규모 화산폭발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인 고려시대 초기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597년(선조 30) 8월 26일, 1668년(현종 9) 4월, 1702년(숙종 28) 4월 14일의 3번의 분화가 기록되어 있다.

백두산의 화산활동은 천지 밑 62~67km 깊이의 상부 맨틀 암석 중의 방사능 원소들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열에 의해 암석들이 부분적으로 녹아서, 지하 3~5km 깊이의 마그마 챔버에 모였다가 자체압력이 증가하면서 지각의 약 선대를 따라서 분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제3기말에서 제4기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지금부터 1,000여 년 전 대규모 화산폭발이 나타나면서 마그마의 저장고였던 마그마 챔버가 함몰되어 천지의 칼데라를 만든 후 화산활동은 차츰 약화되면서 휴화산이 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화산폭발은 지질연대로 보면 오래지 않아서 그 영향으로 천지를 중심으로 반지름 50km 이

내에는 소규모의 지진이 자주 나타나고(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1973년 4월과 6월에 진도 2.1 및 2.5의 지진이 있었음), 온천이 많다.

2. 백두산의 지형

백두산의 특색있는 지형으로는 용암대지를 비롯한 화산지형·빙하 지형·주빙하지형 등을 꼽을 수 있다. 화산지형은 주변부의 순상화산과 중앙부의 중상화산이며, 중심부는 칼데라와 24개에 이르는 외륜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번의 화산분출로 이루어진 복성화산임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의 기후는 빙하주변대에 속하는 곳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장군봉 주변에서 연평균 기온이 -7.5°C 이며 해발고도 2,150m 수준에서도 연평균 기온은 -3.3°C 이며 해발고도가 1,400m에 불과한 삼지연에서도 -0.6°C 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에도 겨울에 수 m 또는 10여m의 두꺼운 적설층이 나타나며, 산체의 북사면과 골짜기에는 만년설과 빙편들이 있다. 또한 계절적인 동결층과 더불어 영구동결층이 관찰되며, 용빙수, 용설수에 의한 지하 침식작용(侵蝕作用(북한자료에는 세식작용(洗蝕作用)이란 표현을 사용)과 용빙수에 의한 퇴적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백두용암대지는 북한의 넓은 지역과 중국 동북지방을 포함하는 데 북쪽 경계는 안도현 송강진, 서쪽 경계는 무송현, 동쪽은 무산, 남쪽 경계는 단천시 대홍구일대까지이며 남북길이는 310km정도이고 동서길이는 200km정도로서 총면적은 7만 km^2 이며 연구자에 따라 9만 km^2 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백두용암대지의 형성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분출과 두 번째 분출에 의하여 용암대지의 기본형태가 이루어지고 북동-남서방향으로 여러개의 순상화산이 형성되었다. 그 후 용암대지의 중심부에 백두산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백두산의 북동사면에서 생긴 많은 측화산들에 의해

현무암질 용암이 흐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빙하지형으로는 U자곡과 권곡이 있다. 백두산의 화산추를 형성한 알칼리조면암과 응회암과 유문암은 10,000년 전보다 훨씬 오래 전에 분출한 화산암들이므로 백두산 화산체에 빙하지형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가운데 권곡을 분포를 보면 백두산의 화구호인 천지 주변으로는 몇 개의 권곡(圈曲(cirque))이 발달하고 있다. 비로봉과 향도봉 사이에 너비 1,400m정도이고 중심이 1,500m인 권곡이 있으며 권곡의 바닥이 거의 평탄하여 경사가 $7\sim 10^{\circ}$ 정도이며 천지를 향하여 경사져 있다. 권곡의 전단부에는 빙퇴석 언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출판사). 천지의 유일한 절단부인 달문도 빙하권곡이 중첩되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백두산 내부에는 이렇게 약 6개의 권곡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화구내에 발달한 권곡들은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뷔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권곡들이 최후의 부석 대폭발 때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곡들이 전세계적인 소빙기 때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로 보아 소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백두산에는 장군봉 동쪽 기슭에서 남쪽을 향하여 열려있는 곡지가 가장 규모가 큰 빙식곡으로 알려져 있다. 그 곡지의 길이는 2km를 넘으며 너비는 500m정도이고 곡지바닥의 해발높이가 2,250m~2,300m이다. 이 빙식곡은 유문암과 조면암을 침식하여 생긴 것으로 서쪽 측벽의 경우 높이 100m를 넘는 암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의 빙식곡의 횡단면은 U자형으로 나타나지만, 그후 측벽에서 주빙하 작용으로 허물어져 내려온 암설들이 암벽기슭에 퇴적되면서 빙식곡의 예리함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아래쪽 입구부분에 빙퇴석 언덕이 있는데, 키낮은 진달래와 같은 고산성 낙엽수에 의해 피복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현세의 지형이 아니라 유물지형내지 화석지형이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장백폭포 하류의 얼다오바이허의 U자형 골짜기

중국 쪽에서 천지에 이르는 길인 얼다오바이허의 골짜기 가운데 창바이 폭포-빙장氷場 사이의 길이 4km, 너비 1km의 골짜기가 빙하침식곡인 U자곡이다(그림 3). 이는 현재 중국의 영토이다. 남포태산(2,433m)의 남쪽 기슭인 포태천 계곡에 빙하퇴적 제방인 빙퇴석moraine이 있고, 천지 주변의 칼데라 벽에 빙하침식의 흔적인 권곡과 빙퇴석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이들 빙하지형은 마지막 빙하기(약 1만~7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이는 약 1,000년 전 백두산의 화산폭발과 그 함몰에 따른 천지형성과 모순된다. 권곡이 이때의 파괴에서 남은 것이라고 해도 빙퇴석의 존재는 여전히 모순된다. 천지 주변 외륜산 기슭의 빙하지형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빙하기의 빙하와 천지형성 문제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백두산은 해발고도 약 2,000m가 수목한계선이 되어 이보다 높은 지대는 짧은 여름철에 풀만 자라는 산악 툰드라 지대에 속해 주빙하지대(북한에서는 연



그림 4. 백두산 서파 사면에서 나타나는 침식현상

빙하대 지형으로 표현)이다. 천지 주변의 그늘진 골짜기에는 가장 더운 달인 7월에도 눈이 남아 있고, 땅속 0.8~1m 깊이 이하에 영구동토층이 있어 여름에도 녹지 않는다. 해발 2,000~2,100m의 지역에는 여름에도 설식와지nivation hollow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오목한 지형에는 눈이 집적되어 연중 계속하여 남아 있거나 8~9개월 잔존하면서 그 밑의 지반을 침식시킴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웅덩이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설식와지라고 부른다.

영구동토층의 깊이는 시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측 자료에 의하면 백두산의 동사면에서 약 2m 정도의 깊이에서 영구동토층이 발견되고 있다. 이 영구동토층은 불투수층의 역할을 하게 되어 지하수가 유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구동토층과 여름철에 녹는 활동층 사이로 지하수의 함수층의 역할을 하는 이행층이 있다고 짐작이 되며, 이렇게 영구동토층을 타고 진행되는 지하수의 이동은 지하에서 침식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다른 주빙하지형으로는 중국측의 백두산 기상대 근처 동쪽 사면에 표토가 얼고 녹는 것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계단 모양의 솔리플럭션(solifluction), 역시 기상대 부근 2,180m 고도에 작은 무덤 모양으로 표토가 0.3~0.4m 높이로 부풀어 오른 대규모의 유상구조토, 잔설의 재동결과 녹은 물의 침식에 의해서 지면이 둥그렇게 움푹 파인 설식요지, 암석이 얼고 녹는 것의 반복에 의해서 부서지고 무너져내려 바위부스러기 더미를 이룬 애추(talus) 등이 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는 강한 바람이 부는 때가 많고 일정 기간 식생이 자라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풍성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바람에 의한 침식지형으로는 풍식구멍·풍식버섯·풍식기둥 등이 암 석에 많이 나타나 있다. 또한 바람에 의한 퇴적지형으로 풍성사구인 부석모래언덕이 다수 발견된다. 백두산 지역은 바람이 부는 순간속도 뿐 아니라 지속시간도 길고, 특히 봄·가을처럼 건조한 시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많은 량의 부석입자들을 운반하여 모래언덕 즉 사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석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가볍기 때문에 풍성지형 발달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3. 백두산의 기후

백두산 지구는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고산기후를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고 기상변화가 심할 뿐 아니라 복잡한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북쪽으로 광활한 만주 용암대지를 접하고 있어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연중 부는 것이 특징이다.

천지 주변 장군봉의 연평균기온은 -8.3℃이며, 1월평균기온 -24.0℃, 7월 평균기온은 8.5℃이다(김정배·이서행 외, 2010). 월평균기온으로 보면 영상의 기온은 6~9월의 4개월간 10℃ 이상으로 오르지 않고, 영하의 월평균기온은 10

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8개월간 계속된다. 이를 쾨펜의 기후구로 나타내면 한대기후 가운데 툰드라 기후에 속한다. 천지 주변의 백두산 기후는 동결기(10~5월의 8개월간)와 해빙기(6~9월의 4개월간)의 2계절로 나뉜다. 동결기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서 가장 낮은 기온이 -40℃까지 나타나고, 해빙기(이곳의 여름철)에도 월평균기온은 10℃ 이상으로 오르지 못해 땅표면만 녹을 뿐 서늘하여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초본식물만 자란다. 첫서리는 8월 상순에, 마지막서리는 7월 하순에 내려서 무상기간은 7월말에서 8월초까지 20일간이다. 연강수량은 1,500mm로 주변의 낮은 지대인 삼지연보다 600mm 더 많다. 이는 해발고도가 높아서 응결고도 이상 지역이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름과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강수량이 많은 6~9월에 월평균안개일수는 15일이며, 그중 80%가 비와 함께 하여 안개의 평균 계속시간은 6.6시간이다. 7월과 8월에는 비가 많고, 6월과 9월에는 우박으로 내릴 경우가 많다. 눈은 9월 중순에서 다음해 6월 중순까지 9개월간 내리며, 8개월 이상(적설기간은 257일) 눈이 쌓여서 1.2~2m 정도의 두께에 이른다. 바람이 매우 강하며,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주로 분다. 따라서 백두산의 기후는 기상변화가 매우 심한 고산 툰드라 기후를 나타낸다.

4. 백두산의 식생과 토양

백두산에는 650여 종의 식물종이 분포해 가짓수로 볼 때는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이다. 이는 지금부터 200~400년 전의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식물천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두산은 해발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서 식물종의 분포가 뚜렷해 식생의 수직 분포를 보인다.

삼지연(1,400m)에서 신무성(1,600m)까지는 교목대로 잎갈나무·분비나무



그림 5. 백두산 정상의 포드졸성 토양과 초원지대

· 가문비나무 등의 침엽수림과 자작나무·사시나무·달피나무 등이 분포한 침·활엽수림의 혼합림대를 이룬다. 교목 밑에는 물싸리 나무·들쭉나무·까치밥나무 등의 관목림과 초본이 자란다. 신무성에서 무두봉 부근의 해발고도 2,000m까지는 잎갈나무·가문비나무·분비나무 등의 침엽수림대로,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나무의 키가 작아진다. 무두봉(1,930m)에서는 겨울철의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사스레피나무의 가지가 남동쪽으로 편향수(偏向樹)가 되며, 수목한계선을 나타낸다. 해발고도 2,000m 이상은 키가 작은 관목류와 초본들이 자라는 고산대로, 산악툰드라 지대이다. 이곳에 자라는 초본류는 두메자운·담자리참꽃·바위돌꽃, 눈 속에서 꽃이 피는 노란 만병초 등이다. 이 지대는 특히 식물의 생육 기간이 짧아서 7~8월에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룬다(이영노, 1991).

백두산의 토양은 해발고도 1,600m까지는 산악포드졸성 갈색삼림 토양이며, 1,600m에서 수목한계선인 2,000m까지는 산악포드졸성 토양,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산악초원토양이다(그림 5). 1945년 광복 전의 보고에 따르면 북포

태산(2,289m)의 해발고도 1,900m 지점에서 산악포드졸성 토양이 발견되었고, 이 지점의 지표 아래 87cm 밑은 9월 중순에도 얼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백두산에는 호랑이·곰·이리·늑대·멧돼지·사슴·노루 등 50여 종의 산짐승, 꿩·부엉이·딱따구리 등 137종의 새, 산천어·열목어 등의 냉수성 어류가 살며, 나비 등의 곤충도 많다.

5. 백두산의 수문과 하천지형의 발달

1) 수문

천지의 총저수량은 20억으로 그 가운데 70%는 빗물이며, 나머지 30%는 지하수가 솟아 오른 용천수이다. 천지에는 물고기는 없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5종, 작은 동물과 곤충류가 4종, 그리고 이끼가 성장한다. 천지의 물은 중국측의 달문으로만 유출되어 창바이 폭포에서 얼다오바이허를 흘러 쑹화 강(松花江)을 이룬다. 압록강과 두만강으로는 지하수로서 유출될 뿐이다. 장군봉(2,750m) 부근의 해발고도 2,000m에 있는 백두폭포는 높이 18m, 너비 0.8m로 1단계에서 7m, 2단계에서 11m의 높이를 나타내는 2단계 폭포이다. 천지의 물이 지하수화해 용천수로 떨어져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흐른다. 중국의 창바이 폭포-얼다오바이허 계곡에는 수온 37~82℃의 온천이 13개 있고(그림 6), 북한에서도 천지 남서부에서 수온 73℃의 온천이 발견되었다.

2) 하천지형

백두용암대지에 발달한 하곡들의 특징은 좁고 깊어, 용암대지에서 시작된 하곡들은 대지면에 내려와서 계곡 양안으로 급경사의 절벽을 만들고 좁은 협곡을 이루면서 직선으로 흐르기 보다는 곡류하면서 사행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7). 백두용암대지에 발달한 하곡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화산체들에서 형



그림 6. 장백폭포 하류의 온천

성된 방사상의 하곡들이 기슭에 내려와서 고리형 하곡에 합류하는 것이다. 백두산, 북포태산, 두류산 등 큰 화산체뿐만 아니라 작은 화산들과 기생화산에도 방사상의 곡지가 형성되어 내려오다가 산기슭에서 고리형 하곡에 합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해발 1,400m 이상의 부석분포지역에서 하계망 발달은 3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첫단계는 부석층에 스며든 강수와 용설수가 현무암 풍화토의 경계면을 따라 흐르면서 부석의 작은 알갱이를 침식시켜 운반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부석층과 현무암풍화토 사이에 작은 물줄기가 형성되면서 현무암 풍화토가 점차 침식되어 작은 흠을 만들면서 부석동굴을 만드는 단계이다. 세번째 단계는 부석동굴이 점차 확장되고 무너지면서 좁고 깊은 V자형의 골짜기가 형성되고 골짜기 사면과 바닥으로 스며흐르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부석곡지 바닥의 부석이 운반되어 보다 넓은 골짜기가 형성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하천의 하각작용보다는 측면 침식과 암석붕락이 많아져 골짜기



그림 7. 이도백하 상류의 좁고 깊은 감입사행하천

의 낮은 곳에 부석이 퇴적되어 골짜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전단계의 골짜기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출된 암해와 균열속으로 지표유출수가 흘러들어가면서 지표유출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 단계는 건곡으로 남아 있는 하상에 식물이 정착하며 토양형성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계망 발달과정은 산림한계선보다 높은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두만강 상류의 무두봉 부근과 대연지봉 부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백두산 부근 하계망의 특징은 비교적 큰 지류가 없이 하나의 본류만을 가진 하계에 여러 규모의 지류들이 합류하는 형태의 하계망이 발달하는데 이는 기후조건보다는 지질 및 지형 조건에 의해 하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으로 해석된다.

백두산 지역은 4개의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백두산 줄기의 서쪽 사면을 따라 흐르는 압록강하계이며, 이는 백두산 지역에서 가장 큰



그림 8. 압록강과 두만강 수계도(출처: 김정배 · 이서행 외, 2010)

하계이다. 두 번째는 백두산줄기의 동쪽 사면을 흐르는 두만강 하계이다. 세 번째 하계망은 백두산 용암대지의 남쪽을 흐르는 길주남대천과 단천북대천 등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하계는 백두산 북부사면을 흐르는 제2송화강하계이다(그림 8).

(1) 압록강 상류에서 용암대지를 침식하고 있는 곡지의 종단면을 보면 계단상이며 여울이 발달되어 있다. 용암대지를 침식하는 하천의 종단면이 계단상을 이루는 것은 현무암질 용암이 거의 수평이 가깝게 쌓인 까닭이다. 따라서 종단면 상에 폭포가 많고, 본류와 지류의 침식력의 차이에 의해서도 합류점에 폭포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압록강 상류의 주요 지류로는 소백수, 리명수, 포태천, 가림천, 오시천, 보서천, 대평천, 상룡천, 대진천, 신흥천 및 동포천이 있다.

(2) 두만강의 하곡은 해발높이 2,100m의 대각봉 남쪽 무두봉 북쪽 기슭을 지나 신무성에 이른다. 두만강 하곡이 백두산의 급사면에 시원을 두지 않고 대각봉 남사면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기생화산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다.

두만강 하계에 속하는 하천들은 백두산과 북포태산, 백사봉의 동사면과 관두산의 서사면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이 속한다. 하계구성의 특성은 소하단 수상류의 지류들과 같이 사면에서 시작하여 산록부로 흐르는 우안지류들만 발달한 하천들과 서두수와 같이 좌안지류들만이 발달한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만강 본류에 비하여 제1지류인 서두수의 길이와 면적이 각각 3.1배, 2.33배 더 크다는 것이다.

두만강과 그 상류 곡지들은 압록강과 송화강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은 하천이 대지를 흐르면서 곡지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상류에서 골짜기를 형성하던 하천이 대지면에서 없어졌다가, 정상적인 흐름이 시작되는 발원점에서 갑자기 수량이 많아진다. 그 까닭은 이들 하천이 집수구역은 넓지만 대부분의 물 흐름이 부석층 밑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계가 깊다. 하곡이 대부분의 경우 지역경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하곡이 뚜렷하지 않은 현상의 이유는 경계의 확정문제에 매우 중요하므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표고분수령이 명확치 않으며 지하분수령에 의하여

집수구역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부석층은 투수성이 좋아서 강바닥을 형성하는 현무암과 곡지 사면을 이룬 부석층 사이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유속을 보면 사면을 따라 흐를 때에 빠르다가 화산기슭의 대지에서 경사가 완만해짐에 따라 느려지면서 운반되던 물질이 퇴적되고 곡지가 메워지면서 물은 퇴적층 사이로 스며들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석층 밑에 있는 현무암층이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깨어진 절리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이 틈새들이 물이 이동하기 좋은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송화강하계

백두산 지구 하계에는 중국의 제2송화강의 지류인 얼도강의 상류와 지류, 삼도백하, 백두천의 상류구역이 속한다. 북한에서 발원하여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역면적은 78.45km²에 달한다. 이 강들은 두만강과 달리 부석지대를 흐르면서도 명확한 하상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강의 대부분은 봄철(5~6월)에만 표면유출이 있는 건곡으로 남아 있으나, 삼도백하의 발원지는 천지에 시원을 둔 샘이 흘러나와 정상적인 유수의 흐름이 있다(과학기술출판사, 1992).

주요 지류로는 삼도백하와 대연지봉의 북사면에서 발원하는 백두천(일명 사도백하)와 얼도강 상류지역이 있다.

3) 습지

북한에 속한 백두산지구에는 삼지연을 비롯하여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백두산지구에서 가장 습지분포가 집중된 곳은 북동지역의 두만강 상류지역의 대흥단군이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지연으로 그 중에 1호못은 면적이 42ha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습지들은 넓고 완만한 대지 위에 분포하고 있어 가장 깊은 곳이 불적지란 습지로 수심 5m



그림 9. 원지(圓地) 습지의 경관



그림 10.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은 펜(Fen)형 습지

정도이며, 나머지는 1m 미만으로 물깊이가 얇고 면적은 큰 편에 속한다. 백두산 주변의 습지들은 화구호, 언색호 및 분지에 형성된 분지호들이 있다. 이

러한 습지분포는 송화강 유역에 속하는 중국쪽 용암 대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특성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9에 보이는 원지圓池는 직경이 250m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습지이다. 원지의 경우도 규모에 비해 습지 대부분이 사초과 식물이 자랄 정도로 수심이 매우 얇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균기온이 매우 낮은 주빙 하성기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기물 분해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습지의 주변은 토탄과 유기물층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두산 용암대지 상에 발달한 습지들은 대부분이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아 어두운 적갈색을 띠는 상태로 유기물 집적에 의해 펜형Fen습지가 많지만, 식생이 풍부하여 marsh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정확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백두산과 만주의 역사지리

1. 동북아문화의 지리적 중심, 백두산과 만주

백두산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성산聖山이다.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장백산은 중요한 산이었으며, 특히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에게는 민족의 발상지이자 성지였다. 그러나 중국, 몽골,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해양국가인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확대하면 백두산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자연적 중심으로 위치지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백두산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백두산 고지도 집의 발간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백두산은 한반도와 중국의 경계이며 변경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사상이 만나는 접경지였고, 양국의 중심에서 먼 미지의 땅이자 피난의 장소이기도 했다. 한국인에게는 한국 고대 문명의 중심지인 고조선, 고구려와 발해의 무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조의 발상지로 중시되었던 곳이다. 중국에서도 요·금·청 등 변방 민족의 활동지였다. 자연적, 환경적 측면에서 백두산은 한국인에게 성스러운 가치를 지닌 곳이었다. 백두산은 한국인에게 우리 국토 지기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모든 땅의 기운이 백두산에서 비롯되어 내려온다는 믿음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종산宗山인 백두산은 우리 국토를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는 전통적인 유기체적 국토관 속에서 사람의 머리였으니, 우리 땅의 핵심이었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해동지도》에 포함된 조선전도인 <대동총도> 발문에 백두산을 머리로, 제주도와 대마도를 두 발로 기록한 것은 조선후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그러나 실제 사람의 삶 속에서 백두산은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등 주요 하천, 그리고 하천의 지류들, 호소, 폭포의 발원지로서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하천이 있는 곳에 인간의 거주지가 형성이 되며, 인간의 삶터로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거주 영역이 되었을 때 공간의 지역화,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인간에 의해 인공적인 건조물이 들어서며, 집단과 조직간의 부딪힘에 의한 관계망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백두산은 주변의 하천 수계와 함께 고찰할 때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간 쟁점도 백두산 자체라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아시아로 지리적 시야를 확장했을 때 백두산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1) 동북아시아의 중심

백두산은 남쪽으로는 남북한과 일본으로, 북쪽으로는 만주, 시베리아, 중



그림 1.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대동총도 大東總圖>
우측 하단 여백에 국토의 형상을 인체에, 북부 지방을 머리에, 제주도와 대마도를 다리에 비유한 설명이 쓰여 있다.

양아시아, 그리고 서남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연해주로 연결되는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백두산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과 백두산 인접 지역에서 탄생한 문화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육당 최남선이다. 육당은 ‘불함문화론’을 제시했다. “불함문화의 불함이란 불, 광명, 하늘, 하늘신 天神(하느님)을 뜻하는 고어로서, 육당이 조선민족의 기원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단군의 나라에 두고, 그 상고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천신 사상 天神思想이라 할 수 있는 ‘불함문화’로 명명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함문화는 단군 조선의 개창자 開創者인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 天神의 아들 환웅천왕 桓雄天王의 자손이라는 단군신화, 즉 천손강림 天孫降臨신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이 신화를 뿌리로 하는 불함문화가 퍼져 고대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형성했고, 나아가 유라시아 전역에 퍼졌다는 거대한 가설이 불함문화론의 내용이다.”¹

육당은 불함문화권에 속하는 민족은 한족 韓族·만주족·일본족이며, 백두산 지역에서 생성된 불함문화가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전래되어 중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육당은 알타이 산맥, 사얀 산맥, 싱안링 산맥, 조선, 류우큐우 등의 광대한 지역에 불 佛[Park=태양 중심의 신앙과 사회조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 광대한 중앙 및 동북아시아 일원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룬 것으로 보았다.

“세계를 해석하는 거대 담론”으로 찬탄을 받았던 이 이론은 한국의 역사를 통해 동방문화의 연원과 발자취를 밝히려 한 학설이다. 육당은 역사·종교·신화·민속·인류학 등 문화 형성에 관계되는 모든 학문을 총동원하여 동방문화의 진수를 찾고 그 정통으로서의 한국문화의 특색과, 그것의 세계문

화상의 의의를 밝히려 하였다.

육당의 이러한 관점은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민족주의 발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다 전인 1890년대 대한제국기에 들어 단재 신채호는 조선의 역사를 재해석하며, 특히 백두산을 단군이 탄강한 태백산으로 새로운 의의를 부여했다. 이러한 사상은 각광을 받으며 대중교에 의해 널리 확산되었다.²

최근에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들이 진전되면서 불함문화론과 유사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문화가 드러나고 있어 흥미롭다. 삼대 간선 실크로드 중 오아시스로와 해상로 실크로드 보다 더 먼저 성립된 실크로드로 알려진 초원 실크로드는 몽골 유목기마민족의 활동무대이며, 유라시아대륙의 북방 초원지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교류와 소통의 길이다. 초원실크로드는 흑해 동북쪽 남러시아에서 시작해 카스피해 북안과 아랄해 남안, 그리고 넓은 까자흐 초원을 지나 알타이산맥 남록 중가리아분지를 거쳐 몽골 오르혼강 연안(고비사막 북단)에 이른다. 여기서 다시 동남쪽으로 길을 뻗어 중국 화베이(華北) 지방과 다싱안링(大興安嶺)을 넘어 한반도까지 이어진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밝힌 스키타이의 동방무역로도 바로 이 초원 실크로드의 서단에 해당된다. 백두산은 북방 초원지대의 길과 문화와 한반도, 일본으로 연결되는 아시아의 주요 접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백두산은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몽골에 이르기까지 성산(聖山)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백두산의 이름이 다양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최초로 『산해경(山海經(기원전 2세기))』에 ‘불함산(不咸山)’으로 기록되었으며, 위진남북조시대(221~589)에는 태백산(太白山)·도태산(徒太山) 등으로 불렸다. 요(916~1125), 금(1115~1234) 시대 이후 ‘장백산(長白山)’으로 불렸다.

2) 문화와 사상의 조우, 접변지역

백두산과 주변 지역은 중국, 한국, 러시아의 변경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지역의 문화와 사상, 사람들이 만나는 접변지역이었다. 전근대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는 하나의 명확한 선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정한 면적을 지닌 공간 즉 지대의 개념이 유지되어 왔으며, 지형이 험준해 사람의 거주가 희소한 경우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현저했다. 한국과 중국이 마주치는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흑룡강 등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이 지역은 만주라는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주라는 명칭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 정권을 건립하면서 자신을 ‘만주 칸(汗)’이라 하고 1635년 청 태종이 여진인을 만주인으로 개칭한 후, 점차 부족 명칭에서 지명으로 바뀌어 전해 내려왔다. 즉 만주라는 명칭은 청나라 초기에 여진족 자신의 부족 명칭이었다가 그들의 거주지 명칭으로도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처음에 요서, 요동 지방을 지칭하였지만 곧 만주 전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잡았다.³

청말에 동삼성(東三省(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설치해 이 지역의 개발과 관리에 힘썼으며, 1932~1945년 이 지역에 일본이 괴뢰정부 ‘만주국’을 설립해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본거지로 삼으면서 만주라는 이름이 보편화되었다. 중화민국 정부가 성립되면서 중국에서는 만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동베이(동북)지방으로 부르고 있다.

3) 접경에서 창조적 융합의 공간으로

백두산과 주변 지역은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투쟁의 공간, 접경의 공간, 변방의 공간, 차단과 분리와 장벽의 공간, 완충과 공백의 공간, 융합과 혁명의 공간, 새로운 세력과 문화의 발상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변경의 자유롭고 광활한 공기가 새로운 사상과 인물을 잉태했다. 그에 따라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만들어갔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 변동의 진원지’⁴로 지칭될 정도로 많은 민족들의 명



그림 2. 중국 랴오닝성 지안시의 환도산성과 고분군

멀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요동에서는 진秦 이전 시기에는 숙신肅慎이, 진·한秦·韓 시기에는 부여·고구려·옥저·읍루·오환·선비족이, 위진 남북조 시기에는 공손씨·물길·선비·해·거란·실위가, 수·당隋·唐 시기에는 돌궐·말갈족이, 송·원宋·元 시기에는 거란족·여진족·몽골족이, 청대에는 만주족이 생활했다. 요동을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은 고구려와 발해를, 선비모용씨는 전연前燕·후연後燕을, 거란족은 요遼를, 여진족은 금金을 건국했고, 몽골족은 원元을, 만주족은 청淸을 건국했다.⁵ 한국의 가장 강력한 고대국가였던 고구려와 발해를 비롯해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원과 청과 같은 중국의 대국가가 이 지역에서 발흥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인적 구성에서도 사상과 문화의 측면에서도 타문화, 타민족을 수용하는 융합의 조직 사회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만주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중심적인 이미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지역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발해를 비롯하여 요·금·원과 같은



그림 3. 중국 랴오닝성 지안시의 국내성 성터

유목왕조가 보여주듯, 만주에는 다민족·다문화 국가의 전통이 면면히 흘러왔다. 근대전환기에는 한족이 대거 이주하고 조선·일본·몽골·러시아인들까지 몰려들면서, 만주는 조선과 질적 구성이 다른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을 이루었던 것이다.⁶

현재의 백두산 주변 지역은 사회주의권의 개방화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지역의 잠재적 융합력이 새로운 창조성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특히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은 대륙으로 향하는 한반도의 관문이며, 북서태평양권과 유라시아 대륙 간 물류의 중계수송기지이다. 또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으로 다국 간 협력의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⁷ 있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한 지역 도약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미래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접촉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그림 4. 중국 랴오닝성 지안시의 광개토왕릉비



그림 5. 중국 랴오닝성 지안시의 장군총

2. 한국 고대 문명 고구려, 발해 및 조선의 발상지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역사의 주역들이 탄생하고 활동했던 역사적 무대로 한국 고대 역사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고대에는 고구려가 백두산을 중심에 두고 남북으로 광대한 지역을 거느렸다.

고구려(기원전 37년경~668년)는 한국의 고대 삼국시대를 백제, 신라와 함께 이끌어갔던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다. 전성기의 고구려의 영토는 현재의 남북한 전역,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부, 연해주 일부 등 러시아 일부를 영역으로 하였다. 현재 현재 중국 지린성 지안현 통거우에 있는 환도산성과 고분군(그림 2), 국내성성터(그림 3), 고구려 제19대 광개토왕의 능비인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그림 4), 호태왕릉, 장군총(그림 5)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광개토왕릉비는 국내외의 관심을 집 중시킨 중요한 비문을 포

함하고 있다.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의 비로, 호태왕비라고도 부른다. 414년(장수왕 3)에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왕을 기리기 위해 세웠으며, 현존하는 가장 큰 한국의 비석이다. 비신의 4면에는 총 1,775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고구려의 역사와 광개토왕의 영토확장 등의 업적은 물론, 고구려·백제·신라와 일본과의 관계 등을 알려 주는 중요한 고대사 연구 자료이다.

압록강 북쪽에 큰 비가 있다는 사실은 <용비어천가>를 비롯해 조선 전기의 문헌에서 간혹 언급한 경우가 있으나 비문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17세기 이후 청나라에서 이 지역을 만주족의 발상지로 간주하여 봉금제도(封禁制度)를 시행하면서 통행이 금지되자 잊혀진 상태로 있다가, 봉금제도가 해제된 뒤 1880년을 전후해서 광개토왕릉비는 재발견되었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차지하였다. 발해(渤海(698~926))는 당나라와 신라에 의해 멸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229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 동부 및 연해주에 걸친 동북아시아 동북부의 광대한 지역에 성립되었던 국가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약 30년 뒤인 698년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기반을 둔 고구려 유민과 속말말갈 세력이 힘을 합쳐, 대중상(결결중상, 대결중상)과 대조영이 만주에서 당나라 세력이 쇠퇴해진 틈을 노려 건국하여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으나, 926년 요 태조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다. 발해의 건국으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南北國)의 형세를 이루게 되었다. 발해는 강한 군사력과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구려의 계승을 명분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오늘의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걸친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다. 발해의 국가성격, 지배층의 구조, 주체 종족 등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견들이 있으나, 고구려의 유민들이 상층 지배구조를 구성하였다.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1415~1482)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문사이며, 당대 최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학자였다. 양성지는 “우리나라는 넓이가 몇 만리이고, 호수(戶數)가 수백 만이며, 군사가 1백 만으로,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나라에는 신하가 되지 않았고, 원나라와 위나라와는 통호(通好)하였으며, 연(燕)나라에는 한때 의지하였으나, 수나라는 대패하였고, 당나라는 손님으로 대우하였고, 요나라의 침략군은 한 사람도 살려 보내지 않았으며, 송나라는 우리가 섬겼고, 금나라는 우리를 부모의 고향이라고 일컬었으며, 원나라는 사위와 장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태조도 또한 삼한이라 이르고 구하(九下)의 나라라고 하며 요동의 동쪽 1백 80리에 연속된 산맥을 경계로 하여 갈라 놓았습니다”⁸라고 하였다. 또 “우리 동방은 대대로 요하 동쪽에 살면서 만리(萬里)의 나라라 불렸으며”⁹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영토를 요하 동쪽 만리의 나라라 하며 고대부터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3. 백두산, 국토의 원천, 국토의 종산(宗山)

백두산이 한국인에게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의이자 상징은 국토의 머리, 국토의 마루가 되는 산이라는 점이다. 백두산이 국토의 지기의 원천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1) 국토의 종산 개념의 정립

우리나라 산들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백두산, 그리고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백두대간’은 한국의 전통적 산지 체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연적 상징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8도의 모든 산이 다 이 산에서 일어났으니 이 산은 곧 우리나라 산악의 조종(祖宗)이다.”¹¹라고 기록하였다. “홍세대의 백두산 기문에 이르기를 백두산은 북방 모든 산의 조종이다. 청나라의 선조가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우리의 북쪽 국경에서 300여리 쯤 되는 곳이다. 저들은 장백산이라 하고 우리는 백두산이라 하는데, 두 나라가 산 위에서 갈라진 두 강으로 경계를 삼는다”¹²는 백두산에 대한 관념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백두산에 대한 숭앙심과 백두산의 영역적 의미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백두산은 전국 모든 산의 조종(祖宗)이자 우리 성조(聖祖)께서 위대한 왕업(王業)을 시작한 곳”¹³ 등의 표현은 백두산과 주변 지역의 또 다른 의의, 즉 백두산이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신성시되었음을 보여 주는 귀절이다.

백두산의 명칭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경』에는 여덟가지 이름을 제시하였으니,¹⁴ 불함(不咸), 개마(蓋馬), 도태(徒太), 태백(太白), 장백(長白), 백산(白山), 백두(白頭), 가이민상견(歌爾民商堅)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백두산은 단단대령(單單大嶺), 개마대산(蓋馬大山) 등으로도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백두산과 함께 장백산(長白山)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했다.

장백산이라는 호칭은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그리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여러 곳에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함경도 회령도호부 「산천山川」조에 백두산이 곧 장백산이라고 설명한 것, 『대동수경』에 장백산으로 기록한 것 등은 장백산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본격적으로 숭배화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설화부터라 생각된다. 『고려사高麗史』 고려세계高麗世系에는 왕건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김관의의 『편년통록』에 옛날에 호경虎景이라는 사람이 ‘성골장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 왼쪽 산골에 와서 장가를 들고 살았다… 세조는 송악산 옛 집에 여러 해 살다가 또 새 집을 그 남쪽에 건설했는데 그 터는 곧 연경궁 봉원전터이다. 그 때에 동리산桐裏山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당나라에 들어 가서 일행一行의 지리법을 배워 가지고 돌아 왔는데 백두산에 올랐다가 곡령鶴嶺까지 와서 세조의 새 집을 보고,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 이 땅의 지맥은 북방北方인 백두산으로부터 수수와 목木이 근간이 되어水母木幹 내려 와서 마두명당馬頭明堂이 되었으며, 당신은 또한 수명水命이니 마땅히 수水의 대수大數를 좇아서 집을 육육六六으로 지어 36간으로 하면, 천지의 대수大數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왕건王建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한 기록이다. 같은 내용이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적혀 있다 이 기록은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고려는 통일 후 수도를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개성으로 옮기고, 각 지역 인물의 포용과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위의 기록은 왕건

의 탄생지인 개성과 왕건의 인물됨을 풍수에 의탁하여 신성화한 내용이다. 개성이라는 지역과 왕건이라는 인물을 신성화하는 근거와 수단으로 백두산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백두산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성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국민을 통합할 설득력있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까지 백두산은 우리의 영토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진족의 거주지역이었다. 백두산은 15세기 초에 적극적인 북진정책과 여진족 정벌을 통해 영토로 확보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경 문제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국경 문제에 관한 한 백두산 보다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더욱 중요한 경계의 지표가 되었다.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4대조인 이안사李安社 때부터 당시 여진족의 땅이었던 두만강 유역에서 거주하였다. 고려 말엽의 국경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 평양-영흥을 연결하는 선이었으며,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왕의 영토 수복 작전 결과 압록강 중류 평안도의 위원渭原을 기점으로 하여 평안도 강계-함경도 갑산-길주를 연결하는 선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함경도 동북 일대는 여진족이 점거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조상의 옛 터인 동북지방을 중요시하였으며, 건국 후 바로 길주의 국경 한계를 두만강 하류 공주까지 연장시키고, 그곳에 성을 쌓고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거주지를 잃은 여진족의 습격으로 여진족과의 충돌이 계속되었다.

세종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영토를 넓히고, 확고한 자연지형을 국경으로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700여년 이상 빼앗겼던 옛 땅을 회복한 세종은 압록강 유역에 4군, 두만강 유역에 6진을 설치하여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진족은 그후에도 북쪽 변방을 자주 침입하였다. 세조 때 남이·어유소가 압록강 일대 여진을, 신숙주가 회령 부근의 여진을 정벌한 것도 그 예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대한 원병 등으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여진족은 그

세력을 강화하여 1616년(광해군 8)에 건주여진(建州女眞)의 추장 누루하치(奴兒哈赤)가 심양(瀋陽)에 후금(後金)을 세우고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 1627년과 1636년에 조선을 침공하였으며, 1636년에는 나라 이름을 청이라 개칭하고 중국 대륙을 점령하여 중국의 주인이 되었다.

중국을 점령한 청나라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들 조상의 발상지의 성역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1677년에 장백산을 가서 살피오도록 하였으며, 1678년에는 장백산신(長白山神)을 봉하고 오악(五嶽)과 동일하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1644년에는 조선 인민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거나 벌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선 국왕에게 이첩해서 엄히 금지토록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¹⁵

여진의 뿌리 지역이며 동시에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한 백두산을 중심한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는 그러므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문제라는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인이 된 청나라와의 사이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경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백두산은 국경 분쟁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백두산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현실적 측면에서 국왕 이하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1712년(숙종 38)에 조선과 청나라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으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 남쪽 10리 지점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문제를 일단락을 지었다. 조선도 1767년(영조 43)에 함경도 갑산부 80리 지점 운총보(雲籠堡) 북쪽 망덕평(望德坪)에 장소를 골라 각을 세우고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¹⁶ 백두산 치제는 국가의 조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의미를 확고하게 하였음은 물론, 왕실과 왕권, 함경도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백두산 정계비 설치 문제는 백두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였으며, 국토의 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사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두산 등정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

록 함으로써 오히려 심리적 친근감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꿈꾸고, 실행했으며, 그 중에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다.

김지남의 『북정록』(1712), 박권의 『북정일기』(1712), 홍세태의 『백두산기』(1712, 유하집 권9), 이의철의 『백두산기』(1751), 박종의 『백두산 유록』(1764, 당주집 권14), 서명응의 『유백두산기』(1766, 보만재집 권8), 권필칭의 『백두록』(오담선생문집 권1), 서기수의 『유백두산기』(1809, 소재집 권3), 이중하의 『백두산일기』(1885) 등이 대표적이다.¹⁷ 이 밖에도 성해응의 『백두산기』(연경재전집 권46) 등이 있다. 서명응과 조엄은 갑산으로 유배되자 백두산을 등정하며 상한의(象限儀)를 만들어 북극고도(北極高度) 즉 위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¹⁸ 당시 서명응이 측정한 북극고도는 42도를 약간 넘었는데¹⁹, 성해응은 이를 42도 3분이라 기록하였다.²⁰ 또 혜환(惠寰) 이용휴(李用休)(1708-1782)는 백두산을 방문하는 정란(鄭澗)에게 시를 써 주고²¹, 백두산을 다녀 오자 글을 써 주었다.²²

권필칭은 『백두록』에서 백두산을 등정하고 바라본 감흥을 다음과 같이 찬탄하고 있다. “이처럼 두텁고 웅장한 기세를 쌓아 둔 산은 비단 우리 조선에만 처음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곤륜산(崑崙山) 외에는 온 천하를 통틀어도 비할 바가 없다. 옛말에 ‘뛰어난 인재는 땅이 영험한 덕택이다. 人傑地靈’ 라는 말이 있는데, 단군 이래로 뛰어나고 이름나고 신이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얼마나 많이 배출되어 중국의 인물들과 미명(美名)을 함께 일컬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이 백두산이 정기와 신령을 잘 모아서 저절로 그리 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백두산을 한번 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여섯 밤을 길에서 지내기는 사람으로서 쉽게 견딜 만한 일이 아니고, 비록 호랑이를 만나는 재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막힌 길과 어지러이 나 있는 나무 사이를 혼자 힘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까닭에 이 산을 유람하는 이가 거의 없다. 이 산에 오르는 이가 단지 ‘조종(祖宗)이 되는 산이로다.’ 라고 말할 뿐이라면, 이 넓고 높고 웅장한 산이 뛰어난 인재를

보물처럼 감춰 두었다가 이 세상에 낸다는 사실은 모른다 할 것이다.²³”

박종朴琮도 『백두산유록』에서 “곤륜산 아래로는 비록 중국의 산천 이라도 백두산에 미치지 못한다. 오악五嶽이 높다고는 하지만 정상에 80리의 큰 못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다만 화산華山에는 옥정玉井이 있다고 하니, 구경하기는 좋겠지만 규모는 이보다 못할 것이 명백하다. 이로써 백두산이 곤륜산의 적장자가 되고, 오악은 단지 그 가까운 조상의 서자나 지자가 될 뿐이다.”라고 하여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곤륜산의 맥을 잇는 산으로 백두산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백두산의 신령함이 조선의 산천으로 가지처럼 연결됨으로써 조선 땅과 그 땅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백두대간과 1정간, 13정맥 체계는 이러한 인식을 체계화한 자연사상이라 할 수 있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전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헌은 19세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경표山經表』이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개념은 훨씬 앞서 형성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산을 단절된 고립된 봉우리로 보지 않고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맥세脈勢로 이해하는 지형 인식은 풍수 사상의 보급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풍수가 삼국시대 이후 보급되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토의 지형을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뿌리로 보는 관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특히 고려시대에 풍수가 광범위하게 수용되면서 백두산 중심의 지맥론地脈論은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풍수에서는 산을 용龍으로 이해한다. 용은 생명체이며, 생명체는 단절되지 않으며, 생동하는 움직임을 갖는다. 땅을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이지만, 풍수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편찬한 지리지였으며, 실록을 편찬하면서 다시 한번 검증과정을 거친 국가의 공식적인 문헌이다. 이 책에는 함길도咸吉道(후의 함경도)의 강역을 “동쪽은 큰 바다大海에 임하고, 남쪽은 철령鐵嶺에 닿고,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접하였다. 준령이 백두산에서

부터 기복起伏하여 남쪽으로 철령까지 천여 리에 뻗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역시 지역의 주요 지형을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줄기로 파악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 준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함길도 길주목吉州牧에도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까지 78리, 서쪽으로 백두산의 내맥來脈인 대산大山에 이르기 90리인데, 갑산甲山과 접경이 되며, 남쪽으로 단천端川 마천령까지 91리, 북쪽으로 경성鏡城 운가위雲加委의 대천大川에 이르기까지 89리이다.

길주의 서쪽 경계인 대산을 백두산의 내맥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산맥의 개념이 용어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국가의 안정과 부흥을 이룩하였던 국왕 정조의 다음 언급은 조선 후기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땅에 대한 인식을 대변한다.

광릉光陵에 전배展拜하였다. 아침에 양주목을 출발해서 축석령祝石嶺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었다. 이때 새벽비가 살짝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깨끗하였는데, 사방의 산들이 수려함을 다투는 듯 영롱히 빛났다. 상이 승지 서영보에게 이르기를, “이 축석령은 백두산白頭山의 정간룡正幹龍이요, 한양으로 들어서는 골짜기이다. 산의 기세가 여기에서 한 번 크게 머물렀다가 다시 일어나 도봉산이 되고 또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나 삼각산이 되는데, 그 기복이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온 정신이 모두 왕성王城 한 지역에 모여 있다. 산천은 사람의 외모와도 같은 것이어서 외모가 좋은 산천은 기색 또한 좋다.” 하였다.²⁵

정조는 축석고개를 백두산의 정간룡(正幹龍)이라 지칭하였다. 당시 일반인은 물론 관료와 왕실에서도 백두산과 그에서 연결되는 지맥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18세기 중엽 성호(星湖) 이익(李瀾)(1681~1763)은 「백두정간(白頭正幹)」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이다. 철령으로부터 그 서쪽의 모든 가지들은 서남쪽으로 달렸다. 철령으로부터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닿도록 우뚝 치솟았으니 이것이 곧 정간(正幹)이다. …… 그 왼쪽 줄기는 동해를 끼고서 뭉쳐 있는데, 하나의 큰 바다와 백두대간(白頭大幹)은 시종을 같이 하였다. 거북이와 자라, 용과 물고기들이 여기에 살고 재화가 여기에서 번성하니, 문헌히 인제가 양성되는 까닭이다. …… 대개 한줄기 꿈은 大幹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태백산에서 중봉을 이루고 지리산에서 끝나니, 당초 백두정간이라 이름지은 것이 뜻이 있어서일 듯하다. 그리고 인제가 나온 곳간이 되었으니, 필경 국가가 기델 바가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알겠다.²⁶

‘백두대간’이라는 명칭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백두정간’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다룬 글이다. 더욱이 본문 중에는 백두대간의 왼쪽 줄기가 동해를 끼고 뭉쳐 있는데, 큰 바다와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고 서술하여, ‘백두대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도관애(西道關陔)」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대체로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달린다. 그 사이에 철령이 북관(北關)의 관문이 되고, 조령이 동남의 관문이 되었다”²⁷라고 하여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로 보면 이익은 ‘대간’과 ‘정간’이라는 명칭을 혼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18세기 중엽 성호 이익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자리잡아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의 지리학자 청담 이중환(李重煥)(1690~1756)이 쓴 『택리지(擇里志)』에도 “백두대맥(白頭大脈)”²⁸ “백두남맥(白頭南脈)”²⁹ “대간(大幹)”³⁰ 등의 표현이 보인다. 또한 정약용도 『대동수경』에서 ‘백산대간(白山大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³¹

조선 시대 지리학의 특징을 이루었던 각종 지리지에도 산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온다. 앞서 언급하였던 조선 초기의 지리지를 이어, 반계(潘溪)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전국지리지인 17세기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도 함경도 갑산도호부의 「산천」조 ‘우라한령(于羅漢嶺)’을 “백두 산의 남쪽 가지이다. 국내 산맥(山脈)이 모두 이곳을 근본으로 삼는다”³²고 기록하여 산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³³

특히 영조대에 왕명으로 편찬된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모든 군현의 「산천」조에 산의 흐름을 표시하여 주목된다. 이전의 읍지들과 달리 「산천」조에 내맥(來脈), 대맥(大脈), 주맥(主脈), 낙맥(落脈), 후맥(後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지도』 등 18세기 지도에도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함흥(咸興)의 「산천」조에는 ‘부내의 산맥(山脈)이 백두산으로부터 북청의 후치령을 따라 부의 북쪽 경계 원천사에 이르러 태백산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의 이같은 산천 기록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 표현을 중시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었음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백두산과 백두대간

조선 후기의 가장 뛰어난 지리학자의 한사람이었던 여암 신경준(1712~1781)의 많은 저작 가운데 『산수고(山水考)』와, 그가 주관하여 편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여지고(輿地考)」는 국토의 뼈대와 핏줄을 이루고 있는 산과 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지리서이며, 한국적인 산천 인식 방식을 전해 준다. 신경준의 『산수고』³⁴는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된다.

“하나의 근본에서 만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 (우리나라) 산수는 열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팔로^{八路}(팔도)가 된다. 팔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고 하여 『산수고』를 쓰게 된 동기와 산수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서문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과 강을 분합^{分合}의 원리로 파악하여 대칭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음양의 구조로 이해하였던 저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의 주요 산과 하천을 각각 12개로 파악한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자연관과 우주관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연의 운행을 보면 1년은 열두달로 완결되며, 우주 만물에는 양과 음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천도 일반 자연 법칙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 12개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있으며, 산수의 흠어짐과 합함, 우뚝솟아서 있음과 아래로 흘러내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토를 소우주로 이해하여 완결적인 존재로 파악하던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산수고』에는 12개의 산과 하천의 명칭이 개괄되어 있다. 12산은 ①삼각산 ②백두산 ③원산^{圓山} ④낭립산 ⑤두류산^{豆流山} ⑥분수령 ⑦금강산 ⑧오대산 ⑨태백산 ⑩속리산 ⑪육십치^{六十峙} ⑫지리산이다. 12수는 ①한강 ②예성강 ③대진강^{大津江} ④금강 ⑤사호^{沙湖} ⑥섬강^{蟾江} ⑦낙동강 ⑧용흥강^{龍興江} ⑨두만강 ⑩대동강 ⑪청천강 ⑫압록강이다.

산 중에는 삼각산을, 물은 한강을 으뜸으로 쳤으니, 이는 수도를 높이는 것이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서문에서는 백두산에서 조선의 산들이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면서도 실제 산의 분포를 서술할 때는 한양의 삼각산에서 시작함으로써, 그가 백두산 중심의 사고와 수도 중심의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산은 삼각산을 앞에 놓고, 이어서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내려 오는 산줄기를 따라 차례로 서술하였다. 반면에 강은 한강을 처음에 기록한 후 예성강, 금강, 낙동강,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등으로 중앙에서부터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서 강을 설명하였다.

『산수고』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우리나라 산천에 관한 글들의 바탕이 되었다. 신경준이 이와 같은 저작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완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여암이 『산수고』에서 전국의 걸친 산천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이후 각 군현 단위로 활발하게 편찬되었던 읍지를 통해 각 지방에 관한 상세한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757년~1765년 사이에 편찬된 각 군현의 읍지를 수록한 『여지도서』 55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산수고』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국의 산과 강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망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촌락과 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산과 강의 측면에서 파악한 책이다.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산과 하천을 씨줄^經과 날줄^緯의 개념으로 파악했던 사실을 신경준의 『산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줄기와 강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날줄^經로, 각 지역별 산천의 상세하고 개별적인 내용을 씨줄^緯로 엮어 우리 국토의 지형적인 환경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단위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신경준의 우리나라 산천에 대한 이와 같은 체계적인 파악은 전통적 지형학 또는 자연지리학의 체계화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연현상을 주제로 하여 전문적으로 접근하였던 『산수고』에서 우리는 지리학의 다양화와 계통지리학적인 요소, 나아가 근대지리학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산수고』 그리고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 이후에는 이와 같이 산수

를 함께 엮은 지리서에서 한걸음 나아가, 산을 중심한 지리서와 하천을 중심한 지리서가 독립적으로 편찬되고 분화된다. 산을 중심으로 산줄기의 체계를 정리한 책이 『산경표山經表』이며, 강을 중심으로 강줄기와 그에 관련된 지역의 모습을 서술한 대표적인 책이 다산 정약용의 『대동수경』이다.

현존하는 산경표의 저술 시기는 180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1776년에 바뀐 평안도의 초산楚山, 1800년에 개칭된 함경도 이원利原 등의 군현명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1800년에 바뀐 충청도의 노성魯城은 개칭되기 이전의 지명인 이성尼城으로 표시되어 있어 산경표의 저본이 되었던 자료들은 18세기 후반의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³⁵

『산경표』의 저자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광문회에서 간행할 때에도 저자를 알 수 없었던 듯 서문에 신경준이 편찬한 『여지도』(『동국문헌비고』의 「여지도」를 지칭)의 「산경」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편찬자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산경표』를 신경준의 저술로 단정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경표』가 신경준(1712~1781)이 편찬한 『산수고』와 『동국문헌비고』의 「여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신경준의 저작은 아니다.

『산경표』는 1800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산경山經의 개념은 조선시대 이전, 아마도 고려시대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경이란 산의 날실, 곧 산들의 세로 줄기를 뜻한다. 산경이란 용어는 이미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보인다. 강원도 통천군 「누정樓亭」조에 총석정叢石亭을 묘사하며, 고려시대의 학자 안축安軸(1287~1348)의 기문 속에 ‘사방의 산경山經 지지地志를 기록하는 이가 천하의 물건을 다 찾아서 적었지만, 아직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이미 안축이 생존했던 고려시대에 ‘산경’이라는 개념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경표』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들의 족보인 셈이다. 책의 윗부분에 대

간大幹·정맥正脈 등의 명칭을 가로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세로로 산·봉우리·고개 등의 연결관계, 산들의 갈래를 기록하였다. 표 밖의 상단에는 그 산이 속한 군현 이름을 표시하여 행정구역상의 위치를 나타냈다. 『산리고山里攷』 『기봉방역지策封方域誌』 『여지편람輿地便覽』 등 제목이 달리 붙은 본들도 있으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산경표』에는 1개의 대간大幹과 1개의 정간正幹,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조선의 산줄기가 분류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다.

- ①백두대간白頭大幹, ②장백정간長白正幹, ③낙남정맥洛南正脈, ④청북정맥淸北正脈, ⑤청남정맥淸南正脈, ⑥해서정맥海西正脈, ⑦임진북예성남정맥臨津北禮成南正脈, ⑧한북정맥漢北正脈, ⑨낙동정맥洛東正脈, ⑩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 ⑪한남정맥漢南正脈, ⑫금북정맥錦北正脈, ⑬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 ⑭금남정맥錦南正脈, ⑮호남정맥湖南正脈

산경표에 나타난 산맥 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의 맥락과 명칭을 체계화하였으니, 산줄기를 1개의 대간과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부여하였다. 신경준의 『산수고』나 『동국문헌비고』의 「여지도」에 산의 갈래와 흐름을 이야기 하였으나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15개의 줄기로 나누고, 산줄기의 이름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산맥의 체계가 하천의 수계水系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이다. 산줄기의 이름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청북정맥과 청남정맥은 청천강을, 청남정맥과 해서정맥은 대동강을, 해서정맥과 임진북예성남정맥은 예성강을, 임진북예성남정맥과 한북정맥은 임진강을,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은 한강을, 금북정맥과 금남정맥은 금강을, 호남정맥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구분하는 등 주요한 하천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두대간과 장백정

山經表		白頭山	大幹山	甘土山	南嶺山	羅漢山	馬何方德	馬嶺山	掛山嶺	黃土嶺
東來	大有峰	白頭山	大幹山	甘土山	南嶺山	羅漢山	馬何方德	馬嶺山	掛山嶺	黃土嶺
東來	大有峰	白頭山	大幹山	甘土山	南嶺山	羅漢山	馬何方德	馬嶺山	掛山嶺	黃土嶺
東來	大有峰	白頭山	大幹山	甘土山	南嶺山	羅漢山	馬何方德	馬嶺山	掛山嶺	黃土嶺
東來	大有峰	白頭山	大幹山	甘土山	南嶺山	羅漢山	馬何方德	馬嶺山	掛山嶺	黃土嶺

그림 6. 『산경표』, 조선광문회본



그림 7. 『산경표』의 산맥 분류 체계

간은 하나의 하천 수계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함경산맥 이남과 태백산맥 동측의 작은 하천들을 나누는 구분선으로 대간과 정간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하나의 하천 유역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정맥과 구분하였다.

실제로 산줄기의 맥을 파악하려 할 때 물줄기는 그 기준이 된다. 성호 이억도

“대개 백두산의 큰 줄기가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달리는 사이, 철령은 북관北關의 좁고 험한 곳이 되었고 조령鳥嶺은 동남쪽의 높고 험한 곳인데, 철령 이북으로부터는 산세가 다 서쪽으로 달려 그 맥락을 찾으려면 반드시 물을 의거하여야만 그 줄기를 알 수가 있다…두 줄기 물 사이에는 반드시 한 줄기의 산이 있는데, 이른바 청석령靑石嶺이라는 한 줄기는 서강과 저탄

사이에 있어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이고, 정방성正方城의 한 줄기는 저탄과 대동강 사이에 있어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계가 되고 있다.”³⁶

고 하여 산줄기의 맥은 물줄기에 의거해서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자연적으로 구분된 단위인 수계 또는 하천이 지역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동시에 지역을 상호 연계시켜 주는 통로의 구실을 하는 양 측면이 있음은 흔히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섬진강 양안, 즉 경상도의 하동과 전라도의 구례나 광양은 양 지역의 문화나 생활양식이 혼합되어 점이적인 성격을 보이고, 시장의 이용 등에서 교류가 빈번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수계水系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산줄기를 산줄기만으로 분리시켜 고찰했다기 보다,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생활권 내지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인문적인 측면까지 고려했던 결

과라 생각된다. 이는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유기적인 통합체로 보는 사고와도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간, 정간, 정맥 등으로 산줄기에 위계성을 부여한 점이다. 간은 줄기이고, 맥은 줄기에서 흘러나간 갈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적 차별성은 산이나 산맥의 크기와 높이, 넓이 등 물리적인 외형상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연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계층성과 차별성을 두었던 중세적인 사유, 성리학적인 사유 구조에서 말미암은 자연의 분류 체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산과 산의 분포, 위치를 줄기 또는 맥으로 파악하여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산들이 연속되어 이어지는 현상을 산맥으로 지칭하는 것은 오늘날도 다름이 없으나, 『산경표』에 나타난 간과 맥들은 단절

이 없다. 마치 혈맥이 뻗어나가 서로 통하듯이 모든 산줄기가 연결되어 있고, 산줄기와 산줄기의 결절점에 주요 산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산맥 체계는 지질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산맥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개별 산맥들이 연속되어 있지 않고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북쪽과 남쪽의 지질구조가 달라 남북한의 산맥들은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맥으로 연결된 땅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크게 보면 하나의 뿌리를 가진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맥 분류는 한반도를 뿔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기원과 성격을 가진 개체들의 집합으로 국토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백두산이 국토의 중심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 인 경향이였다.³⁷ 앞서 살펴 본 신경준의 『산수고』는 백두산을 중시하면서도 중심을 한양에 두고 있었다. 산의 줄기를 중심으로 본 『산경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지역 인식을 체계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적 작업의 결과 였다고 할 수 있다.

IV. 한국 고지도와 북방 인식

1. 영토 정체성의 확보와 고지도

지도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옛 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 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군사적 측면에 있었다. 북쪽과 육지로 연결된 우리 나라에서는 북쪽으로부터 직접적인 침략의 위협이 제기되었다. 고려 조에도

그러하였지만, 조선의 역대 왕들은 우리나라 북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 하였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출신이 함경도였고, 성장 배경이 만주 일대에 걸쳐 있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옛 영토였던 고구 려 지역의 회복이라는 명분이였다.

왕조가 바뀌면 수도를 옮긴다. 이는 옛 세력과 인물들의 집합지를 기피 하고, 지역의 중심점을 개편함으로써 권력과 인물 개편을 이루며, 새로운 구 심점을 창출해내기 위함이다. 고려조의 핵심 인물들이 거주하고 있던 개성을 피해 새로운 수도 한양으로 천도하였으나, 조선 초는 아직 고려조의 유풍과 인물들이 건재하고 있었다. 흔히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경우, 전쟁을 통해 국민적 단결과 화합을 유도한다. 조선초의 북방 영토 개척의 기 치는 이러한 정치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 고토故土의 회복이라고 하는 국가적 명제는 국민 모두를 한뜻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구호였다. 또한 구왕조 고려를 무너뜨리고 신왕조 조선을 세우는데 큰 몫을 하였던 무신들에게 새로운 힘의 출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탁월한 사업이였다.

조선 왕조에는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친 서정西征과 북정北征이 있었다. 서 정과 북정은 모두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에 대한 정벌로서, 서정은 관 서지방 즉 평안도를 넘어 압록강 대안의 여진족에 대한 정벌을, 북정은 관북 지방 즉 함경도 일대와 두만강 대안의 여진족에 대한 정벌을 일컫는다.¹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4대조인 이안사李安社 때부터 당시 여 진족의 땅이었던 두만강 유역에서 거주하였다. 고려 말엽의 국정은 원나라 의 지배를 받는 동안 평안도의 평양과 함경도의 영흥을 연결하는 선이였다.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왕의 영토 수복 작전 결과 압록강 중류 위원渭原을 기 점으로 하여 평안도 강계-함경도 갑산-길주를 연결하는 선을 확보하게 되었 으나 함경도 동북 일대는 여진족이 점거하고 있었다. 이성계의 고조 이안사 는 원나라 시대부터 공주孔州(영흥)에서 여진족을 통치하는 다루가치達魯花赤가

되었으며, 증조 이행리李行里 또한 영흥으로 이주하여 그 직위를 이어받았다. 이성계는 1356년에 고려군이 동북면을 수복할 당시 비로소 아버지 이자춘李子春과 함께 고려에 귀순하여 여진족 기병으로 편성된 친위부대를 거느리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² 따라서 이성계는 조상의 옛 터인 동북지방을 중요시하였으며, 건국한 즉시 길주의 국경 한계를 두만강 하류 공주까지 연장시키고, 그곳에 성을 쌓고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여진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경원도호부는 여진족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되었다. 더구나 경원도호부에 설치하였던 기존의 교역 시장을 태종대에 철폐하자, 조선으로부터 소금과 식량, 철 등 생활 필수품을 공급받던 여진족들은 크게 원한을 품었으며, 거의 해마다 경원성慶源城을 습격 약탈하였다. 1406년(태종 6) 부터 개시된 여진족의 침공은 1410년에 절정에 달하여, 경원 수비장 한흥부가 죽음을 당하는 등 연속 참패를 당하자, 태종은 마침내 국경선을 경성鏡城으로 후퇴시켰다.³ 그러나 여진족의 습격은 세종대에도 계속되었다.

세종은 조선의 기틀을 확고히 한 군주로서 영토문제와 지도 제작, 지리적 지식의 체계화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특히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영토를 넓히고, 확고한 자연지형을 국경으로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앤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삼국통일 이후 700여년 이상 빼앗겼던 옛 땅을 회복한 후 압록강 유역에 4군, 두만강 유역에 6진을 설치하여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세종의 이러한 정책은 남쪽으로는 왜구와 대마도 정벌로 이어졌다.

동북 지역이 여진족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무렵, 평온을 유지하던 서북 변경도 이만주李滿住의 후르카火兒阿(忽兒海) 부족이 타타르에 쫓겨 이주해옴에 따라 새로운 위협을 맞게 되었다. 1424년(세종 6) 이만주 부족이 과거강 유역에 정착한 후 조선 측에 필요한 식량과 소금 등 필수품을 요구하였으며, 여러차례 무력 시위를 하였다. 1432년 12월 평안도 관찰사 박규朴葵가 여진의

여연閔延⁴ 일대 침략과 약탈 사실을 보고하자 야인에 대하여 회유책을 시행해왔던 세종은 보고를 받고 분노, 대책회의를 열어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들이 침범할 때마다 아군 추격대가 끝까지 추격, 토벌하지 못한 까닭은 중국의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서기 어려웠기 때문이므로, 이번 기회에 중국에게 알리고 국경을 넘어 월경작전越境作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⁵ 이후 세종은 평안도, 함경도의 야인 정벌을 직접 주관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세종은 “내가 이처럼 동북방 군진軍鎭을 전진 배치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큰 사업을 일으키거나 즐겨 공적을 세우기 위한 욕심에서가 아니다. 조상께서 변방에 울타리를 세워 진출할 뜻을 보이신 이제 알목하와 소다로에 군진을 전진 배치시켜 옛 영토를 개척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조상들이 이미 정해놓으신 법이다. 그러므로 이 성취는 결코 나의 공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 하여 태조와 태종의 뜻을 잇는 것이라 언명하였다.

조선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는 태종대에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 격적으로 조선지도 제작에 힘을 기울인 것은 세종대이다. 태종대에 지방행정제도인 군현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새롭게 획정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세종대에는 각 군현 단위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1432년에 편찬하였다.⁶ 또한 1434년(세종 16) 4월 세종은 관찰사 김종서와 병마절도사 성달생에게 전지하기를, 옛 문헌과 역사 지리에 해박한 사람들에게 물어, 함길도 전역의 지도를 완성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폭을 복사하여 감영 및 변방 군진軍鎭의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⁷ 뿐만 아니라 1434년에 전국 수령守令에게 각 군현의 관사배치와 산천의 형세, 도로의 원근과 이수里數, 그리고 이웃 고을의 사표四標를 자세히 그려 바치도록 하였다.⁸ 1436년(세종 18)에는 정척에게 함길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산천형세를 자세히 살펴서 그려 오도록 하였다.⁹

이와 같이 세종대에는 군사적 행동에 앞서 철저한 지역 조사가 이루어지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 제작이 있었다. 이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지리정보, 그리고 그것을 도시한 지도가 활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서 끝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이 끝난 뒤에도 지도 제작이 매우 활발하였는데, 특히 북방지역 지도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 편입한 영토에 대한 영구적 소유를 대내외적으로 합법화하고, 영토적 일체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을 이어 세조는 즉위 후 양성지에게 지리지 편찬과 지도 제작을 명하여¹⁰ 1463년(세조 9)에 양성지와 정척은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완성하였다.¹¹ <동국지도>는 세종과 세조대의 지도·지지에 대한 관심과 천문 및 지도 제작 기술에서의 발전을 토대로 작성된 지도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원본은 전하지 않는다. 문종대에도 12방위법으로 방위 표시를 한층 정밀하게 한 지도를 만들게 하고, 명산과 대천, 큰 고개大嶺, 옛 관방古關防, 옛 고을古邑 등까지도 상세히 그리도록 하였다.¹²

그 밖에 많은 군사지도 즉 관방지도關防地圖 등이 제작되었다. 북방 지역을 그린 지도들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척이 그린 양계 지방의 지도 외에, 양성지의 <여연무창우예삼읍도閔延茂昌虞芮三邑圖> <연변성자도沿邊城子圖> <양계연변방수도兩界沿邊防戍圖>, 안철손安哲孫의 <연해조운도沿海漕運圖>, 어유소魚有沼의 <영안도연변도永安道沿邊圖>, 이순숙李淳淑의 <평안도연변도平安道沿邊圖>¹³, 허중許琮의 <평안도연변도平安道沿邊圖> <서북면연변도西北面沿邊圖>, 성준成俊의 <영안도연변도永安道沿邊圖>, 한치형韓致亨의 <의주지도義州地圖>, 연산군 때 이극균李克均의 <서북지도西北地圖>, 중종 때 황형黃衡의 <함경도지도咸鏡道地圖>, 이지방李之芳의 <여연무창형세도閔延茂昌形勢圖> 등이 있다. 이들 각도지도와 지역별 지도는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세조대에서 중종대에 걸쳐 많이 만들어졌다.¹⁴ 중종대에는 서북 방어를 위하여 지면사문무신 등을 선정하고, 축성사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비변사로 개칭함으로써 비변사라는 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데 이르렀다.¹⁵

중종대에는 변방의 방어 강화책으로 진보의 설치, 이전, 축성 등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형, 도로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그 지역의 사정을 중앙에 알리기 위해서는 지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1509년(중종 4)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회령 밑에 있던 보을하보甫乙下堡의 복설과 무산보·풍산보 이설移設을 건의함에 따라 파견된 체찰사 송일이 지역의 사정을 살피고 돌아와 북명하고 이어서 무산·풍산을 옮겨 배설한 지도와 구체책을 올리고 있다.¹⁶ 이듬해에도 평안도 관찰사 정광세가 병사와 함께 미을관彌乙關의 보루 설치 장소를 살피고 치계하며서 연대煙臺를 설치할 곳의 지세를 따로 도면을 그려 보냈음도 보인다.¹⁷ 1523년(중종 18) 평안도 절도사 이지방李之芳과 경차관 이환 등이 여연·무창의 지형을 그려 올리자 그 도본을 항시 정원에 비치하였다가 변방 일을 의논하게 될 때 보이기로 하고, 또 화원에게 1통을 모사하여 궐내에 들이도록 전교하였다.¹⁸ 명종대에도 김주·박충원·오상·심수경이 성천·안변·의주의 도기圖記와 장편長篇을 지어 올리니, 지은 글을 각각 지도 위에 써서 들이도록 하기도 하였다.¹⁹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4군 6진, 압록강·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함경도 지도의 제작이 매우 활발하였다. 북방 지역이 민족의 영토로 확정되는 시기였음이 지도 제작 과정에 분명히 보이고 있다.

2.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과 백두대간²⁰

조선 건국 직후인 1396년(태조 5)에 이첨李詹(1345~1405)은 「삼국도후서 三國圖後序」에서 고려의 지도를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삼국을 통합한 뒤에 비로소 고려도高麗圖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

는 알 수 없다. 산을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 오다가 철령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오르며 풍악(楓岳)이 되었고, 거기서 중중첩첩하여 태백산·소백산·죽령...이 되었다. 중대(中臺)는 운봉(雲峯)으로 뻗었는데 지리와 지축(地軸)이 여기에 와서는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맑은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薩水)...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 중에서 가야진(伽倻津(낙동강)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가 화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이 앞을 돌렸으니, 그 풍기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 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²¹

이 글에서 언급한 지도는 현전하지 않으나 고려시대의 전국지도를 보고 기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침이 묘사한 당시 고려의 지도에 백두산으로부터 산맥이 연속되어 내려오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세종대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보하고 4군 6진을 설치하는 등 조선의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였으나, 여진족은 그후에도 북쪽 변방을 자주 침입하였다. 세조 때 남이(南怡)·어유소(魚有沼)가 압록강 일대 여진을, 신숙주가 회령 부근의 여진을 정벌한 것도 그 예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대한 원병 등으로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여진족은 그 세력을 강화하여 1616년(광해군 8)에 건주여진(建州女眞)의 추장 누르하치(奴兒哈赤)가 선양(瀋陽)에 후금(後金)을 세우고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 1627년과 1636년에 조선을 침공하였으며, 1636년에는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 개칭하고 중국 대륙을 점령하여 중국의 주인이 되었다.

조선과 청국 양측에서 보인 백두산에 대한 관심과 국경 확정 문제는 다시 이 일대의 지도 제작을 활발하게 하였다. 청나라는 17세기 후반부터 조선 북방 지역의 지형을 조사하려 시도하였다. 1679년(숙종 5) 경원개시를 위하여 온

청의 차사원(差使員)이 평안도, 함경도 일대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으며,²² 1691년(숙종 17)에는 청에서 사신을 보내 압록강 상류와 백두산 일대를 살피겠다고 통고하였다.²³ 1713년(숙종 39)에도 조선에 온 사신은 백두산의 물줄기와 산맥의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기 위해 조선의 지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²⁴

조선이 중국의 지도와 지리지 수집에 기울인 노력은 중국에 비하여 더욱 컸다. 중종대에는 중국에서 지도를 구입하기도 하고, 중국 사신에게 지도를 부탁한 일도 있었다.²⁵ 숙종대에도 지도를 구입하여 오던 사신이 적발되기도 하였다.²⁶ 1538년(중종 33)에는 해평군 윤희평(尹熙平)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지리도(地理圖)를 가지고 입계하여 변경 밖의 오랑캐 부락등이 실려 있음을 설명하는²⁷ 등 중국과 만주 일대에 대한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677년(숙종 3)에 청에 갔던 동지사 일행이 사 오던 지도를 적발당하여 외교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며,²⁸ 같은 해에 남구만(南九萬)은 중국의 『성경지(盛京志)』에 수록된 <여지전도(輿地全圖)>가 작고 세밀하지 않다 하여 그것을 확대하고 경위선을 넣어 그린 <성경여지도(盛京輿地圖)>를 바쳤다.²⁹ 『북여요선(北輿要選)』에는 숙종의 백두산도(白頭山圖) 시가 기록되어 있다. “그림으로 보아도 오히려 장관인데 실제로 오른다면 그 기운 어떠하겠는가. 하늘을 누가 멀다고 하는가. 북두성을 꼭 만질 것 같구나. 꼭대기엔 깊고 깊은 물, 흘러 내려 넓고 넓은 하수(河水)가 되는 것을. 지난 적 경계 다툼의 걱정들, 이를 따라 저절로 사라지리라”³⁰라 하였으니, 숙종의 고심을 엿보여 주기도 한다.

조선의 북방 지역의 지도 제작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도는 1706년(숙종 32)에 이이명(李爾命(1658-1722))³¹이 올린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이다. 10폭의 대형 병풍 지도로서 조선의 서북부부터 중국 북경의 계(薊) 지방까지의 성과와 군사시설의 배치를 주로 그린 군사지도이다. 이 지도는 중국의 『주승필람(籌勝必覽)』 소재 지도와 『성경지(盛京志)』 소재 <오라지방도(烏喇地方圖)>, 그리고 조선의 지도인 <항해공로도(航海貢路圖)>·<서북강해변계도(西北江海邊界圖)>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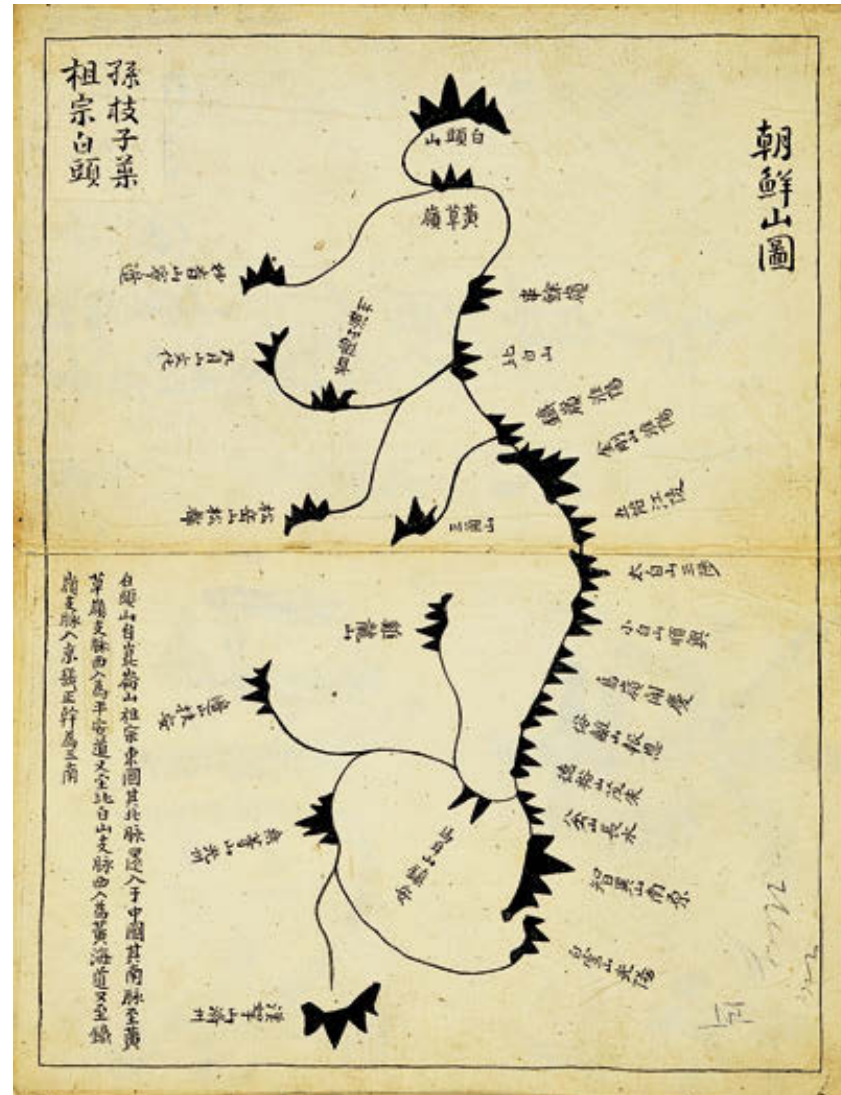


그림 9. 조선산도(朝鮮山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합해서 만든 지도이다. 현존하는 16세기의 지도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주목되는 점은 압록강, 두만강 일대 북부지방의 윤곽이 정확해진 점이다. 조선과 중국의 국경 부분은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린 것인데, 이 지도는 18세기 초에 조선의 지도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성호 이익李瀾도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내가 지도 한 첩을 얻었는데, 서북으로 위치한 저쪽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경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직접 답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³²고 감탄하였는데, 이 지도를 이원익李元翼(1547~1634)의 사위인 윤영尹鏞이 제작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도 제작의 노력은 18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관방지도로 알려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³³로 계승되었다. 이후 〈서북계지도西北界圖〉 〈영고탑총람도寧古塔總覽圖〉 〈북관장파지도北關長坡地圖〉 〈북계지도北界地圖〉 〈폐사군도廢四郡圖〉³⁴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군현지도집 속에 많이 포함된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와 같은 간략한 요약 지도로 일반화하였다. 이 유형의 지도들은 북부 지방에 대한 관심, 북부 지방의 정확한 지도 표현,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국경을 넘어 만주 일대로 확대되고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8세기 중엽에는 우리나라 고지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전환기적 지도로 평가받는 정상기鄭尙驥(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제작이 이루어짐으로써³⁵ 북방지역에 대한 지도상의 표현도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현상은 백두산이 신성함이 지도에 강조되는 점이다. 이는 백두산의 조선의 근본이며, 마루가 되는 조종산祖宗山이라는 인식의 확립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요계관방지도〉에는 백두산이 백색으로 성스럽게 채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크게 그려져 있어 조선의 상징임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다. 백두산을 다른 일반 산과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크기를 매우 크게 그려 두드러지게 하며, 둘째는 호수인 대택大澤을 크게 그리는 것이다. 깨끗한 물은 속俗으로부터 분리, 정화하는 의미를 갖는데, 백두산 정상부의 큰 물의 존재를 강조함으로써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는 채색으로 신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도에서 산지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백두산은 녹색이나 청색에 백색을 덧칠하거나, 또는 순수한 백색 또는 황금색 등으로 다른 산지와

는 다른 품위를 갖춘 산임을 표현한다. 규장각 소장의 <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백두산이 크게, 그리고 황금색에 가까운 백색으로 빛나게 표현되었다. 조선 후기의 거의 모든 지도에 백두산, 그리고 대택大澤(또는 大池, 지금의 천지)이 실제 보다 과장되어 강조되어 있다. 백두산의 강조와 신성화는 백두산, 그리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인 이 일대 북방지역을 상징화함으로써 국가적 정체감을 형성하려 하였던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3. 변방에의 관심과 균형적 지역 개발³⁶

북방 지역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조선 전기에는 영토와 국경의 확보라고 하는 영토적·대외관계적 측면,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확보라는 정치적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증대되었던 북방 지역에 대한 관심은, 서북민의 인재 수용의 현실화와 같은 사회적·인간적 측면, 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의 강화와 같은 경제적 측면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또 다른 변방인 도서島嶼 지방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고 있었다.

18세기 영조·정조의 탕평책이 시행되면서 서북 사회의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북돋우는 방향으로 지역민 수용을 모색하는³⁷ 것은 이 시기 국가의 정책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제 국가는 지역의 확보와 같은 물리적·외형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일원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내부적·통합적 관점에서 국토의 문제를 바라 보고 있다고 이해된다.

1750년(영조 26)년의 균역법 제정도 국왕인 영조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갔다. 영조는 균역법을 자신의 탕평정국에서 추진한 4대 사업의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균역均役은 일반 민서民庶의 ‘대동大同’에 관련되는 신분 간

의 조세 균형 문제였다. 정조는 ‘탕평’을 관료나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정신은 바로 사회 시책에 연결되기도 하여, 민에 대한 다양한 파악과 곤궁을 면하게 하고자 하였다. 곧 의리를 지키는 사대부를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조제하는 ‘탕평’ 시책은, 백성에게는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대동大同’ 시책으로 그 실효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정조는 ‘위민爲民’을 실현하여 ‘애민愛民’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³⁸ 특히 일반 백성의 실태를 군주가 직접 확인하려 하였다. 이는 암행어사 제도의 활성화와 상언·격쟁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확대를 나타냈다.³⁹

전 국토와 전 국민에 대한 평등적 파악과 대우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는 18세기 영·정조의 왕권 강화와 더불어 점진적인 실현을 보았다. 이는 18세기에 이르러 국가의 지방지배에 괄목할 만한 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의 토지, 인민, 지역에 대한 지배가 점차 균제성均齊性을 띠면서 전지역과 인민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국가지배력의 총역량이 증대된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결이 더욱 긴밀해지고,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어사와 같은 조관朝官의 활약 양상이 크게 부각된다. 둘째 지배원리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된다. 교화와 명분에 의한 지배에서 형정과 법을 전면에 내세우는 지배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시기 활발히 편찬되는 법전과 각종 법률서 그리고 관서지官署志 등은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지배이념의 보편화와 함께 중세적인 민본 이념이 구체성을 띠게 된다. 민의 성장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는 폭이 기층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이들을 겨냥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이 반포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변사 팔도구관당 상제의 실시로 경직과 외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중세적인 지방통치구조를 국왕을 정점으로 경직과 외직을 일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의천제議薦制와 역사제歷辭制를 통한 비변사의 지방지배 강화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8세기 이루어진 이들 일련의 변화는 중세적 통치기구가 근대적 관료제로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⁴⁰

조선 후기 국가 지배력의 외연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조관^{朝官}의 비중도 증대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어사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8세기 어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배경으로, 압행권의 강화, 상언·격쟁 등 민소^{民訴}의 활성화, 감사·병사에 대한 염찰권의 확립 등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는데,⁴¹ 이는 국가가 중간층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민을 파악하고 장악하려는 노력의 구체적 실현이었다.

국가의 이러한 정치적 정책은 변방 지역의 자체적 성장에 기반하고 있었다. 평안도는 농업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과 정치적 차별, 사족의 존재가 약한 향촌질서, 대중국 무역의 통로, 전세^{田稅}의 자체 비축과 군비·척수의 비축으로 인한 재정적 여유, 18세기 이후 바닷길을 통한 전국적 상업망의 형성, 청나라의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사신 행차의 감소,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수공업 발달 등 경제적 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평안도 지역에서의 의존도 심화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탕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²

함경도 지역도 18세기 이후 청과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두만강 상류와 백두산 일대, 압록강 중상류의 폐사군 지역, 함경도·함경도 접경의 내륙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함경도 무산부의 읍세 성장, 장진부 설치, 평안도 강계 동북 지역에 주민입주와 개간이 허용되고 함경도에 후주진이 세워졌다. 지역개발과 아울러 함경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변화하여, 백두산이 조선의 종산으로 명확히 자리잡게 되고 함경도가 조선의 발상지이라는 인식이 강조되어 왕실관련 유적에 대한 현창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⁴³

지역의 성장을 보여 주는 한 예로 18~19세기의 함경도 무산도호부의 인구 증가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산도호부^{茂山都護府}는 백두산 동남쪽 두만강 연안 지역으로 1684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1730년대에 제작된 《관

북지도》《함경도지도》에 무산부의 호구는 1,546호, 9,596구로 기록되어 있다. 1759년의 인구 자료를 담은 《여지도서》에는 3,428호 22,095구로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정점으로 조선의 공식적인 인구 자료에 전국 인구는 감소 내지 정체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무산부는 1828년의 인구를 수록한 『대동지지』에 6,537호 38,640구로 기록되어 19세기 전반에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함경도 내륙의 오지인 무산부의 인구 성장은 같은 조건을 가진 함경도 내륙 지역에서도 일어났으며, 이는 결국 1787년(정조 11) 장진도호부^{長津都護府} 설치, 1822년 후주도호부^{厚州都護府} 설치로 이어졌다. 폐사군 지역의 개발은 1869년 자성군^{慈城郡}의 설치로 귀결되었으니, 지방행정구역의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4. 전일적, 객관적 지역 파악과 군현지도집

국가의 변방 지역의 이해,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지도 제작에도 반영되었다. 현재 규장각에는 도별 군현지도집과 전국 군현지도집이 여러 종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18세기에 제작된 지도들이다. 특정한 지역의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또는 전국의 모든 군현을 대상으로 같은 양식으로 지도를 만든 군현지도집^{郡縣地圖集}의 제작이 이를 대변한다.

군현지도집의 활발한 제작은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주요한 발달로 꼽을 수 있다. 군현지도집은 전국의 모든 군현의 지도를 한 종의 지도책이나 지도첩에 수록한 전국군현지도집^{全國郡縣地圖集}과, 도별로 각 군현의 지도를 수록한 도별 군현지도집^{道別郡縣地圖集}으로 나눌 수 있다.⁴⁴ 이러한 군현지도집은 도의 모든 군현, 나아가 전국의 모든 군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이해와 파악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1720~1730년대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여러 종의 함경도지도들은 18세기 전반에 북방 지역의 군현지도집 제작이 활발했음을 보여 주는 주목할 만한 자료들이다. 규장각 소장의 《관북지도關北地圖》 2종과 《함경도지도咸鏡道地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관북지도》⁴⁵, 개인 소장의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등은 18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관북 지역의 지도가 다수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들 군현지도집에는 각 군현 지도 외에 호구, 전결, 군정, 곡창, 도로, 관방 등 경제, 군사, 지역 관련 자료들을 주기의 형태로 설명하여 놓아, 해당 지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축척을 적용하지 않은 회화식 지도인데, 18세기 중·후반에 보이는 방안지도方眼地圖를 활용한 군현지도집의 제작은 지도를 통한 지역 인식과 파악의 진전된 단계를 보여 준다. 도별 또는 전국적으로 지도집을 제작하는 외형적인 데서 한걸음 나아가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각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생각된다.⁴⁶ 방안지도는 일정한 거리의 방안좌표를 만들고 지역의 모든 부분이 같은 비율로 지면 위에 표현되도록 한 지도로서⁴⁷ 일정한 간격으로 방안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척의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5책은⁴⁸ 각 군현 지도가 1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는 대축척지도이다.

이러한 도별 지도와 함께 일정한 축척을 적용한 전국군현지도집도 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지도朝鮮地圖》와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⁴⁹가 그것이다. 이 지도집에는 전국 팔도 모든 군현의 지도가 포함되었는데, 이 군현지도들은 10리 방안의 눈금 위에 동일한 양식으로 그려져 있어 전국 각 지역을 공시적共時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군현지도집은 전국을 균일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지역 균형적 사고를 반영하며, 특히 1리·10리 방안 위에 그린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은 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파악 방식을 보여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V. 백두산, 수계水系와 고지도

그 동안 백두산에 관한 연구는 문헌 사료 중심이었다. 본 고지도집은 한국의 고지도 속에서 백두산과 관련된 한국의 고지도를 모은 백두산지도집을 발간해 백두산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돕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작되었다.¹ 고지도를 통한 백두산 연구는 백두산과 북방영토 지역의 구체적 표현 양상을 시작적이고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두산의 표현과 변모,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백두산 생활 문화권 형성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백두산 고지도집 발간을 위해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신경준가, 영남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토지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해남 녹우당, 그리고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내각문고, 동양문고, 천리대학 도서관 등 기관과 개인 소장처를 방문하여 150종 300여 점의 백두산 고지도를 촬영하였다. 일부 촬영이 어려운 지도들은 소장 기관이 제공한 이미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백두산과 주변 지역을 표현한 이 고지도들은 학술적 중요성과 역사·문화적 가치성, 미학성 등을 두루 갖춘 매우 중요한 지도들이다. 지역적인 범위를 보면 북쪽으로는 중국의 흑룡강·서쪽으로는 요동지역·동쪽으로는 두만강·남쪽으로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포함한다. 지도 유형을 보면 세계지도 및 아시아도, 양계지방 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도, 특수도 및 기타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백두산 고지도에 나타나는 한국의 북부 지역과 만주 일대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과 생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북방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현실적인 관점, 영토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백두

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동쪽 유로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한 고찰을 통해 사료와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두만강 유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두만강 북쪽의 흑룡강이 동류하는 유로, 둘째,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 셋째,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한 유로이다. 그 중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세 번째 유로는 토문강이 동쪽과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경우, 토문강이 북향하는 경우,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백두산의 수계 고찰을 통해 백두산 고지도에 표현된 당시 북방 영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 백두산 정계비 ‘토문’의 해석

백두산 정계를 둘러싼 한중간의 국경 문제의 핵심은 정계비 비문상의 ‘동위토문東爲土門’으로 귀결된다. 즉, 비문상의 ‘토문’은 어떤 강이며, 토문강과 두만강은 동일한 강인지 별개의 강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또 최근에는 ‘분계강分界江’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분계강과 토문의 관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토문강·두만강 일강설一江說’은 주로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다. 1908년 오록정吳祿貞이 실제 답사자료에 근거하여 『연길변무보고延吉邊務報告』에 토문강 두만강 일강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1971년 장존무張存武의 『청대중한변무문제탐원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 장존무와 양소전楊昭全의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1995)를 통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임을 역사 문헌에 근거하여 고증하였다. 이화자李花子²는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 수계』에서 명·청시기 지리지의 백두산 수계 기술을 바탕으로, 토문과 두만이 같은 강이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일부 학자³들도 일강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문강이 북류하여 송화강·흑룡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오히려 간도 전역을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켜서 매우 확대된 영역이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토문강·두만강 이강설二江說’은 1880년대 중성·온성·회령·무산 변민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1885년 을유감계 乙酉勘界시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李重夏는 이를 근거로 토문강 국경설을 주장하였다. 그 후 김노규金魯奎는 『북여요선北興要選』을 통해 이강설을 주장했다. 이들의 논지는 정계비의 ‘토문’은 ‘두만’이 아닌 ‘토문’이며 토문강과 두만강은 엄연히 별도의 강이라는 것이다. 한 발 물러서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정하더라도 토문강의 상류는 가장 상류의 물줄기인 ‘홍토산수紅土山水’⁴라고 주장했다.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⁵에서 강석화 역시 이강설을 주장했는데, 그의 견해는 종전의 주장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계 당시에는 양국 모두 토문과 두만이 같은 강이라고 막연히 인지했지만, 19세기 이후 조선민의 북방개척과 북방고토 회복 의식의 확산으로 이강설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까지 토문과 두만이 다르다는 이강설은 있었지만, 토문강이 어떤 강을 지칭하는 지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강석화⁶는 정계 이후 북방경영 노력과 성과로 토문과 두만이 다른 강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압록·두만 양강을 넘어 토문강 이남 지역까지 주민들의 활동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대된 영토관과 함께 두만강 북쪽의 분계강分界江을 제시했다. 백두산과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712년의 정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들도 늘어났다. 그들은 중국과 조선의 역사적 경계는 요하 또는 고려 때 윤관이 척경비를 세운 두만강 이북 7백리 지경의 선춘령先春嶺인데, 정계 당시에 조정이나 담당 관리가 이를 잘 몰

라서 많은 영토를 잃고 말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중희는 백두산 부근과 요동의 청석령靑石嶺 안쪽이 모두 고려의 경계이므로 고려를 이어받은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 두만강 대안지역 전부라고 하면서 백두산 북쪽의 통로를 확보하면 발해 고토를 모두 수복하여 영토가 만리에 이르고 천하를 응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⁷ 배우성은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⁸에서 18세기 청의 지리지와 지도들이 백두 산과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에 대해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정계비 설정 이후 조선에서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분계강’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었으나 『강희성경통지』나 『흠정성경통지』 등 『성경통지』 계열의 판본에서는 해란하와 그 유로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계강이 해란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흠정대청일통지』, 『만주원류고』, 『황여전람도』나 『수도제강』 등을 통해 해란하의 발원처가 백두산이라

표 1. 분계강에 대한 해석

학자	토문·두만·분계 관계	북방경계	분계강에 대한 해석	영토인식 범위	문헌
서명응 (徐命膺)	토문≠두만 토문≠분계	토문~흑룡	분계~건가퇴 ≈ 두만 (두만강 북쪽의 분계강이 두만강과 합류)	완전확대	『保晚齋集』 권8 「遊白頭山記」
이익 (李瀾)	토문=두만 토문≠분계	토문~두만	분계강=速平江	축소	『星湖僊說』 권2 天地門, 「白頭山」
성해응 (成海應)	토문=두만 토문≠분계	분계~해란~ 건가퇴≈두만	분계~해란~건가퇴 (선종령 아래 분계강은 두만강 북쪽에 흐름)	확대	『研經齋全集』 권46, 「白頭山記」
정약옹 (丁若鏞)	토문=두만 토문≠분계	분계~두만	두만강 북쪽의 분계강이 두만강과 합류 / 두 나라 경계의 의미	확대	『與猶堂全書』 제6집, 「大東水經」
이규경 (李圭景)	토문=두만 토문≠분계		정계비~분계강		『五洲衍文長箋散稿』 「천지편-지리류」 〈백두산 변증설〉
	토문≠분계 토문≠두만	분계	상: 분계강 중: 토문강 하: 두만강	완전확대	『萬機要覽』, 군정편5, 「白頭山定界」
신경준 (申景濬)	(토문=해란=분계) ≠두만		토문~해란~분계~두만 (두만강 북쪽의 토문강이 두만강과 합류)	확대	『旅庵全書』 권8 「四沿考」
강석화	토문≠두만		두만강 북쪽 분계강 제시	확대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1997)
이강원	토문에 대한 부정		분계강은 상상에 기초한 것(분계강 자체를 부정)	축소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두만강·토문강·분계강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2007)
이화자	토문=두만		분계는 나눈다는 의미가 없으며 짧은 지류에 불과	축소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 분계강 인식」(2008)
배우성			해란하(海蘭河)가 분계강임을 조심스럽게 제안	확대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2007)

주 | 1. A≠B : A와 B가 같지 않다.
 2. A~B : A강과 B강이 이어짐.
 3. A≈B : 북쪽에 위치한 A강과 아래쪽의 B강이 합류
 4. 영토 범위의 ‘완전확대’ : 흑룡강, 선종령을 북방경계로 보는 경우
 5. 영토 범위의 ‘확대’ : 현재 연결지역의 해란하를 북방경계로 보는 경우
 6. 영토 범위의 ‘축소’ : 현재 두만강을 북방경계로 보는 경우

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조심스럽게 해란하가 분계강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만주어라는 언어를 토대로 ‘토문’과 ‘분계’를 연구한 이강원⁹은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생긴 국토상실 의식을 ‘토문강’과 ‘분계강’의 개념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 했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오해와 추론 내지 상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계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토문과 두만이 같은 강임을 주장한 중국인 이화자¹⁰ 역시 분계강은 분계를 나눈다는 의미가 없으며 단지 짧은 지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2. 토문강과 감계사 이증하

1) 을유감계와 정해감계

1869년, 1870년 조선 북부 지방의 대홍년으로 간도 월경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관북 국경 지방이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에 비해 두만강 건너 만주는 바라보이는 땅이 탁 트여 농경의 유혹이 생긴다고 이증하는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가의 월경금지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해삼위(해라) 디보스투를 향해가고 북쪽으로는 길림까지 농경이 가능한 간도가 지나는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¹¹ 한편,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은 1882년 두만강 유역 여러 읍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지방이 우리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한 국경 획정을 청나라의 현지 관료에게 제기했다.¹² 조선정부는 청국의 조선인 쇄환 압력, 그리고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청 정부에 변계조사에 대한 자문을 보냈으나 오히려 1885년 4월 청나라 훈춘 당국은 함경도안무사 조병직(趙秉稷)에게 조선 월경민들을 무력으로 축출할 것을 통고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청나라에 토문감계를 다

시 요청하게 되었다. 이아당(二雅堂) 이증하¹³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되어 청과의 국경문제를 다루며 월경한 변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다.

1차 감계회담은 1885년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있었던 을유감계회담(乙酉堪界會談)이다. 회담에서 청측은 토문강과 두만강(圖們江)이 같은 강이라는 일강설을, 조선측은 토문강·두만강 이강설을 전제로 각기 상반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였다. 청의 관원들은 1712년 정계에 관한 당안문세은 이미 남아있지 않고, 정계비를 조사하는 것은 단지 토문강(두만강)에서 흐르는 데를 찾아 그 원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증하는 경계를 정하여 비석을 세운 것은 바로 양국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 되므로 정계비를 먼저 살피고 비석의 경계를 조사한 후 두만강의 원류를 조사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대응했다.

결국 양 측은 각각 인원을 내어 홍단수·서두수·홍토산수의 원류를 따라 백두산으로 향하는 세 길로 나누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증하와 중국과 원 진영(秦煥)·가원계(賈元桂) 등은 홍토산수의 원류를 따라 백두산으로 가서 정계비를 발견했다. 비문을 2장 탁본하여 중국 측과 각각 한 장씩 나누어 가진 후 내려왔다. 이증하는 비석은 대택(大澤) (천지)의 남쪽 기슭 10리쯤에 있고 비석의 서쪽 부근 몇 걸음 떨어진 땅에 도랑이 있어 압록강의 원류가 되고, 비석의 동쪽 부근 몇 걸음 떨어진 땅에 도랑이 있어 토문강(土門江)의 원류가 된다고 했다. 잇달아 석퇴와 토퇴를 만든 것이 90리가 되고 언덕의 높이는 수척이 되며 언덕 위에 수목이 자생하였는데 이미 늙어 한 이름이 되는 나무는 그해에 마땅히 경계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각봉 후미 중간에 이르러 도랑 모양이 갑자기 좁아지고 언덕이 문처럼 마주하고 있는데 예부터 이것을 토문이라 부른 것이며 두만강 상류의 여러 물들 가운데 봉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 홍토산수의 발원처라고 하였다.¹⁴

약 1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청측 대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런데 조선측 대표 이증하는 1712년 목극등이 정계비를 세울 당시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병영에 보관되어 있던 『강희임진정계등록康熙壬辰定界謄錄』을 찾아내, 백두산 정계 당시에 두만강을 경계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비변사 관문關文에 “토문강은 화음華音으로 곧 두만강”이라고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증하는 추후 별단을 올려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은 감계 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⁵ 1차 회담이 결렬된 후 청국은 1886년 봄에 원세개를 감계 교섭 창구로 하여 재감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외무독관 김윤식은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른 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감계를 위해 따로 관리를 과견할 필요는 없다는 변화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이홍장은 변계를 획정한 뒤 조선 유민의 편적 문제를 서두르도록 지시하고, 조선도 재감계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1887년 2차 정해감계회담丁亥堪界會談은 4월 7일 회령에서 시작되어 윤 4월을 거쳐 5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청측은 목극등의 정계비가 ‘분계지비分界之碑’가 아닌 ‘사변지비查邊之碑’¹⁷로서 분계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미 있는 기록과 조사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새로 측량하고 조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측 대표 이증하는 조선측의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홍토산수를 두만강의 원류로 주장하였다. 청측은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지형과 논리에 합당하지 않자 석을수를 경계로 하자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2차 감계 역시 1차 감계와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현지 답사에서 청국 대표는 억지로 자신들이 정하는 곳을 경계로 정할 것을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증하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나라의 강토는 축소할 수 없다吾頭可斷 國疆不可縮.”고 단호히 맞섰다. 두 차례에 걸친 감계 회담의 내용과 현지 조사의 결과가 《백두산정계비지도》에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됨으로써 당시 파악했던 백두산과 주변 지역 일대의 지형과 수계를

보여 준다(그림 1).¹⁸

2) 지도 속의 두만강과 토문강

그림 1은 1887년(광서 13년) 5월 26일 중국 감계관 방랑方朗, 덕옥德玉, 진영秦煥, 조선감계사 이증하, 위원 팽한주彭翰周가 감계 후 그린 지도이다.

《백두산정계비지도》에는 백두산 ‘대지太池’ 북쪽에 이도백하, 삼도 백하, 사도백하, 그리고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오도백하가 흐르다가 송화강으로 합류한다.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장백폭포는 이도백하로 이어지고, 삼도백하와 사도백하는 백두산 북쪽에서 발원한다. 천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의 정계비 부근에서 북쪽으로 석퇴와 토퇴가 ‘황하송구자黃花松溝子’를 따라 이어진다. 황하송구자는 지금의 오도백하이다. 그림 2는 1934년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10만분 1도 백두산18호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지도이다. 상류에 ‘하유 송구자下柚松溝子’로 표기되어 있는 이도강二道江이 바로 이증하가 주장한 토문강이다. 그림 3은 중국의 성구지도출판사星球地



그림 1. 2차 정해감계 후 작성한 《백두산정계비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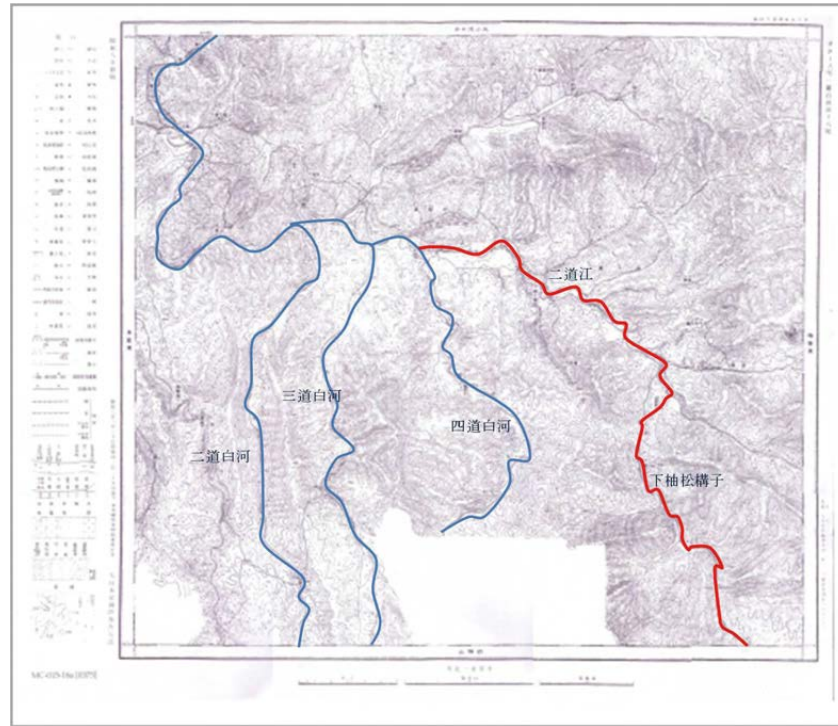


그림 2. 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

圖出版社에서 2010년에 출간한 『흑룡강 길림 요녕 교통도책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에 포함된 백두산 부근 지도이다. 이중하의 ‘오도백하’, 백두산18호 지도의 ‘이도강’이 이 지도에는 오도백하로 표기되어 있다.

이중하는 정계비에서 동북쪽에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황하송구자·이도강오도백하를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인 토문강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2차 감계회담에서도 청과 합일점을 찾지 못하자 두만강의 가장 상류인 ‘홍토산수紅土山水’¹⁹를 토문강이라 주장하고, 이 물줄기에 ‘조선과원요차수정계朝鮮派員要此水定界’라는 표기를 했다. 청의 관원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하나의 강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그러나 처음 두만강의 원류로 주장했던 홍단수 보다 상류인 석을수에 ‘길림과원요차수정계吉林派員要此水定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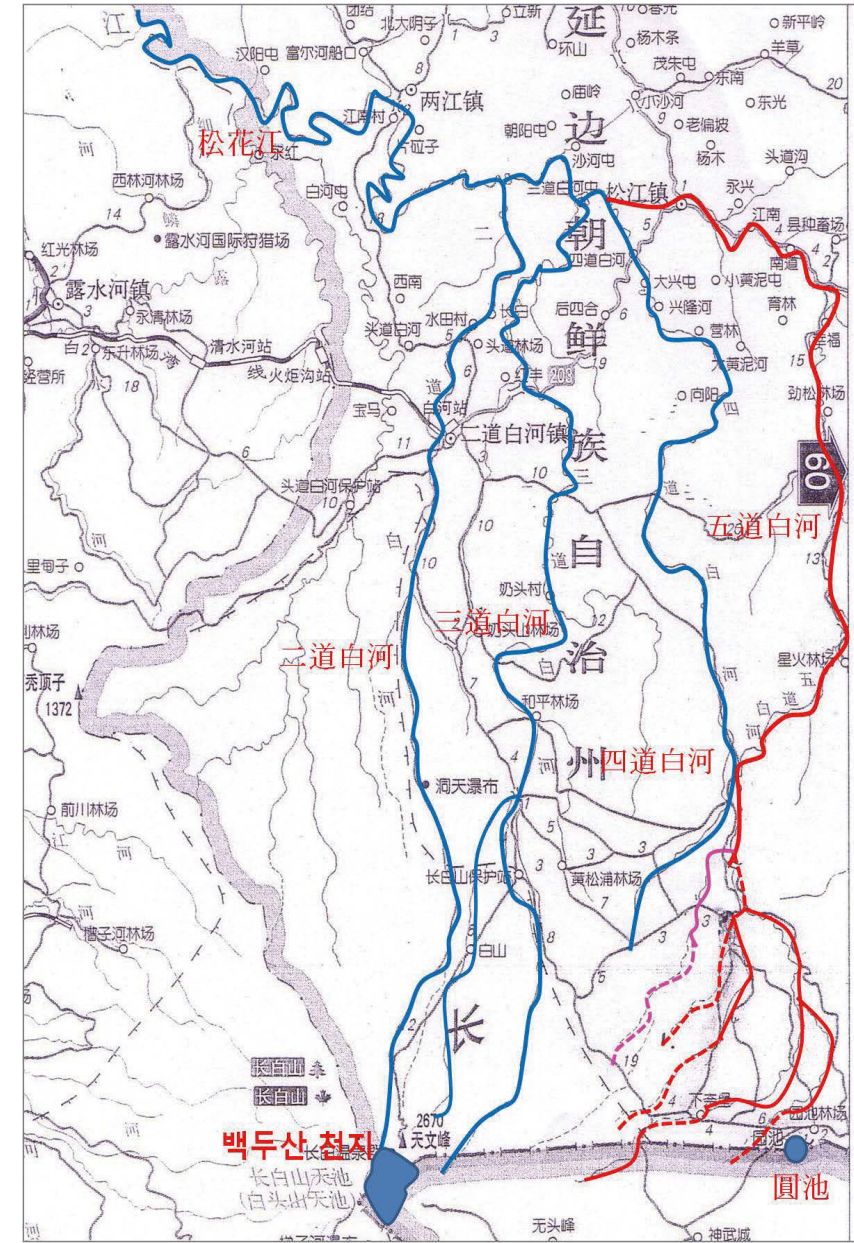


그림 3.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2010, 星球地圖出版社)



그림 4. 오도백하 두 번째 지류의 시작지점 백하삼림방재처에서 인터뷰

라는 표시를 하고 청의 강계로 고수했다. 결국 2차 회담도 결렬되고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그린 이 지도가 남게 되었다.

3) 오도백하와 두만강圖們江²⁰

고지도에 표현된 압록강, 두만강과 토문강의 유로, 원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답사했다. 이도백하진에서 백두산으로 가는 길목인 미인송²¹을 지나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장백산 북파 산문이 있다. 이곳에서 오도백하를 따라 남동쪽으로 39km 가면 청나라 시조의 발생지로 상징화되어 있는 원지圖池²²가 있고, 이곳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 ‘두만강 발원지圖們江發源地’²³라는 표지와 함께 1990년에 세운 ‘中國-조선 21(2)’ 호 국계비가 있다.

이도백하진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원지(적진 방향)와 천지(오른쪽 방향)의 갈림길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나온다. 원지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홍



그림 5. 오도백하의 지류

송왕경구紅松王景區가 나오고 이 길부터는 채벌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작은 산길이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다. 원지까지 이어진 여러 갈래의 길은 오도백하의 작은 지류들을 따라 나있다. 현재 지도²⁴에는 오도백하의 지류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다시 세 갈래와 두 갈래로 각기 나뉘는데, 이중하의 감계지도와 일치한다. 그런데 현재 지도에 나타난 이 지류들은 상류 부분이 건천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발원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답사가 매우 중요하다. 홍송왕경구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면 삼각선三角線이라는 지점이 나오고 이 길을 지나 동남쪽으로 향하면 오도백하의 첫 번째 지류, 이중하가 주장하는 토문강을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길을 가면 수니교水泥橋가 나오는데 이 다리는 오도백하가 크게 둘로 나뉜 두 번째 지류의 시작 부분이다. 이곳에는 ‘백하白河삼림방재처’가 있고 이곳에 주거하며 삼림 방재를 관리하는 오뽀 씨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지점이며 이 하천들은



그림 6. 조-중 변계 21(2)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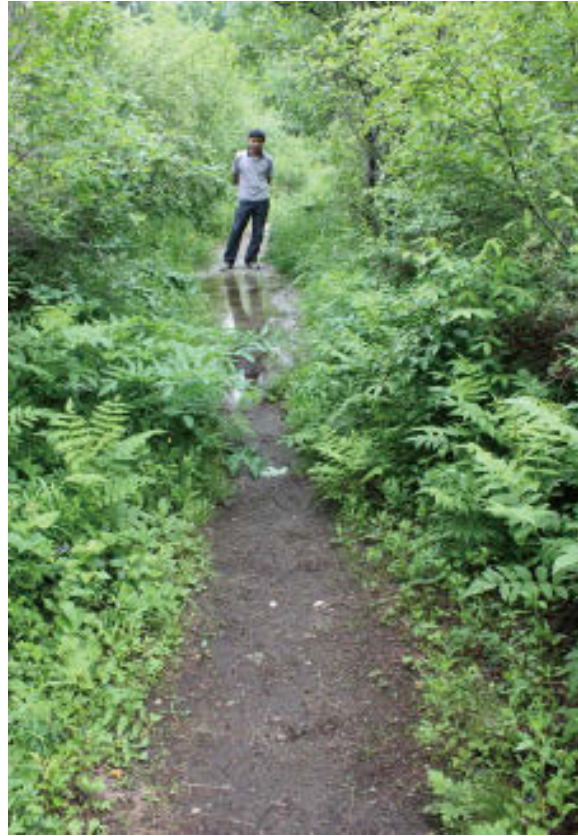


그림 7. 두만강발원지

마른 골짜기라는 뜻의 건구乾溝, 또는 마른 하천이라는 의미의 건하乾河로 불린다고 한다. 연구진이 답사했던 시기는 비가 많이 온 이후 여름철이라 오도백하 여러 지류에 물이 있었고 습지가 많아 차량 이동이 어려웠다. 수니교에서 남쪽으로 난 질퍽하고 좁은 길을 겨우 빠져나와 조금 넓은 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12km정도 가면 원지圓池가 나온다. 원지까지 가는데 약 3km간격으로 3개의 다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 다리가 놓인 하천이 오도백하의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 지류이다. 이 중 세 번째 지류는 비가 많이 온 이후였음에도 건천이었다. 그리고 원지에서 동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두만강발원지圖們江發源地와의 사이에도 하나의 다리가 더 있는데, 이 다리가 있는 지류가 오도백하의 다섯 번째 지류이다. 두만강의 수원과 오도백하 지류와의 거리가 채 10km가 되지 않아 옛 사람들이 그 하천의 다름과 같음을 구별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현지를 답사해 보면 오도백하와 두만강이 명백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도백하가 백두산 정계시 기술한 토문강에 가까운 위치, 지형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고지도 속의 흑룡강, 토문강, 두만강, 분계강

조선 시대에 제작된 고지도들 속에 백두산과 주변 지역의 하천들이 표현된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첫째, 백두산과 그 주변에서 동류, 또는 북류하는 강을 표현하는 유로²⁵ 중 두만강 북쪽의 흑룡강이 두만강과 평행하게 동류하는 것으로 표현된 지도들이다. 이 지도들의 두만강과 압록강의 수계 표현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강설이나 이강설을 뒷받

침할 만한 구분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 지도들이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흑룡강 일대까지 국토의 영역으로 인식 또는 회복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매우 확대된 북방영역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로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이 북향하여 흐르는 지도 유형이다. 이들 지도들에는 북류하는 토문강 이내를 영토로 생각하는 확대된 북방영역의식과 2강설이 표현되어 있다.

셋째,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가 공백으로 표현된 지도들이다. 이 지도들은 북방영역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강설 또는 2강설의 인식을 보여 준다.

넷째,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이 동쪽·동북쪽으로 흐르다가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 유형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1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를 표시한 지도 유형이다. 이 지도들은 1강설의 축소된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문강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표 2. 고지도 속의 '백두산~두만강' 유로 표현 유형

'백두산~두만강' 유로		북방영역 인식 범위	1강설 · 2강설
두만강 북쪽에 흑룡강이 동류 (A)		매우확대	·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토문강이 북류 (B)	확대	2강설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 (C)	유보	1강설 또는 2강설
	토문강이 동쪽·동북류,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 (D)	현실	1강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연결 (E)		축소	1강설

토문강 · 두만강 일강설과 이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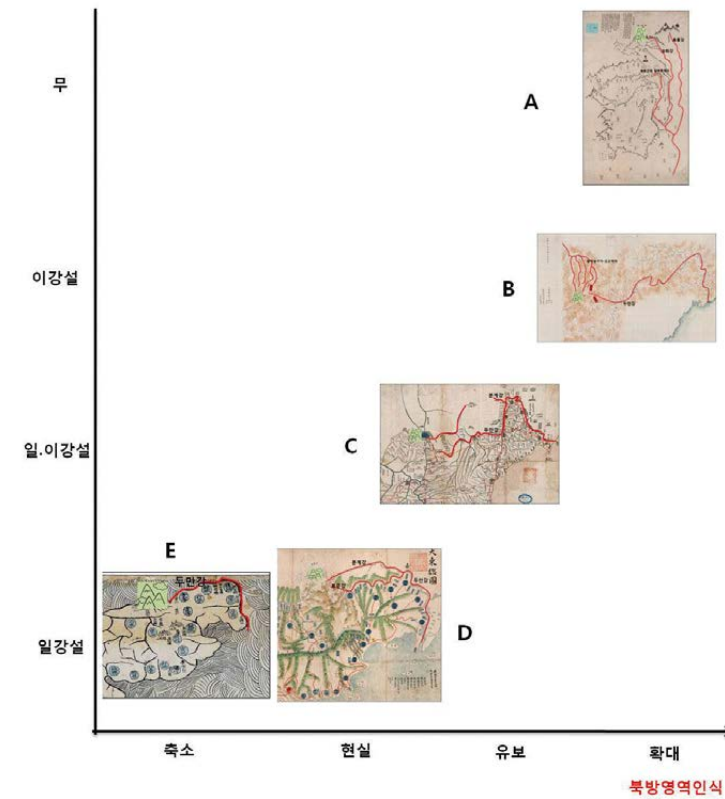


그림 8. '백두산~두만강' 유로 표현을 바탕으로 한 북방영역 인식

1) 흑룡강이 포함된 지도

두만강 북쪽의 흑룡강이 두만강과 평행하게 동류하는 지도는 '토문강' 개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이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유형의 지도는 조선 중기 이전에 제작된 지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유역을 비롯한 북부지역이 압축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그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9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국보 제248호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 전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 지도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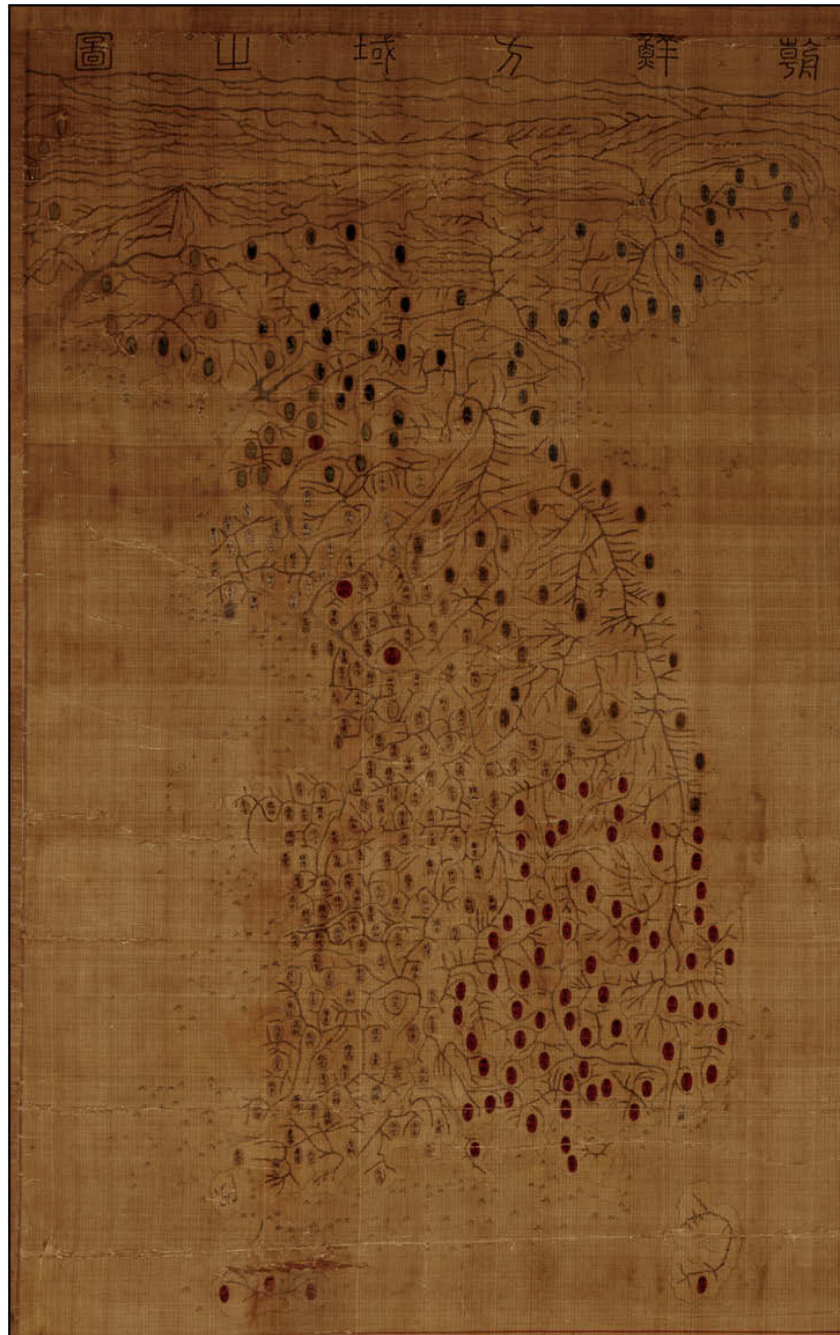


그림 9. 《조선방역지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그림 10. 《조선팔도고금총람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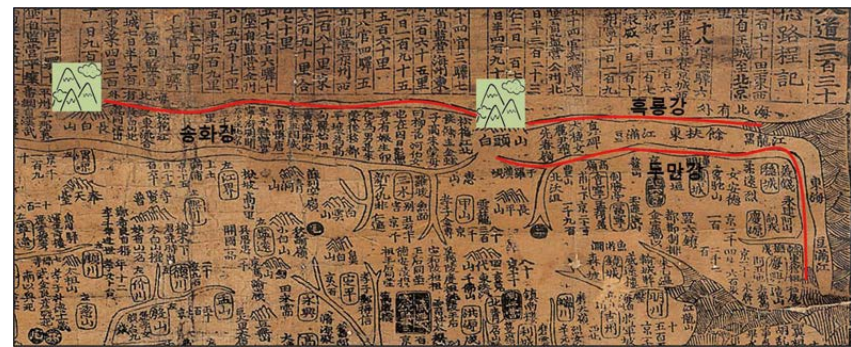


그림 11. 《조선팔도고금총람도》_백두산부분



그림 12. 《백두산정계비지도》(奎軸 26676)(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 귀중한 자료이다. 명종대인 1557~1558년경에 제용감濟用監 관원들이 계획도 형식으로 만든 조선전도이다.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 만주지방이 압축적으로 조선전도에 포함되어 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과 비교했을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 즉 만주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두만강 북쪽에 흑룡강과 여러 산과 강들이 두만강과 평행하게 동류하고 있다. 두만강 북부 만주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표현한 매우 확대된 영토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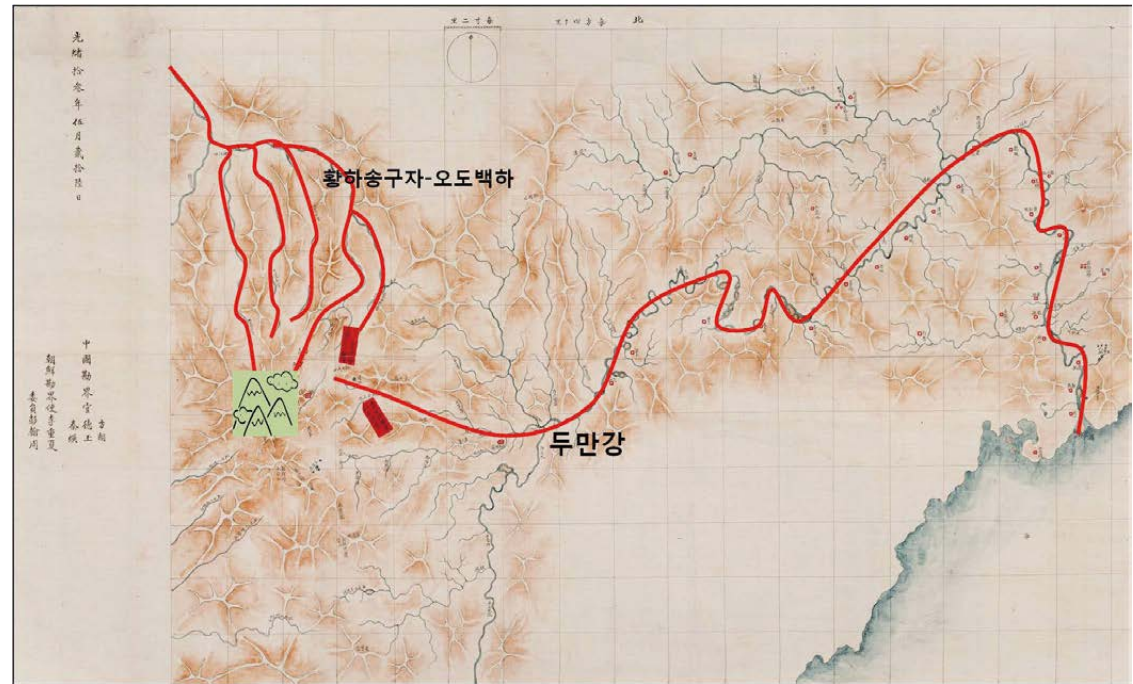


그림 13. 《백두산정계비지도》(奎軸 26675)(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보물 제1602호, 그림 10, 11)는 1673년(현종 14) 김수홍金壽弘이 제작한 목판본 조선전도이다. 지도 상단의 지도 제목 아래 노정기 형식으로 조선 팔도의 군현수, 각 도별로 소속 군현·역·보령의 수, 감영에서 도성까지의 일정과 리수, 각 도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 등 도별 지지 정보를 기록했다. 지도 좌측에는 편찬자인 김수홍의 발문이 있다. 서울을 크게 그려 중요한 정보를 수록한 점, 전국 각지에 지명 인물을 기록하는 등 지도에 역사적인 기록을 첨가하여 역사지도의 성격과 함께 지리지와 지도가 결합한 모습도 보여주는 지도이다.

지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의 전도의 유형을 계승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서 일직선상에 있고,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심하게 압축된 모양을 하고 있다. 평안도 위원渭原의 압록강 대안 북쪽에 '장백산長白山'이 있고, 평

안도 갑산甲山의 동북쪽에는 ‘백두산白頭山이 그려져 있다. 장백산 우측에는 “혼동강混同江이 장백산 북쪽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에 합류한다”는 기록이 있다. ‘장백산長白山’에서 ‘백두산白頭山’으로 송화강이 흐르고, 백두산에서 흑룡강이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이 발원하는 지점을 두 줄의 쌍선이 모여져 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장백산에서 발원한 혼동강이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해, 백두산 북쪽을 지나 흑룡강²⁶에 합류해 동해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상류인 혼동강이 송화강과 만나 흑룡강과 만나 동해로 유입되는 것이다. 혼동강과 흑룡강 북쪽 밖은 북해北海로 표기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각각 백두산 남쪽에서 발원한다. 흑룡강 남쪽에 백두산에서 발원한 두만강이 동해로 유입된다. 조선과 청에서 호명하는 백두산의 두 이름 ‘백두산’과 ‘장백산’을 실제 존재하는 각각의 산처럼 조선 지도의 가장 북쪽에 각각 그려 넣은 점이 특징적이다. 조선 지도에 백두산 북쪽 흑룡강까지 그려 넣어 매우 확대된 영토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는 백두산 정계 이후 백두산 일대의 지형을 후대에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두산정계비지도白頭山定界碑地圖》(奎 26676)이다. 백두산 천지 ‘대택大澤’에서 송화강으로 보이는 강이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흑룡강에 합류한다. 천지 동남쪽 아래 쪽에 ‘정계비定界碑’가 크게 그려져 있고, 정계비에서 분수령分水嶺과 대각봉大角峯의 북쪽을 지나, 토문강원土門江源까지 석퇴·토퇴·목책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토문강원土門江源’, ‘일명 분계강一名分界江’으로 기록된 하천이 대각봉 북쪽에서 발원해 흐르다가 송화강과 만나 흑룡강으로 합류해 동해로 유입된다. 대각봉의 동남쪽에서 발원하며, ‘두만강원豆滿江源’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강에는 4개의 지류와 발원지가 나타나 있다. 가장 남쪽 지류는 ‘서두수西豆水’이다. 동북쪽에서 시작되는 지류는 3개 하천이 표시되어 있다. 먼저 대각봉의 남쪽 삼지三池에서 발원하는 ‘홍단수紅丹水’에는 지류 하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홍단수 북쪽으로 두 개의

지류가 더 그려져 있다. 홍단수 바로 북쪽 원류는 ‘황봉黃蜂’ 밑의 연못池에서 발원한다. 석을수石乙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류의 북쪽에 이 보다 약간 짧은 또 하나의 지류 하천이 ‘황봉’과 ‘십이종봉十二種峯’ 사이에서 발원하고 있는데, 이 지류가 두만강의 가장 북쪽 지류인 홍토수紅土水로 보인다. 두만강과 토문강을 다른 강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또한 토문강을 분계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2) 북류하는 토문강을 그린 지도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이 북향하는 유로를 그린 지도는 확대된 북방영역의식을 보여 주며, 2강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두만강은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지만, 전혀 다른 강이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를 토문강이라 주장한다.

그림 13은 1887년 조선감계사 이중하李重夏가 청과의 감계 회담 이후 그린 《백두산정계비지도白頭山定界碑地圖》(奎軸 2667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이다.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장백폭포는 이도백하로 이어지고, 삼도백하와 사도백하는 천지 북쪽에서 발원한다. 천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의 정계비 부근에서 북쪽으로 석퇴와 토퇴가 ‘황하송구자黃花松溝子’를 따라 이어진다. 황하송구자는 현재의 오도백하이며 1934년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만주10만분 1도 백두산18호 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²⁷지도에서 상류 부근에 ‘하유송구자下柚松溝子’로 표기되어 있는 이도강二道江이다. 바로 이중하가 주장하는 토문강이다. 즉,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 부근 이도백하·삼도백하·사도백하, 그리고 명칭의 표기가 없는 오도백하는 천지의 북쪽으로 흐르다가 만나서 송화강으로 합류하게 된다. 두만강의 수원으로는 가장 북쪽의 홍토산수紅土山水,中间的 석을수石乙水, 가장 남쪽의 홍단수紅丹水가 그려져 있다.

이중하는 정계비에서 동쪽에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황하송구자(오



그림 14. 《조선팔역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백하)를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인 토문강으로 상정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비록 한 발 물러서서 홍토산수를 경계로 타협하려 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그린 이 지도만 남게 되었다.

3) 토문강과 분계강 사이에 공백이 포함된 지도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분계강 사이를 공백으로 남겨 놓은 지도들은 북방영역에 대한 인식을 유보한 채로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만강과 토문강의 원류는 각기 다르지만, 공백 부분을 지나 합류하는 두 강은 1강설 또는 2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그림 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는 정상기형 동국지도 유형의 대형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원본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평안도의 이산理山이 1776년에 개칭된 초산楚山으로, 1800년에 이성利城에서 바뀐 지명인 이원利原으로 기재되고, 1822년에 신설된 후주厚



그림 15. 《조선팔역도》 중 백두산 부분



그림 16. 《해동여지도》중 〈함경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州도호부가 표시되어 있어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지도로 보인다. ‘대지’로 표시된 천지에서 북쪽으로 혼동강이 흘러나가고, ‘혼동강원 混同江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지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물은 압록강의 수원이다. 천지 남서쪽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 ‘입비立碑’ 처를 지나 ‘천평天坪’ 북쪽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토문강으로 추정된다. 토문강은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평정산平頂山²⁸’에서 멈춘다. 두만강 북쪽 지역은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19세기 이후 고지도에 많이 표기되는 ‘분계강分界江’은 현재 중국 연길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에 해당한다. 《조선팔역도》에는 짧은 유로를 가진 ‘분계강分界江’이 평정산 동쪽 공백지역을 지나 발원해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온성 부근에서 합류하고 있다. 두만강의 상류에는 대각봉과 삼산 사이의 최북단 지류, 그리고 대각봉 바로 동쪽에서 발원하는 지류, 남증산과 연지봉 사이에서 발원하는 세 개의 지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세 개의 지류가 서남쪽에서 흘러 온 서북

천西北川과 무산 서쪽에서 만나고, 다시 남쪽에서 흘러 온 임하천林下川과 무산 서남쪽에서 합류한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어, 토문강과 두만강을 전혀 별개의 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16은 조선전도와 팔도의 도별지도로 구성되어 있는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국립중앙도서관 소장)중 〈함경도咸鏡道〉지도이다. 1800년에 이성利城에서 바뀐 지명 이원利原으로 표기되어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도로망과 봉수대의 표현이 자세하며 지도의 우측에는 함경도 각 군현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도리표가 있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은 공백이다. 함경도 온성의 서쪽에서 분계강分界江이 두만강에 합류한다. 그런데 분계강은 두 개의 지류가 합류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건가퇴件加堆’라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강 중 북쪽을 지금의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로, 남쪽의 강을 하이란강 즉 해란강海蘭江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지도제작자가 두만강 북쪽의 지형을 인식하고 그린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두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두 강의 위치와 유로에 대한 인식, 즉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다른 강이라는 것과, 두만강 북쪽 지역이 공한 지역이었던 것을 보여 준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이므로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포함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17. 《해동지도》중 <대동총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8. 《청구관해방총도》



그림 19. 《해동지도》중 <대동총도>_백두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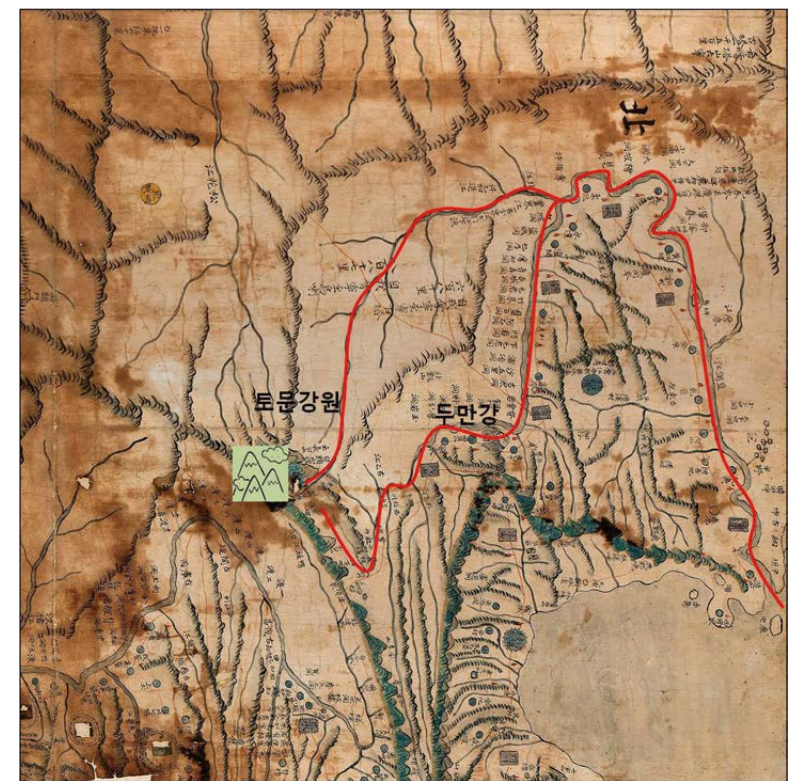


그림 20. 《청구관해방총도》_백두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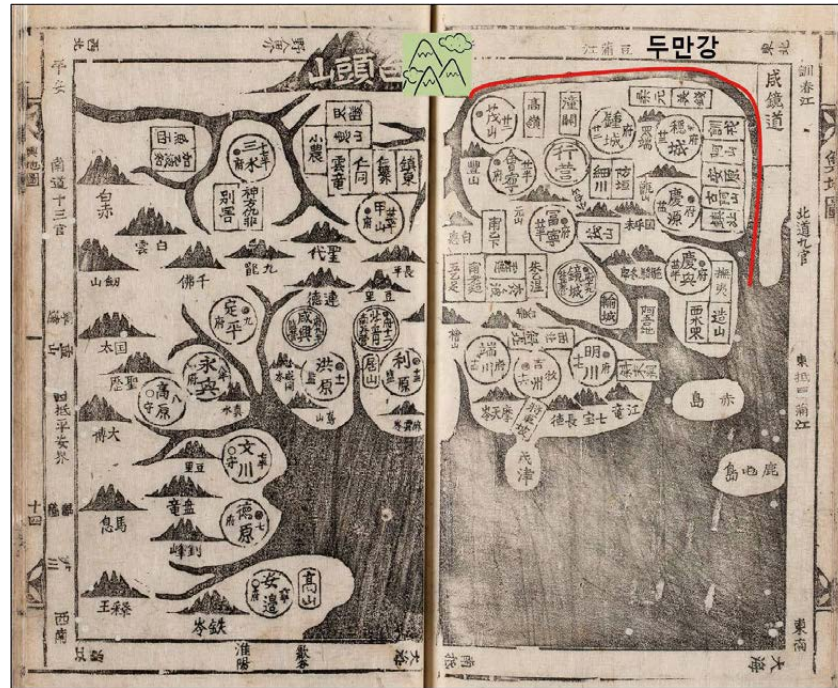


그림 21. 《동국여지도》 중 <함경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4)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두만강과 합류하는 토문강

토문강과 분계강을 포함하는 유로 중 토문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경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1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은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지도 海東地圖》 제 8책에 실려 있는 대형 필사본 조선전도인 <대동충도 大東槧圖>이다. 백두산 동쪽으로 뻗은 산맥을 사이에 두고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북쪽으로 '분계강 分界江', 남쪽으로 '토문강 土門江'이 발원해 동쪽으로 흐른다. 이 두 강은 온성부근에서 합류한다. 토문강은 두만강의 가장 북쪽의 지류이자 원류로 표현되어 있다. '분계강원'과 '토문강원'은 목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22. 《조선팔도여지지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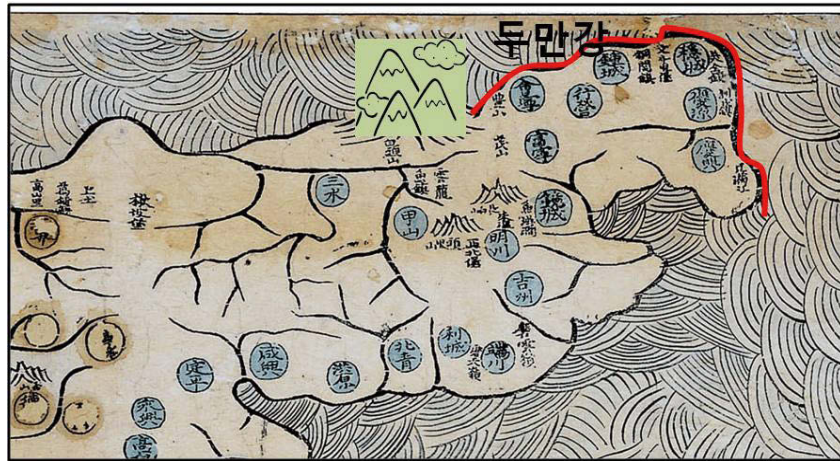


그림 23. 《조선팔도여지도》 중 백두산 부분

그림 18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구관해방총도靑丘關海防總圖》이다. 지도의 남북이 실제보다 두 배 이상 길게 그려졌고 지명과 주기 등 글자는 동쪽 방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마치 한반도가 눕혀져 있는 듯하다.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가 있고 두만강이 동쪽으로 흘러나간다. 천지 동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源이 발원하여 동북향으로 흐르다가 온성부근에서 두만강과 합류한다.

이 두 지도는 토문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로, 당시에 확산되고 있던 북방영역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

그림 21는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중 〈함경도〉지도이다. 목판본 ‘동람도’형 도별 지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지도에는 함경도의 주요 산과 하천, 행정지명만이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다. 불꽃처럼 솟아있는 커다란 백두산이 함경도의 가장 북쪽 중앙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강조된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조선팔도여지도朝鮮八道輿地地圖》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전기형 목판본 조선전도이다(그림 22). 이 지도는 153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다음으로 오래된 현전하는 목판본 전도이며, 단독으로 된 인본印本 조선전도로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으로 치우쳐 그려진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압록강의 유로에 비해 두만강의 유로가 매우 짧아 조선전기형 조선전도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는 토문강 두만강 1강설 또는 토문강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지 않고 있으며, 축소된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VI. 유조변柳條邊과 영고탑寧古塔

1. 유조변柳條邊

청왕조는 중국 동북 백두산 지역을 “용흥발상지龍興發祥之地”로 인식하였다. 동북지역을 보호하고,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버드나무 울타리와 제방, 도랑으로 구성된방어선인 유조변柳條邊이라는 변장을 수축, 건립했다.¹ 유조변은 노변老邊(성경유조변, 성경변장)과 신변新邊으로 나뉜다. 노변은 요하유역의 변장이다. 봉황성에서 시작해 북으로 개원현, 서쪽으로 산해관에 접하는 것으로 순치면강인 1638년에 수축했다. 신변은 강희연간에 건립된 길림지역의 유조변이다. 청은 1670년(강희 9년)부터 1681년까지 개원현開原縣 위 원보에서 길림에 이르는 신변新邊을 새롭게 만들어 청나라의 발상지이자 만주족의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했다. 따라서 흥경興京(현재의 신빈(新賓)), 동경東京(현재의 요양(遼陽)), 성경盛京(현재의 심양)과 영릉永陵(현재의 신빈에 위치), 북릉北陵(현



그림 1. 신민시 우가와보의 유조변 유적



그림 2. 위원보 변문 표지



그림 3. 왕청문 표지

재의 심양에 위치), 소릉昭陵(현재의 심양에 위치)인 ‘삼릉三陵’을 유조변 안으로 포함시켰다.² 영고탑장군 관할 하에 있는 신변의 길이는 343.1km에 달했다.

유조변에는 21곳의 변문邊門을 두었는데, 봉황성문鳳凰城門·애합문愛哈門·홍경변문興京邊門·가목선문加木禪門·영액문英額門·위원보문威遠堡門·발고문發庫門·창무대문彰武臺門·백토창문白土廠門·청하문清河門·구관대문九官臺門·송령자문松嶺子門·장령산문長嶺山門·신대문新臺門·흑산구문黑山口門·고대보문高臺堡門·평천영문平川營門·포아덕고소파아한문布兒德庫蘇把兒漢門·흑아소문黑兒蘇門·역둔문易屯門·발특합문發忒哈門이다.³

유조변은 변내邊內的 발상지를 보호하고, 동시에 변외邊外 금지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한계선이다.⁴ 그 외 몽고와 조선의 군사 방어선, 서로 다른 생산 방식에 종사하는 동북 각 민족의 지리적인 경계선, 청나라가 동북지역을 부분적으로 나눈 행정구역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봉금지역을 보호하는 경계이기도 하다.⁵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답사를 통해 남아있는 유조변 유적 중 신민市新民市 우가와보于家窩堡의 유조변 유지遺址, 위원보변문威遠堡邊門, 홍경변문興京邊門을 확인 했다.

신민시는 심양에서 북서쪽으로 58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연암이 연행 도중 심양을 떠나 처음 만난 도시이기도 한 이 지역은 청나라가 심양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건설한 신흥군사도시이다. 김정선金景善이 지은 「연원직지燕輶直指」에는 ‘마을과 시장이 끝없이 즐비하다. 청나라가 심양에 도읍을 정한 뒤 백성들이 이주하여 살게 하고 요역을 면제하였기 때문에 무려 3, 4만호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곳 신민둔지역에는 대들보를 걸치지 않고 기와를 평평하게 깐 지붕구조 때문에 무량옥 또는 일자옥이라 불리우는 중국 특유의 가옥구조가 나타나는 구간이어서 연행사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민시 우가와보于家窩堡에서 서쪽으로 31km 떨어진 G304국도 부신시阜新市 창무현彰武縣과 심양시의 경계 지점에 유조변의 흔적⁶과 표지석이 있다. 심양에서 서북쪽으로 89km떨어진 지점이다. 과거의 유조변, 현재는 두 도시의 경계이기도 한 이 지점에는 교차하는 강이나 산 등 자연적인 경계가 될 만한 경관이 전혀 없다. 하지만 시 경계를 알리는 표지를 세우고 인위적인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이처럼 과거 유조변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유조변 유적은 자연적 장애물이나 지형에 의한 경계라기 보다 통치자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인위적인 경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 표지석⁷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보호범위 제 1 구간: 신민시 우가향于家鄉 후가위자촌侯家圍子村 북쪽 양식 목하養息牧河와 유조변이 교차하는 서쪽 기점, 서쪽 200m를 연장한 유조변장 양측 30m 이내.

보호범위 제 2 구간: 신민시 우가향于家鄉 경내 단확선공로와 유조 변장이 교차하는 도로 동측의 기점, 동쪽 200m를 연장한 유조변장 양측 30m 이내.

건축제한지대: 보호범위 30m 이내에는 건축을 제한함.

위원보변문威遠堡邊門은 유조변 노변의 가장 북쪽 지점으로 청에서 정한 1차 유조변의 북방 한계에 해당한다. 즉 이 지역까지를 심양 영향권의 동북지역으로 정하고 보호했다. 현재는 개원시 위원보 우체국 맞은 편 금순훈사에 술영루金盾婚紗藝術影樓라는 사진관 앞에 위원보변문 표지석 만이 남아있다.

심양에서 동쪽으로 청의 첫 번째 수도였던 신빈新賓을 지나 104번 도로를 따라 가면 왕청문진旺淸門鎭이 있다. 왕청문진에 들어서면 ‘왕청문旺淸門 표지석’이 있고 표지석 뒷면에는 홍경변문興京邊門이라는 또 다른 표기가 있다. 왕청문이 곧 홍경변문이라는 마을 어른의 증언이 표지석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규장각 소장 《서북계도》(고4709-89)에는 유조변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왕청문汪淸門이라 표기된 변문이 있는데 홍경변문과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홍경변문은 요녕성에서 길림성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2. 청초기 만주의 군사 중심지, 영고탑

명조 말기, 해서海西·건주建州·야인野人의 3부로 나누어진 여진은 명나라의 간접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건주여진의 족장인 누르하치가 조선

의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하여 만주에 대한 명나라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1588년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했다. 1616년에는 명나라가 변방의 국가들에 대하여 통제력이 이완된 틈을 기회로 만주 일대의 여진족을 완전히 통일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후금後金이라 하였다.

청을 건국한 누르하치의 증조부 복만福滿은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 첫째 덕세고德世庫는 각이찰아랍성覺爾察阿拉城, 둘째 류천劉闡은 아합화락성阿哈伙洛城, 셋째 소장아蘇長阿, 화락갈선성伙洛噶善城, 누르하치의 아버지인 넷째 각창안覺昌安은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 다섯째 포랑아包郎阿는 니마란성尼麻蘭城, 여섯째 보매寶賈는 장가성章嘉城에 터를 잡았고 이 여섯 아들을 영고탑(만주어로 닝구타; 숫자 6을 의미)패륙이라 한다. 영고탑패륙이 출현한 홍경지역은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이자 청 발상의 중심이었다. 여섯 성은 모두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지금은 첫째 아들 덕세고德世庫의 각이찰아랍성覺爾察阿拉城(舊얼차아라성)과 누르하치의 아버지인 넷째 아들 각창안覺昌安의 혁도아랍성赫圖阿拉城(허투아라성)만이 남아있다. 국가 AAAA급의 명승지로 지정된 허투아라성은 외성의 길이가 동서 1,335m, 남북 1,352m에 이르며, 약 155.9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꿩얼차아라성은 입구마저도 허름한 상태로 명목만이 남아있다.

누르하치는 1610년 대장 액적도정額赤都征을 파견하여 동해 와집부窩集部⁸를 형성한후 영고탑 일대를 통일시키고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후 1616년 청의 첫 번째 수도 허투아라⁹에 도읍을 세우고 1636년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영고탑에 성을 축조했다. 1653년에는 영고탑양방장경寧古塔昂邦章京을 두고, 1662년에는 영고탑장군으로 고쳤다. 1666년에 신성新城인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寧安市로 옮겼다. 그러나 다시 러시아에 대한 방어의 중심지로 부상한 길림吉林으로 1676년에 영고탑장군과 군사들을 이주시키고, 1747년에는 길림장군吉林將軍으로 개칭했다.



그림 4. 각이찰아랍성(覺爾察阿拉城) 입구



그림 5. 허투이라성 입구



그림 6. 허투이라성의 한궁대아문(汗宮大衙門)

청조가 1644년 8월 북경으로 천도한 이래 청의 용흥지(龍興之地)인 동북 지역은 만주족의 남하로 인해 ‘옥야천리, 유토무인(沃野千里, 有土無人)’의 현상이 지속되었다. 러시아는 이 틈을 이용해 남진정책을 표방하고 시베리아를 거쳐 흑룡강유역까지 진출, 중국 동북지역을 위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순(大順)·대서(大西)의 잔여세력 및 남명(南明)정권의 항쟁, 그리고 삼변(三藩)의 난 등으로 내외(內外)의 안(安)·외(外)환(患)이 겹친 상황이었다. 1681년 강희제는 삼변의 난을 평정하고 1689년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동안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지역을 수복하였다.

청은 농업과 교통에 유리하고 군사보급에도 편리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송녕평원(松嫩平原)¹⁰에 성진(城鎭)을 건설하고 팔기병(八旗兵)을 주둔시켰다. 영고탑은 이 군사적 거점 ‘변외칠진(邊外七鎭)’인 길림오라(吉林烏喇)·영고탑·신성(新城)·이란합라(伊蘭哈喇)·복괴(卜魁)·흑이근(黑爾根)·애흔(艾琿) 중 하나이다.

만주어로 느릅나무숲(榆樹林子)이라는 뜻을 가진 해랑하(海瀾河)에 안겨 있는 영고탑(寧古塔)은 청나라 초기 성경(盛京)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행정기구의 소재지이며, 경제, 문화 뿐 아니라 팔기병이 주둔하여 러시아의 남하에 대처하는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죄인의 유배지이기도 했

다.¹¹

길림성 연길시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노령(老嶺)산맥을 넘어 흑룡강성의 영안시(寧安市)를 지나 201번 국도를 통해 해림시(海林市)까지 4시간 정도, 다시 해림시에서 드넓은 들판을 40분 정도 달리면 옛 영고탑에 도착한다. 고지도상에 나와 있는 영고탑으로 가는 노선은 이 길로 추정된다.

옛 영고탑 중심지를 향하는 길 우측에 “영고대유지”비가 있다. 만난 마을 주민이 표지석 동쪽 셋길을 따라 우리를 영고대까지 안내해 주었다. 영고대는 축대로 뒤덮인 작은 언덕이었다. 잡초를 밟아 길을 만들며 영고대에 오르는데 5분 정도 걸렸다. 영고대에 오르자 해랑하와 넓은 들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잡초와 축대로 우거진 작은 구릉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서면 해랑하와, 해랑하가 품은 지역이 넓게 트인 시야 속에 자리잡고 있다.

《영고대유적(寧古臺遺址)》¹²

영고대 유적은 해림시 장정진 용두산촌(海林市長汀鎮龍斗山村) 북쪽에 위치한다. 속칭 용두산(龍斗山)이라고도 한다. 당·발해시대의 산성으로 후대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높게 솟아있는 원형 모형의 작은 구릉으로서 쪽은 가파르고 동쪽은 완만하다. 서·북 양 면은 해랑하가 휘돌고 구릉 주변



그림 7. 영고탑으로 가는 길의 평원

에는 토성단을 쌓았다. 둘레는 400m이고 동쪽에는 성문이 하나 있다. 영고대지는 해랑하가 흐르는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요지이다. 성벽의 내측은 5m이며 외측의 산 구릉 주변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 내부는 모두 중요한 보호구역이다. 구릉 주변의 10m정도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남측의 해자는 일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호구역 밖의 구릉 전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보호구역 전체는 2만4천㎡이다.

동구촌(東舊村) 마을에 영고대에서 내려와 들어서서 옛 영고탑으로 향했다. 본래 만주어로 영고(寧古)의 의미가 숫자 '6' 이고 탑은 '개(個)'의 의미이다.

옛 영고탑 유지에는 표지석과 함께 6m 정도의 커다란 느릅나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찾아 잠겨진 철망을 열어주었고, 70이 넘어 보이는 촌장은 우리에게 옛 영고탑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영고탑은 현재



그림 8. 영고대 유적에서 바라본 해랑하

300m 정도의 토성과 이 느릅나무만이 남아 있다. 본래 영고탑은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있는데, 내성의 토성은 장방형으로 한 면이 156m, 높이는 2m 정도로 각 면마다 성문이 있었고 외성은 한 면이 300m라고 한다. 지금은 옥수수밭으로 변했지만 촌장이 어릴 적까지도 내성 안에는 영고탑장군의 관저가 폐허지만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한다. 영고탑 성 밖으로는 해랑하가 이곳을 감싸고 흐르고 있었다.

연구진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영고탑을 답사했다. 이곳은 1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영고탑유적'이라는 이정표도 마을 입구에 있었고, 잠겨져 있던 철망은 폐쇄되었다. 또한 서구촌(西舊村)에는 영고탑박물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영고탑신성의 위치인 닝안시(寧安市) 영고탑대도(寧古塔大道) 거리에는 2010년에 '영고탑'이라는 표지석을 세웠다. 청조와 만주지역의 역사에 주목하고 강조하려는 중국의 변화상을 보여 준다.



그림 9. (구)영고탑



그림 10. (구)영고탑 토성벽



그림 11. 영고탑박물관



그림 12. ning안시의 영고탑 표지석

《영고탑장군주지성유지寧古塔將軍駐地城遺址》¹⁴

영고탑 유적은 해림시 장정진 고성촌海林市 長汀鎮 古城村 서쪽 동구촌東舊村에 위치한다. 원래는 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성의 동측과 북측의 성곽 300m 정도만이 남아있다. 성곽은 흑과 돌을 섞어 사이사이에 나무 막대를 끼워 넣어 건축했다. 옛 성은 1636년(후금 송덕원년)에서 1666년(강희5년) 사이, 청 초기 흑룡강 유역의 군정중심이었다. 청정부는 영고탑을 기지로 삼아 여러 차례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에 파병하여 제정 러시아를 격파했고, 1666년에 영고탑 장군을 동남쪽 25km 정도 떨어진 새로운 성(현재 寧安市)으로 옮겼다. 성곽의 양측 각 5m 범위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곽 내 5m 이상의 전 구역은 특히 중요한 보호구역이다. 성곽 외측 5m~15m는 일반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4만6천여㎡이다.

3. 발해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와 경하鏡河

신영고탑 유적지 닝안시에서 33km 남쪽에 동경성진東京城鎮 발해국상경용천부유지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세운 표지의 설명에는 발해국은 698년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세운 당나라 시기의 지방정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경용천부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2004년부터 발굴 중이다. 발굴 작업과 함께 마을의 지붕과 담벽 하나하나에 발해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고 동경성진 전체를 발해 마을로 조성 중이었다. 대표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한국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하는데, 한국인은 발굴중인 터의 사진 촬영이 불가능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발해국상경유지박물관 渤海國上京遺址博物館’ 역시 한국인은 촬영 뿐 아니라 입장도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러나 고구려 안학궁을 계승한 ‘태극전체계太極殿體系’를 갖춘 상경성 궁궐을 통해 발해가 당과는 별도의

독자적 세계관에 입각한 도성제 운영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¹⁵

동경성진에서 201번 국도를 따라 돈화로 향하는 길에 경박호鏡泊湖가 이어진다. 남북 길이 45km, 동서 넓이6km, 면적 95km²의 이 거대한 호수는 5차에 걸친 화산 폭발 시기, 용암이 무단장牡丹江과 지류의 유료를 막아 형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산폭발 용암언색호堰塞湖이면서 2번째로 큰 고산호수이다. 2011년 5A를 받은 국가급 여행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호수는 고지도에 등장하는 경하鏡河로, 지도상에는 ‘호수 안에 삼산三山이 위치하며 넓이가 5~6리, 길이가 70리이다. 호수가 소리가 우뢰와 같아서 수리에 걸쳐 들린다’고 표기되어 있다.

경박호를 따라 돈화로 가는 길은 과거 발해의 5개 주요 교통로¹⁶ 중 영주도(현 遼寧省 朝陽)이다. 영주도는 상경용천부에서 돈화를 거쳐 영액문, 심양을 지나 요하를 건너는 길로 발해 시기 가장 융성했던 교통로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경용천부에서 돈화에 이르는 교통로에 대략 30km 간격으로 여섯 곳에 24개 돌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 돌유적 터의 용도에 대해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제례를 위한 건축물·사람이 숭배하던 돌·역참·발해왕실의 기념성 건축물·창고 등 여러 가지 추측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¹⁷

특히 경박호 주변에서 현재 만구灣溝·경풍慶豐 두 개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연구진은 만구 유적을 답사하였다. 먼저 문헌의 내용을 참고하여 동경성진과 돈화시 중간정도 지점 경박향鏡泊鄉 만구촌을 찾았으나 이곳에서는 24개 돌유적을 찾을 수 없었고, 마을 주민의 안내로 경박향鏡泊鄉 김가촌金家村에서 ‘만구24괴석유지灣溝24塊石遺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지점은 발해 상경용천부에서는 6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201번 국도에서 23km정도 동쪽으로 경박호를 따라 들어간 지점이다. 이 유적은 김가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둔탁하고 좁은 흙길 한 편 옥수수밭 안쪽에 옥수수와 나무에 가리워져 있어서 마을 사람이 아니면



그림 13. 발해 상경용천부



그림 14. 발해 상경용천부 발굴현장

발견하기 어려운 유적이었다. ‘만구24개괴석유지’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구 24개 돌 유적 灣溝24塊石遺址》¹⁸

만구 24개 돌유적은 영안시寧安市 경박향鏡泊鄉 하북촌河北村 동쪽 20km, 송을하松乙河 좌측 약 500m 밖의 봉황산鳳凰山 아래 위치하고 있다. 동서 길이는 17m이고, 남북의 넓이는 14m의 장방형 모양이다. 동서 방향 3행의 큰 돌무더기는 매 횡마다 8개의 돌이 있는데 모두 24개이다. 돌은 현무암주상체로 21개는 육각형, 3개는 5각형이다. 모든 돌은 크기가 균등하며 평균 직경 60cm, 높이는 80cm이다. 각 열간의 간격은 평균 3~5m정도이며 돌끼리의 간격은 평균 65cm이다. 이 유적은 당대唐代 발해국의 옛 역로상에 존재했던 특수한 건축물의 유적지로, 발해 역사 연구에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24개 돌유적 안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주위 10m는 중점보호구역이다. 그리고 그 주변 10m는 일반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 총 면적은

2,678㎡이다.

백두산 북쪽 흑룡강 이남에는 영고탑과 불과 30km 남짓한 곳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수도가 자리하고 있다.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생성된 경박호와 부근에 위치한 영고탑, 발해의 상경용천부등 만주지역은 백두산 영향권에 속하는 도시와 지역으로 조선족과 만주족의 공동 생활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조변장 동쪽의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 지역은 ‘조선족촌’이라는 많은 지명들이 말해주듯 조선족의 삶이 짙게 배어 있는 공간이다.

기획전시로 시작했다가 상설전시로 바뀐 심양 요녕성박물관 ‘요하문명전’에서는 진한 통일제국의 기초 아래 선비족, 거란족, 만주족이 중원과 하나 되어 중국의 주역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중국에서 발굴중인 상경용천부와 2009년 세워진 만구24개 돌유적의 표지석, 2010년 답사 때와 달리 불과 1년 사이에 생겨난 영고탑 박물관과 이정표는 박물관의



그림 15. 만구 24개 돌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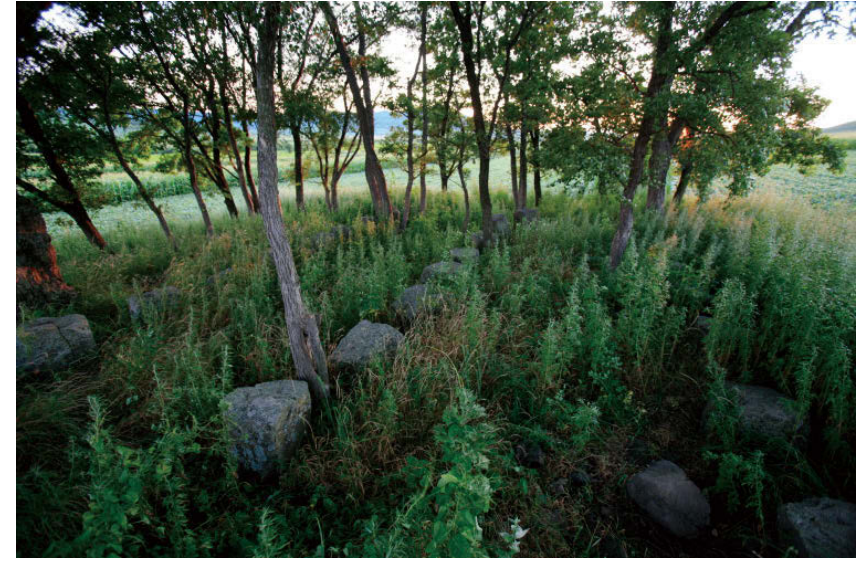


그림 16. 만구 24개 괴석

전시를 떠오르게 한다. 2010년 가을 새롭게 단장한 장백산 박물관, 중-조 경계비에 새로운 번호¹⁹가 생긴 것도 같은 시점이다.

I. 머리말

- 1 배우성, 1995, 「고지도를 통해 본 18세기 북방정책」, 『규장각』18, 서울대학교 규장각, p.123.

III. 백두산과 만주의 역사지리

- 1 최남선 지음·정재승·이주현 역주, 「불함문화론 해제」,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11~12쪽;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은 육당(六堂) 최남선이 1927년 《조선급조선민족(朝鮮及朝鮮民族 : 조선과 조선민족)》(경성, 조선사상통신사) 제1집에 발표한 논문이다. 최남선은 《불함문화론》에서 민족의 단군신화를 현대 인류학의 세계 문명론 계보에 처음으로 등재시켰다. 원저작은 1925년에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작의 동기는 일본 지식인들, 특히 동양사학자들을 겨냥하여 한국 민족문화의 시원 및 분포 상황을 논한 것이므로 일문(日文)으로 작성되었다.
-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들에 정리가 되어 있다.
양드레 슈미드, 『제국—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2007; 장원석, 「민족의 상징, 백두산의 탄생」, 『백두산—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 3 윤휘탁, 2005,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고구려연구재단 편,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p.12.
- 4 윤휘탁, 2005, 앞 글, p.13.
- 5 윤휘탁, 2005, 앞 글, p.13.
- 6 우경섭, 2010, 「총론: 범월과 이산의 공간, 만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범월과 이산-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하대학교 출판부, p.11.
- 7 이옥희, 2011, 「머리말」, 『북·중 접경지역-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 8 『예종실록』, 예종 1년 6월 29일.
- 9 『세조실록』, 세조 1년 7월 5일.
- 10 양보경, 2002,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산지관과 백두대간」,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pp.19~62의 내용을 발췌 정리함.
- 11 『大東水經』, 其一, 淥水一
- 12 『萬機要覽』 軍政篇 5, 白頭山定界, 洪世泰白頭山記

- 13 『北路紀略』, 序 : 李乾夏, 1903

- 14 『大東水經』, 其一, 淥水一

- 15 劉鳳榮, 1972, 「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 『白山學報』, 제13호, p.79.

- 16 『영조실록』, 권109, 영조 43년 7월 경자.

- 17 김정배·이서행 외, 2010,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p.17; 김지남 외,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 18 양보경, 1995,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제16집, p.111.

- 19 徐命膺, 『保晚齋集』 권8, 記, 遊白頭山記

- 20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46, 北邊雜議, 白頭山記

- 21 혜환 이용휴 시전집 본문 본편 1: 『혜환시집(惠寰詩集)』 축시(祝詩)·증시(贈詩)
“대부 정란이 백두산을 찾고 인하여 두루 우리나라의 여러 명산에 유람하는 것을 전송하며 [送鄭大夫瀾尋白頭山因遍遊域內諸名山] ”7수. 한국학지식콘텐츠 /www.kpia.co.kr/

- 22 이용휴 지음, 조남권·박동욱 옮김, 2007, 혜환 이용휴 산문전집 하. 소명
혜환 이용휴 산문전집 상 하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국역총서 21)
“정일사鄭逸士가 백두산을 유람한 기록 뒤에 쓰다 [題鄭逸士遊白山錄後]”

- 23 문화원형백과, 권필칭-백두록,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412&docId=1787592&categoryId=4412>

- 24 양보경, 1994, 「조선시대의 자연 인식 체계」, 『한국사시민강좌』, 제14집, p.74.

- 25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 9월 정미.

- 26 『星湖僿說』 권1, 天地門, 白頭正幹.

- 27 『星湖先生僿說』(奎 7364) 권2, 天地門, 西道關陔.

- 28 『擇里志』 八道摠論, 咸鏡道. 평안도 동쪽의 白頭大脈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하늘을 자른 듯이 끊어져 嶺이 되었다.

- 29 『擇里志』 八道摠論, 黃海道. 대개 白頭南脈이 함흥부 서북쪽에서 불쑥 떨어져 검문령이 되고, 또 남쪽으로 내려 와서 노인치가 되었다.

- 30 『擇里志』 卜居摠論, 山水 白頭산에서 함흥까지는 산맥이 북관으로 내려 왔다... 大幹은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뻗었으며,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산까지 한 줄기의 영으로 통해 있다.

- 31 『大東水經』其一, 濼水一
- 32 『東國輿地志』 권8, 함경도, 갑산도호부, 「山川」;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전국지리지③, p.469
- 33 산맥이라는 표현이 일본의 강제 국권 침탈 이후 사용된 용어라는 주장도 있으나, 『東國輿地志』, 『擇里志』, 『輿地圖書』 등 대표적인 우리의 옛 문헌과 『廣輿圖』 등 지도에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朴玟, 1996, 『우리나라 山脈의 分類體系 및 名稱의 變遷』,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에도 지적되었다.
- 34 신경준과 『산수고』, 그리고 『山經表』에 관한 내용은 양보경, 1992, 「申景濬의 『山水考』와 『山經表』-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토지연구』 제3권 제3호, 토지개발공사, pp.135~145; 양보경, 1999. 5, 「여암 신경준의 지리사상」, 『국토』, 국토연구원, pp.36~43.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함.
- 35 현진상, 2000 『한글 산경표』, 풀빛
- 36 『星湖僊說』 권1, 天地門, 西道關阨
- 37 楊普景,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31.

IV. 한국 고지도와 북방 인식

- 1 楊普景, 1993, “『西征錄』과 세종대 북방 개척,” 토지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토지개발공사, p.133. 이하의 내용은 이 글을 참고, 정리한 것임.
- 2 金魯奎, 『北輿要選』上 「附白頭山下發祥古蹟」. 이 책에는 두만강 양쪽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선조의 유적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 3 李純, 『西征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奎 4371)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9, 번역본. 이하 세종대의 여진 정벌에 관해서는 위의 책을 주로 참조하였음.
- 4 지금의 자강도 중강군 지역으로,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1416년(태종 16)에 여연군을 설치하고 평안도에 소속시켰다. 이어 여연군을 나누어 자성군(慈城郡), 무창현(茂昌縣), 우예군(虞芮郡)을 두어 서북지방의 4군이 설치됨으로써 압록강 이남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고 여진인들의 침범으로 주민의 보호가 어렵자 1455년(세조 1)에 여연부를 폐지하고, 주민들을 구성(龜城)으로 옮겨 그 땅을 비위 강계(江界)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일대는 폐사군(廢四郡)이라 불렸다.

- 5 『西征錄』 壬子 12月 甲午.
- 6 『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1월 기묘.
- 7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병진.
- 8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5월 경자.
- 9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 2월 을축.
- 10 『세조실록』 권2, 세조 원년 8월 을묘.
- 11 『세조실록』 권31, 세조 9년 12월 병인.
- 12 『문종실록』 권7, 문종 원년 5월 병인.
- 13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입자.
- 14 李相泰, 1991, 『朝鮮時代 地圖研究』, pp.11~12. 실록에 기록된 각 지역별 지도의 편찬과 제작에 관해 정리되어 있다.
- 15 『중종실록』에 기록된 사실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종 12년(1517) 4월 서북방어를 위하여 축성사를 잠정 설치. 5월 축성사 혁파하되 순찰사 2인은 유임 대신과 동의 조처케 함. 6월 전 축성사를 비변사로 개칭 설치. 중종 15년(1520) 5월 여연·무창 등지에 내왕하려는 야인 구축을 준비코저 비변사 복설. 중종 19년(1524) 2월 비변사낭관 심사손, 순변사 조윤손 등으로 야인 구축케 함.
- 16 『중종실록』 권8, 4년 4월 경인.
- 17 『중종실록』 권12, 5년 9월 경진.
- 18 『중종실록』 권48, 18년 5월 계미.
- 19 『명종실록』 17년 11월 경인.
- 20 양보경, 1997,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북방인식」, 『지리학연구』, 제29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103~1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 21 『東文選』 권92, 三國圖後序.
- 22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12월 계유. 12월 갑술. 이 지도는 북병사 유비연(柳斐然)에게 지도를 본떠서 보내도록 하여 비변사에 두게 하였다.
- 23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11월 병인.
- 24 『숙종실록』 권54, 숙종 39년 윤5월 계유. 6월 정축. 결국 비변사의 지도는 너무 자세하여 보이지 못하고, 상세지도도 간략지도도 없으면서 백두산의 물줄기가 틀린 지도를 중국 사신에게 보여 주었다.

- 25 『중종실록』, 권81, 31년 5월 갑자. 권84, 32년 3월 임오. 권36, 14년 9월 경신.
- 26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5월 임오.
- 27 『중종실록』 권87, 33년 6월 계묘.
- 28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5월 임오.
- 29 南九萬, 『藥泉集』, 권28 「記」 盛京輿地圖記
- 30 金魯奎, 『北輿要選』 「白頭圖本攷」
- 31 吳尙學, 1994, 「鄭尙驥의 〈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 제작배경과 寫本들의 系譜를 중심으로 -」, 『지리학논총』, 제24호, p.138.
- 32 李瀛, 『星湖僊說』 「天地門」 「東國地圖」
- 33 유사한 내용의 지도들이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西北彼我兩界萬里之圖〉 〈西北彼我兩界全圖〉 〈西北疆界圖〉 등의 이름으로도 전한다.
- 34 이상의 관방지도들은 李燦, 1991, 전게서, pp.47~69에 수록되어 있다.
- 35 정상기의 〈東國地圖〉는 吳尙學, 1994, 전게논문, pp.133~155.에 자세하게 연구되어 있다.
- 36 이 절은 양보경, 1997, 「18세기 지리지·지도의 제작과 국가의 지방지배」, 『응용지리』 제20호,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pp.21~42.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37 吳洙彰, 1996, “朝鮮後期 平安道民에 대한 人事政策과 道民의 政治의 動向”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 38 朴光用, 1994, 『朝鮮後記 「蕩平」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1, pp.197~198.
- 39 韓相權, 1993, 『朝鮮後期 社會問題와 訴冤制度의 發達 - 正祖代 上言 · 擊錘의 分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0 한상권, 1995,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 연구현황 -군현제·외관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8호, 한국역사연구회, p.250.
- 41 한상권, 1995, 전게논문, p.248.
- 42 吳洙彰, 1996, 전게논문, pp.1~25 참조.
- 43 姜錫和, 1995, 「英·正祖代의 咸鏡道 地域開發과 位相強化」, 『奎章閣』 18, 서울대학교규장각, p.28.
- 44 양보경, 1995, 「郡縣地圖의 發達과 《海東地圖》」, 『海東地圖 - 解説 · 索引集 -』, 서울대학교 규장각, pp.61~74.

45 이들 지도의 편찬 시기에 관해서는 裴祐晟, 1995, 전게논문 참조

46 양보경, 1995, 전게논문, pp.61~74.

47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p.366. 방안지도는 천문학상의 경위도선과는 달리 지구를 평면으로 보고 동서와 남북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하여 만든 경위선 조직이다

48 楊普景, 1992, 「18세기 備邊司地圖의 考察 - 奎章閣 소장 道別 郡縣地圖集을 중심으로 -」, 『奎章閣』 15, pp.93~122.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의 지도집이 남아 있으며, 1747년(영조 23)~1750년(영조 26)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집에 수록된 군현지도는 모두 1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으며, 방안의 크기는 대부분 7.0~8.5mm 내외이다. 따라서 약 1:53,000~1:64,000의 대축척지도이다. 현재 우리의 기본도가 1: 50,000 지형도임을 고려한다면, 18세기 중엽에 1리 방안의 축척 1:50,000~1:60,000 내외의 대축척지도를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제작하였던 것은 조선의 지도 발달사에서 매우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49 자세한 내용은 양보경, 1995, 전게논문 참조.

V. 백두산, 수계水系와 고지도

- 1 최근에 백두산 고지도 자료집이 출간되어 도움이 된다. 이서행·정치영, 2011,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 한국학중앙연구원.
- 2 이화자, 2008,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 수계」,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3호, pp.31~50.
- 3 박용옥, 1995, 「백두산 정계비 건립의 재검토와 간도 영유권」, 『조선시대 북방 관계사 논고』, pp.1054~1055.
- 4 두만강의 수원으로는 가장 북쪽의 홍토산수, 중간의 석을수, 가장 남쪽의 홍단수가 있다.
- 5 강석화, 1995, 「1712년의 조-청 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 『진단학보』 79, pp.135~165.
- 6 강석화, 1997,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한국사 연구』, pp.121~134.
- 7 강석화, 2011, 「조선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6, pp. 211~212.
- 8 배우성, 2007,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vol 65, 부산경남사학회, pp.27~62.

- 9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두만강·토문강·분계강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제30권 3호, pp.91~118.
- 10 이화자, 2008,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 『근대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p.67~100.
- 11 『감계사등록』 상, 을유 12월 6일, 別單草.
- 12 『북여요선 北輿要選』 하, 「탐계공문고 探界公文攷」, 경문사, 1976, pp.92~95.
- 13 1882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한 이후 정부의 주요 요직에 기용된 이중하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 임명되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 아산에 상륙한 청국군을 상대하는 아산청진영접관(牙山淸陳迎接官)으로 청국과의 외교를 수행했다.
- 14 『감계사등록』 상, 을유 12월 6일, 啓草
- 15 고승희, 2009, 「1880년대 조·청감계협상과 국경문제 인식」, 『근대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p.122.
- 16 고승희, 2009, 앞의 책, p.123.
- 17 馬孟龍, 2009, 「穆克登查邊與《皇輿全覽圖》編繪」, 『中國邊疆史研究』, 제19권 제3기 pp.85~99. 목극등의 변경조사활동을 조청간의 정계를 정하기 위함이 아닌 《황여전람도》측회를 위한 사변조사였다고 주장함.
- 18 동북아역사넷,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해제 19세기 말에 조선과 청 사이에 일어난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련된 각종 문건을 모아 '동북아역사넷'에서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으로 원문과 번역문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1885년, 1887년에 진행되었던 이른바 '을유감계회담'과 '정해감계회담'에 관한 자료와 간도문제의 연원, 변경 지역 주민들의 사정에 관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다.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統理機務衙門 편, 『啓下咨文冊』(1881), ② 承文院 편, 『啓下咨文冊』(1882~1883), ③ 鐘城郡의 報告書(1882~1884), ④ 『勘界使謄錄』(1885~1887), ⑤ 李重夏, 『卞晰攷證八條』(1887), ⑥ 『照會談草』(1886~1893), ⑦ 『白頭山定界碑資料』 「咸鏡北道鍾城居吳三甲等訴告書」의 (1899~1903), ⑧ 『北輿要選』
- 19 두만강의 수원으로 가장 북쪽의 홍토산수(紅土山水), 중간의 석을수(石乙水), 가장 남쪽의 홍단수(紅丹水)가 있다.
- 20 현재 중국에서는 '두만강'의 한자 표기를 '圖們江'으로 하고 있으며 '토문강(土門江)'과 같은 강으로 상정하고 있다.
- 21 아름답다고 명성이 높은 길이다. 동해신의 도움으로 綠珠선녀가 폭풍우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려고 미인송이 되어 백성을 지켰다는 고사가 있다.
- 22 원지는 화구호로 둘레는 707.5m, 직경은 250m, 표수면적은 4.1ha이다. 전설에 의하면 천궁의 세 선녀가 내려와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옷을 입으려 하는데 갑자기 한 마리 까치가

날아와 열매를 막내 선녀 불고륜(佛庫綸)의 치마에 놓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 열매를 먹고 곧 아이를 잉태하고 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포고리용순(布库里雍順)으로, 바로 청조의 조상이다. 청 왕조는 이곳을 '生龍聖澤', '天女浴躬池' 등으로 부르며 성지로 서 존중해 왔다.

- 23 '두만강 발원지'라는 표지와 함께 '당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분계선을 넘지 마시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주도의 정낭처럼 돌기둥 사이에 철봉이 세워져 있는데, 조-중 국경이다. 2010년 첫 답사 때 숲 사이에서 국계비 '中國-조선 21(2) 1990'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숲이 우거져 있고 길 가운데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어서 이 길이 국계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국계비의 '조선'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는 사람은 중국에, 반면 국계비의 '중국'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는 사람은 북한에 서게 된다.

24 中國星球地圖出版社, 2010, 黑龍江吉林遼寧 交通圖冊, p.57.

25 이하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유로의 표현을 '백두산~두만강'으로 약칭함.

26 흑룡강은 중국에서는 헤이룽강(黑龍江),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Amur River), 몽골에서는 하라무렌(Khar mörön, Хара-Мөрөн)으로 부른다.

27 지도 2 참고.

28 구글위성지도를 검색하면 중국 여러 곳에 平頂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존재한다. 한국 고지도에 표기된 평정산으로 추정 가능한 곳은 길림성의 1) 吉林省 延邊朝鮮族自治州 敦化市 平頂山(Pingding Mountain, Dunhua, Yanbian), 2) 吉林省 吉林市 樺甸市 平頂山(Ping Ding Shan, Huadian Shi, Jilin Shi, Jilin Sheng), 그리고 흑룡강성의 3) 黑龍江省 牡丹江市 寧安市 平頂山(Pingding Mountain, Ning'an, Mudanjiang)이 있다. 지리적 위치로 보아 첫 번째 연변조선족자치주 돈화시의 평정산으로 추정된다.

VI. 유조변 柳條邊과 영고탑 寧古塔

- 1 『吉林城志』권43, 文物志, p.117.
- 2 長杰, 1999, "柳條邊, 印票與清朝東北封禁新論", 中國邊疆史地研究, p.80.
- 3 長存武, 1985,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pp.248~249.
- 4 薛洪波, 肖鋼, 2004, "淺談清代柳條邊",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p.103. 任鴻魁, 2005, 『丹東史迹』, 遼寧民族出版社, p.248.
- 5 佟冬 主編, 叢佩遠 著, 『中國東北史』4권, p.1389; 長德寶, 2001, 앞의 글, p.139; 長杰, 1999,

앞의 글, p. 81.

- 6 사진에서 도로 위의 이정표와 평행하게 나있는 작은 옥수수밭길이 유조변장이다. 과거 500여 년 전 유조변장을 이루었던 나무들이 서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현재에는 커다란 느릅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 7 유조변의 유지에는 옥수수밭과 부서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표지석만이 남아 있었다.
- 8 와집부는 중국 소수민족 중 53번째 규모를 가진 허저족(赫哲族)으로, 민족과 공동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의 오랜 소수민족이다.
- 9 1603년 건주여진은 허투아라로 천도했다. 허투아라는 만주어 “hetuala”의 음역이다. “hetu”는 “横”의 의미이고, “ala”는 “冈(언덕)”의 의미로 “비탈진 언덕”이라는 뜻이다. 明朝는 “만자성(蠻子城-오랑캐성)”이라 했고, 조선은 “노추성(奴酋城-누르하치추장의 성)”이라고 부른 누르하치의 성이다. 허투아라는 쑤커수후(蘇克素渾)강과 가하(加哈)강 사이 평원 언덕에 건립되었는데, 중국 고대역사 최후의 산상(山上) 도성이다. 허투아라는 3차례에 걸친 토목공사를 해 도성의 규모를 갖추었다.
- 10 松嫩平原(Songnenpingyuan)东北平原的组成部分。位于大、小兴安岭与长白山脉及松辽分水岭之间，主要由松花江和嫩江冲积而成。该地区由于受最近地质历史时期地壳抬升的影响，地势较高，除哈尔滨—齐齐哈尔—白城的三角形地区外，海拔多在200—250米。地面受流水切割，出现缓岗浅谷的波状起伏。在松花江与嫩江汇流的地带，由于地势低洼、水流不畅，以及气候方面的原因，形成了面积较广的沼泽和湿地，如肇源、大安、安达等地都有大片沼泽。松嫩平原是中国重要商品粮生产地区之一。粮食作物以春小麦、玉米、高粱、谷子为主，局部地区栽种早熟的粳稻。经济作物以大豆、甜菜、亚麻为主。
<http://www.hudong.com/wiki/%E6%9D%BE%E5%AB%A9%E5%B9%B3%E5%8E%9F>
- 11 류지원, 1998, 「청대전기 동북의 변성 영고답」, 원광대학교.
- 12 영고대유적 비문 번역.
- 13 해랑하가 이곳을 감싸 들고 있어서 ‘긴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14 옛 영고답유적지 비문 번역.
- 15 양정석, 2007,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5경과 영역변천』, 동북아역사재단.
- 16 발해 5개의 주요 교통로: 장령-영주도, 압록-조공도, 부여-거란도, 남해-신라도, 용원-일본도; 채태영, 1998, 『발해사연구』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17 이병건, 2007, “발해의 교통로와 24개 돌유적의 기능”, 『발해5경과 영역변천』, 동북아역사재단.
- 18 《만구24괴석유지(灣溝24塊石遺址)》 표지석의 내용 번역.
- 19 중국은 2010년 가을, 북한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비를 새롭게 세웠다. 단동의 경계비

를 1호로 백두산 남파의 4호비는 36호 경계비로, 백두산 서파의 5호비는 37호 경계비로 새로운 번호를 붙였다. 경계비에는 2009년에 비를 새로 세운 것으로 년도가 표기되어 있으나 현지 직원의 증언과 2010년 이 지역을 답사했을 때, 두만강 상류의 경계비가 21호였던 것을 미루어 볼 때 2010년 가을에 경계비의 번호가 새롭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白頭山定界碑資料(奎2521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白頭山定界碑勘界使交涉報告書(奎2630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洪世泰, 白頭山記(古4790-47)
東史綱目
南九萬, 1723, 藥泉集
承文院 편, 1788, 同文彙考.
萬機要覽
備邊司臚錄
承政院日記
我邦疆域考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增正交隣志
海東釋史
평안도 및 함경도의 각 군현읍지 및 도지, 전국지리지
古今圖書集成
盛京通志
四庫全書
皇輿全覽圖
欽定滿洲源流考
欽定盛京通志

2. 단행본 및 보고서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全集編纂委員會 편, 1972, 六堂 崔南善全集 3.
朝鮮常織問答·朝鮮常織; 6, 白頭山觀參記 金剛禮讚 外, 현암사.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공우석·이민부 외, 2002,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과학기술출판사, 1992, 백두산 총서.
국립중앙박물관, 2005, 옛 삶의 모습, 고지도.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회도서관, 1976,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김득황, 1988, 백두산과 북방강계-압록강과 두만강은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사사연신서 12), 사사연.
김득황, 2005, 만주의 역사와 간도 문제, 남강기획출판부.
김봉남, 1990, 백두산은 우리 고향, 평화사.
김일기, 양보경, 김덕순, 오경섭, 이민부, 정연숙, 김지홍, 1997, 백두대간의 개념정립과 실태조사 연구, 산림청.
김정배·이서행 외, 2010,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김정태, 1989, 천지의 흰눈을 밟으며(케른산악문고 1), 케른.
김지남 외,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혜안.
김태준·이승수·김일환, 2005,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여행길을 가다, 푸른역사.
남구만 저·성백효 역, 2008, 약천집(藥泉集), 지만지고전선집 296, 지만지.
남주성 역, 2010, 흥정 만주원류고(상, 하), 글모아.
동북아역사재단, 2006, 백두산정계비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07, 백두산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몽블랑·몽베르뒤 사례조사 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9, 근대만주자료의 탐색.
문화재청, 2008, 한국의 옛 지도.
박인호, 2003,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문화사.
박정혜·이예성·양보경, 2005,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박찬교, 1993, 백두산-그 형성과 역사, 자연, 생태계, 한겨레신문사.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배우성·구범진 역, 2008, 국역『同文彙考』疆界史料, 동북아역사재단.
배우성·구범진 역, 2008, 국역『同文彙考』犯越史料, 동북아역사재단.

白頭山定界碑, 1990, 景仁文化社(影印).
 백산학회, 2000, 間島 領有權 問題 論攷, 백산자료원.
 서길수, 2009, 백두산 국경 연구, 여유당.
 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찬 기증 우리 옛 지도.
 연합통신 편, 1991, 백두산-중국 속의 한국 연합통신.
 영남대학교박물관, 2008, 韓國의 옛 地圖.
 汪前進 輯, 2007, 淸廷三大實測全圖集, 外文出版社.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0, 間島의 領有權問題: 中國의 입장.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1, 間島에 관한 歷史地理資料/ 韓國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編. v.1 : 이수전 편「장백회징록」, 外務部.
 유적·마대정 저, 조세현 역, 2007, 중국의 국경 영토 인식 :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유종열, 1992, 백두산-한민족의 영산, 대왕사.
 이서행·정치영, 2011,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순갑, 1990, 백두산 천지에서서 만리장성까지, 문정출판사.
 이명원, 2005, 18세기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영유권 문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희, 2011, 북·중 접경지역 -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이영노, 1991, 백두산의 꽃, 한길사.
 이은방편, 1990, 백두여 천지여(아름문고), 삼성미디어.
 이재은, 2011,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 티메카코리아웹사이트 소재 지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찬,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이화자, 2008, 朝淸國境問題研究, 집문당.
 이화자, 2011, 한중국경사 연구, 해안.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2010, 범월과 이산-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하대학교 출판부.
 장성규, 2007, 백두대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中國地圖出版社, 2006, 黑龍江省地圖冊.
 中國地圖出版社, 2007, 吉林省地圖冊.
 中國地圖出版社, 2008, 遼寧省地圖冊.
 진태하, 1986, 아! 백두산, 교보문고.
 丁興旺, 1982, 白頭山天池, 北京地質出版社.
 朝鮮總督府, 1918, 白頭山植物調查書, 朝鮮總督府.
 曹婉汝 외, 1995, 中國古代地圖集:明代, 중국 文物出版社.
 曹婉汝 외, 1997, 中國古代地圖集:淸代, 중국 文物出版社.
 최남선 지음, 정재승·이주현 역주, 2008,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자클럽 편, 1991, 백두산대탐사, 한국교육문화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韓國學資料叢書 二.
 한영우 외, 1997,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황상구·김백록, 2011, 백두산의 화산지질, 한국학술정보.
 中國星球地圖出版社, 2010, 黑龍江 吉林 遼寧 交通圖冊.

3. 논문

강석화, 1996, “한국사에서의 북방 영토 문제;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 한국사연구, vol.96, 한국사연구회, pp.121~134.
 강석화, 1997, “白頭山 定界碑와 間島”, 韓國史研究 제96호, 한국사연구회, pp.121~134.
 강순돌, 2009, 『『백두산행기』에 나타난 윤희수의 장소인식과 지리지식의 유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5, No.1, 한국지역지리학회, pp.99~114.
 김강녕, 2008, “한민족의 영토관과 국경문제”,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vol.23, No.1, pp.1~28.
 김두일, 2006, “20세기 전반 일제의 만주지도 제작현황 - 1:10만 축적 지도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김재용, 2005, “내선일체의 연장으로서의 만주국 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4, 한국근대문학회, pp.308~325.
 김종건, 2007, “백두산, 간도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동북아역사논총, 제18호, 동북아역사재단, pp.65-141.
 노계현, 2002,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경제학보(구-연세경제연구), vol.9, No.1,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pp.1~25.
 박선영, 2003, “사학부 : 혈맹과 선린우호의 함수관계 사이에 남겨진 국경문제: “간도”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vol.48, 한국중국학회, pp.415~437.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vol.32, 중국사학회, pp.199~234.
 박선영, 2008, “중화민국 내 정부 지도로 본 백두산정계비”, 동양사학연구, 제105집, 동양사학회, pp.295~313.
 박인호, 1998, “淸代 中國 지리서에 나타난 對朝鮮 역사지리인식-조선시기 역사지리 연구의 추이와 관련하여”, 경북사학, vol.21, 경북사학회, pp.1001~1024.
 배성준, 2005, “중국의 ‘간도문제’ 연구 동향,”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 연구 동향, 고구려연구재단, pp.79~103.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vol.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339~357.
 배우성, 2005, “홍양호(洪良浩)의 지리인식 - 조선 후기 만주 지리지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vol.100, 진단학회, pp.327~356.

배우성, 2007,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제65집, 부산경남사학회, pp.27~62.

백충현, 1982,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 서울대학교 법학, 23권 4호, pp.17~32.

송기중, 1994, “朝鮮朝 建國을 後援한 勢力의 地域的 基盤”,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pp.85-123.

송용덕, 2007, “고려~조선전기의 백두산 인식”, 역사와 현실, 제64호, 한국역사연구회, pp.127~159.

안창범, 1996,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동양사상의 발생”, 한국종교사연구, vol.7, 한국종교사학회, pp.265~294.

양보경, 1996, “조선시대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 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1996년 여름호(통권 35호), 역사비평사, pp.300~322.

양보경, 1997, “조선시대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 진단학보, vol.83, 진단학회, pp.85~106.

양보경, 1997,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북방 인식”, 지리학연구, vol.29 no.1, 한국지리교육학회, pp.103~122.

汪前進, 2007, “康熙雍正乾隆三朝全國總會的繪制”, 清廷三大實測全圖集, 北京: 外文出版社.

우경섭, 2010, “총론: 범월과 이산의 공간, 만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범월과 이산-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하대학교 출판부, pp.9~16.

柳永博, 1972, 俄国輿地圖, 国学資料, 創刊号, 문화재관리국, pp.18~21.

유지원, 1999, “청대 전기 동북의 변성 영고탑”, 명청사연구 10, 명청사학회, pp.37~52.

윤휘탁, 2005,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고구려연구재단 편,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pp.10~23.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제30권 제3호 (통권 108호), pp.91~118.

이강원, 2007, “조선 초 기록 중 ‘豆滿’ 및 ‘土門’의 개념과 국경인식”, 문화역사지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제19권 제2호, pp.45~57.

이강원, 2010, “『大東輿地圖』 白頭山·豆滿江일대에 표시된 몇 가지 地名의 검토 -國境認識 位置, 語源 및 誤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6 no.5, pp.474~496.

이상태, 1996, “白頭山定界碑 설치에 관한 연구”, 實學思想研究 第7輯, 역사실학회, pp.87~119.

이상태, 2007,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歷史와實學 第33輯, 역사실학회, pp.75~119.

이선근, 1962, “백두산과 간도문제 - 회상되는 우리강역의 역사적 수난”, 역사학보, vol.17, 역사학회, pp.547~570.

이성환, 2007,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의 간도문제 인식”, 역사와경계 제65집, 부산경남사학회, pp.63~92.

이수미, 2002, “《咸興內外十景圖》에 보이는 17세기 實景山水畫의 構圖”, 미술사학연구, 제233·234호, pp.37~62.

이은자, 2008, “한중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시아문화연구 제14집, 강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153~200.

이일걸, 1996, “間島紛爭과 國際關係”, 韓國政治外交史論叢 第14輯,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p.207~251.

이 찬, 1984, “백두산의 자연지리조건과 인문환경”, 북한 제 152호, 북한연구소, 페이지 이화자, 2008, “명청시기 중한 지리지에 기술된 백두산과 수계”,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3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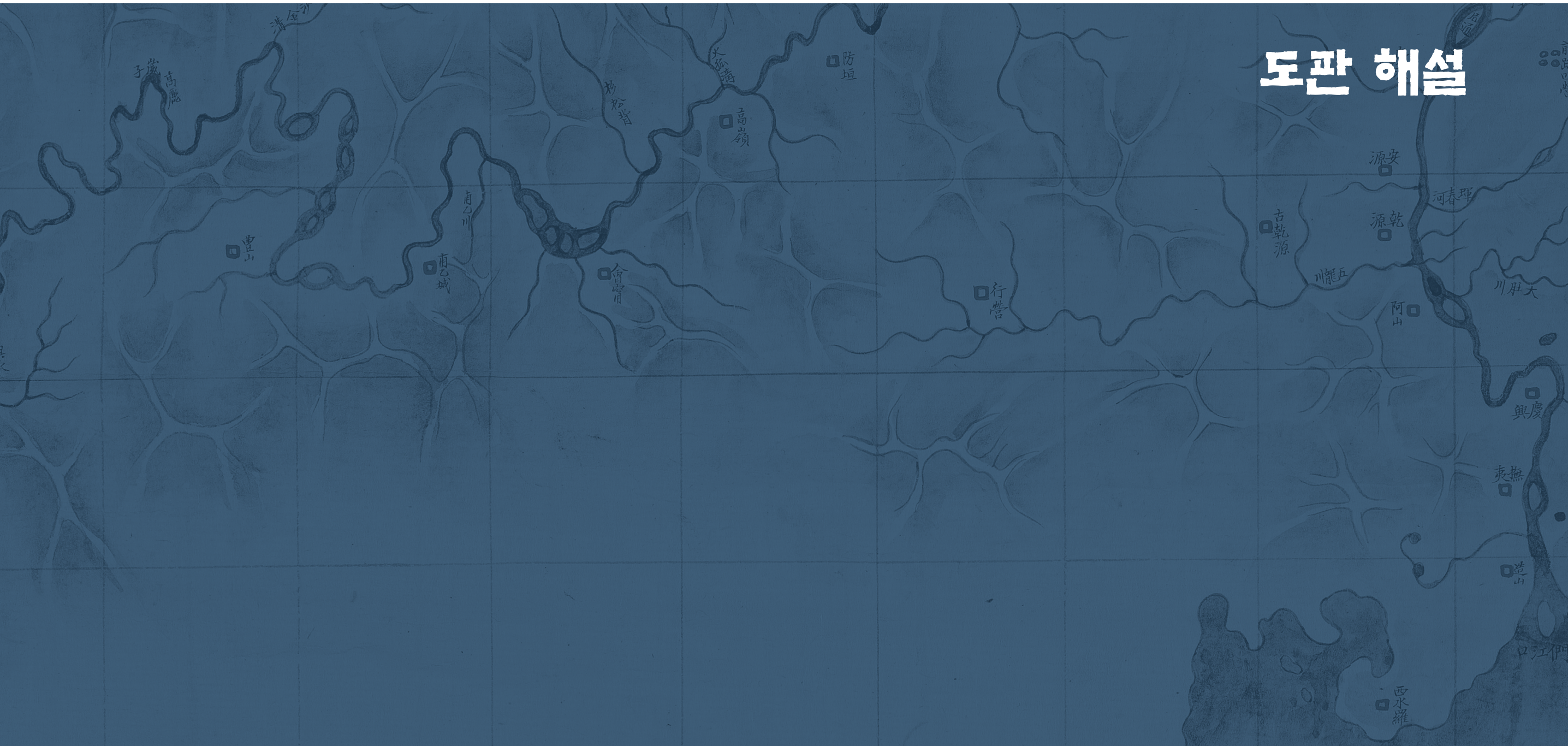
최영광, 1984, “백두산 영유권선언”, 북한 제 152호, 북한연구소, 페이지 최장근, 2003, “한중일 3국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 -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기(1905년 전후)”, 일어일문학 제19권, 대한일어일문학회, 2003. 5, pp.215~244.

최장근, 2009, “일제의 간도정책에 관한 성격 규명”, 일어일문학 제43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53~364.

홍영국, 1990, “백두산의 지질”, 지질학회지, 제26권 2호, 대한지질학회, pp.119~126.

III

도판 해설



| 양계지방 지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만주



도판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162.2×191.4cm, 보물 제1537호,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61-77)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북방지역 관방지도關防地圖이다. 지도 제목의 ‘피아彼我’는 청과 조선을 뜻한다. 조선의 서북지방과 중국의 만주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렸다는 제목의 의미처럼 이 지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교통망과 군사 요충지, 지명 등을 표시하고, 여백의 설명 주기에 만주지방의 연혁과 우리 민족의 옛터임을 밝혔다. 주기에는 심양, 요양, 건주를 청대에 각각 성경, 동경, 흥경으로 개명한 사실도 기술하였다. 백두산 상단에 『대명일통지』(明志)를 인용해 백두산의 웅장함을 묘사했는데, “가로로 천여리를 뻗치고 높이가 200백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산 위에는 연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남쪽으로 압록강이, 동쪽으로 두만강이, 북쪽으로 혼동강이 흐른다”고 하였다. 산해관山海關에서 시작하는 유조변柳條邊과 변문邊門, 요동변장遼東邊牆도 자세히 그렸다. 지도상에는 두 개의 연행로가 표시되어 있다. 1665년부터 1678년까지의 ‘연산관→성경→우가장→광녕→산해관’의 구舊노선을 엮은 붉은색 선으로 그리고, 1679년 이후 확정된 ‘의주→압록강→구련성→탕참→봉황성→요양→심양→광녕→산해관’의 새로운 노선은 굵은 붉은색 선으로 표시했다. 현재 흑룡강성黑龍江省 해림시 장정진 고성촌海林市 長汀鎮 古城村 서쪽 동구촌東舊村에 위치하고 있는 영고탑寧古塔에서 오라, 성경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표시되어 있다. 영고탑 아래에 경하鏡河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안에 삼산三山이 위치한다. 주기에는 “넓이가 5~6리, 길이가 70리에 달하며, 삼산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호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서 수리에 걸쳐 들린다”고 표기되어 있다. 현재 흑룡강성 동경성진에서 201번 국도를 따라 돈화로 향하는 길에 경박호鏡泊湖가 이어진다. 길이 45km, 동서 넓이 6km, 면적 95km²의 이 거대한 호수는 5차 화산 폭발 시기, 용암이 하류를 막아 형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산폭발용암언쇄호이면서 2번째로 큰 고산호수이다. 2011년 5A 국가급 여행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두만강 북쪽에 ‘선춘령先春嶺’과 ‘고려경高麗境’을 적고, 고려 윤관 장군이 선춘령을 넘어 공협진에 세운 ‘철뾰’자 모양의 고려경비를 그리고 ‘윤시중입비처 고려경尹侍中立碑處 高麗境’이라 표기하였다. 명대의 요동 변장, 청대의 유조변 등 주요 시설 뿐 아니라 연행로, 교통로와 교통로상의 주요 도시 등 18세기 만주지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④ 정계비+분계강원+분계강+두만강+훈춘강

백두산 천지天池를 나타낸 ‘대택大澤’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정계비가 있고,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이 흐른다. 또, 백두산 대택大澤 바로 아래 그려진 소백산과 산맥으로부터 ‘토문강원土門江源’과 ‘소홍단수小紅丹水’를 포함한 4개의 하천이 흘러나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온성穩城 부근에서 ‘분계강分界江’과 합해 ‘두만강豆滿江’으로 합류된다. 한편, 공협진과 선춘령에 그린 윤관의 비 부근에서 ‘훈춘강訓春江’이 흘러나와 ‘경원慶源’ 부근에서 ‘두만강豆滿江’과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간다. 두만강은 토문강에서 발원하고, 토문강원과 분계강을 각각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토문강이 아닌 분계강이 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표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과 1강설을 드러낸다. ‘동위토문’을 경계로 삼은 정계비의 내용대로라면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과 합류하는 토문강을 국경선이라 할 수 있으나, 지도에 표현된 분계강과 선춘령은 더 확대된 북방영역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중하는 1885년 토문강이 북향한다고 주장했으나, 1887년 현실적 타협안으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가정하더라도 두만강의 최상류인 홍토수를 그 수원으로 주장한 바 있다.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는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일허투하)까지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2**《서북양계도 西北兩界圖》**

18세기, 채색필사본, 154.0×169.3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447).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과 중국의 만주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관방지도인 《서북피아양계 만리일람지도》 계열 지도 중 가장 아름다운 지도 중의 하나이다. 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만주의 흑룡강으로부터 서쪽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길게 세워진 성책과 도로를 따라 설치된 역참, 군사기지의 성격을 지닌 진보(鎭堡) 등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서북피아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와 유사한 지도이다. 두 지도의 차이 중 하나는 연행로이다. 규장각본에는 연행로의 구(舊)노선과 1679년 이후 확정된 새로운 노선 두 개가 모두 그려져 있으나 천리대본에는 새로운 노선만 표현되었다. 둘

도판 3**《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150.6×202.2cm, 보물 제153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22A).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제작된 대표적인 북방 관방지도이다.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또는 《서북피아양계전도》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사본들이 여러 본 남아 있어, 18세기에 청과의 관계 속에서 유행했던 지도임을 보여 준다. 이 계열의 지도 중 천리대본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솜씨를

재, 규장각본은 회령에서 영고탑, 오리를 지나 성경으로 가는 노선이 자세하여 청과의 왕래를 짐작할 수 있지만, 천리대본에는 영고탑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 이 지도는 강렬한 초록빛 산지 표현이 특징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백두산 산봉우리의 흰 눈이 내려 웅장함과 멋스러움이 한 층 더 빛난다. 백두산 남동쪽에 정계비가 있다.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의 수원이 되는 여러 줄기의 하천이 발원한다.

자랑하는 지도 중의 하나이다. 이 지도는 산지, 하천, 바다를 청색 계열로 채색해 차갑고 통일된 느낌을 준다.

→ [도판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참고.

도판 4

《서북계도 西北界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23.5×17.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89).

중국의 동북부 지방(만주 지방)과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을 포함하는 변경지도邊境地圖로 모두 6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도는 중국과 한국의 변경 지역과 만주 일대를 그린 전도 가운데 가장 상세한 지도이다. 이는 청나라 강희제康熙帝의 명으로 수행된 중국 전국 측지사업(1708~1716)과 그를 바탕으로 1718년에 완성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의 만주 부분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지도의 서쪽은 중국의 북경北京과 산둥반도山東半島를 포함하고 동북쪽은 흑룡강黑龍江에 이른다. 산해관山海關에서 시작하는 유조변과 변문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의주義州에서 봉황성鳳凰城과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연행로와 영고탑寧古塔에서 개원開元을 거쳐 성경盛京(심양瀋陽)에 이르는 경로와 주요 경유지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분은 평안·함경·황해의 북부 3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성城·진鎭·보堡를 상세히 그렸고, 대안對岸의 만주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해란하·포이합토하·토문강+건을가퇴강(풍계강우분계강)+두만강

‘백두산白頭山’ 바로 아래 ‘장백산長白山’이 있고 그 아래로 소백산小白山이 있다. 장백산長白山에 천지가 있는데 명칭은 없고 ‘주40리’라는 표기가 있다. ‘토문강土門江·토문강색금土門江色禽’이라는 표기와 함께 천지에서 북쪽으로 하천이 흐르다가 끊긴다. 토문강이 끊긴 부근에서 다시 ‘해란하海蘭河’, ‘포이합토하卜爾哈土河’ 두 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다른 강 ‘토문하土門河’와 만나 ‘건을가퇴강件乙加退江·풍계강 그리고 분계강豐界江又分界江’으로 합류하여 두만강과 만나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해란하, 포이합토하 그리고 이 두 강과 합류하는 토문하는 각각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 연길시延吉市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그리고 알아하嘎呀河이다. 해란하海蘭河는 연길시延吉市 장동長東 부근에서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와 합류한다. 그리고 합류된 두 물줄기는 길림성 도문시吉林省 圖們市에서 알아하嘎呀河와 만난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5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

이이명(李頤命), 1706년, 채색필사본, 241.5×64.5cm, 보물 제154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90-91).

‘요계遼薊’는 요동과 북경을 가리킨다. ‘요계관방지도’란 요동에서 북경지방까지의 군사 형세도를 그린 지도라는 뜻이다. 이 지도는 1706년(숙종 32)에 이이명李頤命(1658~1722)이 제작하여 왕에게 올린 것으로, 관방지도의 백미로 뽑힌다. 이이명은 1705년에 청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구입해온 『주승필람 籌勝必覽』 속에 들어 있는 <요계관방도>와, 동행한 화사를 시켜 모사한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에 우리나라 관방의 중요한 부분을 합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동쪽 끝으로 우수리강, 북쪽 끝으로는 흑룡강을 그렸으며 바다의 파도는 규칙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다. 만리장성은 깃발까지 세밀하게 묘사했고 유조변에는 변문은 물론 길이 교차하는 부분에 유조변을 통과하는 통로까지 그렸을 정도로 자세하다. 대폭의 10폭 병풍 비단에 펼쳐진 치밀한 구성력과 강직하면서도 세련된 필묘筆妙, 청록산수기법으로 표현된 산악의 장식적인 효과는 지도에 예술성을 더해준다. 지도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회화성도 뛰어난 작품이다. 영조 때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보물 제1537호)와 함께 북방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을 알 수 있다. 제작자와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회화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정계비+홍토수+두만강

다른 산들은 모두 녹색과 청색으로 그렸는데, 백두산은 흰색의 큰 봉우리를 이루는 산으로 표현하였다. “명일통지에 이르기를, 천여 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2백리이다 明志曰橫亘千餘里高二百里”라고 천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백두산 남쪽 장백산의 산 정상 부근도 흰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천지 북쪽으로 두 개의 하천이 흘러서 흑룡강으로 합류한다. 두만강의 수원으로는 가장 북쪽의 홍토수(홍토수의 ‘토’ 부분의 박락이 심해서 글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홍토수로 추측됨)가 천지에서 동류하여 두만강과 합류한 후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정계비 설치 이전에 제작된 이 지도로 토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 밖에 있는 고려경高麗境, 선춘령先春嶺은 고토의식의 심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도판 6

《해동지도 海東地圖》중 〈조선여진분계도 朝鮮女眞分界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47.5×30.0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해동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집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찬 군현지도집이다. 제8책의 팔도총도와 제 4책의 서북피이양계전도는 회화식 대형 전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도들은 도별도, 각 도의 군현지도, 도내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여진분계도 朝鮮女眞分界圖〉는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지대를 그린 지도이다. 북쪽으로 흑룡강, 동쪽으로 연해주 일대, 남쪽으로는 조선 국경, 서쪽으로는 요동변장의 일부와 유조변을 그렸다. 의주 건너편으로 조선 사신들이 출입하던 책문이 보인다. 평안도의 군현명은 적색 장방형 안에, 함경도는 황색 장방형 안에 표기했다. 백두산은 독립된 산으로 표현되지 않고 의무려산에서 시작되는 한 줄기 산맥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국의 영고탑과 오라를 거쳐 성경까지의 노선이 붉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고탑 아래에는 경하鏡河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안에 삼산三山이 위치한다. 주기에는 “넓이가 5~6리, 길이가 70리에 달하며, 삼산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호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서 수리에 걸쳐 들린다”고 표기되어 있다. 현재 흑룡강성 동경성진에서 201번 국도를 따라 돈화로 향하는 길에 경박호鏡泊湖가 이어진다. 길이 45km, 동서 넓이 6km, 면적 95km²의 이 거대한 호수는 5차 화산 폭발 시기, 용암이 하류를 막아 형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호수이면서 2번째로 큰 고산호수이다. 2011년 5A를 받은 국가급 여행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토문과 관련해서는 정계비 건립 이후 심화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국경 밖에 있는 고려경高麗境, 선춘령先春嶺의 위치는 고토의식의 심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2강+공백(고려경)+두만강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은 백두산 위에 주기가 있는데, “명일통지에, 천여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2백리이다. 산 위에는 연못이 있으며, 둘레가 80리이다. 동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고, 남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며, 북으로 흘러 혼동강이 된다 明志曰橫亘千餘里高二白里. 山上有澤, 周入八十, 東流爲豆滿江, 南流爲鴨綠江, 北流爲混同江”고 기록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두 줄기의 하천이 흘러나와 ‘후춘강後春江’과 합류하여 두만강豆滿江로 흘러 동해바다로 들어간다. ‘후춘강後春江’은 ‘훈춘강訓春江’의 다른 표현으로 ‘고려경高麗境’이라 표기된 선춘령先春嶺 부근에서 발원한다. 명일통지에 명기된 토문강을 두만강의 원류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만강과 합류하는 공험진 선춘령 부근의 훈춘강訓春江와 고려령 지역에 대한 고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백두산 동쪽 조청간의 분계에 대한 뚜렷한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도판 7

《전세보 傳世寶》중 〈조선·만주지도 朝鮮·滿州地圖〉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26.3×15.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974).

세상에 전하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세보》는 〈천문도〉, 〈중국도〉, 〈조선전도〉, 중국 각 지역도, 중국 역대국의 보계도 譜系圖, 주역의 하도 河圖, 낙서 洛書, 팔괘 八卦, 병법의 진도 陣圖 등과 같은 다양한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가는 붓으로 미세하고 정교하게 그렸다. 《전세보》중 조선 체와 중국의 동북부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보통 산해관부터 중국의 동북부지역을 그린 지도의 경우 조선의 북부지역만을 그리는데, 이 지도에는 조선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현재 흑룡강성에 거주하던 해서여진 海西女眞을 해서이 海西夷, 지린 성의 건주여진 建洲女眞을 건주이 建洲夷로 표기했고, 만주 최북방의 생여진 生女眞도 표기했다. 마치 만리장성처럼 보이는 요동변장이 남아있고, 해서이·건주이와 같은 청 건국 이전 여진족의 명칭 표기를 통해 지도의 내용이 청 건국 이전의 상황을 담고 있

도판 8

《해동지도 海東地圖》중 〈요계관방도 遼薊關防圖〉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해동지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편찬한 군현지도집이다. 여기 수록되어 있는 〈요계관방도〉는 1706년(숙종 32) 이이명이 편찬한 《요계관방도》 사본이다. 이이명은 1705년 청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구입한 『주승필람 籌勝必覽』 속에 들어 있는 〈요계관방도〉와 동행한 화사를 시켜 모사한 《산동해방지도 山東海防地圖》에 우리나라 관방의 중요한 부분을 합하여 《요계관방도》를 제작하였다. 동쪽 끝으로 우수리강, 북쪽 끝으로는 흑룡강과 영고탑 유역까지 표현하였다. 만리장성은 깃발까지 세밀하게 묘사했고 유조변에는 변문은 물론 길이 교차하는 부분에 유조변을 통과하는 통로까지 그렸을 정도로 상세하다. 명나라 말기의 방어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정계비+홍일수+두만강

녹색 큰 봉우리를 이루는 백두산 위에 “명일통지에 이르기를, 천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2백리

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모습도 북쪽 지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조선전기의 전도 형태를 보여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백두산 남서쪽에 함경도의 장백산과는 다른 중국의 장백산이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압록강 유로의 6분의 1정도 되는 매우 짧은 두만강이 동쪽으로 흐른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 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다. 산 위에는 연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남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며, 동으로 흘러 토문강이 되고, 북으로 흘러 혼동강이 된다. 明志曰橫亘千里高二百里, 其頭有澤, 周八十里, 南流爲鴨綠江, 東流爲土門江, 北流爲混同江”라고 천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이 기록 중 “동으로 흘러 토문강이 된다 東流爲土門江”는 부분은 실제 명일통지의 구절, 그리고 이이명의 《요계관방도》 “동으로 흘러 두만강이 된다 東流爲豆滿江”는 부분에서 두만강이 토문강으로 변형되었다. 정계비의 내용 동위토문을 인식하고 기록한 듯 보인다.

두만강의 수원으로는 가장 북쪽의 홍토수 紅土水, 중간의 석을수 石乙水, 가장 남쪽의 홍단수 紅丹水가 있는데 지도에서는 가장 북쪽의 홍일수 紅一水(홍토수의 오기로 보여짐)가 천지에서 동류하여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정계비 설치 이전에 제작된 이 지도에는 토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 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 밖에 있는 고려경 高麗境, 선춘령 先春嶺을 통해 고토의식의 심화를 엿볼 수 있다.

도판 9

《여지대전도 輿地大全圖》 중 [요계관방지도 遼薊關防地圖]

1725년, 채색필사본, 27.8×19.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4).

《여지대전도》의 표제와 함께 ‘한천정사주인 경제寒泉精舍主人 敬題’라고 제작자가 표기되어 있다. 1책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지대전도》는 <요계관방지도 遼界關防地圖>, <성경전도 盛京全圖> 그리고 경기도 군현도를 함께 수록한 경위선표가 없는 군현지도책이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요계관방지도>는 요동에서 북경지방까지의 군사형세도로 《해동지도》중 <요계관방도>, 이이명의 《요계관방도》와 표현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비슷하다.

도판 10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서북피아양계전도 西北彼我兩界全圖>

1750년대, 채색필사본, 181.0×228.0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해동지도》 제 4책에 수록된 대형 채색지도로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과 중국의 만주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관방지도다. 지도 제목의 ‘피아彼我’는 중국 청나라와 조선을 의미한다. 청나라의 침입에 대한 방비를 목적으로 제작된 일종의 군사지도로 유사한 사본이 현재 여러 본 남아있다. 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만주의 흑룡강으로부터 서쪽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길게 세워진 성책과 도로를 따라 설치된 역참, 군사기지의 성격을 지닌 진보鐵堡 등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방위의 배치가 독특한데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지 않고 국토의 좌향坐向인 해좌사향亥坐巳向(북서북-남동남)을 상하의 축으로 삼았다. 흰색의 웅장한 백두산은 성스러움을 강조했고 다른 산들은 녹색으로 연이어 산맥으로 표현했다. 도로는 대로와 소로의 굽기를 다르게 그려서 위계를 나타냈다. 특히 회령에서 영고담, 오리를 지나 성경으로 가는 노선과, 연행로를 통해 청과의 왕래를 짐작할 수 있다. 연행 노선은 조선 조정과 사신들이 자유롭게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중국 황제가 정해놓은 이른바 진공로進貢路였다. 연행로의 변화는 바로 중국 정치의 변동을 뜻하며, 한·중 관계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변화했다. 1644년(인조 22) 청나라가 입관한 뒤 사신은 북경까지 걸어야 했다. 현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토문강

《해동지도》의 <요계관방도>, 이이명의 《요계관방도》와 백두산 부분의 표현이 상이하다. 홍경 변문 부근에 여러 봉우리로 연결된 ‘장백산長白山’이 있고, 장백산 북쪽으로 혼동강이 흘러나간다. 장백산 동남쪽으로 명칭을 표기하지 않은 백두산이 있다. 백두산 북쪽에서 토문강이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남해南海’라고 표기된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중국의 장백산과 조선의 백두산을 각각의 다른 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백두산정계비 ‘동위토문’의 토문을 인식하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 6년(1665) 심양에 盛京府(성경부)가 설치될 때까지, 조선 사신은 연산관(아골관(鴉鶴關))에서 심양을 거치지 않고 鞍山(안산), 廣寧(광녕)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다. 이 길을 ‘아골대로’라고 부른다. 성경부에 봉천장군이 주재하게 되자, 조선 사신은 여기에 공물의 일부를 바쳐야 했다. 그래서 숙종 4년(1678)까지는 연산관에서 성경까지 올라갔다가 우가장→광녕→산해관으로 내려오는 길을 걸어야 했다. 숙종 5년(1679) 강희제는 바다를 방어하기 위해 우가장에 진지를 쌓았고, 보안을 위해 조선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그리고 심양에서 小黑山(소흑산)을 돌아 광녕에 이르도록 했다. 이로써 요양에서 심양, 광녕廣寧을 거쳐 산해관에 이르는 기본 연행 노정이 확정되었다. 지도상에는 두 개의 연행로가 표시되어 있다. 1665년부터 1678년까지의 ‘연산관→성경까지→우가장→광녕→산해관’의 구舊노선을 엮은 붉은색 선으로 그리고, 1679년 이후 확정된 ‘의주→압록강→구련성→탕참→봉황성→요양→심양→광녕→산해관’의 새로운 노선은 굵은 붉은색 선으로 표시했다.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던 해로를 술가지처럼 독특하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④ 백두산+건을가토강+두만강

백두산의 천지를 대택大澤이라 표기하였고, 백두산과 혼동강混同江의 지류 부분에 “산 위에는 연못이 있으며, 둘레가 80리이다. 동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고, 남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며, 북으로 흘러 혼동강이 된다山上有澤, 周入八十, 東流爲豆滿江, 南流爲鴨綠江, 北流爲混同江”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백두산의 동쪽에는 “명일통지에 이르길, 천여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2백리이다明志曰橫亘千餘里高二百里”라고 천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백두산 ‘대택大澤’에서 북동쪽은 ‘흑룡강黑龍江’으로, 서남쪽은 ‘압록강鴨綠江’으로 흐른다. 백두산 동남쪽 정계비 부근에서 두만강이 발원하고, 백두산 동북방향으로 건을가토강件乙加土江(건가퇴강, 포얼허투하)과 분계강分界江 두 강이 발원한다. 건을가토강과 분계강은 감토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합류

도판 11

《각국도 各國圖》중 〈서북피아교계도 西北彼我交界圖〉

19세기, 채색필사본, 47.8×60.3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각국도》는 1책 32장의 세계지도와 중국도로 구성된 화려한 채색의 회화식지도이다. 표제는 『각국도 부 천하총도십육성도各國圖附天下總圖十六省圖』다. 〈천지전도天地全圖〉, 〈천하총도天下全圖〉, 〈북경노정기〉, 〈연경성시도〉, 〈서북피아교계도西北彼我交界圖〉, 〈장성이북도〉, 〈열하전도〉, 〈성경전도〉, 그리고 중국 17성省을 그린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서북피아교계도〉는 병사兵使 조윤성曹允成이 소장하고 있던 관방지도를 모사한 것이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양안 지역을 자세히 그렸다. 만주지역은 흑룡강 연안까지 포함하였으며 함경도 온성에서 중국의 영고담과 오라를 거쳐 성경까지의 노선이 붉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고담 아래에는 경하鏡河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안에 三山이 위치한다. 주기에는 “넓이가 5~6리, 길이가 70리에 달하며, 삼산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호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아서 수리에 걸쳐 들린다”고 표기되어 있다. 현재 흑룡강성 동경성진에서 201번 국도를 따라 돈화로 향하는 길에 경박호鏡泊湖가 이어진다. 길이 45km, 동서 넓이 6km, 면적 95km²의 이 거대한 호수는 5차 화산 폭발 시기, 용암이 하류를 막아 형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호수이면서 2번째로 큰 고산호수이다. 2011년 5A를 받은 국가급 여행관광지로서 지정되었다. 이 밖에 유조변장을 그렸으며 선춘령 일대에는 고려 윤관 장군이 선춘령을 넘어 공협진에

한 후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과 함께 동해바다로 흐르다가 경원 부근에서 유입되는 ‘후춘강後春江’과 함께 동해바다로 향한다. ‘훈춘강訓春江’의 다른 표현인 ‘후춘강後春江’은 ‘고려경高麗鏡’이라 여겨왔던 선춘령先春嶺 부근에서 발원한다.

공협진 선춘령 부근의 훈춘강訓春江와 고려령 지역에 대한 고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를 건을가토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로 나타내고 있다.

세운 ‘철凸’자 모양의 고려경비를 그리고, ‘윤시중입비처 고려경尹侍中立碑處 高麗境’이라 표기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④ 백두산+분계강+두만강

백두산의 천지를 대택大澤이라 표기하였고, 백두산과 혼동강混同江의 지류 부분에 “산 위에는 연못이 있으며, 둘레가 80리이다. 동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고, 남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며, 북으로 흘러 혼동강이 된다山上有澤, 周入八十, 東流爲豆滿江, 南流爲鴨綠江, 北流爲混同江”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백두산의 동쪽에는 “명일통지에 이르길, 천여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2백리이다明志曰橫亘千餘里高二百里”라고 천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백두산 ‘대택大澤’에서 북동쪽은 ‘흑룡강黑龍江’으로, 서남쪽은 ‘압록강鴨綠江’으로 흐른다. 동남쪽으로는 ‘분계강分界江’과 ‘두만강豆滿江’ 두 개의 수계가 온성 부근에서 합류하여 두만강으로 흐르다가 경원 부근에서 유입되는 ‘후춘강後春江’과 함께 동해바다로 향한다. ‘훈춘강訓春江’의 다른 표현인 ‘후춘강後春江’은 ‘고려경高麗鏡’이라 여겨왔던 선춘령先春嶺 부근에서 발원한다.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지도이지만 정계비와 토문은 없다. 지도에서 중국과 조선의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다. 오히려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

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를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로 나타내고 있다.

도판 12

《영고탑총람도 寧古塔總覽圖》

1741년, 채색필사본, 20.3×12.4cm, 국립중앙도서관(古2702-5).

표제는 『영고탑도寧古塔圖』이고 내제는 「영고탑총람도寧古塔總覽圖」이다. 지도의 표지에 ‘신유 오월도辛酉五月圖 서우북영書于北營’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조正祖 즉위년(1776)에 초산楚山으로 개명한 평안북도의 이산理山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776년 이전이므로 영조英祖 17년(신유辛酉, 1741)에 북도절도사행영北道節度使行營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쪽은 심양瀋陽, 동쪽은 흑룡강 하구, 남쪽은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만주 동북부 지방의 산계山系와 하계河系, 교통로를 표시한 지도인데 중심에 백두산이 있다. 현재의 흑룡강성黑龍江省 해림시 장정진 고성촌海林市長汀鎮 古城村 서쪽 동구촌東舊村에 위치하고 있는 영고탑寧古塔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로交通路와 거리 또는 일정日程을 옆에 병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군현郡縣과 행영行營이 표시되어 있고, 백두산의 대택大澤에서 흑룡강이 발원하고 있다. 영고탑寧古塔은 동해東海에서 7백리이고, 후춘부탑後春部塔은 동해에서 5백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회령에서부터 영고탑까지는 7~8일정日程이고, 현재의 길림인 오라烏喇까지는 11일정日程이다. 지도의 여백에는 그 지역의 생활상의 단면을 짧게 기록하고 있으며, 흑룡강 북쪽의 몽고족은 유류乳類와 낙죽駱粥을 주식으로 하며 10일에 한 번 정도로 곡물을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④ 백두산+분계강+두만강

지도의 중심에 있는 영고탑 서남쪽의 백두산은 지도에서 가장 크게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 ‘대택大澤’에서 북동쪽으로는 ‘흑룡강黑龍江’이, 서남쪽으로는 ‘압록강鴨綠江’이 흐른다. 동남쪽으로는 ‘분계강分界江’과 ‘두만강豆滿江’ 두 개의 수계가 온성 부근에서 합류하여 두만강으로 흐르다가 경원 부근에서 유입되는 ‘후춘강後春江’과 함께 동해바다로 향한다. ‘후춘강後春江’의 다른 표현인 ‘후춘강後春江’은 ‘고려경高麗鏡’이라 여겨왔던 선춘령先春嶺 부근에서 발원한다.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지도이지만 정계비와 토문은 없다. 지도에서 중국과 조선의 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다. 오히려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를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로 나타내고 있다.

도판 13.**《여도輿圖》중 <영고탑도寧古塔圖>**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43.3×63.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41).

중국 청대 각성의 지도와 <압록강도>·<오라도>·<열하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여도》에 수록된 <영고탑도>이다. 18세기 초 강희제의 명령에 의해 중국 전역을 실측하여 《황여전람도 皇輿全覽圖》가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이후에 경위선을 없앤 형태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 실리게 되었다. 중국 서적 수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정조대(1777년·정조 1)에 『고금도서집성』이 수입되었고 《여도》의 지도들은 『고금도서집성』에 실려 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여도》중 <영고탑도>는 산계와 수계를 비롯하여 표현된 내용이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되어 있는 <영고탑강역도>와 거의 일치한다. 붉은색으로 강조된 영고탑은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서 오라烏喇와 더불어 중요시되던 지역이었다. 청조에서는 영고탑장군을 파견하여 이 지역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영고탑장군은 오

라의 선창성船廠城에 주둔하였다. 지도에는 영고탑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산계와 수계가 비교적 자세한데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인 독립적인 산을 그리지 않고 봉우리들을 연결시켜 그렸다. 북쪽과 동쪽 산지의 수목은 지도의 회화적 요소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하천은 분류뿐만 아니라 지류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토문강

토문강을 사이로 조선과 영고탑을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을 경계 짓고 있다. 토문강을 두만강과 하나의 강으로 인식하여 표현했다.

도판 14**《여지도輿地圖》중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31.8×21.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

《여지도》는 <천하제국도>, <중국도>, <성경여지전도>, <일본도>, <유구국>, <동국팔 도대총>과 팔도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는 동람도형 지도책이다. 이 중 <성경여지전도>는 성경인 심양을 중심으로 산해관 동쪽 유조변지역과 북쪽의 영고탑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산해관에서 길림(오라), 압록강 유역의 봉황성까지 ‘人’ 모양으로 그려진 붉은색의 유조변은 청의 두 번째 수도 성경과 첫 번째 수도 흥경을 감싸안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장백산+토문강

장백산(백두산)에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이 흘러간다. 토문강을 두만강과 하나의 강으로 인식하여 표현했다.

도판 15

《각국도 各國圖》중 〈성경전도 盛京全圖, 청일통지본 淸一統志本〉

19세기, 채색필사본, 33.5×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각국도》에는 조병사윤성본 曹兵使允成本과 청일통지본 淸一統志本 두 장의 〈성경전도〉가 수록되어 있다. 청일통지본은 조병사윤성본보다 하천을 자세히 그리고 지역의 성 城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으며 명칭을 자세히 표기했다. 산해관에서 이어지는 요동변장과 유조변 신변과 노변, 변문, 흑룡강 이남의 영고탑 지역까지 지도에 표현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⑥ 장백산+토문강

백두산을 ‘장백 長白’으로 표기하고, 동쪽 수계로 장백산에서 토문강으로 이어져 바다와 만나지

도판 16

《중국고대각성별전도 中國古代各省別全圖》중 〈성경전도 盛京全圖〉

연대미상, 필사본, 27.0×17.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60).

중국의 성경지방을 비롯하여 각성을 그린 1책 19장으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각각의 지명에 도형 기호를 사용하여 행정상의 위계를 나타냈다. 표지에 윤영수택본 尹鏗手澤本이라 표기된 것으로 보아 윤영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필사의 상태가 정교하고 소축적 지도임에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성경 지역에는 ‘봉천 奉天’이라는 표기를 더하였다. 1670년에 조선된 성경유조변장이 집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만 두만강은 없다. 토문강은 동쪽이 아닌 북동쪽으로 향하여 흐르고 있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⑥ 장백산+도문강

백두산을 ‘장백산 長白山’으로 표기하고, 동쪽 수계로 장백산에서 도문강 圖門江으로 이어져 바다와 만나지만 두만강은 없다. ‘두만강 豆滿江’과 ‘토문강 土門江·圖門江’을 각각 다르게 보고 토문강이 두만강보다 더 북쪽수계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전사하는 과정에서 두만강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7

《화이지계 華夷地界》중 〈성경 盛京〉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7.5×17.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281).

1책 13장으로 구성된 중국華과 오랑캐夷와의 경계를 그린 지도이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성경〉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국도》중 〈성경전도_청일통지본〉과 매우 유사하다. 산해관에서 이어지는 요동변장과 유조변 신변과 노변, 변문, 흑룡강 이남의 영고탑 지역까지 지도에 표현하였다. 《각국도》의 〈성경전도〉에 비해 채색이 화려하지는 않으나 성경 서쪽지역 ‘홍라산 紅羅山’을 붉게 표현하는 등 회화성이 뛰어나고 정갈하게 잘 그린 작품이다.

도판 18

《각국도 各國圖》중 〈성경전도 盛京全圖, 조병사윤성본 曹兵使允成本〉

19세기, 채색필사본, 33.5×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각국도 各國圖》에는 조병사윤성본 曹兵使允成本과 청일통지본 淸一統志本 두 장의 〈성경전도〉가 수록되어 있다. 조병사윤성본은 같은 《각국도》에 수록된 〈천하전도〉의 성경지역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 매우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유조변장 내에 청의 첫 번째 수도 ‘홍경’, 두 번째 수도 ‘동경’, 세 번째 수도 ‘성경’을 모두 표기하여 만주의 중심지역을 모두 표현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⑥ 장백산+토문강

백두산을 ‘장백산 長白山’으로 표기하고, 동쪽 수계로 장백산에서 토문강으로 이어져 남해바다와 만나지만 두만강은 없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⑥ 장백산+토문강

두 지도 모두 백두산을 ‘장백 長白’으로 표기하고, 동쪽 수계로 장백산에서 토문강으로 이어져 바다와 만나지만 두만강은 없다. 같은 지도 책에 수록되어 있는 〈천하전도〉의 성경지역 부분과 완전히 동일한 〈조병사윤성본〉은 〈천하전도〉와 마찬가지로 ‘두만강 豆滿江’과 ‘토문강 土門江’을 각각 다르게 보고 토문강이 두만강보다 더 북쪽수계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전사하는 과정에서 두만강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9

《대한지리도 大韓地理圖》중 <성경도 盛京圖>

18세기, 채색필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천하중국도>, <조선총도>, <성경도> 그리고 팔도의 도별지도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책이다. 1767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필사한 지도로, 표제인 『대한지리도』는 소장자가 후대에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요하(遼河) 유역에 위치한 중국 동북지방 최대의 도시 심양의 이름을 붙인 <성경도>가 첨부된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지도의 범위 안에 성경인 심양은 포함되지 않았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으로 흑룡강 유역까지, 서쪽으로 청의 첫 번째 도읍이었던 흥경까지 포함하여 그렸다. 검은색 세필로 두텁게 칠한 산의 모양이 마치 수염처럼 보이고 푸른 색 강의 자유롭게 묘사된 모습은 지도를 더욱 회화작품처럼 느끼게 만든다.

도판 20

《고지도첩 古地圖帖》중 <성경여지전도 盛京輿地全圖>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34.0×48.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37).

중국·조선·일본 등의 전도와 더불어 <한성(漢城)>, <남한산성(南漢山城)>, <강도(江都)>, <탐라(耽羅)>, <성경지도(盛京地圖)>의 1첩 8절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고지도첩 古地圖帖》에 실린 중국의 성경 일대 지도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과 수록된 내용 등은 중국의 『성경통지(盛京通志)』에 실려 있는 <성경여지전도>와 유사하다. 성경을 중심으로 흥경·영고탑·오라 일대를 포괄하고 성경과 흥경에 있는 왕릉도 표시했다. 청의 수도였던 흥경·요양·성경을 감싸 안은 성경유조변(구변)과 신변이 모두 그려져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영고탑장군이 관할하는 강역을 팔방(八方)으로 나누어 거리를 기록하고 이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을 가늠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검은 수염처럼 묘사된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북쪽으로 혼동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간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④ 장백산+토문강

백두산 북동쪽으로 '흑룡강(黑龍江)', 서남쪽으로 '압록강(鴨綠江)'이 발원한다. 동쪽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이 '남해(南海)'라고 표기된 바다로 유입된다.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의 문구대로 백두산 동쪽으로 토문강이 흐른다. 지도상에 두만강이 없지만, 백두산맥 윗부분에서 동북향으로 이어지는 토문강의 위치는 백두산 아래 동쪽에서 이어지는 현재 두만강의 위치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연결 지역의 포알허투하 위치와 더 가깝다.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여 토문강을 표현하고 있다.

도판 21

《여도輿圖》중 〈성경전도盛京全圖〉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43,3×63,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41).

중국 청대 각성의 지도와 〈압록강도〉·〈오라도〉·〈열하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여도》에 수록된 〈성경전도〉이다. 18세기 초 강희제의 명령에 의해 중국 전역을 실측한 후 《황여전람도黃輿全覽圖》가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이후에 경위선을 없앤 형태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에 실리게 되었다. 중국 서적 수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정조대(1777년·정조 1)에 『고금도서집성』이 수입되었고 《여도》의 지도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유조변을 모두 포함하며 북쪽의 영고탑 지역까지 지도에 그렸다. 같은 책에 수록되어 있는 〈압록강도〉의 압록강 대안지역과 유조변의 표현이 같다. 산계와 수계가 비교적 자세한데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

인 독립적인 산을 그리지 않고, 봉우리들을 연결시켜 그렸다. 북쪽과 동쪽 산지의 수목은 지도의 회화적 요소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하천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장백산+토문강

장백산(백두산)에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이 흘러간다. 토문강을 두만강과 하나의 강으로 인식하여 표현했다.

도판 22

《각국도各國圖》중 〈북경노정기北京路程記〉

19세기,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각국도》는 1책 32장의 세계지도와 중국도로 구성된 화려한 채색의 회화식지도이다. 표제는 『각국도 부 천하총도십육성도各國圖附天下總圖十六省圖』이며 채색필사본이다. 〈천지전도〉, 〈천하총도〉, 〈북경노정기〉, 〈연경성시도〉, 〈서북피아교계도〉, 〈장성이북도〉, 〈열하전도〉, 〈성경전도〉,

그리고 중국 17성省을 그린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북경노정기〉는 의주를 출발하여 2,094리에 걸친 중국까지의 북경 사행 노정을 기록한 자료로, 통과하는 지역의 이름과 지역 간의 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도판 23

《여지도輿地圖》중 <의주북경사행로 義州北京使行路>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59.0×75.0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여지도輿地圖》 제1책에 수록된 <의주북경사행로>는 압록 강변 의주 맞은편에서 북경에 이르는 사신의 연행로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이다. 연행 노정은 조선 조정과 사신들이 자유롭게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중국 황제가 정해놓은 이른바 진공로進貢路였다. 연행로의 변화는 바로 중국 정치의 변동을 뜻하며, 한·중 관계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변화했다. 1644년(인조 22) 청나라가 입관한 뒤 사신은 북경까지 걸어야 했다. 현종 6년(1665) 심양에 성경부盛京府가 설치될 때까지, 조선 사신은 연산관(아골관(鵝鵲關))에서 심양을 거치지 않고 안산鞍山, 광녕廣寧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다. 이 길을 ‘아골대로’라고 부른다. 성경부에 봉천 장군이 주재하게 되자, 조선 사신은 여기에 공물의 일부를 바쳐야 했다. 그래서 숙종 4년(1678)까지는 연산관에서 성경까지 올라갔다가 우가장→광녕

→산해관으로 내려오는 길을 걸어야 했다. 숙종 5년(1679) 강희제는 바다를 방어하기 위해 우가장에 진지를 쌓았고, 보안을 위해 조선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그리고 심양에서 소흑산小黒山을 돌아 광녕에 이르도록 했다. 이로써 요양에서 심양, 광녕廣寧을 거쳐 산해관에 이르는 기본 연행 노정이 확정되었다. 지도상의 연행로는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구련성과 탕산참을 지나 봉황성, 요양, 심양을 지난다. 그리고 소흑산에서 광녕을 거치지 않고 금주를 지나 산해관에 이른다. 지도상에 유조변 신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는 1677년 이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1679년 심양, 광녕을 거쳐 산해관에 이르는 기본 연행 노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광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도판 24

《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總圖》중 <고구려북도급강외강역도 高句麗北都及江外疆域圖>

18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53).

17세기 중엽~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3축 축자로 된 채색필사본 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고구려북도급강외강역도>이다. 표제 옆에는 ‘요동, 발해, 말갈, 병부’라는 주기가 있다. 한반도의 북부지역과 현재 흑룡강인 흑수黑水이남까지 포함하였는데, 만주지역은 압축적으로 그렸다. 흑수 바로 아래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과 연맥하여 동쪽으로 고려 윤관이 경계를 세웠다는 공협진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① 백두산+강

백두산 동남쪽으로 두만강으로 보이는 강이 흘러 바다로 유입되고, 백두산 동쪽으로 두 물줄기가 발원하다가 합쳐져서 흐르는데, 이 강은 공협진 북쪽에서 흐른다.

1 양계지방 지도 속의 백두산

2 백두산과 북계



도판 25

《북관지도 北關地圖》중 [관북지도 關北地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72.7×119.0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북관지도》는 1책 30도엽圖葉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책으로 함경도咸鏡道 전체와 북관北關을 그린 관방도이다. 북관은 함경북도 지방을 이르는 말이다.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南關이라 한다. 길주吉州로부터 그 이북의 명천明川·경성鏡城·부령富寧·종성鍾成·무산茂山·회령會寧·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에 이르는 10개 고을이 포함된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백두산>지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을 표현하였다. 하천河川, 진보鎭堡, 봉수烽燧, 령嶺, 창倉, 사찰寺刹, 산맥山脈, 역驛, 원院, 방사명坊社名을 기록하였다. 주요 산과 산맥은 검정색으로 채색하였고 기타 산줄기는 녹색으로 채색했다.

도판 26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중 <관서관북도 關西關北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57.0×73.0cm, 국립중앙박물관(M82).

《관서관북도》는 관서와 관북을 그린 <관서관북도>, 경기·해서·관동을 그린 <경기부해서 관동도京畿附海西關東圖>, 호서·호남·영남을 그린 <호서호남영남도 湖西湖南嶺南圖>, 중국의 동해안과 조선의 서해안을 묘화하고 특히 북부 심양지방의 해안을 자세히 그린 <해방도海防圖>를 포함한 모두 4장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다. 《관서관북도》에 수록된 조선전도는 북부, 중부, 남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북부지역을 그린 <관서관북도>는 만주지역의 주요 도시인 영고담, 오라, 심양을 표기했고 책문에서 오라로 이어지는 유조변도 그렸다. 두만강에 비해 압록강의 유로가 세 배 이상 길며 압록강 부분이 더 자세하다. 높은 봉우리의 연이은 산맥은 험준함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천과 도로, 봉수대가 잘 묘사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③ 백두산+토문강+공백+두만강

윗부분이 흰색으로 채색된 백두산이 지도의 상단 중심에 있고 백두산 가운데에 흰색의 정계비定界碑가 있다.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토문강土門江’이 흐른다.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는 목책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토문강은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맨 위에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백두산의 여러 산맥과 천지 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들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백두산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산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원’도 두만강의 지류들 중 하나이다. 정계비는 없지만 분수령이라는 표기가 있다.

도판 27

《북계지도 北界地圖》

19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93.5×13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86).

함경도의 지세와 하천, 주요 통로를 자세하게 나타낸 행정 및 군사적 목적으로 작성된 지도이다. 지도의 방위와 축척을 무시하고 두만강 유역과 청국淸國과의 경계境界를 자세하게 그렸다. 지도의 제작자와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폐사군 중 고종 6년에 복군復郡된 자성慈城이 폐군 상태로 있어 고종高宗 6년(1869) 이전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도에 표기된 선춘령과 분계강을 통해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영토의식이 대두된 18세기 중엽 이후의 지도로 추정할 수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정계비+분계강발원+공백+분계강하류+두만강

백두산 북쪽으로 ‘혼동강混同江’, 서쪽으로 ‘압록강鴨綠江’, 정계비 동쪽으로 토책土冊과 함께 ‘분

도판 28

《양계지도 兩界地圖》

18세기 초, 채색필사본, 국립중앙박물관(本10045).

백두산을 중심으로 관서와 관북 양계지방을 그린 지도이다. 1776년 초산楚山으로 개명되기 이전의 이산埋山 지명이 있고, 1712년 세워진 정계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의 지도로 보여진다. 두만강의 유로보다 압록강의 유로가 두 배 이상 길게 그려져 있고 압록강 부근이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관서부근은 청북산맥을 중심으로 산맥의 봉우리 방향과 글자가 같은 방향을 하고 있는데, 청북산맥 북쪽의 봉우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군현명과 도로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공백+분계강+두만강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백두산에 천지인 ‘대택大澤’이 있고, 백두산 남동쪽에 정계비가 있다. 백두산 천지에서 북동방향

계강발원分界江發源’이라고 표기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한편, 정계비 아래쪽 토돈과 목책이 이어지고 목책에서 원류하는 두만강은 온성穩城부근에서 ‘분계강하류分界江下流’라 표기된 강과 만나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정계비는 있지만 토문강은 없다. 하지만 정계비 동쪽으로 발원하는 분계강원류를 토문강으로 상정하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만강과 분계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를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로 나타내고 있다.

으로 토문강이 발원하여 흐르다가 끊긴다. 백두산 아래 여러 봉우리에서 하천이 발원하고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두만강豆滿江’을 이룬 후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와 만난다.

두만강은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29

[북방강역도北坊疆域圖]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111.0×73.5cm, 개인소장.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된 북방 관방지도이다. 지도 내에 지도 명칭이 쓰여있지 않다. 《북방강역도》는 지질이 두꺼운 한지로 제작된 대형지도로 황해도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산천山川, 성책城柵, 도서島嶼, 지명地名, 거리距離 등을 자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백두산 부근의 지명과 마을 이름, 거리 등을 적어 놓아 군사용 지도로 제작된 듯하다. 18세기의 유명한 실학자인 신경준은 신말주申末舟의 후손으로 천문, 지리, 음운학에 밝았다. 특히 지리학에 해박했던 그는 영조의 명으로 『동국문헌비고』편찬에 참여해 <여지도>를 담당했으며, 전국지도와 도별도, 군현지도 제작을 주관해 영조에게 올렸다. 저서로 『강계지疆界誌』, 『산수고山水考』, 『도로고道路考』 등의 지리서와 『여암집 旅庵集』이 있다.

도판 30

《서관총람지도 西關總覽之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27.2×195.0cm, 국립중앙도서관(古2702-4).

표제는 『서관도西關圖』이고 내제는 ‘서관총람지도’이다. 서관 즉 평안도를 그린 지도로 압록강 이남 지역이 잘 나타나 있다. 도로는 홍선, 산지는 청색의 회화식으로 표현했으며 하천은 청색 쌍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감영監營은 사각표, 군현郡縣은 원형으로 그렸고 평양에서 의주는 대로로, 군현간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우뚝 솟은 백두산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백두산을 비롯한 소백산과 장백산의 높은 봉우리에는 눈이 덮여있다. 백두산 동남쪽 작은 봉우리에 임진년 정계비의 모습도 보인다. 백두산의 여러 산맥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들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은 중로로 표시했다. 군현에서 감영까지 이정里程과 행선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산·강·봉수·진·성·현을 표시했고 만포진 건너에 황성이라 하고 사각형 적색으로 나타냈다. 중국과 압록강을 두고 대치해 최전방 군사 방어시설이었던 파수把守와 진보가 매우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도판 31

《서북양계지도 西北兩界地圖》 중 〈서관총람도 西關總覽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00.3×70.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6).

《서북양계지도》에는 〈관북총람도〉와 〈서관총람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서관 42관 2목 10부 11군을 그린 지도이다. 세로 4단, 가로 4단으로 접힌 지도는 박락과 구김이 심한 편이다. 낭림산에서 서쪽으로 동서로 길게 뻗은 청북정맥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 내린 지맥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지명의 방향이 모두 청북정맥을 향하고 있어서 산계 인식에 청북정맥이 중심에 있음을 짐작하게

도판 32

《서북양계지도 西北兩界地圖》 중 〈관북총람도 關北總覽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87.5×88.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6).

《서북양계지도》에는 앞·뒷면으로 〈관북총람도〉와 〈서관총람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함경도 23관을 그린 〈관북총람도〉이다. 세로 3단, 가로 5단으로 접힌 지도의 많은 부분에 박락과 구김이 있다. 여백에는 삼영소령군병총수 三營所嶺軍兵總數 기록과 함경도 23관의 민호, 전田 등에 관한 내용을 주기하고 있다. 지도의 상단에는 ‘서저심양西抵瀋陽’, ‘서북극오라西北極烏喇’, ‘동북극영고탑(東北極寧古塔)’이라 표기되어 있어, 청이 만주족의 발상지를 관리, 보호하기 위해 장군을 두어 관리했던 중심 도시들을 보여 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분계강원+공백+분계강+두만강

백두산에 천지인 대택大澤에는 ‘둘레가 80리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백두산동쪽에는 “명일통지에, 동서로 천여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2백리이다 明志曰橫亘千餘里高二百里”라는 널리 알려진 백두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백두산 천지에서 북동쪽은 ‘혼동강混同江’으로, 서남쪽은 ‘압록강鴨綠江’으로 흐른다. 백두산 남동쪽 정계비에서 목책과 석퇴가 건천과 함께 이어지다가 ‘토문강원土門江原·

한다. 수계는 압록강·청천강 뿐만 아니라 이들 강의 지류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산지에는 영巒·현峴 등이 표시되었고 이를 통과하는 도로는 홍선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의주대로는 굽은 홍선으로 그려 다른 도로와의 차별을 강조하였다. 진·보와 같은 군사적 요충지와 더불어 창고도 표시되어 있다.

분계강원分界江源’이 발원하여 북동방향으로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이 흐른다. 한편 대각봉 부근에서 토문강원과 두만강원이 목책으로 이어진다. 토문강원과 별개의 다른 강인 두만강원은 백두산 아래 여러 봉우리(감토봉甘土峯, 삼지연三池淵, 북증산北曾山)등에서 여러 물줄기가 발원하고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두만강豆滿江’을 이루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던 분계강과 만나서 동해 바다로 흘러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분계강은 현재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33

《청남도 淸南圖》중 〈관서전도 關西全圖〉

1776년 이후, 채색필사본, 94.7×71.2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7.1).

《청북도》와 《청남도》 두 권으로 구성된 관서지역지도 중 《청남도》의 〈관서전도〉로 평안도의 청천강 이북 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조선후기에 관서지역은 각종 광물 및 임산자원의 활용, 인구 및 농업과 상업을 통한 경제력의 증가가 현저했다. 낭림산에서 의주로 연결되는 청북정맥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 내린 지맥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남북의 산봉우리가 청북정맥을 향하도록 그려져 있고 도면에 표기된 지명의 방향도 모두 청북정맥을 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지역의 산계 인식에 청북정맥이 중심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수계는 압록강·청천강 및 이들 강의 지류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산지에는 영嶺·현峴 등이 표시되었고 이를 통과하는 도로는 홍선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의주대로는 굵은 홍선으로 그려 다른 도로와의 차별을 강조하였다. 진·보와 같은 군사적 요충지와 더불어 창고도 표시되어 있다. 압록강 너머 강가의 중국 촌락명과 압록강 하구의 섬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당시 변방이었던 청천강 이북 지역을 상세히 표현한 이 지도는 군사·행정적 관심과 이 지역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관서청북전도關西淸北全圖》에 비해 평안도 지역의 모양이 길게 표현되어 있다. 분홍색의 지명표기가 산지가 많은 이 지역의 녹색 채색과 대비를 이루어 화려함과 명료함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도판 34

《청북도 淸北圖》중 〈청북전도 淸北全圖〉

1776 이후, 채색필사본, 67.0×109.4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7.2).

《청북도》와 《청남도》 두 권으로 구성된 관북지역지도 중 《청북도》에 포함된 〈청북전도〉로 평안도의 청천강 이북 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이산(理山)이 초산(楚山)으로 개칭된 1776년 이후의 지도이다. 관서지역의 각종 광물 및 임산자원의 활용, 북방지역의 인구 및 경제력 증가로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진전을 바탕으로 지도가 제작되었다. 낭림산에서 의주로 연결되는 청북정맥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 내린 지맥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남북의 산봉우리가 청북정맥을 향하도록 그려져 있고 도면에 표기된 지명의 방향도 모두 청북정맥을 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지역의 산계 인식에 청북정맥이 중심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청남도》의 〈관서전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지도에서 청북정맥의 산봉우리는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 압록강 이북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

다는 점이다. 분홍색 원과 네모 안에 표기된 군현명은 채색지도를 더욱 화려하게 만든다. 수계는 지류의 묘사까지 매우 자세하며 산지에는 영嶺·현峴 등이 표시되었고 이를 통과하는 도로는 홍선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의주대로는 굵은 홍선으로 그려 다른 도로와의 차별을 강조하였다. 진·보와 같은 군사적 요충지와 더불어 창고도 표시되어 있다. 압록강 너머 강가의 중국 부락명과 압록강 하구의 섬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당시 변방이었던 청천강 이북 지역을 상세히 표현한 이 지도는 군사·행정적 용도로서 이 지역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관서청북전도關西淸北全圖》와 거의 비슷한 윤곽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도판 35**《여도輿圖》중 〈압록강도鴨綠江圖〉**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43.3×63.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41).

중국 청대 각성의 지도와 〈영고탑도〉·〈오라도〉·〈열하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여도輿圖》에 수록된 〈압록강도鴨綠江圖〉이다. 압록강 이북의 만주 지역을 그린 지도로 같은 첩에 수록된 〈성경전도〉의 압록강 부분과 유사하다.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만나는 봉황성변문에서 왕청문으로 이어지는 유조변도 표현되어 있다. 산계와 수계가 비교적 자세한데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인 독립적인 산을 그리지 않고 봉우리들을 연결시켜 그렸다. 북쪽과 동쪽 산지의 나무는 지도의 회화적 요소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하천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도판 36**《압록강변계도鴨綠江邊界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68.0×111.0cm, 국립중앙박물관(本館10049).

압록강 연안에 배치된 군사 기지인 진보鎭堡의 모습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강 건너 중국 마을도 자세하다. 후주厚州 1과수를 시작으로 이산 부근의 1백1과수까지 압록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과수의 표기가 매우 자세하고 산천과 도로의 표현도 정교하다. 《폐사군국경수어도》의 지도 상단에 있

도판 37**《관서청북전도關西淸北全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151.3.×235.5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36).

평안도의 청천강 이북 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청천강 북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청북정맥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어 내린 지맥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남북의 산봉우리가 청북정맥을 향하도록 그려져 있고 도면에 표기된 지명의 방향도 모두 청북정맥을 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산맥은 모두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지만 청북정맥만 짙은 흑갈색으로 표현되어 그 위엄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 지역의 산계 인식에 청북정맥이 중심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수계는 압록강·청천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장백산+토문강

장백산(백두산)에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이 흘러간다. 토문강을 두만강과 하나의 강으로 인식하여 표현했다.

는 각 과수간 이정里程의 주기는 없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폐사군 압록강변의 과수 처와 자성강변의 과수 처를 그린 지도廢四郡境鴨綠江邊把守及慈城江邊中把守處圖書’ 《폐사군국경수어도廢四郡國境守御圖》와 더불어 압록강변의 과수처를 표기한 군사지도이다.

강 뿐만 아니라 이들 강의 지류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산지에는 령嶺·현岬 등이 표시되었고 이를 통과하는 도로는 홍선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의주대로는 굽은 홍선으로 그려 다른 도로와의 차별을 강조하였다. 진·보와 같은 군사적 요충지와 더불어 창고도 표시되어 있다. 압록강 너머 강가의 중국 부락명과 압록강 하구의 섬들을 자세히 기록했다. 당시 변방이었던 청천강 이북 지역을 상세히 표현한 이 지도는 군사·행정적 용도로서 이 지역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도판 38

《청북변성도 淸北邊城圖》

1780년대, 채색필사본, 43.1×224.5cm, 국립중앙박물관(本館10688).

청천강 이북의 의주義州에서 압록강 상류의 후주강구厚州江口까지의 성城·진鎭·보堡·파수把手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군사지도이다. 지도의 제작자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지도의 규모로 보아 비변사備邊司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 시기는 이산理山에서 초산楚山으로 지명이 바뀐 1776년 이후, 순조 8년(1808) 자성慈城을 별중영別中營으로 부르기 이전이다. 경상좌도慶尙左道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지낸 강응환姜膺煥(1735~1795)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1780년대의 지도로 추정된다. 청북淸北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적유령狄踰嶺산맥 이북을 다루고 있으며, 성城의 실제 모양을 그리고 거민居民의 가호수家戶數와 인접지역과의 자세한 교통로가 표시되어 있다. 압록강변을 따라 배치된 파수把手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만포진에서 상류에 이르는 이른바 폐사군廢四郡 지역에는 파수

의 배치가 하류보다 월등하게 조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의주義州를 비롯한 강안江岸 7읍에 대해서는 읍성의 둘레, 민호民戶, 경도京都를 비롯한 각지의 이정里程, 각종의 창倉, 관할하는 진鎭·보堡·파수把手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세로 3단, 가로 12단으로 접힌 가로로 긴 지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세로 3단 중 가장 하단에는 의주, 삭주, 창성, 벽동, 초산, 위원, 강계의 전담과 호구 등에 관한 주기가 있다. 주기를 비롯한 모든 글자의 표기와 지형은 지도와 반대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다. 《청북변성도》는 국립중앙박물관본과 강성국姜聲國 개인소장본이 있다. 강성국姜聲國 소장본은 물기재勿欺齋(강응환의 호)의 유품이다. 두 지도의 크기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도판 39

《폐사군국경수어도 廢四郡國境守禦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29.5×181.5cm, 고려대학교 박물관(D67).

표제는 ‘폐사군 압록강변의 파수처와 자성강변의 파수처를 그린 지도廢四郡境鴨綠江邊把守及慈城江邊中把守處圖書’이다. 폐사군 지역의 각 파수를 중심으로 수목화 방식으로 그린 관방지도이다. 압록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파수의 표기가 매우 자세하지만 산천의 표현은 정교하지 못하다. 지도의 상단에

는 각 파수간의 이정里程이 주기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의 《폐사군도廢四郡圖》와 같은 유형이지만 다소의 차이가 있다.

도판 40

《폐사군도 廢四郡圖》

19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115.5×194.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複軸4709-94).

압록강 상류 독로강(魯魯江) 하구(河口)에서 장진강(長津江) 하구까지의 압록강 남안(南岸)과 적유령 이북 전 유역을 포함하는 조선시대의 변방지도이다. 강계부(江界府)에서 군사적 또는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 주요 지점의 이정(里程)이 모두 강계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폐사군 중 자성에는 1794년(정조 18)에 강계방영별중군(江界防營別中軍)이 이전되고, 1808년(순조 8)에는 다시 자성고기(慈城古基)로 진을 옮기고 별중영(別中營)이라고 불렀다. 이 지도에 ‘자성별중영(慈城別中營)’이라고 표시

도판 41

《관북전도 關北全圖》

1895년, 채색필사본, 84.0×81.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75).

조선 개국 504년이 되는 해인 1895년에 제작된 40리 방안의 함경도지도이다. 지도의 상단에는 함경도 각 군현의 호총(戶總)·인구·전총(田總)·곡총(穀總)·사방(社坊)·토산·토포·인성·군액(軍額)·진보(鎭堡)·진포(津浦)·산천(山川)·리정(里程) 등의 항목이 표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함경도의 윤곽이 남쪽으로 치우쳐 그려져 있어서 방위가 정확하지 않다. 산맥은 여러 갈래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우모식과 유사하게 먹으로 채색한 점이 독특하며, 하계망이 매우 상세하다. 왜곡된 형태의 지도윤곽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우모식 산맥 표현법은 서구의 근대적 지도 특성을 띠고 있으며, 하계망은 대하천 뿐만 아니라 동해로 흘러드는 지류까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되어 있어 자성(慈城)이 군(郡)으로 복귀(1869년)되기 전 ‘자성별중영’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압록강 남안의 지명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북안(北岸)은 소략하기는 하나 동명(洞名)이 기록되어 있다. 도로는 주황색으로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곳곳에 창(倉)이 표시되어 있고 후주창(厚州倉) 등과 같이 관할처를 밝히고 있다. 17세기 숙종대부터 시작되었던 폐사군의 복설 논의와 관련된 지도들이 다수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② 백두산+송화강원

백두산에 ‘청 여도에서는 장백산으로 명명한다(淸輿圖長白山)’는 표기가 있다. 백두산의 천지가 그려져 있고, 그 남쪽에 정계비가 있다. 정계비 동쪽으로 토되, ‘송화강원(松花江源)’이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간다. 송화강원은 토문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천지 북쪽으로 발원하던 흑룡강과 합류하여 북쪽으로 흘러간다. 정계비 남동쪽 원지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에 ‘청에서 도문강으로 명명한다(淸名圖們江)’라는 글귀가 첨부되어 있다. 토문강과 중국식 발음이 같은 도문강이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백두산에서 발원해 이어지는 강은 송화강원 뿐이다.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송화강원으로 표기된 이 강의 동쪽지역을 모두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하였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42~46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김광훈金光薰과 신선욱申先郁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두만강 하류의 한·러·청 국경 지역의 조선인과 러시아인의 촌락 및 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그림으로 묘사한 지도이다. 《아국여지도》는 11절折 23면의 절첩 형식으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전체를 펼치면 3m 정도의 가로로 긴 대형 지도가 된다. 지도의 첫부분에는 지도 목록이,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쓴 〈청아여지형정석의서清俄輿地形情積義序〉가 있다. 김광훈과 신선욱은 1884년 11월 초에 김용원金鏞元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밀사로 파견될 때 수행원으로 동반했다가 1886년 9월에 서울로 돌아왔으므로, 이 지도는 1885년 말~188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의 노령이주는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북경조약北京條約이 체결되어 연해주가 러시아영토로 편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봄에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짓고 추수가 끝나면 겨울에 돌아가는 계절출가이주 형태가 있었으나 1860년 이후에는 주로 가족단위의 집단이주형태로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지방 등지로 이주하였다. 집단적인 가족이주는 1864년 포시에트海港지방으로 이주한 13호戶를 시발로 해마다 이주민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869년에는 함경도지방의 대흥년으로 수천호가 일시에 지신허地新墟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이주민들은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지방 주민들로 조선말의 행정의 피폐, 수해로 인한 기근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농사 기술을 매개로 연해주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러시아정부는 초기 이주한인의 불법이주에 대해 묵인하였으나, 조선정부는 법률로 불법이주 행위를 참수형으로 엄금하였다. 아이훈조약(1858

도판 42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중 표지

1885~1905년경, 채색필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표지이다. 『아국여지도』라는 표제와 함께 청나라와 러시아국의 정황 의미하는 ‘부청아형정附清俄形情’, 국방과 장졸을 나타내는 ‘개방병장開防兵將’, 조선인 호구 기록 ‘호

년과 북경조약(1860년)을 계기로 시베리아지역 영토확장에 성공한 러시아는 이지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1858년 연혹룡이민규칙沿黑龍移民規則과 1861년 자유이민법自由移民法 등 여러 법령을 제정하여 이민을 유도하였다. 또한 러시아정부가 한인 보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한인의 노령이주는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한인의 노령이주가 계속 증가하자 조선정부와 러시아정부는 1884년 한러수호통상조약韓露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여 한인의 이주를 제한하였으며, 1888년 한러육로통상장정韓露陸路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 러시아정부는 이주한인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지도는 이와같은 두만강 대안 연해주 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의 계속 증가라는 배경 속에서 1884년 6월 25일에 한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해 조선 정부가 한인의 이주를 제한했음에도, 이주민이 계속 증가하자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조선인 거주민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에는 지형, 촌락, 도로, 군사시설 지명 등을 그리고, 여백을 이용해 촌락의 동서, 남북의 크기, 인접 지역의 이름, 지형, 주민수, 촌락 내의 군사시설이나 요새, 러시아 군인의 파견 여부 등을 일일이 기록해 놓아 19세기 말의 연해주 지역의 지역 사정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해삼위海蔘威(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의 지도와 설명이 상세한데, 항구의 모습과 건축물, 시가지, 도로 등도 사실에 가깝게 잘 묘사되어 있다.

구다소-아민戶口多少-我民’, 마주하는 접경지역을 의미하는 ‘교계상대交界相對’ 라는 4개의 작은 제목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도판 43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중 목록

1885~1905년경 채색필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아국여지도》에는 녹둔도(현재 러시아령 하산 남쪽 두만강 하류 지역), 서선택瑞德澤, 나선동羅鮮洞(지금의 포커사커리), 설가산設加山, 대하전大河田, 소하전小河田, 주하珠河, 소도소(所島所; 지금의 자레치에), 연추(延秋; 지금의 크라스키노), 연호蓮湖, 노호동老虎洞, 지당芝塘, 서주동瑞柱洞, 지신허芝新墟, 평산동平山洞, 한천구漢天口, 방실라方實羅, 아지미(芽芝味; 지금의 아디미), 심우하沈雨河, 마유하馬有河, 소성蘇城 등 당시 조선인 이주

도판 44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중 <녹둔도도 鹿屯島圖>

1885~1905년경, 채색필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지도의 오른쪽에는 <녹둔도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선택도瑞德澤圖>, 왼쪽에는 <나선동도> 라는 표제가 있다. <녹둔도도>에 관한 주기의 내용은 “연추영도와 1백 30리 떨어진 녹둔도는 조선의 서수라, 조산보, 경흥부 등에 둘러싸여 있으며 러시아와 접해있다.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쌀, 보리, 밀 등 각종 곡식이 수확된다. 조선인 거주자들은 여전히 조선왕조의 백성이라 생각하며 조선의 풍속을 이어가고 러시아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있다.”이다. <나선동도>의 주기 내용은 “나선동은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고 있는데, 조선·러시아·청국 등 삼국의 관방지대가 연결되는 곳으로 러시아가 이속을 점유한 후 영채營寨를 건설한 뒤 통신시설과 군사 1천을 주둔시키고 있다. 농토가 비옥하여 인근지역의 기근을 해결시켜 줄 수 있으며 교통의 편리함으로 상인들이 상업의 중

민들이 주로 거주했던 마을의 지명과 취락의 형태가 보인다. 지도 목록에는 이들 지역의 호수戶數와 인구수人口數를 일일이 명기해 놓았으며, 마지막에는 촌락 29소所 2,640호 인구는 총 20,313구로 전체 규모를 기록해 놓았다. 이 인구는 조선인만의 인구 통계는 아니지만, 조선인의 이주가 상당한 수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선택도>의 주기에는 “서선택은 남쪽에 녹둔도, 서쪽에 경흥, 북쪽에 나선동, 동쪽에연추영이 위치하며 인구는 76호 478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목화 같은 지도에는 산과 강, 도로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녹둔도촌 아민(우리민족)거주소’와 ‘나선동 아민집촌’, ‘서선택촌 아민 방어병(군사)’ 이라는 표기와 함께 각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주촌을 그렸다. 이 지도는 재러 한인들의 초기 이주 현황에 대한 기록으로서, 특히 녹둔도와 관련해 두만강 지역의 한, 러, 청간의 국경 현황을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투 속에서 대청 일변도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대러관계를 모색해 보려는 조선 조정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자료이다.

도판 45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중 〈연추영도 延秋營圖·혼춘도 琿春圖〉

1885~1905년경, 채색필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지도의 오른쪽에 「목허우영도 木許隅營圖」 그 아래에는 「혼춘도 琿春圖」, 왼쪽에는 「연추영도」라는 표제가 있다. 〈연추영도〉에 관한 주기의 내용은 “연추영은 해삼위까지 화륜선으로 만나질 거리에 있으며 앞쪽에 바다, 뒷면에 산지가 위치하고 있다. 지방관 관민관 1인과 대소장관 50여 명을 비롯하여 기병 2000명, 보병 1500명 등이 주둔하고 있다. 주둔병이 많아서 남북으로 영궐이 있고 군기와 군량이 산적하여 있으며 군사의 기율이 엄하다. 전선관 1인을 두어 사방 각처에 연락을 취하는 군사 요충지이다.” 라는 기록이다. 〈목허우영도〉의 주기 내용은 “목허우영은 해삼위까지 화륜선으로 만나질 거리에 있는 항구로 러시아가 최초로 설립한 이 지역의 군영지이다. 러시아 육해군이 주둔하며 항구 입구에 수뢰를 매설했는데, 해삼위로 군기와 군량을 운송하고 자급資給 받고 있다. 해삼위로 운송

되는 군량을 보관하기 위해 5채의 군량고를 설치하였다.”이다. 〈혼춘도〉는 “혼춘은 두만강과 혼춘강 사이에 위치하며 청국의 군영이 산재되어 있다. 서쪽 5영營은 무용이 뛰어난 호남인 곽통령 郭統領, 동쪽 영은 길림인 윤통하 伊通河, 인품있는 이금용 李金鏞이 지부사 知府事를 겸하고 있다. 각 영의 방벽과 보루가 공고하고 방비가 삼엄하다. 혼춘에서 연추영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주산관에는 기병 3백이 주둔하였고 러시아에 항복한 서역인이 관장 關將이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지도의 ‘북영’, ‘남영’, ‘연추영’, ‘혼춘영’ 의 ‘영營’ 표기와 무기창고를 통해 군사지역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녹둔도도〉에 보이는 조선민촌은 보이지 않는다.

도판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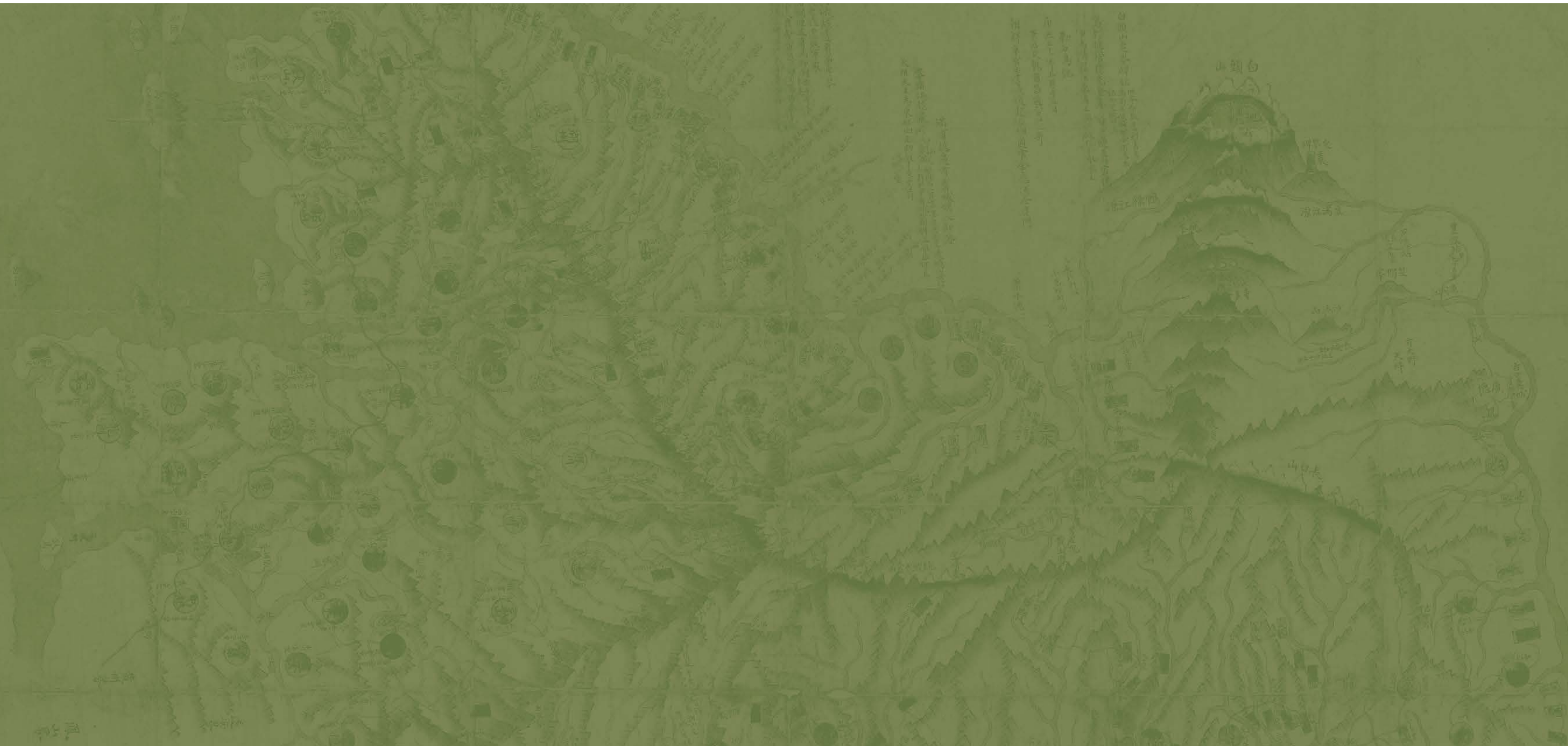
《아국여지도 俄國輿地圖》 중 〈해삼위도 海蔘葦圖〉

1885~1905년경, 채색필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해삼위도」라는 표제와함께 지도의 여백에 빼곡이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해삼위항은 안방비 安方埤에서 화선으로 30분, 맹고개영 孟古蓋營에서 화선으로 30분, 하막석관 蝦蟆岩關에서 작은 화선으로 3시간 30분, 일본 나가사끼항에서 화륜선으로 2일, 원산항에서 화선으로 하루 만나질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항만의 입구를 두 개의 섬이 외해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천혜의 항구로 러시아 극동해군기지가 위치한다. 전선 6~7척, 수뢰정 7~8척, 화물선 수십척이 정박해 있으며 육해군사령관을 비롯하여 장관 200여명, 수군 2000명, 기병 500명, 보병 1000명 등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도시이다. 철도와 해상

교통의 편리함으로 청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물산의 이동이 활발하여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군영내에 기계 제조장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이 외에 미국 전선관과 일본 영사관, 청나라 유학생 등이 소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주기이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군사도시답게 바다에 있는 크고 작은 군함이 눈에 띈다. ‘문서원’, ‘불당’, ‘의원’, ‘전선국’ 등 도시의 건물들을 자세하게 그렸다.

II. 백두산과 정계비



도판 47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

1887년, 채색필사본, 54.2×99.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軸26675).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 청의 봉금지역이었던 만주지역에 조선인이 들어가 개간을 하고 터전을 마련하면서 조선과 청 사이에 영토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공동으로 국경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도는 1887년 조선감계사 이중하李重夏가 청과의 회담 이후 그린 지도이다. 지도에는 광서 13년 5월 26일 중국 감계관 방랑方朗, 덕옥德玉, 진영秦煥, 조선감계사 이중하, 위원 팽한주彭翰周가 이 회담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② 백두산+홍토산수+송화강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장백폭포는 이도백하로 이어지고, 삼도백하와 사도백하는 천지 북쪽에서 발원한다. 천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의 정계비 부근에서 북쪽으로 석퇴와 토퇴가 ‘황하송구자黃花松溝子’를 따라 이어진다. 황하송구자는 지금의 오도백하이며 1934년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만주10만분1도 백두산18호滿洲10萬分1圖 白頭山18號〉지도의 상류에는 ‘하유송구자下柚松溝子’로 표기되어있는 이도강二道江이다. 그리고 이도강은 이중하가 주장하는 토문강이다. 즉, 백두산

도판 48

《동국여도 東國輿圖》중 제 3책 함경도 咸鏡道 〈백두산도 白頭山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33.2×31.5cm, 고려대학교 박물관(2664 V.3).

19세기 초에 편찬된 7책의 채색필사본의 군현지도책 중 제3책 함경도 지도에 포함된 백두산 지도이다. 백두산을 단독으로 그린 지도는 희귀한데, 이 지도는 백두산을 단독으로 독립시켜 그린 점이 특징이다. 경위선표가 없는 군현지도책으로 팔도의 전 군현이 수록된 완결본이다. 각 군현의 면적에 따라 지도의 크기가 다른 것을 통해 원래 경위선 표가 있는 군현지도책을 전사하면서 경위선망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도의 내용은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남아 있는 경위선 표시 군현 지도와 유사하다. 지도의 여백에는 군현의 연혁, 산천, 고적, 서원 등에 관한 주기가 있고 특히 다른 지

천지인 ‘대지大池’ 부근 이도백하·삼도백하·사도백하, 그리고 명칭의 표기가 없는 오도백하는 천지의 북쪽으로 흐르다가 만나서 송화강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중하는 정계비에서 동쪽에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황하송구자(오도백하)를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인 토문강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2차 감계회담에서도 청과 합일점을 찾지 못하자 한 발 물러서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정하더라도 두만강 가장 상류의 물줄기인 ‘홍토산수紅土山水’*를 토문강이라고 주장하고, 이 물줄기에 ‘조선과원요차수정계朝鮮派員要此水定界’라는 표기를 했다. 청의 감계사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하나의 강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지만 처음 주장이었던 홍단수가 아닌 보다 상류의 석을수에 ‘길림과원요차수정계吉林派員要此水定界’라는 표기를 하고 청의 강계로 고수했다. 조선에서는 비록 한 발 물러서서 홍토산수를 경계로 타협하려 했지만 청의 뜻대로 더 많은 양보를 하지 않아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그린 이 지도만 남게 되었다.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는 토문강은 두만강과 전혀 다른 별개의 강인 오도백하이며, 송화강과 합류한다는 진실을 지도에 함께 그려놓았다.

* 두만강의 수원으로 가장 북쪽의 홍토수, 중간의 석을수, 가장 남쪽의 홍단수가 있다.

도책에서는 볼 수 없는 장시자료가 각 군현별로 수록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백두산 천지인 ‘대택大澤’으로부터 북쪽으로 흑룡강, 서쪽으로 압록강이 흐른다. 천지 남쪽 정계비로부터 목책이 이어지고 두만강이 발원한다. 같은 책에 수록된 〈함경도〉지도에 있는 토문강과 분계강이 생략되어 있다. 백두산만 강조하였고 하천을 자세히 그리지 않았다.

도판 49

《여지도 輿地圖》 중 〈임진정계지도 壬辰定界地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31.8×21.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

《여지도》는 〈천하제국도〉, 〈중국도〉, 〈성경여지전도〉, 〈일본도〉, 〈유구국〉, 〈동국팔도대총〉과 팔도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는 지도책이다. 이 지도책에 백두산 정계를 그린 〈임진정계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지도 안에 『임진목호극등정계시소모 壬辰穆胡克登定界時所模』라 표시되었다. 그 옆에 ‘강희51년 숙종38년’, ‘박권정계사’라는 주기가 있어 백두산 정계를 주제로 그린 주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고, 혜산과 무산 사이의 큰 도로와 정계비로 가는 작은 길을 묘사했다.

도판 50

《조선정계비강역약도 朝鮮定界碑疆域略圖》

연대미상, 필사본, 85.4×5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5504).

한말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백두산과 정계비를 주제로 그린 주제도이다. 서쪽이 위를 향하고 백두산이 지도의 위쪽에 있다. 상단의 여백에는 정계비를 세운 일을 기록한 ‘분계비론 分界碑論’에 대한 주기와 지도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거리가 기재된 이정표 里程表가 있다. 한편 지도와 함께 『황성신문 皇城新聞』 1907년 5월 2일·7월 6일자 기사 두 장이 오려 붙여져 있다. 북간도 北間島는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청과 교섭하여 계한界限을 명확히 할 것을 내각內閣에 청원한 일을 실은 기사이다. 이 지도는 한말 북간도 北間島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경 문제가 제기됐을 때 중국과의 국경 분계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천의 명칭은 있지만 하천을 그리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비원강+두만강

백두산 천지로부터 북류하는 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른다. 천지 남쪽 정계비에는 ‘옥문玉門’이라는 표기가 있고, 백두산 남동쪽으로 흐르던 ‘비원강 碑原江’으로 표기된 하천은 ‘입지암류 入地暗流’라는 주기와 함께 끊긴다. ‘비원강’은 정계비 원류에서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 감토봉 부근에서 두만강이 발원하여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 백두산 동쪽 수계: ① 백두산+흑룡강

백두산 천지인 ‘대택 大澤’에서 북동쪽으로 송화강이 흐르다가 혼동강으로 유입되고 흑룡강에 합류된다. 정계비에서 석퇴, 토퇴, 목책이 이어지고 토문강원이 시작된다. 백두산 남쪽의 북증산 부근에서 두만강원이 발원한다. 그런데 이 지도는 특이하게도 강의 이름은 있지만 흑룡강만 흐릿하게 흔적이 있을 뿐 다른 강은 없다. 마치 산줄기를 그린 후 강을 그리려고 했으나 미처 그리지 못한 미완성의 지도처럼 보인다. 분계론에서 ‘동위토문’이라는 글귀를 언급하고 있지만,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매우 확대된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51

《백두산정계비지도 白頭山定界碑地圖》

연대미상, 필사본, 97.6×56.9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26676).

백두산과 정계비를 주제로 그린 주제도이다. 규장각 소장 《조선정계비강역약도》(奎15504)를 바탕으로 그린 지도로 두 지도는 매우 비슷하다. 《조선정계비강역약도》에는 하천이 없지만, 《백두산정계비지도》에는 하천이 있다는 점이 두 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도판 52

《장파지도 長坡地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71.0×108.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160).

무산 남쪽 장파에 진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대두되면서 제작한 지도로 추정된다. 장파가 군사요충지이므로 진營을 설치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備邊司의 계략가 <조선왕조실록> 1789년(정조 13) 4월 20일자에 보이므로 이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산과 백두산 동쪽 두만강 상류 무산 부분까지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장파長坡’는 긴 언덕을 뜻하는데, 계곡을 따라 두만강 연안까지 뻗어 있는 용암대지와 말단부의 단애가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두만강 북안에는 침식으로 고립된 용암대의 평탄면平坦面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과 정계비定界碑 부근의 목책과 토돈, 하계河系지형 등이 매우 상세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북관장파지도北關長坡地圖》와 같은 지도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① 백두산+흑룡강

백두산 천지인 ‘대택大澤’에서 북동쪽으로 송화강으로 보이는 강이 흐르다가 흑룡강에 합류된다. 정계비에서 석퇴·토퇴·목책이 이어지고 ‘토문강원土門江源 일명분계강一名分界江’이 시작되어 흐르다가 북쪽에서 평행하게 흐르던 흑룡강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백두산 남쪽 삼지三池와 여러 곳에서 두만강원이 발원한다. 천지에서 발원하는 송화강과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은 모두 흑룡강에서 합류되어 흐르며,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매우 확대된 영토의 식을 나타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백두산 천지인 ‘대택大澤’에서 북으로 ‘혼동강混同江·일명흑룡강一名黑龍江’이라는 표기와 함께 혼동강이 북쪽으로 흘러나가고,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이 흐르다가 끊긴다. 대택 바로 아래 ‘분수령分水嶺’이라는 표기와 함께 그려진 정계비로부터 목책 15리, 토돈 35리가 ‘적암赤巖’까지 이어지고 ‘여기부터 두만강의 원류自此豆滿江源始流’라는 표기와 함께 두만강이 시작된다. 정계비가 있고 분계강도 있지만 토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분계강과 두만강을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도판 53**《북관장파지도 北關長坡地圖》**

1880년대, 채색필사본, 71.5×109.7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장파지도》와 같은 지도이다.

→ [도판해설 52] 《장파지도》참고.

도판 54**《장진지도 長津地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16.0×75.1cm, 국립중앙박물관(구6743).

장진은 함경도의 중심도시 함흥에서 삼수, 압록강 방향으로 향하는 북쪽 도로상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1787년(정조 11)에 도호부로 승격해 그 지리적 중요성을 공인받았다. 《장진지도》는 백두산을 경계로 그 남쪽과 북쪽을 원근법을 이용하여 이원적으로 표현했다. 백두산 북쪽 만주지역은 남들의 땅이란 뜻의 ‘피지(彼地)’로 표기하고 먼 산의 형태로 그렸다. 우리의 지역인 백두산 남쪽은

푸른색 산들이 연접하고 있다. 지역의 명칭과 경계, 산봉우리의 이름을 표기하고 지역 간을 잇는 도로망을 그렸다. 다른 지도들에 비해 백두산의 묘사가 독특하다. 대택의 큰 호수가 있는 화산으로 묘사했으며, 대택의 북쪽으로 물이 흘러나가 흑룡강으로 유입한다. 백두산 아래에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간다.

도판 55**《갑산지도 甲山地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74.4×69.7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7).

내제는 <갑산부형편도 甲山府形便圖>이다. 지도 오른쪽 상단에는 갑산부로부터 인근의 무산·길주·단천·북청·삼수까지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고 천지로부터 서쪽으로 보은수(寶隱水), 북쪽으로 흑룡강(黑龍江)이 발원하고 있다. 삼지(三池)와 정계비를 지나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는 길도 표시되어 있다. 지도 상단에 짙은 녹색의 천지와 천지 주변 흰색 봉우리의 백두산이 마치 해바라기꽃 같다. 압록강에서 퍼져나간 강줄기와 그 사이에 연이어 있는 산맥의 모습은 풍성한 꽃다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지도적 정보를 충분히 갖춘 아름다운 한 폭의 동양화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Ⅲ. 조선전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흑룡강



도판 56**《팔도지도 八道地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91.0×35.7cm, 국사편찬위원회(貴33).

국보 제248호《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조선 전기의 조선전도이다. 《조선방역지도》에 비해 채색이 돋보인다. 지도의 바탕은 가지색이고 팔도를 다섯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채색했다. 일부 군현명과 산맥을 가필한 흔적도 보인다. 함경도 22관, 평안도 42관, 황해도 24관, 경기도 37관, 강원도 26관, 충청도 54관, 경상도 67관, 전라도 57관 총 329관이 기재되어 있다.

도판 57**《조선국도 朝鮮國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일본 국립공문서관(178-449).

국보 제248호《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조선 전기의 조선전도로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같은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도》史199-004와 동일한 지도이다. 《조선팔도지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군현별 채색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지도의 군현 명 옆에는 서울까지의 리정里程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함경도 22관, 평안도 42관, 황해도 24관, 경기도 37관, 강원도 26관, 충청도 54관, 경상도 67관, 전라도 57관 총 329관이 기재되어 있다.

도판 58**《조선도朝鮮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일본 국립공문서관(史199-004).

국보 제248호《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조선 전기의 조선전도로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같은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국도》178-449와 동일한 지도이다. 《조선팔도지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군현별 채색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지도의 군현 명 옆에는 서울까지의 리정里程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함경도 22관, 평안도 42관, 황해도 24관, 경기도 37관, 강원도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① 백두산+두만강 북쪽의 여러 강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 만주지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조선전도에 포함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豆滿江 외에 여러 강들이 있다. 지도의 북쪽 한계로 설정한 흑룡강黑龍江 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① 백두산+두만강 북쪽의 여러 강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 만주지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조선전도에 포함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豆滿江 외에 여러 강들이 있다. 지도의 북쪽 한계로 설정한 흑룡강黑龍江 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26관, 충청도 54관, 경상도 67관, 전라도 57관 총 329관이 기재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① 백두산+두만강 북쪽의 여러 강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 만주지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조선전도에 포함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豆滿江 외에 여러 강들이 있다. 지도의 북쪽 한계로 설정한 흑룡강黑龍江 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5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중 〈조선 朝鮮〉

1402년의 모사본, 채색필사본 158.5×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류코쿠(龍谷)대학 도서관 소장 모사본.

중국과 일본의 지도를 바탕으로 1402년에 김사형(金士衡), 이무(李茂(이회(李薈)))가 제작한 현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지도이다. 지도 아래에 권근(權近)이 쓴 발문과 그의 『양촌집(陽村集)』의 「역대제왕혼일강리도지(歷代帝王混一疆理圖誌)」에 의하면, 원나라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聖教廣被圖)》와 승려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를 중국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도 상단에는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가 표기되어 있다. 명나라 시대의 지명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지리 정보는 원나라 시대의 자료이다. 중국과 한국의 지리와 지명이 상세하며 정보도 정확하다. 아프리카 지역에 빅토리아 호와 킬리만자로 산, 사하라 사막, 나일 강 등 주요 지역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인들의 세계관이 상당히 광범위했음을 보여주며, 아프리카가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으로 묘사되는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지도로 평가받는 지도이다. 이 지도는 15세기 조선의 지리 인식, 조

도판 60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16세기, 채색필사본, 132.0×61.0cm, 국보 제248호, 국사편찬위원회.

1557년(명종 12년 明宗)~ 1558년 경에 제용감(濟用監) 관원들이 계회도(契會圖) 형식으로 그린 조선전도이다. 지도의 상단에는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라는 제목이 전서체(篆書體)로 쓰여져 있고 중단에는 도가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는 이 지도의 제작에 참여한 제용감관원 이이 등 12인의 관직·성명·자·학·본관 그리고 부친의 관직·이름을 밝힌 좌목(座目)이 있다. 지도는 수목담채로 그렸는데 함경도는 청색, 평안도는 녹색, 황해도는 백색, 강원도는 녹두색, 경기 충청도는 황색, 전라도는 무색, 경상도는 적색 바탕의 타원형 안에 지명·수영(水營)·병영(兵營) 등을 기입하였다. 지도의 형태는 현재 전국지도와 대체로 윤곽이 비슷하나 압축적으로 표현한 만주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전라·경상도 및 제주·대마도 부분에 박락된 곳이 있으며 평안도 및 만주지역의 지명이 희미하여 판독이 어렵다. 이 지도는 제작된 지도로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원본지도이다. 작자와 연대

선의 지도제작수준, 동서문화의 교류 등을 전해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당대의 가장 정확한 세계 지도였다. 이 지도의 원본은 현재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 4종이 있는데, 류코쿠 대학 소장본의 모사본이다. 세계지도임에도 백두산 지명을 표기해 백두산을 중시했던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산보다는 수계 중심으로 그린 지도이다. 조선 부분에 백두산만 표현했다. 백두산 동북쪽으로 이어진 수계가 동해로 유입된다. 강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두만강을 표현한 것인지 그보다 북쪽 수계인 흑룡강을 표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두만강을 표현한 것이라면, 실제 두만강 수계보다 동북쪽을 향하는 지도상의 두만강은 실제보다 넓은 북방 영역을 표현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가 확실한 조선전기의 작품으로서 지도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은 물론, 이와 유사한 다른 지도의 제작 연대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① 백두산+두만강 북쪽의 여러 강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 만주지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조선전도에 포함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 외에 흑룡강 등 여러 강들이 있다. 두만강 북부 만주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도판 61

《팔도총도 八道總圖》

1683년, 채색필사본, 124.0×90.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보 제248호).

관서와 관북 지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조선전기 전도의 형태이며,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의 <동국지도東國地圖>(1463)와 같은 유형의 지도이다. 하계망이 상세하고 군현郡縣·병영兵營·수영水營·관찰사영觀察使營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경도를 비롯해 각 도의 관찰사영은 붉은색 원에 표기 했다. 숙종 9년(1683)에 다시 부府로 회복한 경상도의 순흥順興이 있으므로 1683년 이후이고, 숙종肅宗 10년(1684)에 신설된 함경도의 무산茂山이 없으므로 1684년 이전의 지도이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포함한 북부 지역과 만주지역의 하계망이 부정확하지만 흑룡강黑龍江·송화강松花江을 표시 했다.

도판 62

《동국팔도여지도 東國八道輿地圖》

1819년, 채색필사본, 121.5×70.3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7).

19세기 초에 제작된 채색필사본 조선전도이다. 지도의 양측과 하단의 여백에는 도별道別 연혁과 역驛·진鎮·보堡·산성山城·거호居戶·수영水營 등의 지리적 정보가 요약되어 있다. 북부지역은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흑룡강유역까지 조선의 영역에 포함하여 그렸다. 지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 지도 유형이지만 지도 상단 서문의 “기묘년己卯年 가을에 죽령영竹嶺營에서 온 절묘한 지도를 얻어 모사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지도를 다시 표구하기 위하여 떼어낸 배접지에서 ‘가경이십사년嘉慶二十四年 십일월초일일十一月初一日’에 발송한 서면으로 상위 관청에 보고하는 첩보牒報가 발견되었는데 가경嘉慶 24년은 1819년(순조 19)이며 기묘己卯에 해당한다. 지도에 나타난 지명으로 보면 정조 즉위년(1776)에 개명된 초산楚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묘己卯’는 1776년 이후이어야 한다. 따라서

■ 백두산 동쪽 수계: ① 백두산+흑룡강

흰색으로 채색하여 강조한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 그 북쪽으로 평행하게 또 다른 강이 흐르는데 선춘령 남쪽을 지나서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백두산 북쪽으로 원류하는 송화강은 지도 상단의 흑룡강과 합류한다. 만주 부분을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흑룡강 유역까지 조선의 전도에 포현했다. 백두산 북쪽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이 나타난다.

이 지도는 1819년己卯에 죽령영竹嶺營에 있던 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① 백두산+흑룡강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백두산맥 동쪽으로 두만강, 그 북쪽으로 평행하게 흑룡강을 포함한 여러 수계가 흐른다. 만주 부분을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백두산 북쪽 흑룡강유역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이 나타난다.

도판 63

《동국여지지도 東國輿地之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21.0×73.4cm, 보물 제481호, 해남 녹우당.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가 그린 조선 전도이다. 백두산정계비가 표시되어 있고 군현의 품계 등으로 보아 1710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윤두서는 《중국여도 中國輿圖》와 《일본여도 日本輿圖》도 그렸는데 《중국여도》는 현존하지 않는다. 《동국여지지도》는 조선 전기의 조선 전도로부터 조선 후기의 전도로 전환해가는 점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지도로서 의의가 있다. 세필細筆에 능한 공재의 작품답게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며 채색도 훌륭하다. 각 군현의 모양을 달리 표시하여 부·목·군·현의 품계를 그려놓은 점이 조선 전기 지도와의 차이점이다. 군현의 채색을 도별로 달리하였으며, 군현 명칭 옆에 서울에서의 거리, 좌우도의 소속 관계를 표기하였다. 붉은 색으로 그린 육로陸路도 굵기를 달리 함으로써 대로·중로·소로 등 도로의 크기를 구분하였고, 바닷길은 황색으로 표시하였다. 섬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졌으며, 모든 섬의 소속 군현을 적색 선으로 표시한 점이 특징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① 백두산+소하강+수빈강

백두산의 ‘지池’에서 동남쪽으로 두 줄기의 하천이 흐르는데 위쪽의 수계는 ‘두문하豆門河’이고 아래쪽의 수계에는 ‘복류伏流’라 표기되어 있다. 아래쪽 하천이 두만강이다. 이 두 하천은 온성 부근에서 합류하고 경원 부근에서 유입되는 훈춘강과 함께 두만강으로 흘러 동해바다와 만난다. 이 지도는 백두산정계비인 ‘계비界碑’가 그려져 있는 조선 전도이다. 따라서 지도제작자는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위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

는 ‘소하강蘇下江’과 ‘수빈강愁濱江’까지 북방영역에 포함하여 표현하였다. 백두산 북쪽, 공험진과 선춘령 계비 남쪽 소하강과 수빈강까지 북방한계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윤두서의 지도는 소하강과 수빈강에 관해 『여지승람』과는 다른 정보를 전해 준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로 두만강이 있고, 그 위로 豆門河가 보인다. 두문하는 두만강 위를 흐르다가 온성부 부근에서 두만강에 합류된다. 이 물줄기는 지금의 해란하에 해당한다. 해란하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지는 않지만, 윤두서가 두문하를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문하의 위쪽을 흐르다가 바다로 합류되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다. 이 물줄기는 백두산 동북쪽에 있는 貔虎山에서 발원하는데, 남쪽으로 흘러 소하강이 된다. 상가하에서 방향을 바꾸어 동류하던 소하강은 圓山城 開陽城 등을 지난 후 남쪽으로 흘러 수빈강이 된다.

소하강 위로는 潭州平, 公嶮鎮, 先春嶺이 있고, 수빈강 위로는 老串, 伐引, 女土, 也雉城, 于而未城, 厚飛石城이 보인다.

『성경지』의 보급 범위는 점차

도판 64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17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218.0×149.0cm, 보물 제1533호, 고려대학교 도서관(靑700).

전국 팔도에 있는 봉수대를 표시한 지도이다. 상단에는 붉은색의 전서체로 제목이 쓰여 있고, 각 지역 별로 백·적·황·갈·녹·청색의 원에 지명이 적혀 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봉수대는 산봉우리 위에 촛불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지대 및 경상도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지방의 읍치와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산맥과 산봉우리 그리고 하계망이 자세히 그려져서 봉수의 간선로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조선시대 봉수대를 표현한 주제도이다. 하지만 녹색과 초록으로 채색된 산과 일정한 기하학적 무늬를 형상화한 수파묘의 바다, 화려하게 채색된 지명은 오히려 한 폭의 회화작품이라 느껴진다. 1652년(효종 3)에 황해도 강음江陰과 우봉牛峰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김천(金川)이 있고 1712년(숙종 38)에 건립된 백두산정계비定界碑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도의 제작시기는 17세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 2m에 달하는 지도의 규모에 봉수로의 상세한 표현과 뛰어난 회화성이 돋보이는 17세기

도판 65

《조선팔로지도 朝鮮八路地圖》

1707년, 필사본, 126.0×83.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1).

《조선팔로지도》에는 1767년 산청山淸과 안의安義로 지명이 바뀌는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이 그대로 남아 있고, 1684년 신설된 무산이 있으며 1712년 세워진 백두산정계비가 없다. 그리고 지도의 하단에는 정해년 정월 13일에 지도를 제작하여 3월 5일에 완성했다는 주기가 있어 1767년 이전, 1684년 이후의 정해년인 170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의 《동국여지지도》와 조선의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이 비슷하다. 북부지방의 왜곡된 모습과 압록강과 두만강 유로가 일직선에 가까운 모습은 조선 초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지도의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지도의 내용은 조선후기 지도 못지않게 풍부하며 유로가 자세하다. 특히 압록강 넘어 요동지역까지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후반의 지도로 고지도 분야뿐만 아니라 회화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① 백두산+흑룡강

녹색의 다른 산들과 달리 흰색으로 채색된 백두산이 우뚝 솟아있다. 동쪽으로 두만강, 그 북쪽으로 평행하게 또 다른 강(흑룡강으로 추정)이 흐르는데 선춘령 남쪽을 지나서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두만강의 수원으로는 가장 북쪽의 홍토수紅土山水, 중간의 석을수石乙水, 가장 남쪽의 홍단수紅丹水가 있는데 지도에서는 가장 남쪽의 수원인 홍단수가 천지에서 동류하여 두만강과 합류한 후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두만강 위로 또 다른 수계인 흑룡강이 평행하게 흐른다. 백두산 북쪽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매우 확대된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① 백두산+송화강·혼동강

웅장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에서 조선의 기상이 시작되는 듯하다. 백두산 위로는 '백두산은 장백산이라고도 불리며, 회녕부 서쪽으로 7·8일 정도 가야 한다. 3단의 봉우리로 된 산의 높이는 200리에 달하며 1000리에 걸쳐 있다. 산 정상에는 80리에 달하는 못이 있으며 여기서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며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과 송화강이 된다.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동북쪽으로 소하강이 흐른다. 卽長白也山在會寧府西七八日程山三層高二百里橫亘天里其頭有澤周八十里南流爲鴨綠江北流爲混同江松花江東流爲豆滿江北東流爲蘇下江.' 라는 주기가 있다. 주기의 기록대로 백두산에서 동류·북동류하는 세 개의 강이 흘러서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혼동강과 송화강, 소하강, 두만강의 순서이다. 만주 부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조선의 전도에 혼동강과 송화강 유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백두산 북쪽 혼동강과 송화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이 나타난다.

도판 66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覽圖》

김수홍(金壽弘), 1673년, 목판본, 141.8×107.0cm, 보물 제1602호, 서울역사박물관(서13145).

역사지도 성격의 조선전도이다. 조선 각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수록하여 고금(古今)을 함께 볼 수 있다. 지도의 작자 김수홍(金壽弘)(1601~1681)은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며 호조(戶曹)참판을 지냈다. 현종 7년(1666)에는 《천하(天下)고금(古今)대총(大總)편람(便覽)도》(서13124)를 목판으로 간행한 바 있다. 지도 좌측에 쓰여 있는 발문의 끝 부분 ‘계축(癸丑)맹하(孟夏)’를 참고로 이 지도의 작성연대를 1673년(현종 1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의 유형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서 일직선상에 있고,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심하게 압축된 모양을 하고 있다. 경도(京都), 즉 서울의 도성을 축척에 관계없이 크게 그려 수도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성 안에는 4대문,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종묘, 경덕궁, 육조(六曹), 훈련원, 사직, 태학, 태평관 등이 표시되어 있고, 도성 밖으로는 경기감영, 동관왕묘, 남관왕묘 등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곳곳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28수(宿)의 별자리 이름인 미(尾)·기(箕)를 기입하여 우리나라가 미(尾)·기(箕) 분야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① 백두산+송화강+흑룡강

두 개의 백두산이 나란히 있다. 왼쪽 백두산에는 ‘장백산(長白山)’, 오른쪽 백두산에는 ‘백두산(白頭山)’이라 표기되어 있다. ‘장백산(長白山)’에서 ‘백두산(白頭山)’으로 송화강이 흐르고 백두산에서 이 물줄기가 이어져 흑룡강으로 흘러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이 물줄기 아래를 이루는 또 다른 수계는 ‘백두산(白頭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청과 조선에서 명명하는 백두산의 두 이름 ‘장백’과 ‘백두’를 모두 명기하여 조선의 가장 북쪽에 그려 넣음으로써 조선의 신성한 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장백산과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각각 그려서 서로 다른 산임을 표현했다. 『길림통지(吉林通志)』권 22의 『여지지(輿地志)』 10 중 山川 5, 수도(水道) 上, 송화강(松花江) 지수 제 1(松花江之水 第一) 에는, [송화강은 장백산 정상의 ‘關門’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로서 일명(混洞江), 본명은 松阿里烏拉(松阿里烏拉)라 한다. 李桂林 등은 송화강과 혼동강은 같은 강을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상류 하류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원래 지명이 가진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백산에서 흘러내려 嫩江과 만나기 전까지는 송화강, 嫩江과 만난 뒤 오소리강, 흑룡강과 다시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기까지를 혼동강으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의 내용처럼 송화강과 흑룡강을 하나의 물줄기로 보고, 백두산 북쪽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하여 매우 확대된 조선 초기의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67

《조선팔도총람지도 朝鮮八道摠覽之圖》

17세기 후기, 목판본, 104.5×69.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115).

북부 지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조선 전기 지도 유형의 조선전도이다. 지도의 제작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지도의 윤곽과 내용이 김수홍의 《조선팔도고금총람도》(1673년)와 비슷하다. 중국의 장백산과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나란히 있는 것과 동서방향으로 거의 직선으로 그린 흑룡강의 유로 등이 특히 김수홍의 지도와 유사하다. 《조선팔도고금총람도》에는 지도의 여백에 주기가 있지만 이 지도에는 생략되어 있다. 마치 주기의 기록 부분을 잘라낸 듯 지도의 상단 부분에 여백이 거의 없다. 압록강 하구에서 두만강 하구까지의 동서간의 길이와 남부 지방의 동서간의 길이를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양을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표현했다. 경도의 도성을 축척에 관계없이 크게 그렸으며 하계망이 부정확하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4개의 목판으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네 부분 중 상단 두 부분은 먹물이 번지고 인쇄가 뚜렷하지 않는 등 인쇄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도판 68

《팔도총도 八道總圖》 중 [조선전도 朝鮮全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32.5×40.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3).

국보 제248호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비슷한 윤곽을 지닌 조선전도이다. 산맥을 녹색 선으로 이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열은 강줄기가 이어진다. 한반도 전체를 끊어짐 없이 유기체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했다. 색을 달리하여 주요 도시에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간략하게 지역을 표시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① 백두산+흑룡강

동서 방향 직선으로 흐르는 흑룡강 수계에 중국의 ‘장백산長白山’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우리나라의 ‘백두산白頭山’이 있다. ‘장백산長白山’에서 ‘백두산白頭山’으로 흑룡강이 흐르고 다시 이 강은 동해로 유입된다. 또다시 ‘백두산白頭山’에서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나온다. 중국의 장백산과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각각 그려서 서로 다른 산임을 표현했다.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하여 매우 확대된 조선 초기의 영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① 백두산+두만강 북쪽의 여러 강

산을 선으로 그린 간략한 지도에 흰색의 백두산만이 유일하게 묘사되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두만강과 압축적으로 표현된 만주지방이 조선전도에 포함되어 있다. 백두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豆滿江 외에도 여러 강들이 있다. 두만강 북부 만주지역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Ⅲ. 조선전도 속의 백두산

2

백두산과 토문강 · 분계강



도판 69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18세기, 채색필사본(비단), 272.2×137.9cm, 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德壽4396).

정상기형 대형 조선전도로서 만주지역의 흑룡강 유역까지 담고 있다. 지도 상단과 백두산 동쪽 부분의 박락이 심하다. 세견(細絹) 세 폭에 표현된 정교한 이 지도는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추정된다. 조선의 전체적인 모습, 수록된 정보의 종류와 양은 정상기(鄭尙驥(1678-1752))의 《동국지도》 원본 계통과 동일하다. 백두대간과 청북정맥 등 주요산맥은 진한 청록색으로 채색했고 다른 산지는 연두색으로 표현했다. 특히 국경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봉수대와 붉은 선의 도로망이 매우 상세하다. 국가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원본으로 하고, 관에서 만주지역을 첨가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의 첫 번째 수도였던 ‘홍경(建州興京)’과 세 번째 수도 ‘성경(盛京)’은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했고 유조변이 그려져 있다. 의주를 지나 압록강을 건너 성경과 오라를 지나 영고탑까지 가는 노정도 붉은 선으로 그렸다. 현재 남아있지 않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도는 학술적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도판 70

《동국대지도 東國大地圖》

19세기, 채색필사본, 252.5×139.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8).

조선후기 정상기(鄭尙驥(1678-1752))의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이다. 1787년에 설치된 함경도 장진 부(長津府)가 표시되어 있고, 1800년에 개명된 함경도의 이성(利城)이 이원(利原)으로 표기된 것을 근거로 1800년 이후 제작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충청도의 이산(尼山)과 경기도의 금천(衿川)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기형 《동국지도》가 수정, 보완되는 과정 속에 제작된 지도로 보인다.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는 《대전도》와 《팔도분도》가 있는데, 현존하는 것은 대부분 《팔도분도》이고 대전도는 매우 드물다. 이 지도는 제척(梯尺)의 형태인 백리척을 사용하여 그린 대전도이며, 당시로는 대축척지도에 해당한다. 현재의 축척으로 계산하면 대략 1:42만 정도가 된다. 이전 시기 지도에서 보이던 한반도 북부지방의 왜곡된 윤곽이 정상기의 지도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지도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③ 백두산+토문강원+지도의 박락+풍계강 일명분계강+두만강

‘백두산(白頭山)’에 ‘대지의 주변 80리(大池周80里)’라는 표기가 있다.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가 있고 ‘분수령(分水嶺)·정계비(定界碑)’라 표기되어 있다. 천지 동쪽으로는 목책이 이어지고 ‘토문강이 40리 단류(북류)한다(土門江斷流40里)’는 표기와 함께 동쪽으로 흐른다. 그러나 이 부분부터는 지도가 박락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박락된 부분 동북쪽에 ‘건을가퇴강(件乙加退江)과’ 풍계강 일명분계강(豐界江一名分界江)이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의 박락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원류인 천지 동쪽에서 발원하고 있으며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는 《대전도》를 후대에 전사한 것으로 초기의 지도에 비해 정교함이 다소 떨어지지만 원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바다부분을 파란색으로 채색하여 구분해 놓은 점이 인상적이다. 산천과 도로, 전국의 군현 등이 자세히 표시되었고, 섬의 위치와 크기 등도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그러나 다른 지도에서 보이는 대마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정계비+토문강원+공백+분계강+두만강

백두산 북쪽으로 혼동강混同江, 동쪽으로는 ‘토문강원土門江源’ 표기의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에 있는 평정산을 지나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이 흐른다. 한편, 정계비 아래쪽 또 다른 지류에서 원류하는 두만강이 온성 부근에서 분계강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두 강 중 분계강分界江은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고 또 다른 강은 연길시延吉市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이다. 이 두 강은 연길시延吉市 장동長東 부근에서 합류한다. 그리고 공백 부근에 표기되어 있는 평정산平

도판 71

《조선팔역도 朝鮮八域圖》

1822년 이후, 채색필사본, 241.3×99.0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2).

함경도의 후주부와 장진부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 후주도호부가 설치된 1822년 이후의 지도이다. 하천은 푸른색, 도로는 붉은색으로 채색했고 산은 산맥으로 연이어 표현했다. 도로는 사대로四大路와 군현로郡縣路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사대로의 붉은 선이 더 굵다. 각 군현 좌측에는 그 군현에 파견되는 수령의 관등급官等級을 표시하였으며, 그 우측에는 한양까지의 거경일정距京日程을 표시하고 있다. 산과 강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도로는 홍선이고 하천은 청색 쌍선으로 그려져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③ 백두산+강(토문강)+공백+분계강+두만강

푸른색의 천지에 “대지 주변은 80리”라는 주기가 있다. 천지로부터 북쪽으로 혼동강원混同江源이 흘러나가고 천지 남서쪽으로 압록강, 동북방향으로 명칭이 없지만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흘러 나간다. 백두산 남동쪽에는 ‘입비立碑·분수령’이 있다. 토문강은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

頂山과 북증산北甞山은 함경북도 온성 부근에 있는 증산甞山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하천이 끊긴 공백부분에는 ‘평정산平頂山’이 있고, 현재 중국 연길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에 해당하는 ‘분계강分界江’이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한편 감토봉甘土峯, 무산부 남쪽의 장백산長白山, 등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으로 합류하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72

《조선전도 朝鮮全圖》중 〈조선총도 朝鮮總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98.5×57.5cm, 고려대학교 박물관(D129).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정상기의 팔도분도 사본 중 초기본에 해당하는 지도이다. 전도와 도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도와 충청도는 한 책에,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각각 따로 수록했다. 백리척(전도, 함경북도)뿐만 아니라 발문(함경북도)도 원형대로이다. 전사의 상태가 비교적 정교하고 배지(背紙)의 문서로 보아 궁중의 음식을 맡아보던 사용원(司饗院)에서 사용했던 지도로 추정된다. 정상기의 《팔도분도》원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 평가된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강(분계강)+두만강

백두산 동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原)’이 발원하여 북동방향으로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 동쪽으로 명칭의 표기는 없지만 분계강으로 보이는 강이 흐른다. 한

도판 73

《각도지도 各道地圖》중 〈조선전도 朝鮮全圖〉

19세기, 채색필사본, 99.0×56.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76).

『도리도표(道里圖表)』류의 지도다.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비슷하지만, 《동국지도》유형의 전도와는 달리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산과 고개, 하천 등이 그려져 있다. 전체 한반도 산맥의 조종으로 강조된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맥을 연이어 그리고 독립된 산이 혼재되어 표현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조선 후기의 전도에서 많이 보이는 조선 지형의 좌향과 정동·정서·정남·정북의 위치와 거리를 주기하였다. 또한 《동국지도》처럼 십촌(十寸)으로 구분된 백리척(百里尺)도 있다. 국방상 요충지인 진보(鎭堡)·산성(山城)·역도(驛道)를 작은 원으로, 그리고 봉수(烽臺)는 붉은색의 횡불 모양으로 표시하였다. 팔도의 감영은 일반 군현보다 크게 그려 위계를 나타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정계비+토문강원+공백+분계강+두만강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과 백두산 수계가 같다. 백두산 북쪽으로 혼동강(混洞江)이 흐르고 정계

편 백두산 아래 여러 봉우리에서 소흥단수와 대흥단수가 발원하여 무산 부근에서 합류한 후 ‘두만강(豆滿江)’을 이루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두만강 보다 북쪽에서 다른 원류로부터 시작되어 흐르던 분계강과 만나 동해 바다로 흘러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분계강은 현재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비 동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源)의 표기의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이 흐른다. 한편, 정계비 아래쪽 또 다른 지류에서 원류하는 두만강이 온성 부근에서 분계강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분계강은 현재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74.

《동국지도 東國地圖》

최한기崔漢綺, 1846년, 채색필사본, 95.0×53.1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2).

1846년(道光 26)에 해강 최한기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전도이다. 조선 전기 양식이며 1712년 이전의 상황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흰색 봉우리의 녹색으로 채색된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다. 군현명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고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의 섬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고 풍부하다. 지도의 우측 여백 사각형안에 ‘해강서필’이라고 적혀 있으며, ‘도광道光 26년’으로 제작시기도 밝혀져 있다. 최한기(1803~1877)는 19세기의 대학자로서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구의 한역서 및 중국 개혁과 학자의 서적들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다. 특히 지리학에도 조예가 깊어 동서양반구 세계지도인 《지구전후도地球前後圖》(1834년)를 제작·간행하고, 『지구전요地球典要』(1857년)와 같은 세계지리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최한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전 지도를 전사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로 세로로 각각 8폭으로 작게 접어 휴대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도판 75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중 〈조선전도 朝鮮全圖〉

19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98.7×56.5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35).

군현·봉수·도로망을 상세히 그린 도별지도첩 속의 조선전도이다. 도로망과 봉수대의 분포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백두산 북쪽 여백에 ‘거영고탑육일정距寧古塔六日程’이라는 영고탑까지의 여정도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대안의 만주지역에는 봉황성鳳凰城에서 개원開元을 거쳐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는 유조변장柳條邊牆의 일부가 그려져 있고 영액문英額門, 위원보문威遠堡門, 발고문發庫門, 애해문愛海門, 책문柵門, 홍경의 또 다른 이름인 감창문謙廠門 변문이 표기되어 있다. 지도의 윤곽은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 東國地圖》 유형에 속하나 산계와 수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그대로 전사한 것은 아니다. 지도의 여백에는 고조선古朝鮮·한사군漢四郡·신라구주新羅九州·고려팔도高麗八道와 그 소속 현縣·읍邑 수를 기록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공백+강(분계강)+두만강

흰색 봉우리의 녹색으로 채색된 백두산에서 백두산맥이 이어지고 그 너머 두만강 북쪽 지역은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분계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공백 동쪽으로 흐르다가 백두산 남쪽에서 원류하는 두만강과 온성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분계강은 현재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다. 1712년 이전의 상황을 담고 있어서 토문강과 정계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실학자 최한기가 백두산 동쪽 지역을 공백으로 설정하고 분계강을 그린 것은 19세기에 대두되었던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일허투하)까지는 나아가 국토를 확장해야한다 국토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③ 백두산+토문강상류+공백+2강(분강계)+후춘강+두만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리도표道里圖表》 중 〈팔도전도八道全圖〉와 백두산 부근의 수계가 같다.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로부터 원류하는 ‘토문강상류土門江上流’라고 표기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공백 지역은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吉林省 延吉市에 해당한다. 한편 공백에 있는 ‘건가퇴件加堆’는 연길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부근 구릉인 포이합통布爾哈通이다. 지도에는 건가퇴를 사이에 두고 두 물줄기가 각각 흐르다가 만나는데, 위쪽의 하천은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이며 분강계分江界이라 표기되어 있는 아래쪽의 하천은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다. 이 강들은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경원부 안원慶源府 安原부근으로 유입되는 ‘후춘강後

春江'과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백두산의 표현이 특징적인데, 높은 봉우리 사이에 천지를 그리고 그 위로 백두산이라 표기를 했다. 그런데 천지 아래쪽 산에 장백산이라 표기하고 '즉 가이민상견아린(歌爾民商堅阿隣)'이라 표기했다. 여기서 장백산은 우리나라 함경도의 장

도판 76

《청구관해방총도 靑丘關海防總圖》

1776-1787년, 채색필사본, 85.5×282.0cm, 보물 제1582호, 국립중앙박물관(本館11651).

지도의 남북이 실제보다 두 배 이상 길게 그려졌고 지명과 주기 등 글자는 동쪽 방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마치 한반도가 눕혀져 있는 듯하다. 남쪽에는 일본의 모습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고 지도의 여백에는 국경지역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붉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만주지역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고탑과 산해관에서부터 이어지는 유조변과 변문이 자세하다. 청록색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조선 부분에서는 군사 기지인 진보(鎭堡)와 성곽이 잘 그려져 있다. 붉은 선으로 교통망을 그리고, 해안에는 방어 시설과 관련된 초(哨(백 명을 단위로 하는 군대의 편제)와 당(塘)을 표시했다. 봉수는 햇불모양으로, 요충지는 깃발모양으로 표현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④ 백두산+토문강원+풍계강 일명 분계강 토문강 하류+두만강

백두산 주변에 '백두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칭함(白頭山彼云長白山)', 천지에는 '천지의 주변 80리(澤周80里)라는 표기가 있다.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가 있고 두만강이 동쪽으로 흘러나간다. 천지 동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源)이 발원하여 동북향으로 흐르다가 온성부근에서 두만강과 합류한다. 합류하는

백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백두산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의 그것이다. 조선 영조 때 학자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의 지행록(地行錄)에 청나라 사람들의 기록에는 이 산을 '장백산은 곧 가이민상견아린(歌爾民商堅我隣)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자(譯者)는 해설에 '가이민상견아린'이라 함은 여진족의 주어인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곳 백성이나 장사꾼이 노래하는 군센 우리 이웃 산'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지도에서는 백두산의 여맥 중 하나의 산을 장백산이라 지칭하며 백두산과 다른 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근의 토문강에는 '풍계강은 일명 분계강이라 불리우며 토문강하류이다(豐界江一名分界江土門江下流)'라고 표기되어 있다. 토문강과 합류하여 흐르는 두만강은 경원 부근에서 유입되는 '후춘강(後春江)과 함께 동해바다로 향한다. '훈춘강(訓春江)'의 다른 표현인 '후춘강(後春江)'은 '고려경(高麗鏡)'이라 여겨왔던 선춘령(先春嶺) 부근에서 발원한다. 토문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표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1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지도이기 때문에 '동위토문'을 경계로 삼은 비의 내용대로라면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과 합류하는 토문강을 국경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도에 표현된 분계강과 선춘령은 더 확대된 북방영역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중하는 1885년 토문강이 북향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1887년 현실적 타협안으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가정하더라도 두만강의 최상류인 홍토수를 그 수원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는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77

《조선지도 朝鮮地圖》

19세기 이후, 채색필사본, 84.0×62.3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6).

우리나라의 산계와 수계를 그리고 팔도 군현을 표기한 조선전도이다. 1822년에 신설된 함경도 후주厚州가 그려져 있어, 이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는 군현명, 진보鎭堡의 이름, 산천명山川名이 표기되어 있는데,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글자로 이름만 기록해 서술적인 느낌을 준다. 울릉도를 매우 크게 그려, 전도임에도 주도굴朱土窟·죽전竹田 등의 지명이 섬 안에 기입되었으며,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도 크고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함경도 명천明川 부분이 조선 전기의 지도처럼 많이 돌출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④ 백두산+토문강상류+건가퇴+2강(분계계)+두만강

백두산 천지인 ‘대택大澤’에서 동북쪽으로 ‘토문강상류土門江上流’가 건가퇴件加堆 부근에서 끊긴다. 건가퇴件加堆를 사이에 두고 두 물줄기가 각각 흐르다가 만나는데 만나는 지점에 ‘분계계分江界’라고 표기되어 있다. ‘토문강상류~건가퇴~두 강’은 삼지 부근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던 두만

도판 78

《여도 輿圖》

18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153.7×95.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75).

북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고 우산도가 울릉도의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은 조선전기 《동람도》식 전도 양식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지도는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조선전도로, 한반도의 윤곽을 사실에 가깝게 그린 정상기의 《동국지도》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 지도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중국 접경지역의 진·보, 압록강·두만강 이북 중국지역의 지명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17세기 말부터 대두된 백두산을 둘러싼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진鎭과 보堡는 황색의 작은 사각형, 군현은 큰 사각형, 병·수영은 작은 원, 각도의 감영이 있는 곳은 큰 원으로 표시하여 위계를 나타냈다. 산천의 명칭이 비교적 소상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도 서지방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고 위치 및 면적에서도 왜곡이 심하다. 산성·봉수·교통로 등은 그리지

강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의 작은 구릉인 ‘건가퇴件加堆’는 길림성 연길시延吉市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의 포이합통布爾哈通을 의미한다. 또, 두 강은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와 백두산 동쪽 증봉산甕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로, 연길시延吉市 장동長東 부근에서 합류한다. 토문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표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1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지도이기 때문에 ‘동위토문’을 경계로 삼은 비의 내용대로라면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과 합류하는 토문강을 국경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도에 표현된 분계강은 더 확대된 북방영역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중하는 1885년 토문강이 북향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1887년 현실적 타협안으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가정하더라도 두만강의 최상류인 홍토수를 그 수원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는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않았다. 전체적으로 하삼도下三道 지역의 파악을 바탕으로 북방으로의 관심이 확장되는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장백산+토문강

전체 한반도 산맥의 조종으로 강조된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맥을 연이어 그렸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백두산 남동쪽으로 정계비가 있고, 토문강원土門江源은 두만강의 수원이 되는 여러 물줄기 중 하나이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판 79

《동국지도 東國地圖》중 〈총도 總圖〉

19세기, 채색필사본, 99.3×59.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3).

〈총도〉, 〈경기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모두 9점의 지도로 구성된 지도첩 중의 조선전도이다. 정상기 지도의 유형으로서 후기 사본에 해당한다. 대전도를 축소한 총도가 첨부되어 있다. 각 도별도의 여백에는 도별 관원 수官員數와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주기하였다. 지도의 발문은 없고 백리척은 총도와 경기도 부분에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동국지도》에 수록된 〈총도〉이다. 흰색의 백두산에서 비롯된 녹색의 산지들과 그 사이를 흐르는 푸른색의 하천, 각 도마다 다른 채색으로 표기한 군현명이 지도의 회화적 느낌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백두산 부분에는 따로 종이를 덧대어 붙인 흔적이 남아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두만강

같이 수록된 《동국지도》중 〈총도〉의 백두산 부분에 비해 간략해서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흰색의 웅장한 봉우리로 묘사한 백두산에서 동북쪽을 향하여 토문강원이 흘러나가지만 하천은 짧게 흐르다가 끊긴다.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백두산 남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Ⅲ. 조선전도 속의 백두산

3

백두산과 압록강 · 두만강



도판 80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 중 〈동국대총 東國大總〉

여운(呂溫), 1849년, 목판본, 19.2×3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96).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는 〈천하도〉, 〈중국도〉, 〈동국대총〉과 팔도의 지도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이 중 〈동국대총〉은 조선전도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팔도총도〉와 달리 국가의 제사처가 있는 주요 산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팔도총도〉에 비해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한 전체적인 윤곽과 안정된 구도는 소장하고 싶어지는 한 폭의 판화작품처럼 느껴진다. 지도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는 조선 전체의 모습에 대해 “조선은 남북으로 3,200리이고 동서로 1230리, 온성에서 서울까지 2091리, 해남에서 서울까지 1007리”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정북의 함경도 온성, 정남의 전라도 해남, 정동의 강원도 강릉, 정서의 황해도 풍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조

도판 81

《지도 地圖》 중 〈조선국 朝鮮國〉

19세기, 채색필사본, 32.3×38.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7).

채색필사본 동람도형 지도책으로, 〈천하도〉·〈중국〉·〈일본〉·〈조선국〉·〈유구국〉 그리고 도별도의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95년에 개칭된 경기도 시흥始興, 1800년도에 개칭된 함경도 이원利原 등을 통해 1800년 이후 제작된 지도책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국〉은 제목의 상단에 동서남북의 길이, 아래에는 지형이 기록되어 있다. 사방 여백에는 단기조선부터 시작해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연혁이 기재된 것을 통해 역사지도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또 각 도의 이름 옆에 소속 군현수를 기록하고, 각 도에서 경기도까지를 실선으로 연결하여 거리를 숫자로 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팔도를 표시하고 각 도의 주요 산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선의 행정단위를 경·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지도이다. 백두산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백두산 봉우리는 음각으로 표현하여 흰색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팔도총도〉의 평범한 백두산과 달리 강조되어 있는 백두산을 통해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간단하게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불꽃처럼 우뚝 솟은 백두산이 조선의 가장 위에서 위엄을 과시하는 듯 보인다. 조선 초기〈팔도총도〉의 평범한 백두산과 달리 강조되어 있는 백두산을 통해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8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중 〈조선전도 朝鮮全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24.5×30.5cm,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61-6)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는 〈천하총도天下總圖〉, 〈중국지도 中國地圖〉, 〈유구국琉球國〉, 〈일본국 日本圖〉, 그리고 조선전도와 조선 팔도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표제와 내제에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로 표기되어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사항과 해제에 는 《조선지도 병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並八道下地圖》로 되어있다. 여기에 수록된〈조선전도 朝鮮全圖〉 는 동람도 형태를 띠고 있는 간략한 지도이다.

도판 83

《해동총도 海東總圖》 중 〈조선총도 朝鮮總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42.5×32.3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2).

《해동총도》는 여지도 류의 채색 필사본 지도책으로 9장만 현전한다. 〈천하도〉, 〈중국도〉, 〈유 구국도〉, 〈일본도〉 등은 남아있지 않다. 이 지도는 《해동총도》에 수록된 〈조선총도〉이다. 지도의 윤곽은 동람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도 상하에 단군檀君이 태백산에 강림한 시기로부터 조선 시대까 지의 역사를 개략한 점이 특징적이다. 지도에는 팔도의 위치와 각 도의 군현 수·역·보루 등을 기술 하였고, 주요 산과 하천을 묘사하였으나 도로는 표시하지 않았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조선의 북쪽 경계는 ‘백두산白頭山’을 중심으로 서쪽의 압록강, 동쪽의 두만강이다. 백두산 아래 함경도의 ‘장백산長白山’이 그려져 있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가장 크게 그린 백두산 윗 부분을 흰색으로 채색하여 강조하였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 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 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판 84

《지도地圖》중 〈조선총도 朝鮮總圖〉

19세기, 채색필사본, 25.2×25.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지도》는 아름다운 채색필사본의 동람도형 지도책이다. 〈천하도〉, 〈중국지도〉, 〈일본지도〉, 〈유구국지도〉, 〈조선총도〉, 〈조선국팔도통합도〉 그리고 각 도별지도로 이루어져 있다. 도별도의 외곽에 호구戶口와 수조收租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유호구癸酉戶口’, ‘갑술수조甲戌收租’의 표기를 통해 각각 1813년과 1814년 자료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명 변화는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의 ‘시흥始興’은 개칭(1795년)되기 전 지명인 금천衿川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충청도 ‘노성魯城’은 1800년 개칭 이후의 지명으로 쓰여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총도〉는 〈동람도〉형의 간략한 조선전도이다. 두만강과 압록강이 거의 일직선상으로 표현되어 북부 지방의 왜곡이 심하다. 서울은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원으로 크게 강조했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

도판 85

《지도地圖》중 〈조선도 朝鮮圖〉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28.4×34.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3).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동람도형 채색필사본 지도책으로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도〉, 〈조선전도〉, 〈도별도〉 등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67년에 개칭된 경상도 산청山淸과 안의安義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1776년에 개칭된 충청도의 이성尼城으로 바뀌어 있으므로 1776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1795년에 개칭된 경기도의 시흥始興은 여전히 개칭 전 지명인 금천衿川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조선도〉는 조선의 모습을 일러스트화하여 간단하고 재미있게 묘사했다. 주요 산과 하천만을 그렸는데, 큰 산을 중심으로 팔도를 원으로 구분하고 영역 안에 도의 이름, 각 도에 소속된 군현수, 역수驛數, 그리고 병영兵營을 표기했다. 특히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금강山金剛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는데, 금강산은 명칭에 걸맞게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이 특징적이다. 부산 앞바다에는 ‘절영도絶影島’가 크게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지도의 위쪽 여백에는 당시 지방 행정구역의 수와 역, 보堡의 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우측 여백에는 한반도의 동·서·남·북 크기가 기재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간단하게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백두산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백두산 봉우리는 흰색으로 채색했다. 조선 초기〈팔도총도〉와 달리 강조되어 있는 백두산을 통해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간단하게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백두산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백두산 봉우리는 흰색으로 표현했다. 조선 초기〈팔도총도〉의 평범한 백두산과 달리 강조되어 있는 백두산을 통해 조선 후기 백두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86

《지도 地圖》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

연대미상, 목판본, 25.8×32.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람古912.5-J561).

《지도》에 수록된 <동국팔도대총도>는 조선전도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팔도총도>의 평범한 백두산과 달리 조선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지도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는 조선 전체의 모습에 대해 “조선은 남북으로 3,200리이고 동서로 1230리, 온성에서 서울까지 2091리, 해남에서 서울까지 1007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정북의 함경도 온성, 정남의 전라도 해남, 정동의 강원도 강릉, 정서의 황해도 풍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조선의 행정단위를 경·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양 쪽 여백의 이 기록은 서울대학교 규

도판 87

《여지도 輿地圖》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8.9×39.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

《여지도輿地圖》는 <천하제국도>, <중국도>, <성경여지전도>, <일본도>, <유구국>, <동국팔도대총>과 팔도의 지도를 수록하고 있는 지도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중 <동국팔도대총도>과 동일한 내용의 지도이다. 바다와 하천, 산에 파란색으로, 경도에 붉은색으로 채색한 점만 다르다. <동국팔도대총도>은 조선전도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팔도총도>와 달리 국가의 제사처가 있는 주요 산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지도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는 조선 전체의 모습에 대해 “조선은 남북으로 3200리이고 동서로 1230리, 온성에서 서울까지 2091리, 해남에서 서울까지 1007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경성을 중심으로 정북의 함경도 온성, 정남의 전라도 해남, 정동의 강원도 강릉, 정서의 황해도 풍천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조선의

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에 수록되어 있는 <동국대총>과 같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장백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백두산이 중국에서 명명하는 ‘장백산長白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행정단위를 경·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나누어 각각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양 쪽 여백의 이 기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동국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동국대총>과 같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장백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다른 산에는 파란색으로 채색하였으나 흰색으로 상징되는 백두산만 흰색으로 채색했다. 백두산이 중국에서 명명하는 ‘장백산長白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88**《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중 〈조선팔도대총지형 朝鮮八道大總地形〉**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여지도》 중 〈동국팔도대총〉, 《지도》 중 〈동국팔도대총도〉과 동일한 내용의 지도이다. 바다와 하천, 산에 파란색으로, 경도에 붉은색으로 채색하고 팔도를 표기한 장방형을 노란색으로 채색했다. 〈동국팔도대총지형〉은 조선전도로서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팔도총도〉와 달리 국가의 제사처가 있는 주요 산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도판 89**《천하도 天下圖》 중 〈팔도총도 八道總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8.6×33.9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17).

《천하도》는〈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도〉, 〈팔도총도〉와 팔도의 지도로 구성된 조선후기 유행했던 채색필사본 지도책이다. 이 중 〈팔도총도〉의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은 동람도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팔도총도〉와 달리 국가의 제사처가 있는 주요 산을 그리기 보다는 조선후기 민간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던 산과 강을 표현했다. 바다는 파도무늬를 새겨 청색으로 채색했다.

도판 90**《좌해여지도 左海輿地圖》 중 〈동국팔도대총도 東國八道大總圖〉**

19세기, 채색필사본, 34.0×21.6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443).

《좌해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동국팔도대총도〉는 푸른 채색이 특히 돋보이는 아름다운 동람도형 전도이다. 지도의 여백에는 단군에서 시작되는 조선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남북으로 3220리, 동서로 1230리, 정북 온성, 정남 해남, 정동 강릉, 정서 풍천” 이라는 주기가 실려 있다. 한편 지도에서 서울의 표기인 ‘왕도王都’가 특징적이다. 그리고 왕도의 사대문과 궁에 대한 주기를 기록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장백+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백두산에 조선에서 명명하는 ‘백두白頭’와 중국에서 명명하는 ‘장백長白’ 두 개의 명칭을 표기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장백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백두산의 명칭이 중국에서 명명하는 ‘장백산長白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불꽃처럼 우뚝 우뚝 솟은 백두산은 힘이 가득하다. 천지에 대한 표기는 ‘달문담達門潭’이다. 천지는 북쪽 한 곳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가 장백폭포를 이루는데, 이 터진 화구口瀨를 ‘달문關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천지의 달문담이라는 명칭은 이런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91

《조선팔도 朝鮮八道》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48.0×32.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6).

조선 전기형의 채색필사본 조선전도이다. 북부지방이 매우 압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양이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사각형·직사각형·원형·타원형 등 각 도道마다 다른 도형을 사용하여 지역을 구분했다. 좌측에는 범례가 있고, 지도의 우측 여백에는 각 도의 진보鎭堡가 기록되어 있다. 좌측 상단에는 조선의 크기, 동서남북의 거리, 좌측 하단에는 각 도의 소속 군현수 등 지리적인 내용을 많이 기록하여 비교적 내용이 풍부하다. 지도 상단 중앙에 ‘미기분야석목지차尾箕分野柵木之次’라고 쓰여 있어, 천문에 대응하는 조선의 분야分野와 위치를 알려 준다.

도판 92.

《동국지도 東國地圖》

18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92.6×65.3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1).

민간에서 제작된 우리나라 전도로 한글 지명이 함께 표기된 점이 특징적이다. 한글 표기 지도의 제작은 이용자 계층의 확대와 양적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글지도의 제작은 지도발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윤곽은 조선전기의 양식처럼 북쪽지방의 왜곡이 심하다. 팔도의 경계를 붉은 색으로 그렸고, 군현명과 더불어 일부 군현의 진산鎭山이 그려진 정도로 소략하다. 지도의 여백에는 각 도별로 고을수와 지방관의 수, 역驛, 보堡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도로는 조선시대 사신들의 왕래가 잦았던 영남로와 의주로만이 그려져 있다. 지금의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는 ‘간산도干山島’라 표기되어 있는데 이전 시기의 지도로부터 여러 차례 옮겨적는 베끼는 과정에서 생긴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맨 위에 가장 크게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압록강의 유로에 비해 두만강의 유로가 매우 짧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오류이다. 압록강 북쪽에는 큰 원을 그리고 요동遼東, 몽고, 건주위建州衛를, 두만강 동북쪽에는 여진국女眞國을 표시해 주요 외세와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상단에 가장 크게 우뚝 솟은 흰색의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압록강의 유로에 비해 두만강의 유로가 매우 짧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93

《고지도첩 古地圖帖》중 〈조선전도 朝鮮全圖〉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96.0×65.5cm, 영남대박물관(10137).

중국·조선·일본 등의 전도와 더불어 〈한성漢城〉·〈남한산성南漢山城〉·〈강도江都〉·〈탐라耽羅〉·〈성경지도盛京地圖〉의 1첩 8절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고지도첩》에 실린 〈조선전도〉이다. 방안을 그리고 그 위에 전도를 그렸으며 여백에는 우리나라 군병력에 대한 주기를 기록하였다.

도판 94

《지도 地圖》중 〈조선국팔도통합도 朝鮮國八道統合圖〉

19세기, 채색필사본, 50.0×25.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지도》는 아름다운 채색필사본 동람도형 지도책이다. 〈천하도〉, 〈중국지도〉, 〈일본지도〉, 〈유구국지도〉, 〈조선총도〉, 〈조선국팔도통합도〉 그리고 각 도별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별도의 외곽에 호구戶口와 수조收租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유호구癸酉戶口’, ‘갑술수조甲戌收租’로 기록되어 각각 1813년과 1814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명 변화는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의 ‘시흥始興’은 개칭(1795년)되기 전 지명인 금천衿川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충청도 ‘노성魯城’은 1800년 개칭 이후의 지명으로 쓰여 있다. 〈조선국팔도통합도〉는 우리나라의 산계와 수계를 그리고 팔도 군현을 배치한 전도이다. 지도의 여백에는 우리나라의 국호國號, 연혁沿革, 도별道別 군현郡縣 총수, 팔도관명八道官名 총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도의 윤곽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 조선전기의 조선전도 유형에 속하며, 해안선과 산맥을 과감하게 단순화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유기체적으로 형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맨 위에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와 백두산 부근의 수계가 같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물줄기와 백두산 아래 장백산 부근에서 발원하는 지류가 만나서 두만강을 이루고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정계비도 없고 토문에 대한 언급도 없지만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문구대로라면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토문강이다.

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청록색의 산줄기를 비롯하여 각 군현별 화려한 채색, 특히 붉은 띠 안에 검정색으로 채색한 만주지역은 매우 독특하다. 여백의 주기에는 단군조선을 정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조선만만세朝鮮萬萬歲’라고 주기하여 조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맨 위에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95

《조선팔도여지도 朝鮮八道輿地之圖》

16세기 후반, 목판본, 107.0×69.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4).

조선 전기형 목판본 조선전도이다. 목판본에 가채한 이 지도는 153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유형의 목판본 지도이다. 지도의 형태도 조선조 초기의 우리나라 전도全圖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북부 지방이 압축되어 그려져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거의 동서로 직선상에 놓여 있다. 후에 그려 넣은 바다의 파도문양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매우 유사하다.

도판 96

《동국지도 東國地圖》

19세기 이후, 목판본, 78.4×48.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3).

조선 후기의 목판본 조선 전도이다. 지도에 반영된 지명을 보면 평안도의 이산理山이 초산楚山으로 바뀐 1776년 이후, 함경도의 이성利城이 이원利原으로 개칭된 1800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그러나 1767년에 안의, 산청으로 개명된 경상도의 안음, 산음이 옛날 지명 그대로 남아 있다. 지도의 전체적 윤곽은 조선 전기 양식이며 압록강과 두만강이 거의 일직선상으로 표시하고 북부지방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검정색의 산맥과 푸른색의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다. 산맥의 모습이 마치 대동여지도의 그것을 연상하게 한다. 군현명 우측에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일정日程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의 섬들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고 풍부하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맨 위에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압록강의 유로에 비해 두만강의 유로가 매우 짧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① 백두산+흑룡강

위엄있게 우뚝 솟은 백두산 서쪽으로 흑룡강과 송화강, 동쪽으로 명칭 표기가 없는 두만강, 그리고 두만강 북쪽으로 평행하게 흐르는 강은 흑룡강으로 추정된다. 조선의 전도에 만주지역의 흑룡강을 가장 동북쪽의 강으로 묘사한 점이 특징적이다. 백두산 북쪽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현한 확대된 영토의식이 나타난다.

도판 97

《여지도 輿地圖》 중 〈아국총도 我國總圖〉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52.5×82.5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여지도》는 총 3책으로 이루어진 지도책이다. 1권에는 〈세계지도〉, 〈중국지도〉, 북경과 한양도성도, 전도를 포함한 6장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2권에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조선도별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권에는 중국의 지방을 행정구역별로 나눈 16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일반 도별도만으로 구성된 지도책과는 차이가 있다. 이 지도는 《여지도》2권에 수록된 〈아국총도〉이다. 하천을 그리고 초록색과 청록색으로 채색된 산맥을 연이어 그렸으며, 각 도마다 군현명에 채색을 달리하였다. 화려한 채색이 오히려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지도의 윤곽과 산계와 수계가 모두 전형적인 정상기형 〈동국지도〉와 비슷하지만 〈동국지도〉처럼 자세히 표시된 도로망과 봉수대(烽臺)는 없다. 지도에는 섬이 특히 많은데 서해와 남해의 작은 섬들까지 자세히 그렸다.

도판 9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69.0×9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 4709-2).

각 도마다 색을 달리하여 군현과 수영·병영·진보 등을 자세히 그린 조선전도이다. 정조 11년(1787)에 새로 설치한 함경도의 장진(長津)이 있고, 또 정조 24년(1800)에 같은 함경도의 이성(利城)이 이원(利原)으로 개명되었는데 이 지도에는 이성(利城)으로 남아 있어서, 제작연대는 1787년에서 1800년 사이로 추정된다. 지도의 여백에는 서울에서, 정동(正東)·정서(正西)·동남(東南)·서북(西北)·정남(正南)·정북(正北)·서남(西南)·동북(東北)의 이수를 기록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 바다와 만난다.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몇몇 작은 지류들이 있지만 강 이름의 표기도 없고 작고 가느다란 지류로 표현했다. 두만강 하류 부근에 ‘훈춘강(訓春江)’이라는 표기가 있다. 훈춘강은 선춘령 공협진 부근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경원부 안원(安源府 安原) 부근에서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강이다. 한편 두만강 북쪽으로는 ‘영고탑계(寧古塔界)’라고 표기되어 있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지도이지만 정계비가 없고, 토문강(土門江)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백두산에서 두만강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도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상단에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대동여지전도》와 백두산 부근의 수계가 같다. 백두산의 여러 산맥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들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정계비도 없고 토문에 대한 언급도 없다.

도판 99

《해좌전도 海左全圖》

1857-1859년, 목판본, 98.4×56.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89).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대표적인 목판본 조선전도이다. 주기(註記)에 ‘순조이십이년치후주(純祖二十二年置厚州) 즉 순조 22년(1822)에 함경도에 후주군(厚州郡)을 설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 지도는 순조(純祖)라는 묘호(廟號)가 정해진 1857년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함경도의 장진(長津)이 군현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859년에 장진이 다시 승격되기 이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1857~1859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하며 산계와 하계, 자세한 교통로 등이 동일한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백두산·금강산·설악산 등 10여개 명산의 위치,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섬·정계비(定界碑)·초량왜관(草梁倭館) 등에 대한 기록을 실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古朝鮮)·한사군(漢四郡)·신라(新羅)·고려(高麗) 팔도의 현(縣)·읍(邑)의 수를 각각 좌측상단 여백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뛰어난 작품이며, 목판인쇄술에서도 돋보이는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 지도는 목판인쇄본에 해안과 주요 강을 따라 푸른색의 채색을 더 한 점이 특징적이다.

도판 100

《해좌전도 海左全圖》

19세기 중엽, 필사본, 106.5×56.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46).

목판본 《해좌전도》와 지도명은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필사본 조선전도이다. 방안 위에 그려진 이 지도는 형태와 윤곽이 《대동여지도》와 비슷하다. 단지 지도 상단에 목판본 해좌전도의 지도명이 그대로 덧붙여져서 《해좌전도》라 명명되었다. 해안선 가까운 바다와 강은 파란색으로 채색했는데, 산보다는 수계를 강조하여 그렸다. 팔도의 군현명을 각기 다른 채색의 원안에 표기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건천+공백+분동강+2강+두만강

백두산 동쪽으로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건천(乾川)’이라 표기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이 공백에는 ‘영고탑경계(寧古塔境界)’라고 표기되어 있다. 공백 동쪽으로 분계강인 ‘분동강(分東江)’과 또 다른 두 강이 합류하여 흐른다. 한편, 정계비 아래쪽 또 다른 지류에서 원류하는 두만강이 온성 부근에서 위 강들과 다시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세 강은 아래부터 해란하(海蘭河)인 분동강(分東江(분계강(分界江))),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알아하(阿呀河)이다.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는 연길시(延吉市) 장동(長東) 부근에서 포이합통하와 합류한다. 그리고 이 두 물줄기는 길림성 도문시(吉林省 圖們市)에서 알아하와 합류하여 두만강과 만난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갈색으로 채색한 백두산 안에 천지가 있고,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간다.

도판 101

《대동여지전도 大東輿地全圖》

19세기 후반, 목판본, 104.3×31.7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7).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를 소축척으로 줄여서 만든 약 92만분의 1 조선전도이다. 제작자와 발간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지도의 내용으로 보아 김정호의 제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른쪽 여백에 의무려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이어진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조산이라는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 간략하게 주기하였다. 전도의 형상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고 있다. 산맥山脈과 하천河川을 별개로 보지 않고 산맥이 있으면 곡峪이 있고 그곳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산맥은 분수령이 된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산맥과 하천의 모습은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도판 104, 106, 109

청구도의 백두산 부분

《청구도》는 1834년(순조 34년)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채색필사본 지도책으로, 「청구선표도 靑邱線表圖」라고도 부른다.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작원리를 수록한 최한기의 「청구도제靑邱圖題」, 범례, 〈도성전도都城全圖〉, 〈제주현도諸州縣圖〉, 〈동방제국도東方諸國圖〉, 〈사군삼한도〉, 〈삼국전도〉, 〈신라주현총도新羅州縣總圖〉, 〈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 〈본조팔도성경합도〉, 〈본조팔도주현도총목本朝八道州縣圖總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국을 가로 22관, 세로 29층으로 나누어 편람하기 좋도록 만든 총 321면의 지도책이며, 가로 70리, 세로 100리를 기준으로 모눈을 그린 경위선표식 지도이다. 지도 위에 그려져 있는 방안이 산과 물을 자르는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면의 위와 그리고 군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사방을 12개의 방위로 나누고, 10리 간격의 원이 그려져 있는 지도식이 있다. 지도

더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맨 위에 우뚝 솟은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산맥과 강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생동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백두산 부근의 수계가 같다. 백두산의 여러 산맥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들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정계비도 없고 토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식은 기호만 별도로 모은 범례표가 아니라 지도상에서 직접 바다, 섬, 강, 산, 읍성, 목장, 못, 다리, 고개, 봉수, 누각 등의 기호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지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리지에만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지도에 수록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고을마다 호구수, 토지 면적, 군사의 총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의 총량, 한성까지의 거리 등을 기록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등 역사지리 정보도 수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보물 제 1594-1호 《청구도》와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비교적 보관 상태가 좋고 구성이 뛰어난 채색필사본이며 고려대학교도서관소장본은 가장 최초의 본으로 추정된다.

도판 102

《청구도 靑邱圖》중 〈본조팔도주현도총목 本朝八道州縣圖總目〉

1834년, 채색필사본, 30.8×20.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511).

〈본조팔도주현도총목 本朝八道州縣圖總目〉은 《청구도》의 색인도索引圖로 모두 4면에 그려진 지도이다. 지도책에서 찾고자하는 지역을 쉽게 색인할 수 있도록 전도 위에 경위선 방안표를 그렸다. 방

안의 세로에 1층부터 29층, 가로에 1판부터 22판까지 표기하였기 때문에 세로와 가로의 층과 판을 비교하면 색인을 할 수 있다.

도판 103

《청구도 靑邱圖》중 〈본조팔도성경합도 本朝八道盛京合圖〉

1834년, 채색필사본, 20.7×30.8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511).

《청구도》에 수록되어 있는 〈본조팔도성경합도〉이다. 노란 채색의 조선 전도와 흑룡강 이남에서 유조변 일대를 포함한 만주지역이 표현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장백산+토문강
백두산은 중국에서 명명하는 명칭인 ‘장백산 長白山’으로 표기하였는데, 노란색으로 표현된 조선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백산에서 동쪽으로 두만강이 발원하는데 ‘토문강 土門江’이라 표기했다.

도판 104

《청구도 靑邱圖》, 중 제 3층 8·9판

1834년, 채색필사본, 30.8×20.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511).

《청구도》 제3층 8판과 3층 9판에 수록되어 있는 〈백두산〉지도이다. 제8판 여백에 임진정계비에 관한 주기가 있고 9판에는 ‘산해경에서 불함산, 당서에서 장백산이라 칭했다’는 백두산의 명칭에 관한 내용과 대명일통지의 백두산에 관한 주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지도의 맨 위에 우뚝 솟은 백두산 천지는 ‘대지 大池’로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 남동쪽에 임진정계비가 있고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목책과 석퇴, 다시 목책이 이어지고 이 목책은 ‘강희 임진년 분계를 정할 당시 분계상류로 칭했다 康熙壬辰分界時稱分界上流’라는 주기가 있는 강(두만강)쪽으로 이어진다. 한편 백두산에서 목책으로 ‘화천 花川’과 ‘건천 乾川’이 유입된다.

도판 105

《동여도東輿圖》중 〈제표총목 諸標總目, 팔도분표 八道分表〉

채색필사본,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423).

우측 지도는 지도의 범례인 「제표총목」이고, 좌측 지도는 《동여도》의 색인도인 「팔도분표」이다. 「팔도분표」는 매방 경(세로) 70리, 위(가로) 100리 이다. 전도는 팔도로 점선으로 구분해놓았고, 세로 28층·가로 22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판 106

《동여도東輿圖》중 제 3층8·9,

채색필사본,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423).

도판 107

《청구도靑邱圖》중 표지

채색필사본, 24.0×3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587).

《청구도》표지이다.

도판 108

《청구도靑邱圖》제 1층,

채색필사본, 24.0×3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587).

《청구도》제 1층 온성 부근이다.

도판 109

《청구도靑邱圖》중 제 3층 8·9

채색필사본, 24.0×3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587).

도판 110~113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백두산 부분

도판 110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1861년, 목판본, 30.2×20.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33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현재 6종의 《대동여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이 중 3종은 목판본이며 3종은 필사본이다. 3종의 목판본 중 보물로 지정된 한 본은 1864년 갑자본이며, 이 지도를 포함한 다른

한 본은 1861년 신유본이다.

도판 111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일본 국회도서관.

도판 112

《조선지방도 朝鮮地方圖》중 제 1첩 백두산 부분

채색필사본, 29.0×17.5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211).

도판 113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1861년, 필사본, 30.2×20.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38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6종의 《대동여지도》 중 3종이 필사본이다. 3종의 필사본 중 2종은 1861년 신유본을 보고 필사한 것이며 나머지 한 본은 1864년 갑자본을 보고 필

사한 것이다. 이 지도는 신유본을 필사한 것으로, 다른 필사본에 비해 가장 잘 그려진 지도이다.

도판 114-115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대동여지도》는 전통지도의 집대성이자 전통시대에 제작된 우리나라 전국지도 중 가장 훌륭하고 큰 지도이다.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1861년 편찬한 약 16만 5천분의 1 지도이다. 전체를 이으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의 대형지도가 된다. 동서 80리, 남북 120리가 지도 1면이 되며, 22첩帖 19판 절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지도의 각 권은 가로 20cm, 세로 30cm 정도로 휴대하기 간편한 지도책이기도 하다. 서문에 해당하는 <지도유설>에는 중국 고전에 있는 지리 관련 글귀를 인용하여 김정호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중국 지리학자 배수裴秀의 지도제작 방법을 정리했다. 조선 팔도의 행정구역, 군사시설, 산성, 봉수, 역참 등의 수를 정리한 글, 각 도의 전부田賦, 민호, 인구, 창고 등의 사항을 수

도판 114

《해좌여도 海左輿圖》

1861년, 목판본, 29.8×19.8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971).

성신여자대학교에는 1861년에 간행된 두 종의 초간본 《대동여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해좌여도》는 그 중의 한 본이다. 《해좌여도》는 목판본 지도에 아름다운 채색을 한 본으로 녹색의 산맥과 노란색의 경계, 붉은 도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채색은 지도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특히 이 지도는 현존하는 《대동여지도》 중 가장 초기의 인쇄본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제2첩 제4면에 수록된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천지는 ‘대지大池’라 표기하였다. 남동쪽 ‘분수령分水峯’ 위에는 정계비가

도판 115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1861년, 목판본, 30.6×20.1cm, 보물 제850-1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47).

성신여자대학교에는 1861년에 간행된 두 종의 초간본 《대동여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지

록하여 당시 조선의 행정·군사·경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국토의 모든 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백두대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크고 작은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고, 산줄기 사이사이 흐르는 하천은 그 연결과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산과 하천의 연결과 흐름을 통해 유기체적인 사고관을 엿볼 수 있다. 인문지리적인 정보도 매우 풍부한데, 특히 실선으로 표현한 도로 위에는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다. 기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목판본에 많은 정보를 담음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도 도왔다.

표시되어 있으며, 그 옆에 ‘청의 강희제康熙帝가 재위하던 임진년壬辰年, 즉 1712년(숙종 38)에 국경을 정했다康熙壬辰定界’고 주기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로부터 동남쪽으로 명칭의 표기는 없지만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흘러나오다가 끊긴다. 정계비 바로 위에서 한 줄기 하천이, 그리고 분수령 부근에서 지표가 아닌 땅속을 흐르는 ‘건천乾川’이라 표기된 또 다른 하천이 석퇴를 따라 내려오는데 두 물줄기는 목책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으로 유입된다. 두만강에는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라 표기되어 있다. 여백에는 백두산이 무산부茂山府에서 280여 리, 갑산부甲山府에서 350여 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였다. 토문강과 분계강을 각각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계강으로부터 이어지는 두만강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는 보물 850호로 지정된 본이다.

도판 116~117, 119
《동여도 東輿圖》

《동여도》는 철종, 고종 연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필사본 전국 채색지도이다. 총 23첩으로,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는 분첩절첩식分疊折帖式 형태로 되어 있다. 맨 처음 한 첩은 목록집이고, 나머지 제 1첩부터 제 22첩까지는 각 지역의 지리가 그려져 있다.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저본일 가능성과 《대동여지도》를 보충한 필사본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지도의 내용과 형태는 《대동여지도》와 유사하나, 필사본인 《동여도》에 7,000여개의 지명이 더 수록되어 있다. 지도

도판 116
《동여도 東輿圖》

19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30.5×20.0cm, 보물 제1358-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340).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㉔ 백두산+두만강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로부터 동남쪽으로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흘러나오다가 끊긴다. 무산부에서 280여리 떨어져 있다는 ‘거무산부이백팔십여리’라는 표기도 있다. ‘정계비定界碑’ 바로 아래 산봉우리에는 ‘분수령分水嶺’, ‘강희임진정계康熙壬辰定界’라는 표기가 있다. 그리고 정계비 바로 위에서 한 줄기 하천이, 분수령 부근에서 또 다른 한 줄기 하천 ‘건천乾川’은 석퇴를 따라 내려오는데 두 물줄기는 목책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으로,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라 표기되어 있다. 한편 경원부 안원(慶源府 安原)부근에서 ‘후춘강厚春江’이 두만강으로 유입한다. 《대동여지

여백에는 『방여기요 方輿紀要』에 실려 있는 지도의 중요성을 논한 글귀를 적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와 경도經度의 차이, 지상에서의 거리 차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즉 경선 1도 차이는 4분의 시간 차이이며 지상에서의 거리는 200리이고, 30도 차이는 1진(辰)이며 거리로는 6000리임을 기록했다.

도》와 백두산의 수계 표현이 완전히 일치한다. 단지 두 군데의 표기가 《청구도》와 같다. 첫째는 분수령 부근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의 ‘건천乾川’이라는 표기가 《대동여지도》에는 없고 《청구도》에는 있는 점. 둘째,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후춘강後春江’이 아닌 《청구도》와 같은 글자 ‘후춘강厚春江’으로 표기된 점이다. 토문강土門江과 분계강分界江를 각각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계강分界江으로부터 이어지는 두만강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판 117

《동여도 東輿圖》

19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30.5×20.0cm, 보물 제1358-1호, 서울역사박물관(서3069).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제2첩 제4면에 수록된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천지를 ‘대지大池’라 표기했지만 《동여도》에는 표기가 없다. 남동쪽 ‘분수령分水嶺’ 위에는 정계비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옆에 ‘청의 강희제康熙帝가 재위하던 임진년壬辰年, 즉 1712년(숙종 38)에 국경을 정했다康熙壬辰定界’고 주기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로부터 동남쪽으로 명칭의 표기는 없지만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흘러나오다가 끊긴

도판 118

《동여 東輿》중 제 1첩·2첩

19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41.0×26.5cm, 국립중앙박물관(M127).

지도상의 내제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이다. 각각의 첩은 《대동여지도》와 같이 병풍처럼 펴고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각 도면에는 세로 10칸, 가로 7칸의 방안이 그려져 있는데 한 개 방안의 길이는 20리이다. 전체적인 지도의 윤곽은 18세기 후반의 군현지도첩인 〈조선지도〉, 〈해동여지도〉와 비슷하다. 28층인《청구도》의 2개 층을 한 층으로 편집하여 14층으로 제작한 분첩식 지도이다. 《대동여지도》에 있는 10리 간격의 방점이 없는 대신 20리 방안으로 축척과 거리를 나타냈다. 지도가 수록하고 있는 내용은《청구도》와 같고, 지형의 표현은 《대동여지도》와 유사하다. 《대동여지도》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의 지도로 추정된다. 군현의 경계는 황색 점선으로 그렸고 행정 지명은 먼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에서부터 연잇는 산맥의 표현은 유기체적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경계가 되는 땅의 표시도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역원, 군사 기지인 진보鎭堡, 창고, 통신 수단인 봉수烽臺, 목장 등의 항목들이 기호로 표현되어 있다.

다. 정계비 바로 위에서 한 줄기 하천이, 그리고 분수령 부근에서 ‘건천乾川’이라 표기된 또 다른 하천이 석퇴를 따라 내려오는데 두 물줄기는 목책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으로 유입된다. 두만강에는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라 표기되어 있다. 여백에는 백두산이 무산부茂山府에서 280여 리, 갑산부甲山府에서 350여 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였다. 토문강과 분계강을 각각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계강으로부터 이어지는 두만강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대동여지도》의 백두산 동쪽 수계표현과 동일하다.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로부터 동남쪽으로 명칭의 표기는 없지만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흘러나오다가 끊긴다. 무산부에서 280여리 떨어져 있다는 ‘거무산부이백팔십여리’라는 표기도 있다. ‘정계비定界碑’ 바로 아래 산봉우리에는 ‘분수령分水嶺’, ‘강희임진정계비康熙壬辰定界’라는 표기가 있다. 그리고 정계비 바로 위에서 한 줄기 하천이, 분수령 부근에서 또 다른 한 줄기 하천은 석퇴를 따라 내려오는데 두 물줄기는 목책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라 표기된 두만강으로 이어진다. 한편 경원부 안원慶源府 安原부근에서 ‘후춘강後春江’이 두만강으로 유입한다. 토문강과 분계강을 각각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계강으로부터 이어지는 두만강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판 119

《동여도 東輿圖》중 제 2첩 · 3첩

19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30.5×20.0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3659).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류의 채색필사본 전국지도이다. 다른 필사본 《대동여지도》에 비해 채색이 가장 아름답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다. 모두 23층 절첩식으로 되어있다. 목록 한 층을 제외하면 지도는 모두 22층이다.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대동여지도》와 거의 유사하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2첩 4면에 수록된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천지를 ‘대지大池’라 표기했지만 《동여도》에는 표기가 없다. 남동쪽 ‘분수령分水嶺’ 위에는 정계비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옆에 ‘청의 강희제康熙帝가 재위하던

도판 120

《대한여지도 大韓輿地圖》

20세기 초반, 동판본, 161.4×91.6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1).

대한제국의 학부편집국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한 한국지도이다. 《대한여지도》는 조선의 전통적인 지도제작방식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서양지도학의 기법을 더하였다. 경위선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지형표시를 우모식羽毛式으로 한 것과 대마도의 윤곽을 일본지도에서 옮긴 것 등은 외래적 요소이다. <한양경성도 漢陽京城圖>를 동해의 여백에 확대하여 삽입 시켰는데, 이러한 삽도 표현 방법 역시 서양 지도학의 기법이다. 현대식 지도의 형태로 전환되어 가는 점이적 단계의 지도라고 볼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도 지형을 자세하게 나타냈으며 의주 북쪽 중국지역의 봉황성에서 개원開元까지 ‘유조변장柳條邊牆’이 표시되어 있다. 제작연대는 지도에 밝혀져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를 13도道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1896년 이후이며, 충청북도의 관찰사영觀察使營이 충주忠州에 있는 것으로 보아 1908년 이전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 도청소재지는 1908년에 청주淸州로 이전되었다. 학부편집국에서는 1899년에 경위선經緯線이 들어 있는 <대한전도 大韓全圖>를 작성한 바 있고 위에서 언급한 세계전도를 1900년에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대한여지도>도 1900년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년壬辰年, 즉 1712년(숙종 38)에 국경을 정했다康熙壬辰定界’고 주기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로부터 동남쪽으로 명칭의 표기는 없지만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흘러나오다가 끊긴다. 정계비 바로 위에서 한 줄기 하천이, 그리고 분수령 부근에서 ‘건천乾川’이라 표기된 또 다른 하천이 석퇴를 따라 내려오는데 두 물줄기는 목책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으로 유입된다. 두만강에는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라 표기되어 있다. 여백에는 백두산이 무산부茂山府에서 280여 리, 갑산부甲山府에서 350여 리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였다. 토문강과 분계강을 각각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분계강으로부터 이어지는 두만강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1907년 첩관본 《대한전도大韓全圖》, 1908년 동판본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와 백두산 부근의 수계가 같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 동해로 들어간다. 그런데 조선 북방영역의 한계를 두만강으로 한정하지 않고 두만강 북쪽 백두산맥 너머로 표현했다. 두만강 이북 백두산맥 너머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포함하며 토문강과 두만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21

《대한전도 大韓全圖》중 〈대한전도 大韓全圖〉

1905년 전후, 동판본, 40.5×31.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8).

1907년(光武 11) 6월 장지연張志淵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저술한 지리교과서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에 수록된 부도附圖만을 모아 만든 지도책 《대한전도》이다. 여기에는 〈대한전도〉와 1896년 이후 13도로 행정구역이 바뀐 상황을 반영하는 각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전도〉는 축척 350만분의 1 지도로서 근대적 경위선망이 사용되었고 방위, 범례 등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특히 경선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에서 자주 보이는 중국의 북경 기준이 아닌 영국을 기준선으로 채택했다. 지형을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하는 등 전통적 기법보다는 서양식 근대적 기법에 의해 만든 지도이다. 지도의 좌측 상단에 ‘현성운철판조각 玄聖運鐵板造刻’이라 기록해 놓아 철판 인쇄본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에 표현된 내용은 각 도의 행정구역의 명칭과 주요 산천명, 도로망, 도별 경계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이 위기적 상황으로 치달을 즈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된 계몽적 성격이 강한 지도이다. 지도의 내용은 1899년(光武 3)년에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대한전도大韓全圖〉(서13160)와 거의 동일하며, 당시의 행정구역과 지역사정 등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북

도판 122

《근역강산맹호기상도 權域江山猛虎氣像圖》

19세기 말~20세기 초, 채색필사본, 80.3×46.0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우리나라지도를 호랑이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그림 지도이다. 백두산을 호랑이의 머리로 표현하여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맹호의 기상을 그리고 함경북도와 두만강 일대는 앞다리, 평안도와 강계지역은 왼발, 황해도와 뒷다리 오른발, 전라도를 왼발, 변산반도 일대는 꼬리의 끝, 백두대간을 등줄기와 등뼈로 묘사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형상을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의 형상에 비유했으며, 호랑이에 비견하지 않았다.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문답 朝鮮常識問答』에 “우리 한반

간도北間島 지방이 함경북도 북쪽의 조선 영토로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고, 국경선 밖에 ‘청국만주淸國滿洲’로 표시한 점이 크게 다르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강조한 지도이다. 따라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일본이 만주 일대에 본격적 관심을 가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 동해바다로 들어간다. 그런데 조선 북방영역의 한계를 두만강으로 한정하지 않고 두만강 북쪽 백두산맥 너머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경계로 흘러들어가는 강 중에 ‘토문강土門江’이라 표기된 강이 있다.

도는 맹호가 발을 휘적거리며 동아대륙을 향하여 나는 듯 뛰는 듯 생기있게 활키며 달려드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그것은 곳 이땅의 생왕하면서 무량한 원기와 진취적이면서 무한한 팽창 발전을 의미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

IV. 도별지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토문강 · 분계강



도판 123

《북관지도 北關地圖》중 〈북도십읍 北道十邑〉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61.2×99.9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북관지도》는 1책冊 30도엽으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관방도이다. 〈북도십읍〉은 함경북도의 10개 군현을 그린 지도이다. 표제 옆에는 전결, 민호, 군량미의 현황, 병영 등의 지지적 내용이 주기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공백+분계강+두만강

같은 지도책에 수록된 〈백두산도〉와 백두산 수계가 같다. 그러나 백두산은 더욱 웅장하게 그려졌으며 ‘대택大澤’이 과도무늬로 묘사되어 있다. 대택 아래에 흰색의 정계비定界碑가 있고, 정계비 동

도판 124

《여지도 輿地圖》중 〈함경도 咸鏡道〉

채색필사본, 91.8×59.8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여지도》 제2첩에 수록된 〈함경도〉 23관의 지도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 지도첩에 수록된 전도인 〈아국총도〉와 같은 양식으로 하천을 그리고 초록색과 청록색의 산맥을 연이어 그렸으며, 함경도의 군현명은 회색 장방형 안에 표기했다. 붉은 색의 도로와 두만강변의 봉수대가 화려한 채색을 더하여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③ 백두산+강(토문강)+공백+강分界江+두만강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맥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백두산에 대택大澤이 있고, 백두산 남동쪽 정계비에서 목책이 이어진다. 목책 부근에서 토문강으로 추정되는 강이 발원하여 북동방향으로 흐르다가 끊긴다. 백두산 아래 여러 봉우리(감토봉 甘土峯, 삼지연 三池淵, 북중산

쪽으로 ‘토문강土門江’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한편 토문강과 두만강의 상류인 ‘대홍단수大紅湍水’는 목책으로 이어진다. 공백 너머로 현재 중국 연길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에 해당하는 ‘분계강分界江’이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이며, 두만강은 대홍단수에서 발원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北會山)등에서 하천이 발원하고 무산 부근에서 합류한 ‘두만강豆滿江’은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와 만난다. 두만강은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25

《조선전도 朝鮮全圖》중 〈함경남도 咸鏡南道〉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97.0×58.5cm, 고려대학교 박물관(D129).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정상기의 《팔도분도》 사본 중 초기본에 해당하는 지도이다. 전도와 도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함경남도〉지도이다. 입체적으로 묘사된 백두산에 흰색과 녹색이 어우

러진 채색, 그리고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산맥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붉은 도로망까지 더하여 지도의 회화성을 돋보이게 한다.

도판 126

《조선전도 朝鮮全圖》중 〈함경북도 咸鏡北道〉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97.0×60.0cm, 고려대학교 박물관(D129).

《조선전도》중 〈함경남도〉지도이다. 지도 하단에 있는 백리척, 원형 그대로의 발문을 통해 정상기의 《팔도분도》 사본 중 초기본임을 알 수 있다. 입체적으로 묘사된 백두산에 흰색과 녹색이 어우러진 채색, 그리고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산맥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만강 보다 북쪽에서 다른 원류로부터 시작되어 흐르던 분계강과 만나 동해 바다로 흘러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분계강은 현재 증봉산 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 海蘭河이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토를 확장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강(분계강)+두만강

같은 지도책의 〈조선전도〉와 백두산 동쪽 수계의 표현이 같다. 백두산 동쪽으로 ‘토문강원 土門江原’이 발원하여 북동방향으로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 동쪽으로 명칭의 표기는 없지만 분계강으로 보이는 강이 흐른다. 한편 백두산 아래 여러 봉우리에서 소흥단수와 대흥단수가 발원하여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두만강 豆滿江’을 이루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도판 127

《동국지도 東國地圖》중 〈함경남도 咸鏡南道〉

19세기, 채색필사본, 101.5×57.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3).

《동국지도》는 〈충도〉, 〈경기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모두 9점의 지도로 구성된 도별 지도첩 중 〈함경남도〉지도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중 팔도분도 유형으로서 후기 사본에 해당한다. 즉 여백에 함경 24관, 부 府·목

牧·군 郡·판 判·감 監·호 戶·병 兵 등에 관한 수를 표기했다. 중간의 바다부분에는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주기했다. 채색과 표현이 아름다운데, 특히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백두산의 모습에서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도판 128

《동국지도 東國地圖》중 〈함경북도 咸鏡北道〉

19세기, 채색필사본, 83.5×57.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3).

《동국지도》에 수록된 〈함경북도〉이다.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강인한 백두산에서 비롯된 녹색의 산들이 아름답다. 그 사이를 흐르는 푸른색의 하천, 특히 평정산 산봉우리에 걸쳐진 빨간 태양과 산을 감싸 도는 붉은 빛은 지도의 회화적 느낌을 한 층 돋보이게 한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분계강(시대동)+두만강

함께 수록된 〈충도〉의 백두산 부분의 수계와 비교하면, 함경북도의 백두산 부분이 더 자세해서 수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인다.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혼동강이 흘러나가고 백두산 남동쪽 ‘입비立碑·분수령’으로부터 ‘토문강원土門江原’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하천이 끊긴 공백부분에는 ‘평정산平頂山’이 있고, 현재 중국 연길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얼허투하에 해당하는 ‘분계강分界江·시대동市大洞’이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한편 두만강은 감토봉甘土峯, 삼지연三池淵, 북증산北曾山 등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29

《도리도표 道理圖標》중 〈함경도 咸鏡道〉

19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99.0×6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23).

전국의 도로망을 표로 정리한 《도리도표》와 함께 수록된 〈함경도〉지도이다. 《각도지도》의 〈함경도〉부분과 동일하게 청록색과 흰색으로 묘사된 봉우리 안에 천지인 ‘대지大池’를 품고 있는 백두산에서 산수, 감산을 비롯한 압록강 유역의 함경도 지역을 그렸다. 녹색으로 채색된 산줄기는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붉은 색의 도로망과 봉수처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도리도표》의 첫 장에 〈조선전도〉가 실려 있는데, 이는 《각도지도各道地圖》중의 〈조선전도〉를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서, 지도의 양식과 표현기법·윤곽 등이 일치한다. 필사본에는 함경도 후주가 없으나 《도리도표》의 〈팔도전도〉에는 표시되어 있고, 지도 좌측상단 여백의 폐사군에 관한 설명에 1868년(고종5)에 무창이 부설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1870년대 이후에 목판으로 간행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백리척의 사용, 산계를 강조하여 팔도를 구분한 점 등이 동일하나 지도의 여백에 범례와 주요 지역에 대한 연혁·역도·물산총론 등의 지지적 사항을 주기한 점이 다르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백두산+토문강상류+공백+2강(분계계)+후춘강+두만강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세기 채색필사본 《조선전도》와 백두산의 수계가 같다. 백두산은 ‘대지大池’로부터 북동쪽으로 ‘토문강土門江상류’로 표기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 이남으로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작은 하천이 동쪽으로 두만강이 되어 흐른다. 현재의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해당하는 지역에 《청구도》에도 표현된 ‘건가퇴件加堆’라는 작은 구렁이 그려져 있는데, 건가퇴件加堆는 연길시延吉市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부근 구렁인 포이합통하布爾哈通을 의미한다. 건가퇴件加堆를 사이에 두고 두 물줄기가 각각 흐르다가 만는데, 위쪽의 하천은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이며 ‘분계강分界界’이라 표기되어 있는 아래쪽의 하천은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다. 이 강들은 아래쪽의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경원慶源부 안원安原 부근에서 유입되는 ‘후춘강後春江’강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간

다. 백두산 북쪽 여백에는 ‘거영고탑육일정距寧古塔六日程’이라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도판 130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관서 關西〉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0).

우리나라의 동서와 남북을 각각 1리 2.7cm의 40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경선과 위선으로 선표線表를 만들고, 이 선표에 맞추어 도별도를 만든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 지도이다. 정상기의 원본 《동국지도》를 약 3분의 2로 축소하여 만든 1:60만 정도의 지도이다. 경위선은 함경북도의 동북단을 1번으로 시작하여 동서 32번, 남북은 72번까지 있다. 경위선은 지역 간의 거리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판 131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관남 關南〉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0).

《동국지도》 중 압록강 유역 함경남도 지역을 그린 〈관남〉 지도이다. 불꽃처럼 표현된 백두산으로부터 산맥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 하단 여백에는 함경도의 크기가 커서 한 폭에 담지 못함을 주기하였다.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라의 동서 1,280리 남북 2,880리 크기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동국지도》는 기호畿湖·호남湖南·영남(嶺南)·관동關東·해서海西·관서關西·관북關北·관남關南의 8매로 되어 있다. 이 지도는 이 중 평안도 지역을 그린 〈관서〉 지도이다. 압록강 대안지역의 정보까지 자세하게 표현한 상세한 지도이다. 연잇는 산맥과 그 사이의 강, 붉은색의 도로망을 빼곡하게 그렸다.

도판 132

《동국지도 東國地圖》 중 〈관북 關北〉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0).

《동국지도》 중 함경도의 두만강 유역을 그린 〈관북〉 지도이다. 지도의 상측 중간 부분에 백리척을 그리고, 산지와 강이 있는 곳을 굴곡이 있기 때문에 1척이 1백2십3리가 된다는 주기를 덧붙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분계강+후춘강+두만강

백두산 북쪽으로 ‘혼동강混同江’이 흐르고 정계비 동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源’ 표기와 함께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 동쪽으로 ‘분계강分界江’과 후춘강이 합류한다. 한편, 정계비 아래쪽 또 다른 지류에서 원류하는 두만강이 온성 부근에서 위 강들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두 강 중 분계강分界江는 증봉산甓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이고 또 다른 강은 연길시延吉市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

하布爾哈通河이다. 이 두 강은 연길시延吉市 장동長東 부근에서 합류한다. 그리고 공백 부근에 표기되어 있는 평정산과 북증산은 함경북도 온성 부근에 있는 증산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33

《아동여지도 我東輿地圖》 중 〈평안도 平安道〉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98.5×55.6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8).

《아동여지도》는 전도와 팔도의 도별도로 구성된 정상기형 지도이다. 백리척 대신 붉은색의 방안을 그리고, 그 위에 지도를 그린 방안식 지도로서 이 중 〈평안도〉 42관을 그린 지도이다. 지도의 왼쪽 상단 여백에는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이정이 기록되어 있다. 첨사僉와 만호戶 등 군관이 파견되

는 진보鎭堡도 주기에 넣었다. 각 군현 사이를 잇는 도로망이 붉은선으로 나타나 있으며, 압록강변에 특히 준비해있는 파수가 상세하다.

도판 134

《아동여지도 我東輿地圖》 중 〈함경도전도 咸鏡道全道〉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100.7×55.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8).

지도의 뒷면에 〈함경도전도〉라 표기되어 있지만, 함경남도의 지도이다. 정상기는 《동국지도》의 팔도분도를 만들면서 함경도는 다른 도보다 크기가 커서 함경남도와 북도, 두 장의 지도에 각각 나누어 그렸는데, 이 지도는 원형의 형식을 따랐다. 함경도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이정을 오른쪽 하단

의 여백에 주기했다. 무성한 숲으로 표현된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으로부터 산맥이 이어져 나간다.

도판 135

《아동여지도 我東輿地圖》 중 〈함경도관북 咸鏡道關北〉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77.4×57.4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8).

지도의 뒷면에 〈함경도 관북〉이라 표기되어있는 함경북도의 지도이다. 무산에서 삼지三池, 그리고 정계비를 지나 백두산까지 오르는 길이 표현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분계강(시대동)+두만강

백두산에는 “대지 주변은 80리이고, 일명 장백산이라 한다. 높이는 2백리이고 천리에 걸쳐 산맥이 연달아 있다”라는 주기가 있다.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혼동강이 흘러나가고 백두산 남동쪽 ‘입비立碑·분수령’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토문강원土門江原’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하천이 끊긴 공백부분에는 ‘평정산平頂山’이 있고, 현재 중국 연결 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에 해당하는 ‘분계강分界江·시대동市大洞’이 백두산 남동

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한편 두만강은 감토봉甘土峯, 삼지연三池淵, 북증산北曾山 등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36

《동국팔로분지도 東國八路分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19세기, 채색필사본, 159.1×123.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65).

하동河東 정씨 가문인 정상기 집안의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해주海州 정씨 집안인 정철조鄭喆祚(1730~1781), 정후조鄭厚祚(1758~1793) 형제가 원본보다 훌륭한 수정본 지도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지도는 초기 수정본 계열과는 또 다른 계열의 사본이다. 이 계열의 사본이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의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조선팔도지도(古4709-54)》이다. 이 계열의 지도도 초기 수정본처럼 정상기의 원도를 따르지 않고 구성체제나 윤곽이 상당히 수정되었다. 표현 내용들은 이전의 초기 수정본보다 훨씬 풍부해졌다. 특히 군현 내 모든 면의 명칭과 군현 경계까지 표시되었는데 이는 초기 수정본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특히 《동국팔로분지도》에는 표지에 ‘갑진맹춘甲辰孟春’이라는 지도제작시기가 표기되어 있고, 지도첩의 뒷부분에는 범례가 수록되어 있어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도에 수록된 지명으로 보아 ‘갑진맹춘’은 1784년(정조 8)에 해당한다. 또한 지도의 말미에는 〈동국여지도범례東國輿地圖凡例〉가 수록되

어 있어, 원래의 지도 명칭이 ‘동국여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 범례에는 정항령 집안의 지도를 저본으로 삼고 별도의 양지척量地尺을 만들어 여러 읍지로 교정하여 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원래의 지도첩은 총도 1폭, 팔도분도 8폭, 영애해방도嶺陰海防圖 1폭, 사예도四裔圖 1폭 등 도합 11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팔도분도만 남은 것이다. 이 지도의 제작자는 『사예지』를 저술한 정후조로 추정된다. 해주 정씨 집안의 정철조, 정후조 형제 ‘해주신본’ 계열의 지도는 이전의 다른 사본들과 달리 방대한 양의 지리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표현 체계나 방법도 더욱 정교해졌다는 점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한 단계 높인 지도로 평가된다. ‘해주신본’ 계열의 지도로 불리는 이들 지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맥과 하천으로 대표되는 자연적인 요소의 표현이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들보다 훨씬 정교해졌는데 산맥과 하천 중에서 10리가 넘는 것은 명칭이 없더라도 모두 그려 넣었다. 둘째, 지도상에 표현된 인문적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들은 군현명, 해로를 포함한 교통로, 봉수, 산성, 역보 등의 관방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현했으나, 「해주신본」에서는 산의 영애, 봉수, 강의 나무, 창고 명칭, 면의 명칭, 역참 등을 아우르고 있고 특히 군현의 방리坊里는 모두 표기하였다(오상학, 2009).

도판 137

《기봉요도 箕封瑤圖》중 〈함경북도 咸鏡北道〉

채색필사본, 100.3×62.3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153).

일본 천리대학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봉요도》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북도〉 지도이다. 〈함경북도〉북도 10관 ‘길주, 명천, 경성, 부녕,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을 그린 지도이다. 짙은 청색으로 채색한 하천이 돋보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분계강(시대동)+두만강

백두산에 있는 과란 천지가 돋보이고 그 아래에 누각처럼 묘사된 정계비가 있다.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혼동강이 흘러나가고 백두산 남동쪽 ‘입비立碑·분수령’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토문강원土門江原’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하천이 끊긴 공백부분에는 ‘평정산平頂山’이 있고, 현재 중국 연길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에 해당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분계강상류+공백

백두산 동쪽으로 분계강상류分界江上流라고 표기된 강이 흘러나가다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정계비 아래의 지류에서 두만강이 발원한다. 토문강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분계강을 토문강으로 상정하여 표현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영토의식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분계강分界江·시대동市大洞’이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한편 두만강은 감토봉甘土峯, 삼지연三池淵, 북증산北曾山 등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38

《해동팔역여지도 海東八域輿地圖》중 〈관북 關北〉

채색필사본, 74.0×61.2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131).

일본 천리대학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팔역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관북〉지도이다. 파란색 산과 하천이 잘 어우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분계강+두만강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혼동강이 흘러나가고 백두산 남동쪽 ‘입비立碑·분수령’ 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토문강원土門江原’ 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하천이 끊긴 공백부분에는 ‘평정산平頂山’ 이 있고, 현재 중국 연결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에 해당하는 ‘분계강分界江’ 이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한편 두만강은 감토봉甘土峯, 삼지연三池淵, 북증산北曾山 등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39

《관서도지도 關西都地圖》

채색필사본, 70.0×6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4544).

《관서도지도》는 평안도전도와 군현도로 구성된 2책의 지도집이다. 이 중 제1책에 수록되어 있는 평안도 전도이다. 표제는 「관서도지도」이다. 녹색의 산맥이 연이어 그려져 있고 분홍색 원안에

군현명이 기재되어 있다. 압록강 대안 만주지역의 행정지명이 자세하다. 다른 도별도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도로망과 봉수대가 없다.

도판 140

《함경도전도 咸鏡道全圖》

채색필사본, 88.0×120.8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435).

일본 천리대학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함경도전도》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채색필사본 도별지도인 ‘팔도분도’ 유형의 지도이다. 지도 하단의 여백에는 백두산을 시작으로 주요 산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주기하였다. 하천과 산은 푸른색으로, 도로와 군현명을 표기한 원은 붉은색이다. 봉수와 창고 등 군사시설을 자세히 표시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토문강원+공백+분계강+두만강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혼동강이 흘러나간다. 백두산 남동쪽 ‘입비立碑·분수령’ 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토문강원土門江原’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하천이 끊긴 공백부분에는 ‘평정산平頂山’이 있고, 현재 중국 연결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

하布爾哈通河에 해당하는 ‘분계강分界江’이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분계강 왼편에는 건가퇴件加堆가 있다. 한편 두만강은 감토봉甘土峯, 삼지연三池淵, 북증산北曾山 등 여러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고,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41

《팔도분도 八道分圖》 중 〈함경남도 咸鏡南道〉

19세기, 채색필사본, 107.2×64.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67).

조선후기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채색필사본 도별지도 《팔도분도》 중 〈함경남도〉 지도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여지도》와 비슷한 지도이다. 봉수·산성·성곽 등이 일정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군현을 표시한 원보다 작은 원을 그리고 첨사鎭와 만호戶 등 군관이 파견되는 진보鎭堡를 표현했다. 각 군현을 잇는 적갈색의 도로망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군현 사이의 도로 위

에 군현간 거리를 숫자로 기록하여 지역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도의 가장 윗부분에는 웅장하게 묘사된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으로부터 푸르게 채색된 산맥들이 연맥하여 내려온다.

도판 142

《여지도輿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76,3×6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68).

정상기의 《팔도분도》를 모사한 정상기형 도별도로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도만 남아 있다. 이 중 〈함경도 북도〉 지도이다. 원도에 있었던 범례와 백리척이 없다. 상단 오른쪽 여백에는 역사적인 설명을 첨가하여 지지地誌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다. 청록색의 연맥하는 봉우리와 하천이 지도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도로는 붉은 선으로 그렸다. 군현명 옆에 서울까지의 거리가 기록되었으며, 봉수·산성·성곽 등이 일정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군현을 표시한 원보다 작은 원을 그리고 첨사僉와 만호戶 등 군관이 파견되는 진보鎭堡를 표현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정계비+토문강원+공백+2강·분계강+두만강

백두산의 정계비에서 ‘토문강원土門江源’이 시작되어 동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이 공백 동쪽으로 분계강을 포함한 세 물줄기가 합류한다. 합류된 물줄기는 정계비 아래의 지류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온성 부근에서 만나서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에 그려진 공백 동쪽의 세 강은 아래서부터 해란하海蘭河인 분계강分界江, 포이합통하布爾哈通

河, 알아하嘎呀河이다. 현재 증봉산甑峰山에서 발원하는 해란하海蘭河는 연길시延吉市 장동長東 부근에서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와 합류한다. 그리고 합류된 두 물줄기는 길림성 도문시吉林省 圖門市에서 알아하嘎呀河와 만난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하여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함경도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에서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토문강원土門江源’, 그리고 온성 부근으로 유입되는 ‘분계강分界江’이 따로 그려져 있어, 청나라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국경 문제가 일반의 관심사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도판 143

《좌해지도左海地圖》중 〈함경도남도십삼주咸鏡道南道十三州〉

1838년, 일본 동양문고.

《좌해지도》는 정상기본 계열의 지도이다. 『북로기략北路紀略』을 저술한 정윤용이 1838년에 개장改粧한 것으로, 표지에는 수암睡菴 정윤용鄭允容의 서문과 팔도 소속관수, 팔방거경리수八方拒京里數와 남북·동서 이수의 지지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서문 말미에는 ‘임오동식우수암壬午冬識于睡菴, 무술하개장우복천현제戊戌夏改粧于福川縣齋’라고 표기되어 있다. 서문은 임오년 겨울인 1822년에 작성하고 무술년 여름인 1838년에 지도를 개장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순으로 총 8장의 분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현州縣, 방면坊面, 진영鎭營, 역참驛站, 봉수烽燧, 창고倉庫, 교통로의 인문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그 밖의 민호民戶와 전결田結 등의 지지내용은 수록되어있지 않다. 고을은 원형 ‘○’ 안에 지명을 쓰고 고을 크기에 따라 부·목일 경우 사각형 ‘□’ 테두리를, 군일 경우 원형이 두겹인 ‘◎’ 형태이다. 진영은 작은 사각형 ‘□’ 을 표시하고 옆에 지명을 썼으며 봉수는 촛불모양, 역참은 작은 원형 ‘○’ 의 범례를 사용하였다. 이 지도는 함경남도 13주를 그린 지도이다. 청록색의 백두대간과 그 옆으로 뻗어나가는 연두빛의 산맥은 지도의 회화적 요소를 한 층 더 빛나게 해준다. 여기에 붉은 도로망과 봉수대가 잘 어우러져 있다.

도판 144

《좌해지도 左海地圖》 중 〈함경도북도구주 咸鏡道北道九州〉

1838년, 일본 동양문고.

함경북도 9개 군현을 그린 지도이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토문강+두만강

백두산 남쪽에 정계비가 있고 정계비에서 북동방향으로 목책이 이어져 나간다. 목책 너머로 ‘분

계강하류 分界江下流’ 라는 표기와 함께 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끊긴다. 정계비로부터 남동쪽으로 발원하는 토문강은 두만강의 상류이다. 토문강과 두만강을 하나의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판해설 143] 《좌해지도》참고.

도판 145

《조선팔도여지전도 朝鮮八道輿地全圖》 중 〈평안 平安〉

18세기, 채색필사본, 64.7×47.8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72).

《조선팔도여지전도》에 수록되어 있는 〈평안도〉 지도이다. 제목과 달리 평안도와 압록강 건너편 만주지역에 있는 청의 첫 번째 수도였던 ‘홍경 興京’까지 포함하여 그린 양계지역 지도이다. 만주 지역은 홍경을 비롯하여 유조변이 그려져 있으며, 연행로에 해당하는 봉황성점 鳳凰城店, 통원보점 通源堡店, 연산관점 連山關店이 노란색 장방형안에 표기되어 있다. 평안도 주요 군현은 코발트블루색으로

채색한 성곽 모양의 장방형 안에 군현명을 표기했다. 다른 방사(坊社·군현보다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는 남색으로 표현했다. 붉은색 선으로 그려진 도로망까지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회화작품 같다.

도판 146

《조선팔도여지전도 朝鮮八道輿地全圖》 중 〈함경 咸鏡〉

18세기, 채색필사본, 64.0×48.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72).

《조선팔도여지전도》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지도이다. 오른쪽 여백에는 ‘동서 720리, 남북 1210리’ 라는 주기가 있다. 성곽무늬의 원 또는 장방형 안에 군현명이 표기되어 있고 붉은색의 도로망이 잘 표현되어 있다. 군현명 옆에는 서울까지의 일정이 표기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대두만강·소두만강

흰색으로 묘사된 백두산 뒤편에 노랗게 둥근 달이 떠있다. 백두산 북쪽으로 ‘대택 大澤’과 ‘소택 小澤’으로 표기된 두 강이 원류하고 남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원류한다. 백두산 북쪽의 산맥으로부터 동쪽으로 ‘대두만강 大豆滿江’과 ‘소두만강 小豆滿江’이 발원한다. 백두산 남쪽에는 ‘토문강원 土門江源’이라 표기된 정계비가 있다.

도판 147

《여지도輿地圖》중 〈평안도도 平安道圖〉

19세기 말, 동판본, 27.6×35.9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9).

《여지도》는 〈대조선국전도〉, 〈한양경성도〉, 〈경성부근지도〉 그리고 팔도의 도별도로 구성된 목판본 지도책이다. 이 가운데 〈평안도〉지도이다. 산지를 연맥하여 표현하고, 각 군현의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했다. 실선의 도로망도 있으며, 각 군현명은 원안에 표시하고 서울까지의 리정도 기록했다

도판 148

《여지도輿地圖》중 〈함경도도 咸鏡道圖〉

19세기 말, 동판본, 27.6×36.2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9).

《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지도이다. 함경북도와 남도에 경계를 긋고 북10읍, 남15읍이라 표기했다. 산지를 연맥하여 표현하고, 각 군현의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했다. 실선의 도로망도 있으며, 각 군현명은 원안에 표시하고 서울까지의 리정도 기록했다. 바다에는 일정한 물결의 무늬를 넣었다. 군현명 위에 주황색 선을 덧 그리고 하천과 도로 등의 선에 얹은 초록 선을 더하여 채색을 가미했다.

도판 149

《대한전도 大韓全圖》중 〈평안북도 平安北道〉

1905년 전후, 동판본, 28.6×32.2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8).

1907년(光武 11) 6월 장지연張志淵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저술한 지리교과서 《대한신지지 大韓新地志》에 수록된 부도附圖만을 모아 만든 지도책《대한전도》이다. 여기에는 〈대한전도〉와 1896년 이후 13도로 행정구역이 바뀐 상황을 반영하는 각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전도》에 수록된 〈평안북도〉는 축척 120만분의 1 지도로서 근대적 경위선망과 방위 등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산지를

다. 바다에는 일정한 물결의 무늬를 넣었다. 군현명 위에 주황색 선을 덧 그리고 하천과 도로 등의 선에 얹은 초록 선을 더하여 채색을 가미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건천+두만강

백두산에서 ‘건천乾川’이 시작되어 동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두만강과 합류한다. 두만강은 온성부근에서 분계강과 만나 동해로 흘러들어간다. 18세기 정상기형 지도에서는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토문강이 동북방향으로 발원하다가 끊기고 공백을 남겨놓았는데, 이 지도에서는 두만강과 바로 합류하였다. 하지만 두만강과 합류되는 분계강은 여전히 지도상에 남아있어,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하는 등 전통적 기법보다는 서양식 근대적 기법에 의해 만든 지도이다. 압록강 너머 중국 쪽으로 청과의 국경선을 그려 넣어 압록강을 우리의 영역으로 표현하였다. 중국지역에는 ‘청국만주성경성 淸國滿州盛京省’이라고 주기했다.

도판 150

《대한전도 大韓全圖》 중 〈함경북도 平安北道〉

1905년 전후, 동판본, 26.9×21.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8).

1907년(光武 11) 6월 장지연(張志淵)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저술한 지리교과서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에 수록된 부도(附圖)만을 모아 만든 지도책 《대한전도》이다. 여기에는 〈대한전도〉와 1896년 이후 13도로 행정구역이 바뀐 상황을 반영하는 각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전도》에 수록된 〈함경북도〉는 축척 510만분의 1 지도로서 근대적 경위선망이 사용되었고 방위, 범례 등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특히 경선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에서 자주 보이는 중국의 북경 기준이 아닌 영국을 기준선으로 채택했다. 지형을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하는 등 전통적 기법보다는 서양식 근대적 기법에 의해 만든 지도이다.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이 위기적 상황으로 치달을 즈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된 계몽적 성격이 강한 지도이다. 북간도의 표기는 개간한다는 의미를 지닌 북간도(北鰲島)이다. 이 지역은 함경북도에 소속된 조선 영토로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다.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강조한 지도이다. 따라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일본이 만주 일대에 본격적 관심을 가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④ 백두산+건천(백두산맥)+두만강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 동해로 들어간다. 그런데 조선 북방영역의 한계를 두만강으로 한정하지 않고 두만강 북쪽 백두산맥 너머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경계로 흘러들어가는 강 중에 ‘토문강(土門江)’이라 표기된 강이 있다. 두만강 이북 백두산맥 너머까지 우리의 영역으로 포함하며 토문강과 두만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를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로 나타내고 있다.

IV. 도별지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압록강 · 두만강



도판 151**《해동도海東圖》 중 〈함경도지계리수 咸鏡道地界里數〉**

17세기, 채색필사본, 18.7×32.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42).

1책 15장으로 구성된 동람도식의 도별지도책 《해동도》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지도의 지계리수이다. 함경도지도 뒷면에 수록되어있는 지계리수는 함경도 23관, 각 관마다 각각 인접한 주요 지역까지의 거리를 기록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도판 152**《해동도海東圖》 중 〈함경도 咸鏡道〉**

17세기, 채색필사본, 18.7×32.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42).

1책 15장으로 구성된 동람도식의 도별지도책 《해동도》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지도이다. 아름답게 잘 그려진 지도는 아니지만 도로를 그리고 주요 산을 자세히 표시했다. 지도의 여백에는 빼곡하게 첨사 僉使, 만호 萬戶, 察訪(찰방) 등을 기록해 놓았다. 지도의 뒷면에 지계리수가 있다.

도판 153**《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조선팔도지도》는 동람도 유형의 총도와 도별도로 구성된 지도집이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지도이다. 다른 동람도형 지도에 비해 정갈한 묘사가 눈길을 끈다. 바다와 하천·산은 청색으로, 군현명은 황색 원 안에 표기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㉕ 백두산+두만강

크게 강조되어 있는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㉕ 백두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지도이다. 네 개의 봉우리로 묘사한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154

《천하지도 天下地圖》 중 〈함경도도 咸鏡道圖〉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31.0×38.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9).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조선전도〉와 8도의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동람도식 채색필사본 지도책이다. 도별도는 각 도의 군현 채색을 달리하였는데, 함경도는 회색이다. 군현명 좌우에는 서울까지의 일정과 군현의 품계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역도驛道, 해안 및 변방지역에 설치된 진보鎭堡가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외도곽선과 내도곽선 사이에는 인접하는 지역의 지명, 역驛의 총수, 그리고 각 도 소속 군현수가 기재되어 있다. 채색과 지도의 표현이 정갈

도판 15

《대한지리도 大韓地理圖》 중 〈평안도 平安道〉

18세기, 채색필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천하중국도〉, 〈조선총도〉, 팔도의 도별지도, 〈성경도〉로 구성된 동람도식 채색필사본 지도책 《대한지리도》에 수록되어 있는 〈평안도〉지도이다. 압록강 이남 평안도 42관을 그린 이 지도는 검은색 세필로 두텁게 칠한 산의 모양이 마치 수염처럼 보이고 푸른 색 강의 자유롭게 묘사된 모습이 회

도판 156

《대한지리도 大韓地理圖》 중 〈함경도 咸鏡道〉

18세기, 채색필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대한지리도》는 〈천하중국도〉, 〈조선총도〉, 팔도의 도별지도, 〈성경도〉로 구성된 동람도식 채색필사본 지도책이다. 1767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필사했고, 표제인 『대한지리도』는 소장자가 후대에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록된 〈함경도〉지도이다. 검은색 세필로 두텁게 칠한 산의 모양이 마치 수염처럼 보이고 푸른 색 강의 자유롭게 묘사된 모습은 정확한 형태가 아닌 이 지도를 더욱 더 회화작품처럼 느끼게 한다. 붉은색과 노란색 장방형 안에 표기된 군현명과 붉은색의 도로망이 있고 백두산 위로는 많은 주기를 담고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노정기路程記와 거민居民, 전(田)에 관한 주기가 있다.

한데, 특히 푸른색의 수파묘가 아름답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흰색과 녹색으로 표현된 백두산이 크고 아름답다.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회화작품처럼 느껴진다. 붉은색과 노란색 장방형 안에 표기된 군현명과 붉은색의 도로망이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노정기路程記와 거민居民, 전田, 첨사僉使에 관한 주기가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검은 수염처럼 묘사된 백두산 근접지역까지의 노정을 주기하고 있다.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간다. 그런데, 두만강 너머 고려시대 윤관이 경계를 세웠다는 공험진과 선춘령도 표기했다.

도판 157**《지도 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19세기, 채색필사본, 25.2×25.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아름다운 채색필사본 동람도형 지도책이다. 〈천하도〉, 〈중화도〉, 〈일본지도〉, 〈유구국지도〉, 〈조선총도〉, 〈조선국팔도통합도〉와 각 도별지도로 이루어져 있다. 〈함경도〉 지도에는 1787년에 처음 설치된 ‘장진부長津府’가 있으나, 1800년에 ‘이원利原’으로 개칭된 ‘이성利城’이 개칭 전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른 동람도형 지도에 비해 정갈한 필체와 녹색과 연두색으로 아름답게 채색한 산이 눈길을 끈다.

도판 158**《함경남북도도읍전도 咸鏡南北都邑全圖》 중 〈함경전도 咸鏡全道〉**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3.4×31.0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81).

《함경남북도도읍전도 咸鏡南北道都邑全圖》는 함경도 도별도와 군현도로 구성된 1책 26장의 지도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함경전도〉는 동람도 형태의 도별도이다. 하지만 군현명과 지형이 자세하고 도로의 표기도 나타나 있다.

도판 159**《좌해여지도 左海輿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19세기, 채색필사본, 34.0×21.6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443).

《좌해여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함경도〉 지도는 푸른 채색이 특히 돋보이는 아름다운 동람도형 도별도로, 함경도 북도 12개의 군현을 그린 지도이다. 지도의 여백에는 백두산 산상에 대지大池가 있으며 80리에 이른다는 주기를 시작으로 백두산과 주변지역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3역驛, 19보堡, 민, 전, 결 등에 관한 주기를 덧붙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보통 조선 후기에 그려진 동람도형 지도책에서 백두산이 강조되어 있는 것에 비해 백두산이 평범하다.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여러 봉우리가 연철된 백두산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오른쪽 여백에 있는 ‘동저두만강東抵豆滿江’이라는 표기를 통해 동쪽 끝이 두만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불꽃처럼 우뚝 우뚝 솟은 백두산은 힘이 가득하다. 천지에 대한 표기는 ‘달문담達門潭 주 80리’이다. 천지는 북쪽 한 곳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가 장백폭포를 이루는데 이 터진 화구口瀨를 ‘달문關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천지의 달문담이라는 명칭은 이런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도판 160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여운(呂溫), 1849년, 목판본, 19,2×3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96).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는 〈천하도〉, 〈중국도〉, 〈동국대총〉과 팔도의 지도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이 중 〈함경도〉에는 함경도의 주요 산과 하천, 행정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함경도 지역은 두 페이지에 걸쳐 인쇄되었는데, 오른쪽 판의 인쇄가 흐릿하다. 한 장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인쇄의 차이는 오히려 판화작품의 묘미로 느껴진다.

도판 161

《천하도 天下圖》 중 〈함경도 咸鏡道〉

17세기, 채색필사본, 28,6×33,9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17).

《천하도》는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도〉, 〈팔도총도〉와 팔도의 지도로 구성된 조선후기 유행했던 채색 필사본 지도책이다. 동람도 양식의 간략한 지도이지만, 이 중 〈함경도〉 지도는 함경도내 22개 군현을 표현하고 주요 도시간의 거리도 기록했다.

도판 162

《삼한일람도 三韓一覽圖》 중 〈함경도 咸鏡道〉

18세기 전반, 채색필사본, 65,1×52,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04).

《삼한일람도三韓一覽圖》중 〈함경도〉 지도이다. 백두산 너머에서부터 이어지는 산맥이 백두산에 이르고 크게 강조되어 있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맥과 수계가 이어진다. 이 지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산맥이다. 연이은 산줄기를 짙은 청녹색으로 채색하여 마치 조감도를 보는 느낌이 든다. 각 군 현명 옆에는 서울(경도)까지 걸리는 일정을 기록하였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⑤ 백두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지도이다. 불꽃처럼 솟아있는 커다란 백두산이 함경도의 맨 위에 있다. 강조된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⑤ 장백산+두만강

주요 산과 강만을 표시한 압축적인 지도이다. 같은 지도책에 수록되어 있는 〈팔도총도〉의 표기와 동일하게 백두산의 명칭이 중국에서 명명하는 ‘장백산長白山’으로 되어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① 백두산+수빈강

만주지역에서부터 연이어 온 산맥은 흰색의 백두산에 닿고, 다시 남쪽으로 산맥을 잇는다. 백두산에서 북쪽과 서쪽, 동쪽으로 많은 하천들이 발원하고 있다. 두만강의 강줄기에는 ‘토문土門’이라 명기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강줄기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강은 수빈강愁濱江이다. 〈함경도〉를 그린 도별도 중 유일하게 만주지역까지 함경도의 영역에 포함시켜 표현한 지도이다. 확대된 영토의식이 나타난다.

도판 163

《지도 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18세기, 채색필사본, 34.7×35.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2).

도별도와 중국·일본·유구국 지도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책 《지도》에 수록된 〈함경도〉 지도이다. 감영소재지인 함흥부는 붉은색의 큰 원으로 표시하고, 병영兵營·수영水營·진보鎭堡는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붉은색 도로를 그리고, 군현 사이의 도로에 지역 간 거리를 기록하였다. 청록색으로 채색된 산봉우리는 연맥하여 그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백두산+옥문+공백+분계강·고칭풍계강+두만강

백두산 북쪽으로 ‘혼동강混同江’, 서쪽으로 ‘압록강鴨綠江’, 정계비 동쪽으로 토문을 ‘옥문玉門’이라 표기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공백 동쪽으로 예로부터 풍계강이라 명명했다는 의미의 ‘고칭풍계강古稱豐界江’, 그리고 ‘분계강分界江’이라 표

도판 164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24.5×30.5cm,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 61-6).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는 〈천하총도天下總圖〉, 〈중국지도中國地圖〉, 〈유구국琉球國〉, 〈일본국日本圖〉, 그리고 조선전도와 조선 팔도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이 지도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동랍도식 형태의 〈함경도〉 지도이다.

기된 강이 흐른다. 한편, 정계비 아래쪽 또 여러 원류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은 온성부근에서 분계강과 합류하고, 경원慶源부근에서는 훈춘강訓春江과 또다시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지도에서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각기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특히 두만강이 훈춘강 상류에서 시작되고 경원 부근에서 실제 두만강 지류와 합류되는 점이 특이하다. 토문강과 두만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만강이 훈춘강 상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훈춘강이 발원하는 공협진 선춘령 부근까지 조선의 영역을 확대하여 그렸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 ④ 백두산+분계강+두만강

‘백산白山’으로 표기되어 있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압록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백두산과 백두산 남동쪽에서 각각 다른 물줄기가 발원하여 종선과 온성 사이에서 합류한 후 동해바다로 유입한다. 명칭의 표기가 없지만 백두산 동쪽의 두 물줄기 중 북쪽의 하천은 조선 후기 지도에 등장하는 분계강으로 보이며, 아래쪽의 하천은 두만강의 상류이다.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는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라는 현실적인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165

《지도 地圖》 중 〈함경도 咸鏡道〉

19세기, 채색필사본, 32.3×38.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7).

《지도》는 채색필사본 동랍도형 지도책으로, 〈천하도〉, 〈중국〉, 〈일본〉, 〈조선국〉, 〈유구국〉 그리고 도별도의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전도와는 달리 특별한 주기가 없으며, 군현명 옆에 서울까지의 거리를 기록하고, 각 군현 사이는 검은 실선으로 연결해 군현 사이의 거리를 이수里數로 표시해 지역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④ 백두산+분계강+두만강

같은 지도책에 수록된 〈중국도〉에는 백두산이 태백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는 백두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천지인 ‘대택’이 있다. 얼핏 보면 야자수처럼 보이는 커다란 ‘천년단목 千年檀木’이 백두산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산맥으로 묘사된 백두산이 두만강 대안 지역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도 한 폭의 회화작품처럼 보인다. 백두산에서 동쪽으로는 명칭의 표기는 없지만 분계강으

도판 166

《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總圖》 중 함경도 세부도

18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53).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세 축 두루마기 형식의 채색 전도이다. 주요 산과 강, 나라의 이름만을 표시한 지도이다. 산은 산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국명은 작은 방형 안에 기재하고 노란색으로 채색했다. 고구려 高句麗와 백제에 해당하는 십락국 十洛國, 신라에 해당하는 서라벌 徐耶伐은 방형 곁에 붉은 색으로 선을 더했다.

도판 167

《조선강역총도 朝鮮疆域總圖》 중 함경도 세부도

18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53).

[도판해설 166] 《조선강역총도》참고.

로 추정되는 강이 발원하여 흐르다가 종성과 온성 사이에서 ‘두만강 豆滿江’ 과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유입된다. 토문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표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1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지도이기 때문에 ‘동위토문’을 경계로 삼은 비의 내용대로라면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과 합류하는 토문강을 국경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도에 표현된 분계강과 선춘령은 더 확대된 북방영역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중하는 1885년 토문강이 북향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1887년 현실적 타협안으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가정하더라도 두만강의 최상류인 홍토수를 그 수원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는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까지라는 현실적인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유형: ⑤ 장백산+두만강

백두산이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 ‘장백산 長白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 동서로 두 강이 흘러 바다와 만난다. 강 이름의 표기는 없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두 강을 경계로 북쪽은 부여국 夫餘國이다.

도판 168

《해동총도 海東總圖》 중 〈함경도 咸鏡道〉

18세기, 채색필사본, 42.5×32.3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2).

《해동총도》 중 〈함경도〉 23관을 그린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함경도 23관 중 북청과 함흥은 붉은색 장방형 안에 표기를 하고 나머지 21관은 청록색으로 표시했다. 붉은 선의 도로망과 회색의 하천이 자세하다. 지도 상단에는 함경도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잡기 雜記』에서 우리나라의 산천에 대해 인용한 글도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③ 백두산+토문강+공백+분계강+두만강

같은 지도책에 수록된 〈조선총도〉처럼 백두산의 윗부분을 흰색으로 채색하고 가장 크게 강조했다. 백두산에 ‘대택大澤’이 있고 백두산 남동쪽에는 흰색의 정계비定界碑가 있다. 남증산에서 백두산 동북쪽으로 향하여 흐르는 ‘토문강土門江’ 사이에 목책이 정계비를 감싸고 있다. 토문강은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하천이 끊긴 공백부분에는 고려 윤관이 고려의 경계비를 세운 선춘령의 ‘공험진公險鎭’이 있고, 현재 중국 연결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에 해당하는 ‘분계강分界江’이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압록강은 백두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혜산惠山을 지나 서쪽으로 흐르고 백두산 북서쪽으로 혼동강이 흐른다. 한편 무산 아래에 백두산처럼 산 윗부분이 흰색으로 채색된 장백산이 있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169

《해동총도 海東總圖》 중 〈관북 關北〉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2).

《해동총도》 중 〈함경도〉 23관의 주기를 기록한 관북주기이다. 표제는 「관북」이다. 23관은 함흥부咸興府, 영흥永興, 길주목吉州牧, 안변부安邊府, 경성鏡城, 회령(會寧), 종성種城, 온성穩城, 경원慶源, 북청

北靑, 경흥慶興, 부녕富寧, 정평芝平, 갑산甲山, 명천明川, 무산茂山, 삼수군三水君, 문천文川, 고원高原, 단천端川, 홍원현洪原縣, 이성(利城)이다. 찰방察訪은 고산高山, 거산居山, 수성輪城이다.

도판 170

《북관지도 北關地圖》 중 〈북관지도 關北地圖〉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84.7×121.5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북관지도》는 1책 30도엽으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지도책으로 함경도咸鏡道 전체와 북관北關을 그린 관방도이다.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南關이라 한다. 이 지역은 조선 세종 때 육진六鎭이 설치되었던 곳이며 군사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회령

부근이다. 행궁을 건물까지 상세하게 그렸으며 여백의 주기에는 행궁 속군의 총수를 기록하여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주요 산과 산맥은 검정색으로 채색하였고 기타 산줄기는 녹색으로 채색했다.

도판 171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평안도전도 平安道全圖〉

1750년대, 채색필사본, 49.8×38.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해동지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찬 군현지도집이다. 제8책의 팔도 총도와 제 4책의 서북피아양계전도는 회화식 대형 전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도들은 도지도, 도별 군현지도, 도내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 순으로 편집되어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평안도〉지도는 동쪽과 북동쪽은 함경도를 경계로, 북으로는 압록강 너머 만주의 흥경지역까지 포함하여 그렸다. 압

도판 172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함경도전도 咸鏡道全圖〉

1750년대, 채색필사본, 49.8×38.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해동지도》에 수록되어있는 〈함경도〉지도이다. 감영소재지인 함흥부만 붉은색 원안에 표기되어있고 다른 군현은 남색의 원과 정방형안에 군현명이 표기되어 있다. 도로망이 붉은색 실선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 혜산과 무산에서 정계비까지 이어지는 길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백에는 감영, 민호, 전, 병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함흥부에서 각 사부社府에 이르는 거리를 주기하였다.

도판 173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 중 〈평안도 平安道〉

19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80.1×57.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35).

조선전도와 도별도道別圖로 구성되어 있는 《해동여지도》중 〈평안도〉이다. 평안도 표제에는 고조선고구려지古朝鮮高句麗地라고 표기하여 옛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표기하였다. 지도의 상단에는 폐사군廢四郡 지역에 대한 주기를 기록했다. 지도의 오른쪽에는 평안도 각 군현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록강 대안의 만주지역까지 〈평안도전도〉에 포함하여 그린 점이 특징적이다. 녹색과 청록색으로 채색한 연접하는 산맥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하천, 붉은 색의 도로망을 조화롭게 그렸고 많은 섬들을 담았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③ 백두산+강+공백+두만강

녹색의 다른 산들과 달리 흰색으로 채색된 백두산은 신성함을 가득 품고 있다. 백두산 동남쪽으로 흰색의 정계비定界碑가 있으며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강土門江’ 이 흐른다. 토문강과 ‘천평天平’부근에서 발원하는 두만강 사이는 목책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토문강은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정표가 있다. 같은 책에 수록된 〈조선전도〉처럼 도로망과 봉수대의 표현이 자세하다. 지도에 지리적 요소를 풍풍하게 더한 지리부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도판 174

《해동여지도 海東輿地圖》중 〈함경도 咸鏡道〉

19세기 초반, 채색필사본, 48.8×57.4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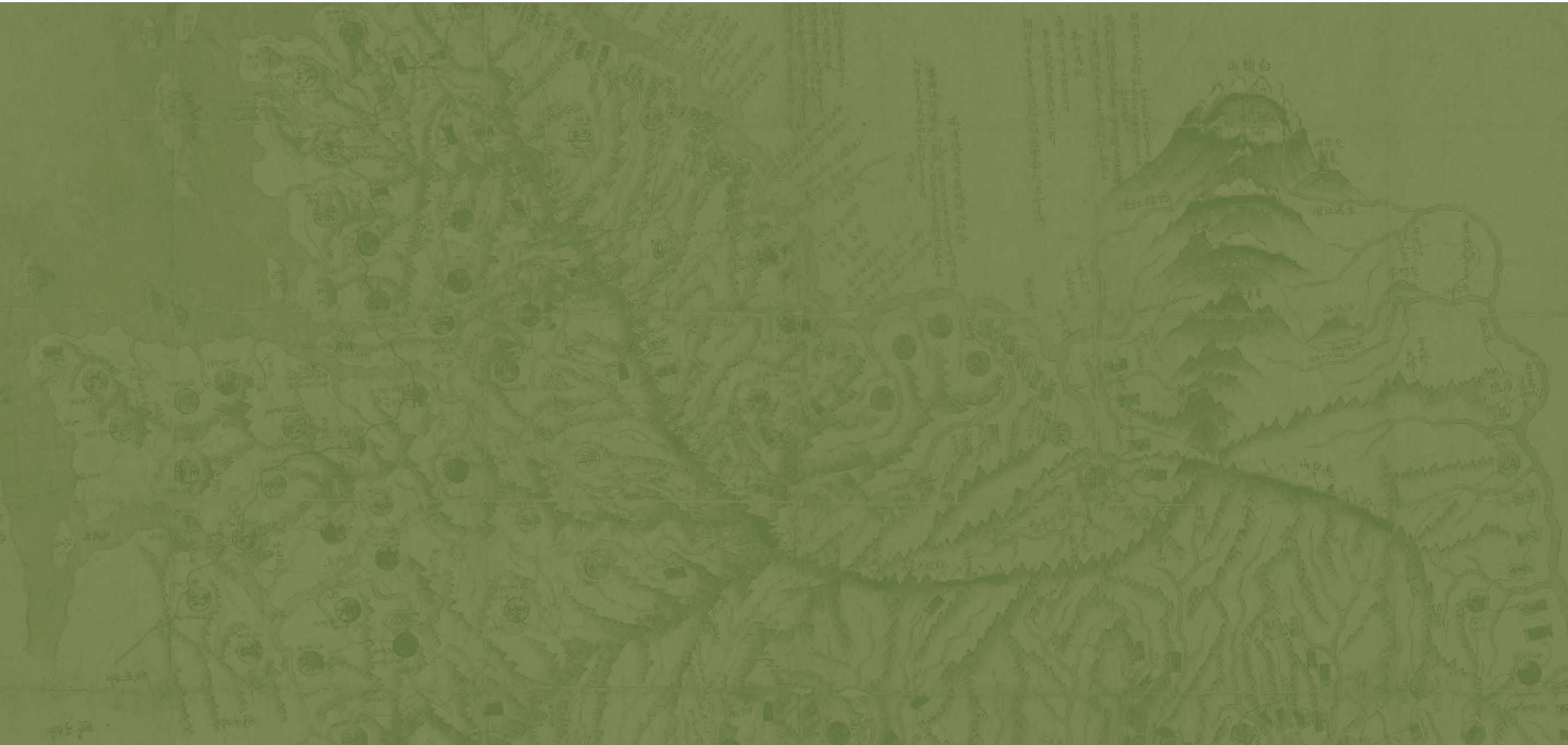
전도와 도별도道別圖로 구성되어 있는 《해동여지도》중 〈함경도〉이다. 함경도 표제에는 ‘고옥저 고구려지古沃沮高句麗地’라고 표기하여 옛 옥저와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표현하였다. 지도의 상단에는 오라지계烏喇之界, 거영고탑육일정(距寧古塔六日程), 정계비문定界碑文, 영고탑남계(寧古塔南界)에 대한 주기가 있다. 지도의 오른쪽에는 함경도 각 군현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정표가 있다. 같은 책에 수록된 〈조선전도〉처럼 도로망과 봉수대의 표현이 자세하다. 지도에 지지적 요소를 풍풍하게 더한 지리부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③ 백두산+토문강상류+공백+2강(분강계)+후춘강+두만강

같은 책에 수록된 〈조선전도〉와 백두산 동쪽 수계가 같다. 백두산 천지인 ‘대지大池’로부터 원류하는 ‘토문강상류土門江上流’라고 표기된 강이 동북쪽을 향해 흐르다가 끊기고,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공백 지역은 현재 중국 길림성 연길시吉林省 延吉市에 해당한다. 한편 공백에 있는 ‘건가퇴件加堆’는 연길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 부근 구렁인 포이합통布爾哈通이다. 지도에는 건가퇴를 사이에 두고 두 물줄기가 각각 흐르다가 만나는데, 위쪽의 하천은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이며 ‘分江界’이라 표기되어 있는 아래쪽의 하천은 증봉산甞峰山에서 발원하는 해

란하海蘭河이다. 이 강들은 백두산 남동쪽에서 발원하는 두만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경원부 안원慶源府 安原부근으로 유입되는 ‘후춘강後春江’강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토문강은 두만강 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원류에서 시작되어 흐르고 있다. 지도에서는 두 강을 각기 다른 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 삶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북쪽 지역을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 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책의 〈조선전도〉에 있는 장백산이 〈함경도〉부분에는 없다. 반면 백두산 왼쪽으로 〈조선전도〉에 없는 다음과 같은 주기가 있다. “산해경에서 칭하기를 불함산不咸山이라 하고 당사에서는 장백산이라 칭하며 만운산에서 개국하고 높이는 200여리, 2천 여리에 걸쳐 산맥이 연달아 있다. 산 위에 달문關門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80리로 깊고 넓다. 압록鴨綠·혼동混同·애호愛濤 삼강의 원류가 된다.”

V. 군현지도 속의 백두산



도판 175-186**《관북지도 關北地圖》**

18세기 중엽 영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책 13첩으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함경도 전도全圖와 부·군·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함경도 전도는 한지 2매 크기의 대형지도로 산맥·수계水系·군·현·진보鎭堡·교통로가 표시되어 있다. 전도와 군현도는 지도의 여백에 민호民戶·전결田結·군병軍兵·봉군烽軍·망해군望海軍의 총수가 기록되어 있다.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같은 지도인데,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이 앞선 시기의 원본으로 추정된다.

도판 175**《관북지도 關北地圖》 중 표지**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32.0×23.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76**《관북지도 關北地圖》 서문**

채색필사본,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77**《관북지도 關北地圖》 중 서문**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32.0×23.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78**《관북지도 關北地圖》 서문**

채색필사본, 일본 동양문고(VII-2-228).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

감산부 지도에서 백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백두산 남동쪽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源'이 발원하다가 '암류暗流30리'라는 표기와 함께 곧 끊긴다. 표기대로 토문강은 30리 북류하다가 '수출水出'하고 두만강으로 이어진다.

도판 179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갑산부 甲山府〉

채색필사본,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0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갑산부 甲山府〉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06.7×59.6cm, 고려대학교 도서관(靑 706.3).

도판 181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삼수부 三水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2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삼수부 三水府〉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113.2×60.0cm, 고려대학교 도서관(靑 706.3).

도판 183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무산부 茂山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4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무산부 茂山府〉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40.9×87.4cm, 고려대학교 도서관(靑 706.3).

도판 185**《관북지도 關北地圖》 중 〈온성부 穩城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6**《관북지도 關北地圖》 중 〈온성부 穩城府〉**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47.0×58.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87~202**《해동지도 海東地圖》**

《해동지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찬 군현지도집이다. 제8책의 팔도 총도와 제 4책의 〈서북피아양계전도〉는 회화식 대형 전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도들은 도지도, 도별 군현지도, 도내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도판 187**《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갑산부 甲山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갑산부는 함경남도 북부 고지대에 위치한 고을로 서쪽으로는 삼수, 남쪽으로는 단천 북청, 북쪽으로는 혜산진과 접하고 있다. 녹색으로 채색한 산줄기의 묘사가 특히 아름답다. 읍치에서 주변 지역에 이르는 도로망이 상세하고 봉수도 비교적 자세히 표시되었다. 읍치의 남쪽 석용봉대(石茸烽臺) 부근에는 무쇠를 캐던 수철점(水鐵店)도 보인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정계비+토문강원+두만강

백두산 남동쪽 정계비에서 동쪽으로 ‘토문강원(土門江源)’이 발원하고 두만강으로 이어진다.

도판 188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삼수부 三水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삼수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해 있다. 동쪽으로는 갑산, 남쪽으로는 함흥, 서쪽으로는 평안도의 고무창에 이른다. 현재의 량강도 삼수군, 김정숙군이 과거 삼수부 지역이다. 삼수라는 지명은 이 지역의 크고 작은 물줄기 세 갈래가 압록강에 합쳐지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1693년(숙종 19)에는 국경 방어를 위해 우영장 右營將을 두고 부사가 겸임하였다. 원래 1656년(효종 7)에 축조되어 포루까지 갖춰진 방어용 읍성이 있었지만 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압록강 연안에는 접경지역이라는 지

역의 특성으로 인해 봉수, 진보, 파수 등의 군사시설이 다수 있다. 1511년(중종 6)에 설치된 갈파지진뽕 波知鎭, 1489년(성종 20)에 설치된 인차외보 仁遮外堡, 1500년(연산군 6)에 설치된 나난보 羅暖堡, 소농보 小農堡, 구갈파지보 舊訖波知堡 등이 포진해 있다. 지도의 이면에는 갑산과 삼수 지역의 진보에 대한 군사 항목을 기재해 놓았다.

도판 189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폐사군 廢四郡>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사군 四郡은 1416년(태종 16)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연군 閔延郡을 함길도로부터 평안도로 이관하면서 설치되었다. 이후 1433년(세종 15)에 자성군 慈城郡, 1440년(세종 22)에 무창현 茂昌縣, 1443년(세종 25) 우예군 虞芮郡을 설치하면서 사군의 설치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진족의 지속적인 침입으로 유지와 확보가 어려워지자 1455년(단종 3)에 여연·무창·우예 3군을 폐지하고 주민을 강계·구성으로 옮겼다. 또한 1459년(세조 5)에는 자성군마저 폐지하여 주민을 강계로 옮긴 후 폐사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군현 신설 논의가 계속되다가 새롭게 유입되는 백성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1822년 후주도호부를 설치하고, 1869년(고종 6)에 자성군과 후창군을 다시 세웠다. 지도에는 폐사군의 위치와 이곳을 관할하던

강계부 및 관할 진이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다. 폐사군과 강계부의 경계에는 마전령 麻田嶺·이령 梨嶺에 관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최전방의 방어처임을 알 수 있다. 압록강변에는 폐사군 지역에 있는 강계 관할의 파수가 1파부터 85파까지 적혀 있으며, 진보 역시 직책까지 포함되어 적혀 있다. 무창 왼쪽으로부터 강계부에 이르는 도로에도 많은 파수와 고개가 자세히 적혀 있어서 주요 통로임을 알 수 있다. 상·하 여백의 주기에는 폐사군으로부터 강계까지 이르는 경로와 곳곳에 설치된 파수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왼쪽의 여백주기에는 강계 영역 내에 있는 진의 군사적 내용 및 적의 침입시 거쳐가는 통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도판 190**《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평안도 <강계부 江界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강계의 옛 이름은 독로강(禿魯江)인데, 1361년(고려 공민왕 10)에 만호부(萬戶府)를 두면서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다. 세조 때 사군을 폐하고 주민을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평안도 최북단이 되었다. 많은 진과 봉수는 국경지대라는 지역적 성격을 반영해주고, 자세하게 표현된 읍성과 만포진(滿浦鎭)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도 오른쪽의 적유령(狄踰峯)은 남쪽 희천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

로이고, 왼쪽의 마전령(麻田嶺)과 이령(梨嶺)은 사군 지역으로부터 적이 쳐들어 올 경우에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로서 모두 관문이 설치되어 있다. 강계지역의 파수는 86파에서 108파까지로 압록강변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만포진 건너편에는 금나라(1115-1234)의 초기 도읍지였던 오국성(五國城)과 황제묘도 함께 그려져 있다.

도판 191**《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평안도 <위원군 渭原郡>**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위원군은 본디 도을한보(都乙漢堡)였는데 다른 곳과 격리되어 있어 갑작스런 침입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1443년(세종 25)에 이산과 강계의 땅을 나누어 새로 설치한 고을이다. 지도는 남쪽을 위로 그려서 압록강이 지도의 아래쪽에 있다. 고을 한가운데 위원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압록

강에 합류한다. 지도 왼쪽의 독노강(禿魯江)은 지금의 장자강으로서 강계에서 흘러와 압록강에 합류한다. 압록강변에는 읍성을 비롯하여 성곽이 있는 2개의 보와 성곽이 없는 오노량진(吾老梁鎭)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파수와 봉수의 표시가 자세하다.

도판 192**《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평안도 <이산부 理山府>**

1750년대초,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이산부는 고려 말까지 여진족이 거주하던 두목리(豆木里)였는데, 공민왕 때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1401년(태종 2)에 새롭게 고을을 설치한 곳이다. 지도 오른쪽에 보이는 동건강(童巾江)은 지금의 충만강으로 이 지역 남·동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압록강에 합류한다. 압록강변에는 읍성을 비롯하여 산양회진(山羊會鎭)·아이진(阿耳鎭)의 요새적 모습을 잘 묘사했으며, 여러 개의 파수 및 봉수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위쪽에는 북방 방어의 제1차 관문에 해당하는 지금의 강남산맥 여러 고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고개마다 사람과 말이 모두 통과할 수 있는지, 단지 사람만 걸어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적어놓았다. 고개 아래쪽으로는 거령진(車嶺鎭)과 우현진(牛峴鎭)이 설치되어 있어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압록강변으로부터 이곳까지 이르는 길목의 고개들에 대한 내용도 자세한 것을 통해, 지도제작에서 군사적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여백주기에는 압록강변에 있는 읍성 및 2개의 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의 침입 시 통과할 수 있는 경로를 자세히 적어 놓았다.

도판 193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평안도 <벽동군 碧潼郡>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벽동군은 현재 평안북도 벽동군 및 자강도 우시군 서쪽 일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고려말까지 여진족이 살던 땅이었는데 1357년(공민왕 6)에 여진족을 쫓고 남쪽 고을의 백성을 옮겨 새로 편입하였다. 지도는 남쪽을 위로 향해 그렸다. 지도 왼쪽의 동건강 童巾江은 지금의 충만강으로서 북쪽으로 흘러 압록강에 합류한다. 압록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며 북류하는 작은 하천들을 합친다. 압록

강변에는 읍성을 비롯하여 1개의 진과 5개의 보 및 수많은 파수가 그려져 있고, 건너편 청나라 땅의 마을 이름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 병자호란 이후 강화된 북방 경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각 봉수의 표시도 자세하고, 다른 봉수와의 호응관계도 잘 기록되어 있다. 지도 위쪽에는 읍치의, 오른쪽에는 벽동 소속 각 진보의 군사적 내용 및 적의 침입로가 자세히 적혀 있다.

도판 194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평안도 <창성부 昌城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창성부는 지금의 평안북도 창성군, 동창군 일대이다. 지도는 동남쪽을 위쪽으로 그렸다. 고을의 한 가운데를 지금의 강남산맥이 지나간다. 위쪽에는 대령강의 상류 창성강이 작은 물줄기를 모아 서남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압록강이 작은 지류들을 합류시키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압록강변에는 총 6개의 진·보와 여러 개의 파수가 보이고 있어 국경선의 긴장감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읍성은 성문과 성곽의 굴곡까지 자세히 표시하여 그 중요성을 보여주며, 지금의 강남산

맥 즉 옛 청북정맥에는 세 개의 관문이 설치되어 있어 군사상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완항령을 넘으면 시채진 恃寨鎭이 있고, 소방장령 小防牆嶺쪽으로는 창성 昌城이 있다. 그 위쪽으로는 아산성 峨山城이 보이고 있는 등 군사시설의 표시가 매우 자세하다. 기타 창고, 봉수, 원과 도로의 표시가 자세하며, 다른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찰도 그려져 있음이 특이하다. 왼쪽의 여백주기에는 읍치를 비롯하여 각 진보의 군사적 내용과 유사시 적의 침입 경로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도판 195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평안도 <삭주부 朔州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삭주부는 지금의 평안북도 삭주군 동쪽과 대관군 일대이다. 지도는 동남쪽을 위로 그렸다. 지금의 강남산맥이 고을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위쪽은 대령강의 상류이며, 아래쪽은 압록강의 지류이다. 실제로는 위쪽 부분이 더 크지만 읍치 공간을 부각시키기 위해 아래쪽 부분을 더 확대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아래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을 사이로 군사시설에 대한 표시가 아주 자세하다. 압록강변에는 최전방의 방어와 감시를 위한 구령진 仇寧鎭과 두 개의 파수 및 봉수의 표시가 아주 자세하다. 읍치에는 정사각형의 석성이 있음을 잘 그려 놓았고, 지금의 강남

산맥에는 넘어가는 고개와 도로의 표시가 자세하다. 고개를 넘어가는 곳에 소색장 小塞牆과 막령진 幕嶺鎭·천마진 天摩鎭이 설치되어 있고 각 진에서 관찰하는 창고도 있다. 그 위쪽에 보이는 대삭주는 원래의 삭주 읍터로서, 지도상의 읍치인 소삭주로 읍치를 옮긴 것이 1430년(세종 12)인데 왼쪽의 여백주기에 이러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오른쪽의 여백주기에는 삭주부 읍치와 구령진 仇寧鎭의 군인수와 군사시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다.

도판 196**《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2책 평안도 <의주부 義州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의주부는 지금의 평안북도 신의주시, 의주군, 피현군, 천마군 서북쪽, 삭주군 청수 서남쪽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의주부는 청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첫 번째 도시로 압록강변에는 수많은 진보와 파수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지도 다음 페이지의 설명에는 각 진보와 의주 읍치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청나라를 ‘적賊’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쳐들어 올 경우에 만주로부터 압록강을 건너 조선 영내까지 취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아주 자세히 적어놓았다. 읍성 아래쪽에는 고려 때 강감찬에 의해 만들어지고 1646년(인조 24)에 임경업에 의해 수축된 백마산성白馬山城이 보인다. 압록강에는 고려말 이성계에 의한 요동정벌군의 회군으로 유명한 위화도威化島를 비롯한 여러 섬이 자세히 표

도판 197**《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무산부 茂山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무산부는 두만강과 연해 있는 고을로 위로는 회령, 아래로는 갑산과 접해 있다. 세종 때 이곳에 살던 야인을 몰아내고 진을 설치했다. 1674년(현종 15)에 첨사진僉使鎭을 삼봉평三峰坪으로 옮기고 1684년(숙종 10)에 감사 이세화李世華의 청에 의해 비로소 도호부를 두었는데, 부령의 거유령 서쪽 지역과 회령의 노전항蘆田項 남쪽 지역을 병합했다. 현재 함경북도 무산군을 비롯하여 연사군, 량강도 대흥단군, 백암군, 그리고 삼지연군 일부 지역이 과거 무산부의 영역이다. 읍치에는 1694년(숙종 20)에 부사이천군이 축조한 읍성이 있었지만 지도상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읍치를 표시하는 무산이라는 표기도 누락되어 있다. 읍치가 풍수의 형국으로는 행주형行舟形에 해당하여, 성안에 우물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부근의 하천물을 식수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주변 지역의 방사坊社, 창고, 봉수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동쪽의 풍산진은 본래 회령부의 풍산보로 1674년(현종 15)에 이곳으로 옮기고 1684년(숙종 10) 무산부에 소속시켰다.

시되어 있으며, 청나라와 조선의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 오갔던 도선로도 그려져 있다. 읍성의 압록강 반대편 청나라 땅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중국 사이의 공·사무역이 성행했던 책문후시柵門後市가 열렸던 곳이다. 압록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의 양하진楊下鎭에는 청나라 사람의 집胡家이 즐비하다는 표현이 있어 재미있는데, 여백주기 양하진 부분의 ‘어점漁店이 즐비하다’는 기록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백마산성 옆에 그려져 있는 국내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여러 기록에 계속 전해지던 것을 지도에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성은 실제로 중국의 길림성 집안시에 있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③ 천지+ 토문강

지도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백두산은 많은 봉우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중앙에 천지인 ‘대택大澤’이 있다. 백두산은 다른 산들과 달리 희게 보이도록 봉우리 윗부분이 채색되어 있지 않다. 산의 동남쪽에는 정계비를 나타내는 비석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그 동쪽으로 ‘목책木柵’이라는 표기와 함께 길게 나무 울타리가 그려져 있다. 백두산에서 토문강土門江·압록강鴨綠江이 발원하데, 토문강은 천지의 물이 바로 흘러나가며, 압록강은 백두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표현했다. 백두산 주변에는 두만강豆滿江이 글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정계비 남쪽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두만강으로 흘러든다.

도판 198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회령부 會寧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회령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하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시되던 곳이다. 현재의 함경북도 회령시이다. 고을의 진산은 두만강변의 오산 鰲山인데 읍치를 감싸안고 있다. 읍치 서남 쪽으로는 1509년(중종 4)에 처음 설치된 보을하진 甫乙下鎭이 포진해 있고 그 옆에는 운두성 雲頭城이 있다. 운두성은 금나라의 오국성 五國城으로 오인되어 오국산성으로도 불렸다. 고을의 북쪽에는 황제총

皇帝塚이 표시되어 있는데, 청나라 목극등이 조선과의 국경을 정할 때 이 무덤에서 ‘송황지묘 宋皇之墓’라는 글자가 출토되어 이후 황제총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두만강 변에는 파수처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봉수 또한 잘 나타나 있다. 해안가에는 석호인 진주지 眞珠池도 그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진주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도판 199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종성부 種城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종성부는 북쪽 두만강과 연해 있는 고을로 남북으로 길게 동해안까지 뻗어 있다. 종성이라는 명칭은 북쪽의 동건산 童巾山이 종을 엮어놓은 것과 같아서 붙여졌다고 한다. 해방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종성군 오촌면, 주을온면, 주북면, 주남면, 어랑면, 용성면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는 함경북도 회령시, 온성군, 새별군으로 나누어져 병합되었다. 읍치에는 세종 때 축조된 읍성이 있지만 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대신에 남쪽의 행영에는 원형의 성곽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이 행영은 함

경북도병마절도사 咸鏡北道兵馬節度使의 행영으로 세조 때 설치된 것이다. 평시에는 경성에 있는 본영에 머무르다 두만강이 얼어붙으면 이곳에서 방어를 담당하던 곳이다. 위치상으로도 회령, 종성, 경원, 온성 네 고을의 중앙에 해당하여 북방 수비에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두만강 변에는 국경 방어를 위한 파수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고 방원보와 동관진 등의 진보를 통해 이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도판 200

《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온성부 穩城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함경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고을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하고 있다. 해방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면, 유포면, 영와면, 영충면, 미포면, 훈융면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는 동쪽의 일부 지역을 새별군에 넘겨주고 남쪽 종성군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되었다. 읍치에는 읍성이 축조되어 있으나 지도상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주변 지역에는 방면에 해당하는 각 사社가 표시되어 있다. 두만강 연안에는 파수와 진보들이 뺏뺏히 들어서 있다. 첨사진 僉使鎭인 유원진 柔遠鎭을 비롯하여 1484년(성종 15)에 설치된 미전진 美錢鎭, 1442년(세종 24)에 설치된 영원진 永遠

鎭, 1523년(중종 18)년에 설치된 황척파보 黃拓坡堡 등이 국경수비의 전진 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동쪽 해안에는 소초도 小草島와 함께 목장이 표기된 또 다른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섬은 당시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대초도 大草島로서 1511년(중종 6)에 단천으로 옮겼다가 1665년(현종 6)에 다시 설치된 것이다. 감목관은 부사가 겸하고 있었고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둘레가 21리, 옹마 23, 자마 110필이 있었다. 함경도의 다른 목장에 비해서는 사육되던 말이 많은 편이었다.

도판 201**《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 3책 함경도 <경원부 慶源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경원부는 함경도의 북쪽 접경지대에 위치한 고을로 서쪽은 온성, 동쪽은 경흥과 접해 있다. 현재는 함경북도 새별군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일부는 은덕군에 편입되어 있다. 지도에는 두만강 이남의 경원 지역과 더불어 후춘부락을 비롯한 강 이북도 그려져 있다. 중국과 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두만강 연안에는 많은 파수가 설치되어 있다. 훈융진 訓戎鎭, 안원보 安原堡, 건원보 乾元堡, 아산보 阿山堡 등

도판 202**《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3책 함경도 <경흥부 慶興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경흥부는 두만강 하구 접경지대에 위치한 고을로 서쪽으로 경원과 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가 살던 곳으로 지도상에도 적지 赤池 부근에 목조와 왕비의릉인 덕릉 德陵과 안릉 安陵의 옛 터가 고름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래 이곳에 있었는데 1410년(태종 10)에 함흥부로 옮겼던 것이다. 도조 度祖가 검은 용을 쏘았다는 적지는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익조 翼祖가 여진족의 공격을 피해 들어가 살았다는 적도 赤島도 그려져 있다. 지금은 러시아 쪽 영토로 육지와 이어진 녹둔도가

도판 197-205**무산 지도**

무산군 茂山郡은 북쪽은 두만강을 사이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회령시, 동쪽으로 부령군, 동남쪽으로 청진시, 남쪽으로 경성군, 서남쪽으로 연사군과 접한다. 무산군은 함경산맥 북서쪽 백무고원의 일부로서 험한 산이 솟은 내륙 지역이다. 함경북도 지역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이다. 현재의 무산군의 범위는 1952년의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그전까지는 서쪽의 백두산·마천령산맥까지를 포함한 광대한 군으로 현재의 무산군·연사군·회령시 서부(함경북도), 대흥단군·백암군·삼지연군 동부(량강도)의 범위에 해당한다. 고려 초기 발해의 영역에 속하여 있었으나, 926년 발해가 거란에 의하여 멸망된 뒤, 대륙에서 요 遼·금 金·원 元이 교체되는 가운데, 여

은 이 지역 방어를 위한 중요한 군사기지로써 설치된 것이다. 두만강에는 하중도인 고욕이도 古欲耳島가 그려져 있는데 1666년(현종 7)에 물길이가 갈라지면서 섬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섬은 두만강에서 가장 큰 하중도로 남아 있다. 두만강 부근에 풍수적으로 그려진 용당 龍堂에는 고성(古城)이 있었으며 태조 이성계의 조상인 목조 穆祖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섬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그 아래로 초도 草島가 있는데 당시 온성에 속해 있었다. 그 전면 해안가는 일제시기 급성장한 지금의 나진시 羅津市에 해당한다. 두만강 연안에는 외적 방어를 위한 파수와 진보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현재 탄광으로 유명한 아오지 阿吾地에는 1488년(성종 19)에 설치된 보가 있었다.

진족의 근거지가 되었다. 공민왕의 북진정책에 의하여 여진족을 몰아내고 함경남도 갑산에서 두만강 하구에 이르는 선까지 경계를 확보하였으나 이 지역은 여진의 세력하에 있었다.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할 당시까지도 이곳에는 여전히 여진족이 살고 있어 조선의 행정력이 완전히 미치지 못하였다. 1438년(세종 20) 인접지인 부령군 관내 지금의 고무산에 만호진을 두었으며, 1509년(중종 4) 그 서쪽 지금의 폐무산으로 진을 옮겨 첨사진 僉使鎭으로 승격시켰다가, 1674년(현종 15)에 이르러 다시 지금의 군청 소재지인 삼봉평 三峯坪에 진을 옮겨, 비로소 무산이라 하였다. 1684년(숙종 10)에는 부령으로 승격하였으며, 부령의 차유령 車踰嶺 서쪽 지방과 회령의 일부 지방을 이에 병합하고 풍산보 豊山堡를 예속시켰다. 1895

년 갑오개혁에 의한 지방관제 개편 시 부에서 군郡이 되어 함경북도 무산군으로 불렸고 조선 최대의 면적을 가지는 군이었다. 두만강 상류 일대의 고원지대는 인구는 희박했지만 근대에 와서 임산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1929년 무산선과 산림철도인 백무선이 개통됨과 아울러, 1935년 동양 굴지

의 무산철산이 개발된 뒤로 크게 발전하였고, 1938년 무산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도판 203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무산부 茂山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204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무산부 茂山府〉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40.9×87.4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6.3).

도판 205

《관북지도 關北地圖》중 〈무산부 茂山府〉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47.4×90.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6.2).

도판 206

《관북여지도 關北輿地圖》중 〈무산부 茂山府〉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41.0×84.2cm 국립중앙박물관(구2152).

도판 207

《북관지도 北關地圖》중 〈무산 茂山〉

1776~1784년, 필사본, 74.7×77.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도판 208**《해동지도 海東地圖》 중 제 3책 〈함경도 무산부 茂山府〉**

1750년대, 채색필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209**《조선지도 朝鮮地圖》 중 〈제 1책 함경도 무산 茂山〉**

1767-1776년, 필사본, 74.7×77.2cm, 보물 제158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6030).

도판 210**《함경남북도도읍전도 咸鏡南北道都邑全圖》 중 〈무산전도 茂山全圖〉**

1822년 이후, 채색필사본, 22.8×31.5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81).

도판 211**《함경도전도 咸鏡道全圖》 중 제 4책 〈무산부 茂山府〉**

19세기 초, 채색필사본, 74.3×77.0cm, 보물 제158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156).

도판 212**《무산지도 茂山地圖》**

1872년, 채색필사본, 36.6×25.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94).

도판 213.**[의주]**

의주군義州郡은 평안북도 북서쪽의 압록강에 접한 행정구역이다. 동쪽은 삭주군과 천마군, 남쪽은 피현군, 서쪽은 신의주시에 접하고, 북쪽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중국의 동베이 지방[東北地方:滿洲]과 대한다. 의주군은 평양과 함께 평안도의 중심 지역으로서, 1895년에는 현재의 평안북도 일대를 관할하는 의주부가 설치되었고, 1907년부터 한동안 평안북도의 도청도 들어섰던 곳이다. 1905년에 경의

선이 개통하고 1911년에 압록강에 압록강철교가 가설되면서 신의주에 중심 도시로서의 지위를 양보했다. 2002년 4월에는, 압록강의 모랫등에 위치하는 서호면 등 군의 일부가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일제시대의 의주군과 삭주군 청수읍에 해당하는 큰 고을이었으며 지금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의주군, 피현군, 천마군 서북쪽, 삭주군 청수 서남쪽 일대이다. 고려 건국 후에는 옛 고구려 강토

의 회복에 힘써 북진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거란 등 북방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 993년(성종 12)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서희徐熙의 외교로 고려 영토로 수복되어 강동6주江東六州의 하나인 흥화진興化鎭이 설치되었으며, 용만현龍灣縣 또는 화의和義라고 불렸다. 거란의 4차에 걸친 침입이 실패로 끝난 뒤 고려는 방비를 굳건히 하기 위해 1032년(덕종 1) 지금의 신의주 부근에 8성을 쌓았고, 1033년에 압록강 입구를 기점으로 이 지역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1117년(예종 12) 금나라가 일어나 거란을 정벌하자, 고려는 내원성來遠城과 포주까지 수복해 압록강 이남의 이 지역은 완전히 우리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를 두고,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關防을 두었다. 1221년(고종 8)에 반역사건義州賊의亂이 일어나 격을 낮추어서 함신咸新이라 일컫다가 곧 회복시켰다. 1366년(공민왕 15)에는 목牧으로 승격했다. 세조 때 진휼을 두어 북방수비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로 삼았으며, 중국

에 대한 제일의 문호가 되었다. 이 곳은 명·청대부터 여행길의 출발지점으로 압록강을 건너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즉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북방관문에 자리했다. 압록강에는 구리도九里島·어적도於赤島·검동도黔同島·위화도威化島 등의 하중도河中島가 퇴적되어 있다. 위화도 부근에서는 압록강의 하폭이 5km 가량이나 된다. 의주군의 북부에서는 당목천棠木川이 흐르면서 깊은 협곡을 형성하고, 이 강 유역은 비교적 폐쇄적으로 격리된 생활권을 형성한다. 평야는 압록강 연안 및 삼교천·당목천 유역에 발달되었으며, 주민의 거주지와 농경지로 이용된다. 수리시설이 잘 되어 논의 면적도 많이 증가되었다. 저수지로는 고령삭면에 대산저수지, 송장면에 송장저수지가 있어 관개에 이용된다. 철도는 경의선이 서부를 남북으로 연결시켜 백마·석하의 두 역이 설치되어 있다.

도판 213

《청북도 淸北圖》중 〈의주부 義州府〉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88,5×66,8cm, 고려대학교 도서관(靑707.2).

도판 214

강계 지도

강계시江界市는 자강도의 도 소재지로 평안북도 북동부에 위치한 군이다. 동쪽은 낭림산맥을 경계로 함경남도의 장진군, 서쪽은 위원군과 초산군, 남쪽은 회천군, 북쪽은 자성군과 후창군, 그리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만주 지방과 접하고 있다. 지형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기지로써 중요시되어온 지역이며, 다른 도시와 철도·도로·항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강계시는 4개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장자강이 흐른다. 동쪽으로 장강군, 서쪽으로 시중군, 남쪽으로 성간군과 인접하고 있다. 14세기 중엽 공민왕이 배원 정책을 써서 북진을 계속하게 되면서, 1361년(공민왕 10) 독로강(강계의 옛이름)에 만호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압록강 중류 연안인 창성·벽동·초산·위원·강계의 선까지 수복하였다. 독로강은 그 뒤 1369년 의주·이성泥城과 함께 만호부를 설치하여 그 이름을 강계로 고치고, 진변鎭邊·진성鎭成·진안鎭安·진녕鎭寧의 4군軍을 설치하고

상부천호上副千戶를 보내어 관할하였다. 1403년 여진 방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강계부로 승격하였으며, 1413년 10월 각 도의 단부單府를 도호부로 개칭할 때 강계도호부로 삼았다. 고구려·발해·여진의 영역을 거쳐, 14세기 후반에 고려의 통치하에 들어갔으며 조선시대에는 북방 방위의 요충지로서 기능했다. 일제시대에는 평안북도에 속했고 도의 동북부를 차지하는 넓은 군이었다. 군의 대부분이 산지이므로, 구릉의 경사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삼았다. 평야가 적어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활발해, 쌀은 자급하기에 부족하지만 조·콩·대마의 산출이 많으며, 옥수수·감자·메밀의 생산량도 적지 않다. 또, 농가의 부업으로 양계·양돈·축우가 비교적 성하다. 특히, 강계의 소는 예로부터 품종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광업은 인상흑연鱗狀黑鉛·금·무연탄 등이 채굴되며, 특히 동방東邦·시중時中·승영勝榮 등 세 광산의 흑연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산지 전역에 삼림이 울창하며, 그 일부는 원시림

의 대수해를 이루고 있다. 연간 약 15만m³의 목재가 채벌, 반출되고, 독로강 유역에서는 압록강재의 약 50%가 생산된다. 만포에는 동양 굴지의 만포제재소가 있고, 중암역전(仲巖驛前)에는 특수제품 가공 공장으로 널리 알려진 중암제재소가 있다. 1950년 한국 전쟁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계를 임

시 수도로 결정하면서 강계특별시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강계로 개정되었다.

도판 214

《청북도 淸北圖》 중 〈강계부 江界府〉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67.4×99.6cm, 고려대학교 도서관(靑707.2).

도판 215

《갑산부지도 甲山府地圖》

1872년, 채색필사본, 36.6×25.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81)

216-217

회령

회령시會寧市는 함경북도의 북부, 두만강 연안에 위치한 도시이다. 함경산맥이 지역市域의 중앙을 가로질러 뻗어 있어 산지가 많다. 서쪽은 무산군, 남쪽은 부령군·청진시, 동쪽으로는 경흥군·경원군·온성군과 접해 있고, 북쪽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길림 성吉林省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龍井市와 마주하고 있다. 고려 초기의 영역은 통일신라 시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북쪽은 발해와 경계를 이루었다. 926년(태조 9) 발해가 거란에 의하여 멸망하자 이 지역은 우리 영토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한반도 북변은 이후 1115년(예종 10)에는 금나라에, 1234년(고종 21)에는 원나라에, 1368년(공민왕 17)에는 명나라에 속하여 수세기 동안 그 영역이 변천되어 왔다. 1434년, 육진(六鎭) 개척의 대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영북진(寧北鎭)을 석막(石幕)에서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이곳에는 성보(城堡)를 설치하여 영북진절제사(寧北鎭節制使)가 겸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영북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같은 해 5월 와무허에 따로 진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회령이라 이름을 지었으며, 그 해 가을에는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1952년 12월 회령읍·창두면·화풍면의 전체 이포와 팔을면의 5

개 이, 벽성면의 4개 이, 부령군 서상면의 1개 이, 종성군 남산면의 2개 이로 개편되었으며 1991년 7월 회령시로 승격되었다. 이 군은 대륙의 관문으로서 1638년(인조 16) 청시(淸市)가 개설되어 중국과의 국제 무역이 이루어진 상업 중심지이다. 1645년 경원개시(慶源開市)가 격년제로 바뀐 뒤부터 회령에서만 열리던 청시는 단개시, 두 곳에서 열리는 것은 쌍개시라 하였으며, 이들을 북관개시(北關開市)라 일컬었다. 개시는 두 나라 관헌의 감시 아래 이루어진 공무역이며, 부수적으로 개인 거래도 행하여졌다. 따라서, 정부에서 외교 교섭을 통하여 인원·접대·품공(粟供)을 정례(定例)로 정하고, 점차 개선하기까지 진통을 겪으면서도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오랫동안 변방 물물교환의 거점으로 중요시되어왔다. 근대에 와서는 함경선·북선선(北鮮線)이 만주철도와 연결됨에 따라 청진·나진 등 개항지의 통과 역에 불과하여 시장의 기능도 국내 지방 시장으로 쇠퇴하였다. 2002년 현재 회령시의 행정구역은 19동 28리로 되어 있다. 회령은 김일성(金日成)의 첫번째 부인이자 김정일(金正日)의 생모인 김정숙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도판 216

《함경도전도 咸鏡道全圖》 중 〈회령부 會寧府〉

19세기 초, 채색필사본, 74.3×77.0cm, 보물 제158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156).

도판 217

《회령부지도 會寧府地圖》

1872년, 채색필사본, 36.6×25.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80).

도판 218~221

함흥 지도

함흥시咸興市는 함경남도 도소재지이다. 동쪽은 낙원군(락원군), 서쪽은 영광군·함주군, 북쪽은 신흥군·홍원군, 남쪽은 동해에 면한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6세기 후반에는 신라 진흥왕의 북진정책에 따라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발해가 건국되면서 발해의 5경 가운데 하나인 남경남해부南京南海府가 설치되었으나, 926년 발해가 멸망한 뒤에는 여진족의 거주지가 되어 오랫동안 우리 영토에서 벗어나 있었다. 1107년(예종 2) 윤관尹瓘이 이 지역의 여진을 정벌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영토로 수복되었으며, 다음해에는 9성 가운데 하나로서 함주대도독부咸州大都督府가 설치되었으나 1109년 여진에 환부되었다. 1416년(태종 16) 9월 함흥부로 승격하여 함길도咸吉道の 관찰사영으로 삼고 토관土官을 설치하였다. 이때 함흥 지방을 중요시하여 영흥에서 관찰사영을 옮긴 것은 8년 전에 태조가 죽고 태종의 통치 체제가 확고해짐에 따라 출생지의 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시대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함흥시는 함경남도에 소속되었고, 일제시대에는 함흥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광복 전에는 일본인 거주지였다. 그 후 1945년 해방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었다가 북한이 1948년 9월 9일에 건국한 후 지방행정개혁을 실시하면서 함경남도 도소재지가 되었다. 함흥시는 한국전쟁 때 공공시설과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천리마운동 때 2차선 도로를 구축하고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새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960년대에 함흥시는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나, 1970년대에 다시 함경남도 도소재지로 돌아왔다. 이때 덕산군(옛 덕산구역), 락원군 등이 새로 생겼다. 2002년 북한 정부는 함흥시와 흥남구역을 떼어 주요산업시설을 흥남구역에 옮겼으나, 2005년에 다시 함흥시로 돌아왔다. 함흥시는 동흥산구역, 성천강구역 등 각 행정구역들을 폐지하였다.

도판 218

《함경남북도도읍전도 咸鏡南北道都邑全圖》 중 〈함흥전도 咸興全圖〉

1822년 이후, 채색필사본, 23.4×31.3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81).

도판 219

《관북여지도 關北輿地圖》 중 〈함흥 咸興〉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54.0×47.0cm 국립중앙박물관(구2152).

도판 220

《동국여도 東國輿圖》 중 제4책 함경도 〈함흥부 咸興府〉

1800-1822년, 채색필사본, 65.4×58.8cm, 고려대학교 박물관(2664.V.3).

도판 221

《동국여도 東國輿圖》 중 제3책 평안도 〈평양부성도 平壤府城圖〉

1800-1822년, 채색필사본, 고려대학교 박물관(2664.V.4).

평양직할시平壤直轄市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최대의 도시이다. 면적은 1,100km² 정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휴전선 이북) 지역의 0.9%를 차지하며,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약 325만 5388명이었으나, 2010년 행정 구역 축소에 따라 250만 명 선으로 줄었다. 평양직할시는 낮은 구릉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평야가 많아 농업이 발달했다. 주요 산은 만경대구역에 있는 룡악산龍岳山, 중구역에 있는 창광산蒼光山, 대동강구역의 문수봉紋繡峰이 있다. 대부분 산은 휴양지나 유원지로 만들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평양직할시' 대신 '평양시'로 표기한다. 구 소련 양식과 유사한 건물들이 이어져 있으며 1967년부터는 인구 증가로 인해 신도시 건설을 추진, 다양한 건축물이 세워졌다. 평양은 427년부터 668년 평양성이 함락당하기까지 고구려의 수도首都였다. 후에 당나라는 이곳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고 좌위위대장군左威衛大將軍 설인귀薛仁貴로 하여금 군정을 실시하게 하였으나,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안동도호부는 만주로 옮겨갔으며 이곳은 통일신라에 영속되었다. 태조 왕건王建은 즉위와 함께 황해도 지방민을 이곳에 옮겨 민호를 늘리는 한편, 북진정책의 근거지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13세기에 몽고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이 지역도 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잦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는 1395년(태조 4) 도선무순찰사都宣撫巡察使를 보내 서북 방면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1413년(태종 13) 지방행정 개편시 서북면을 평안도平安道로 개편하고 이곳을 평양부라 하여 관찰사를 두어 행정과 군사를 돌보게 하였다. 당시 평안도의 주민은 극

히 소수였던 관계로 세종·세조대에 사민정책을 실시하여 남부지방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평안도 각지로 이주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이 지방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계속된 외침으로 피폐해진 이곳을 재건하기 위하여 영조는 1733년(영조 9)에 평양성과 도시의 일부를 수축하도록 하는 영을 내렸다. 이 지역은 풍부한 물산과 경승지로 서북지방의 모든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청나라와의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계속 늘어나 번성하였다.

이 지역은 근대에 들어 상업 부문에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것은 이 지역인들이 척사적斥邪의 성향이 강한 이남지역에 비하여 서구문물을 수용하는 데 개방적이기 때문이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평양을 부府로 지정했으며, 종래 지역의 일부와 주변의 읍·면을 분리하여 대동군을 신설하였다. 1946년 9월 평양특별시로 승격되면서 평안남도에서 분리되어 중구역·동구역·서구역·남구역·북구역 등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였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후에 이곳은 북한의 수도가 되었다. 1958년 6월 대성구역을 신설하여 6개 구역으로 개편되고, 같은 해 9월 중구역·외성구역·선교구역·서성구역·사동구역·대성구역·낙랑구역·용성구역·만경대구역·삼석구역·승호구역 등 11개 구역으로 개편되었다. 2006년 19개 구역 4개 군으로 나뉘었다. 2010년 2월 말 들어 평양의 행정 구역 면적이 3분의 2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평양에 속했던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과 승호구역이 황해북도로 편입되었다. 『2011년판 북한 권력기구도 및 주요인물, 인명집』에 의하

면 천리마군이 평양으로 편입되었다. 평양직할시는 2011년 현재 18개 구역과 1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동강이 사이로 강 좌측에 형성된 중심부를 본평양本平壤, 서쪽을 서평양西平壤 그리고 강을 건너 동쪽에 형성된 시가지를 동평양東平壤으로 나누기도 한다. 평양시의 중심은 중구역이며, 1950년대 이래 내각청사, 인민대학습당, 조선미술박물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건설되었다. 평양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는 창광거리와 영광거리, 그리고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이다. 인민대학습당 앞에는 김일성광장이, 부근에는 주체사상탑이 있는데 평양의 상징이 되고 있다.

VI. 세계지도 및 아시아 지도 속의 백두산

1

백두산과
세계지도



도판 22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국립중앙박물관, 류코쿠(龍谷)대학 도서관 소장 모사본.

1402년(태종 2) 김사형, 이무, 이희 등이 제작한 당대 최고의 세계지도. 원본은 일본 류코쿠(龍谷) 대학 소장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6년 모사한 채색필사본이다. 동쪽으로 일본부터 서쪽의 유럽,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당대 최고 수준의 정확한 세계지도이다. 조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그

도판 223

《화동고지도 華東古地圖》

16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180.0×197.0cm, 보물 제1590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114).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지도 중 현전하는 지도가 매우 적는데 이 지도는 조선 전기 지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16세기에 제작된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와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와 더불어 15세기 《동국지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지도이다. 한국의 서해와 산둥반도 남쪽의 황해 사이에 변동이 많았던 황하(黃河)의 물길이 변천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삼불제(三佛齊), 점성(店城), 조와(爪哇), 안남(安南), 섬라(暹羅), 만라가 등 동남아 국가들이 그려져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지만, 《화동고지도》는 조선부분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다. 반면 일본은 조선의 남쪽에 위치를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진 조선은 실제 비율상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소중화사상 이라기 보다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여 진다. 백두대간이 뚜렷하게 강조되어있고 조선 8도와 중국 13성은 군현명의 바탕색을 달리하였다. 군현명은 청백적흑황(淸白赤黑黃)의 각기 다른 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군현의 경계는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바다는 동람도식 지도에 나타나는 바다의 물결무늬인 수파묘(水波描)로 표현했

려져 강조되어 있고, ‘백두산’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 조선 초에도 백두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도판해설 5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참고.

다. 이 지도는 연대를 고증할 만한 제문(題文)도 없고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라 정확한 제작 연대를 고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행정구역 중 명나라 만력 연간(1573년~1615년)에 바뀐 지명이 보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제작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함경도 지역이 박락이 심하여 군현명을 알아보거나 백두산 지역을 잘 살펴 볼 수 없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북동쪽으로 향하는 두만강(추측)

함경도 지역 박락이 심하여 군현명을 알아보거나 백두산 지역을 잘 살펴 볼 수 없다. 그러나 백두산 부근에 백두산으로 추정되는 ‘두頭’라는 글자만 남아있다. 지도 중앙 상단 부분 오국성이 있고 굽은 강줄기 아래에 중국의 ‘장백산(長白山)’이 표기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명명하는데,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장백산을 확인 할 수 있다.

도판 224

《천하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揔便覽圖》

1666년, 목판본, 142.8×89.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4).

1666년(현종 7)에 이 만든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이다. 중국의 역사적인 기록을 해당되는 지역에 기록한 지도와 지리지地誌를 겸한 지도이다. 지도 상단에는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의 노정기路程記와 당唐나라 두우杜佑가 쓴 『통전通典』의 노정기路程記가 인용되어 있고 왼쪽 면에는 1666년 지도 제작자 김수홍金壽弘이 쓴 발문이 있다. 발문에는 회남자淮南子를 인용하여 태장太章과 수해豎亥가 같이 동서와 남북을 걸어 각각 23만 2575리를 얻어 천체天體가 원圓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마테오리치의 일도一度를 250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수치들을 언급해 전통적 동양식 우주관과 서양에서 수입된 서양식 천문관의 혼재를 보여 준다. 만리장성 북쪽으로는 현재의 유럽을 가리키는 구라과국歐邏巴國 이마두利瑪竇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지도의 제작자인 김수홍이 유럽인으로서 중국에 왔던 마테오리치利瑪竇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우측에는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이 표시되어 있고 조선과 8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모두 4매의 판목을 잇대어 지도를 새겨 판각한 것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와 성省, 만리장성, 황하, 양자강 등의 하천, 산 등과 함께 경승, 유적, 인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도판 225

《천하고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揔便覽圖》

1666년, 채색필사본, 110.0×77.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5).

목판본인 《천하고금대총편람도》(서13124)의 필사본 지도이다. 목판본에 있는 김수홍의 발문과 지도 상단에 있는 노정기路程記, 그리고 지도의 제목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선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목판본에는 백두산과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두만강만이 있을 뿐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필사본에는 우리나라, 압록강, 두만강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조선국이 아닌 기자국箕子國이라고 표시하고, 남쪽의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렸다. 또 목판본에 표시되어 있는 대마도가 그려져 있지 않으며, 바다의 과도 문양도 상이하다.

지도의 윤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간략하게 윤곽과 하계망, 주요 산을 그렸으며, 지명과 국명도 옛 것과 현재 것이 혼재해 있다. 필사본과 달리 바다의 표현은 동람도식 지도에 나타나는 바다의 물결 무늬인 수파묘水波描가 그려져 있고 조선부분에는 조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다. 저자가 명시된 보기 드문 지도이며, 조선 초기목판본 지도의 보급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조선에는 매우 크게 그린 백두산과 양쪽 수계인 압록강, 두만강만을 그렸다. 조선의 북방한계에 대한 표현임과 동시에 백두산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 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매우 크게 그린 백두산과 양쪽 수계인 압록강, 두만강만을 그렸다. 조선의 북방한계에 대한 표현임과 동시에 백두산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도판 226

《천하대총일람지도 天下大揔一覽之圖》

1767년, 채색필사본, 128.5×151.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11).

표제는 『천하지도 부조선유구국 天下地圖附朝鮮琉球國』이고 내제는 「천하대총일람지도 天下大揔一覽之圖」이다. 중국中國·조선朝鮮·유구국琉球國을 그린 조선 후기의 중국식中國式 세계지도이다. 흔히 전래되는 중국식 천하도天下圖 또는 세계지도는 중국을 중심에 크게 그리고 그 주변에 간략하게 표시만 하는 정도로 외국을 그린 지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유구국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크게 그려진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세계지도에 한반도韓半島와 유구琉球를 추가하여 그린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했던 유구는 그랬지만 일본은 누락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④ 백두산+분계강+두만강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송화강松花江’, 서남쪽으로 ‘압록강鴨綠江’이 발원하여 흐른다. 동쪽으로는 ‘분계강分界江’이 발원하여 흐르다가 종성과 온성 사이에서 ‘두만강豆滿江’과 합류하고 경원 부근에서 유입되는 ‘후춘강厚春江’과 함께 동해바다로 향한다. ‘훈춘강訓春江’의 다른 표현인 ‘후춘강厚

도판 227

《여지전도 輿地全圖》

1824년, 채색필사본, 83.0×69.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6).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로, 중국에서 제작된 목판본 지도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다시 그린 지도이다. 전체적인 윤곽, 만주지방의 구획, 바다길의 표시 등 지도의 내용과 표현을 볼 때 저본이 된 지도는 1814년 중국에서 간행된 《대청만년일통천하전도 大清萬年一統天下全圖》로 보인다. 중국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국가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선에서 제작되는 많은 중국지도들이 명나라 때의 상황을 그린 데 반해 이 지도에는 청나라 때의 변화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서북쪽에는 영국英吉黎國, 네덜란드荷蘭國, 러시아俄羅斯, 대서양大西洋 등의 서양 지명도 기입하여, 서양 세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행정구역의 위계를 도형을 사용하여 표시했고 파도 무늬가 그려진 바다에 해로를 하천처럼 표현한 것은 목판본인 원본 지도 《대청만년일통천하전도》

春江’은 ‘고려경高麗鏡’이라 여겨왔던 선춘령先春嶺 부근에서 발원한다. 한편, 백두산 아래 소백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토문강土門江’은 두만강의 상류이다. 토문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표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1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지도이기 때문에 ‘동위토문’을 경계로 삼은 비의 내용대로라면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두만강과 합류하는 토문강을 국경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도에 표현된 분계강과 선춘령은 더 확대된 북방영역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중하는 1885년 토문강이 북향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1887년 현실적 타협안으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가정하더라도 두만강의 최상류인 홍토수를 그 수원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는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알허투하)까지라는 현실적인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는 간단한 설명을 첨가하여 지지적인 양식도 가미하였다. 지도의 상단에는 중국 각 성省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였다. 황하가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고비사막 북쪽까지 그려져 있어 청대에 이루어진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중국에서 그린 지도를 모사한 것이므로 조선은 매우 간략하고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사각형 안에 ‘조선국朝鮮國’으로 표기하고, 중앙의 사각형 테두리에는 성곽이 표시되어 있다. 또 우측에는 옛 기자국古箕子國이라 쓰여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토문강土門江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뒷면에 중국의 행정구역을 기록하고, 소주蘇州에 위치한 호수인 태호太湖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① 장백산+토문강

백두산을 ‘장백長白’으로 표기하고, 동쪽 수계로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평행하게 흘러 바다와 만난다. 목판본《여지전도》와 달리 ‘두만강豆滿江’과 ‘토문강土門江’을 각각 달리 인식하고 있으며 토문강이 두만강보다 더 북쪽수계이다. 즉,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도판 228

《여지전도 輿地全圖》

19세기, 목판본, 92.5×61.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48).

김정호 제작으로 추정되는 남북 아메리카를 제외한 구대륙舊大陸의 세계지도이다. 지도의 우측 상단에 한성漢城과 팔도관찰사영八道觀察使營의 북극고도北極高度, 즉 위도와 동서경도東西經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의 중국은 건륭년간乾隆年間(1736~1795)의 중국지도를 바탕으로 하였고, 동남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아프리카·유럽 등은 최한기崔漢綺가 1834년에 중국에서 들여온 <지구전후도地球前後圖>를 판각한 지도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지구전후도>는 평사도법平射圖法을 이용한 반구도半球圖이지만 이 지도는 중국·한국·일본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원주도법圓柱圖法으로 그린 지도에 가깝다. <지구전후도>의 지명 표기와 동일한 점이 많고 특히 이 지도의 아프리카 남단 여백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기록은 두 지도가 동일하다. 이 지도는 선교사에 의해서 들여온 서양지도와 동양에서 전해오는 지도의 내용을 합쳐서 편집한 지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조선국朝鮮國’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지리산, 구월산, 태백산이 표시되어 있다. 8도를 ‘관서·관북·해서·관동·경성·호서·영남·호남’으로 표시했으며, 중강진 부분에는 ‘폐사군廢四郡’이 있다. 섬은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백령도, 망녕도가 표시되어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지도이기는 하나 중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정치 또는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되고, 고려시대의 강역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에 기본이 되는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조선을 중국의 4분의 1정도의 크기로 그려 비율로 볼 때, 조선이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소중화사상이라기 보다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조선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지도 우측 하단에는 지도의 제작배경이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하단에는 건륭연간의 신장과 서역에 있는 각 부부의 명칭과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여지전도》 목판본과 채색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⑤ 백두산+토문강

백두산에서 북쪽 수계로는 ‘송화강松花江’, 동쪽 수계로는 ‘토문강土門江’이 흘러 바다와 만난다. 두만강이 ‘토문강土門江’으로 표기되어 있다. 동해바다로 흐르는 토문강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1712년 오라총관 목극등穆克登가 백두산에 세운 정계비의 ‘동위토문 서위압록東爲土門 西爲鴨綠’ 중 ‘토문土門’을 두만강으로 인식하여 표현한 지도이다.

도판 229

《천하여지도 天下輿地圖》

1747년, 목판본, 122.6×111.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2).

중국과 조선을 그린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이지만, 중국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진 조선은 비율 상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소중화사상 이라기보다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지도 상단에는 지도 전체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에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중국 각성(省)과 부(府)에서 북경·남경과의 거리, 그리고 각 도시의 세급으로 공급하는 쌀의 양에 대한 기록이다. 지도의 범례표가 있고, ‘건륭제 정묘년 매우 추운 겨울에 제작되었다.乾隆丁卯孟冬’라는 주기를 통해 1747년 겨울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지도 상단의 주기 부분을 제외한 지도부분은 글자와 지형 등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처음 지도만 있는 판본을 인쇄하고 그 위에 주기까지 포함된 목판본을 겹쳐서 다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지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기 부분은 후에 첨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의 박락도 다소 있고 겹쳐지는 글자와 상태가 좋지 않은 인쇄로 인해 지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크게 강조한 백두산에 ‘백두산, 청에서는 장백산이라 명명한다.白頭山彼名長白山’는 주기가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두만강이 흐른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판 230

《각국도 各國圖》 중 〈천하전도 天下全圖〉

1822년 이후, 채색필사본, 33.2×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각국도》 중에 수록된 〈천하전도〉이다. 중국에서 제작된 목판본 지도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다시 그린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채색필사본《여지전도》와 매우 유사하다. 《여지전도》와 비교할 때 몇 글자의 누락이나 오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지전도》가 먼저 전사되고, 그 후에 다시 전사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체적 윤곽, 만주지방의 구획, 바다길의 표시 등 지도의 내용과 표현을 볼 때 저본이 된 지도는 1814년 중국에서 간행된 《대청만년일통천하전도大清萬年一統天下全圖》로 보인다. 중국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국가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선에서 제작되는 많은 중국지도들이 명나라 때의 상황을 그린 데 반해 이 지도에는 청나라 때의 변화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서북쪽에는 영국(英主黎) 《여지전도》에는 영국(英吉黎國)으로 표기), 네덜란드(荷蘭國), 러시아(俄羅斯), 대서양(大西洋) 등의 서양 지명도 기입해, 서양 세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도의 상단에는 중국 각 성(省)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였다. 황하가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고비사막 북쪽까지 그려져 있어 청대에 이루어진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의 모습을 살필 수 있

다. 중국 각 성마다 채색을 달리하고 만리장성을 흰색으로 그렸으며 황하는 황토색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유조변도 자세히 그렸다. 중국에서 그린 지도를 모사한 것이므로 조선은 매우 간략하고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조선朝鮮’ 두 글자만 표기되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⑥ 장백산+토문강

《여지전도》에는 백두산을 ‘장백(長白)’으로 표기하고, 동쪽 수계로 토문강과 두만강이 평행하게 흘러 바다와 만난다. 그런데 이 지도 역시 백두산을 ‘장백(長白)’으로 표기하고, 동쪽 수계로 장백산에서 토문강으로 이어져 바다와 만나지만 두만강은 없다. 《여지전도》처럼 ‘두만강(豆滿江)’과 ‘토문강(土門江)’을 각각 다른 강으로 보고 토문강이 두만강보다 더 북쪽수계인 것으로 인식했지만, 전사하는 과정에서 두만강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정계비에 양국의 국경이라 명기된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것이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국과 조선의 경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고려시대의 강역

으로 알려진 선춘령까지 진출해야하며 적어도 분계강까지는 나아가 국경을 설정해야 한다는 18세기 중엽 이후 대두된 적극적인 영토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도판 231

《고지도첩 古地圖帖》 중 〈천하산천맥락도 天下山川脈絡圖〉

19세기 초, 채색필사본, 36.4×59.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37).

1첩 8절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첩에 실려 있는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이다. 다른 중국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모습이 비교적 자세하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년)와 윤곽이 비슷하다. 중국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진 조선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소중화사상 이라기보다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여 진다. 산은 연이어 녹색의 산맥으로 표현했고 수계를 자세히 그렸다. 특히 성국하星宿河에서 발원하는 황하는 황색으로 강조하였고, 마호馬湖·동정호洞定湖·태호太湖 등의 유명한 호수도 부각시켜 그렸다. 산보다는 하천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이다. 중국 산천의 지명과 각성, 조선 팔도를 표기했다. 만주지역은 흑룡강 이남지역까지 표현했는데, 청을 건국한 건주여진과 생여진을 표기했다. 산해관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만리장성과

도판 232

《각국도 各國圖》 중 〈천하총도 天下總圖〉

1822년 이후, 채색필사본, 33.5×22.3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각국도》는 1책 32장의 세계지도와 중국도로 구성된 화려한 채색의 회화식지도이다. 〈천지전도 天地全圖〉, 〈천하총도 天下全圖〉, 〈북경노정기〉, 〈연경성시도〉, 〈서북피아교계도 西北彼我交界圖〉, 〈장성이북도〉, 〈열하전도〉, 〈성경전도〉, 그리고 중국 17성(省)을 그린 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천하총도〉는 ‘천하’라는 제목과는 달리 중국도이다. 북서쪽에는 사막, 북동쪽 끝에

산해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요동변장이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 : ⑤ 장백산, 백두산 +두만강

흑룡강 아래 ‘장백산長白山’이 있고, 장백산 남서쪽으로 백두산이 있다. 장백산 아래에서 동쪽으로 두만강이, 서쪽으로 압록강이 발원한다. 백두산 북쪽으로는 송화강이 발원하고 있다. 장백산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발원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장백산과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각각의 산으로 그리고 있다.

는 흑룡강이 있다. 성숙해에서 발원하는 노란색의 황하는 만리장성과 함께 중국을 가로지르고 있다. 긴 타원형으로 표현된 조선 위쪽으로 ‘장백산長白山’으로 표기된 백두산이 있다. 조선이라기보다는 중국쪽에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다.

도판 233

《축벽도 丑闕圖》중 <천하도 天下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23.4×19.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62).

《축벽도》는 팔도의 지도와 <천하도>로 구성되어 있는 1책 8장의 도별지도책이다. 동랍도 유형의 도별도 지도 옆면에는 각도의 연혁, 관원, 재정관계, 고적, 민호民戶, 전결田結, 속오束伍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보통 천하도의 형태는 원형이지만 《축벽도》에 수록되어 있는 <천하도>는 직사각형인 정방형을 띠고 있다. 하지만 내해와 외해가 있고 내해 안에 중국과 조선, 일본 그리고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의 국가들이 있는 등 지도의 내용은 보통의 천하도와 같다. 조선에는 커다란 백두산만이 묘

사되어 있다. 한편 내해와 외해 사이에 있는 대륙 북쪽 중앙에는 ‘대택주만리大澤周万里’라는 백두산 천지에 대한 주기가 있다. 백두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지도에 표현하였다. 한편 외도곽과 내도곽 사이에는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를 상기하며 지도위에 적은 듯 보이는 「이마두利瑪竇」, 「천하도」라는 표기가 있다.

도판 234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중 <천하지형 天下地形>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행했던 원형 천하도류의 지도이다. 둥근 원형의 천하 안에 푸른 채색의 내해와 외해가 있고, 내해 안에 중국과 조선, 일본 그리고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의 국가들이 있다. 타원의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 조선에는 커다란 백두산만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내해와 외해 사이에

있는 대륙 북쪽(백두산 북쪽)에 둥근 호수가 표시되어 있고 ‘대택주방천리大澤周方千里’라는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는 백두산 천지에 대한 주기이며 묘사이다. 백두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지도에 표현하였다.

도판 235

《각국도各國圖》중 <천지전도 天地全圖>

1822년 이후, 채색필사본, 33.2×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각국도》에 수록된 <천지전도>이다. 조선 후기 민간에서 유행했던 원형의 천하도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상이하다. 원형 안에 세계를 그려놓았는데 북극과 남극, 구라파(유럽), 아후리가주(아메리카), 아세아주(아시아), 리상이주(아프리카)의 대륙을 붉은 색으로 표기했다. 국가 중에서는 조선만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 강조했다. 원형의 세계지도 밖으로 9개의 동심원을 그리고 동심원 각각에 28수에 대한 주기와 토성, 수성, 목성 등에 대한 천문 내용을 기록하였다. 중심에 있는 중

국에는 만리장성을 흰색으로 그리고 황하를 노란색으로 표현했다. 만리장성 북쪽에는 올랑합兀良哈이라는 표기가 있다. 올랑합은 우수리강 유역 목릉하穆陵河 부근 여진족의 한 부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일컫기도 한다. 올랑합이라는 표기 바로 오른쪽에는 두 개의 산이 있고 ‘장백長白’이라 표기되어있다. 이 장백은 백두산이 아닌 고지도상에 자주 등장하는 중국에 위치한 장백산이다.

도판 236

《해동삼국도 海東三國圖》

1780년대, 채색필사본, 248.0×264.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5506).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의 만주·요동지방일대와 중국대륙의 황해연안·일본전도·유구국琉球國·대만臺灣 등을 그린 지도이다. 편자·편년은 미상이나 1666년에 설치된 영고탑신성과 1670년에 설치된 유조변이 있고, 1776년에 이산으로 명칭이 바뀌는 초산이 그대로인 점으로 보아 18세기 초의 지도로 추정된다. 조선지도에서 인문적인 내용은 해안의 군현명과 경도(京都 한양)에서 동래·경도에 서 강진→제주도·경도에서 통영統營까지·동북으로 경도에서 경흥慶興 서북으로 의주義州까지 이르는 조선 4대로와 도로변에 위치한 군현이름만 기재되어 소략하다. 반면 압록강과 두만강 양안 지역과 만주일대는 구영고탑 신영고탑이 모두 표시되었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다. 특히 청의 발상지인 영고탑에서 청의 수도인 성경·동경·홍경에 이르는 도로와 유조변과 변문이 상세히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경도에서 의주에 이르는 도로는 압록강을 건너 책문柵門을 지나는 연행로까지 그려져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영고탑寧古塔·오라烏喇·성경盛京·산해관山海關·북경·열하성熱河城·등주登州·황하구黃河口·장강구長江口·영파寧波·복주福州·대만의 경도·위도·유구에 대해서는 연혁·경도·위도·지형·일본에 대해서는 팔도·주명과 주에 속한 군이 기재되어 있다.

도판 237

《여지도 輿地圖》 중 〈천하도지도 天下都地圖〉

1623년 원도, 1770년대 필사, 채색필사본, 60.3×102.2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여지도輿地圖》는 총 3책으로 이루어진 지도책이다. 제1책에는 세계지도, 중국지도, 북경과 한양도성도, 전도를 포함한 6장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2책에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팔도의 도별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책은 중국의 16개 성의 성별지도 16장이 수록되어 있어 그 구성이 일반 도별도로 구성된 지도책과는 차이가 있다. 제1책에 수록되어 있는 〈천하도지도〉는 18세기 말 정조대에 편찬된 서구식 한역세계지도이다. 중국에 왔던 서양선교사 알레니가 쓴 『직방외기 職方外紀』에 수록된 〈만국전도 萬國全圖〉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이다. 『직방외기』에 실린 지도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지도의 윤곽, 도법, 지명 등에서 대부분이 일치한다. 지도의 상단에 「천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④ 백두산+강(분계강)+두만강

백두산 위쪽에 ‘토문강색금土門江色禽’이라는 표기가 있다. 이것은 여진어 “도문색금圖門色禽”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문圖門’은 여진어의 ‘만萬’자로 물의 기원을 의미하고 ‘색금色禽’는 여진어의 ‘강江’자로 하천을 의미한다. 천지에서 동남쪽으로 강이 흐르고 이 강의 남쪽으로 평행하게 흐르는 두만강과 무산 부근에서 합류하여 동해바다로 흘러간다. 천지에서 발원하는 강의 명칭은 알 수 없으나 두만강과는 다른 별개의 강이다.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이 동향·동북향으로 흐르다 하류에서 두만강과 합류하는 지도의 표현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1강설을 표현하고 있다. 이중하는 1885년 토문강이 북향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1887년 현실적 타협안으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 가정하더라도 두만강의 최상류인 홍토수를 그 수원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북방영역의 한계는 분계강(연길지역의 포얼허투하·지도에서 천지에서 동향으로 흐르는 강)까지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북방영역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하도지도天下都地圖」라고 표기했다. 회색의 북극과 붉은색의 남극이 대조적이고 중앙의 적도는 붉은색이다. 중국에서의 선교를 위해 중국을 중심에 그린 마테오리치의《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처럼 지도의 중앙경선을 태평양 중앙에 배치하여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세웠다. 더불어 중국보다 더 중심에 자리하게 된 조선은 중국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져 비율상으로 볼 때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소중화사상 이라기보다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조선에는 ‘백두산’과 ‘울릉’ 두 개의 지명만이 있고 동해바다에 ‘소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다. 북방의 대륙과 지명들이 자세하며 근대식 지도 제작 기법을 사용한 지도이지만 남방의 대륙은 미지의 땅으로 표현되어 오세아니아 대

륙을 비롯한 남방은 아직 탐험이 안 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도의 필사는 조선 후기 서양지도 및 서양세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세계지도에 윤곽으로만 표현된 조선에 ‘백두산(白頭山)’만 쓰여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은 생략되어 있어, 조선의 백두산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만주지역에는

도판 238

《중국역대팔폭병풍 中國歷代八幅屏風》

1825년, 채색필사본, 118,3×456,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217).

동서양반구(東西兩半球) 세계지도와 중국 및 조선의 역대왕조표로 구성된 채색 필사본 8폭 병풍 중 세계지도이다. 병풍의 제 1폭과 마지막 제 8폭에 세계지도가 있으며, 그 사이 6폭에 중국의 역대왕조표가 도표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세계지도>에 제목은 없으며, 붉은 선으로 경위도선이 표시되어 있어 경위도의 개념을 적용해 만든 세계지도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체로 대륙의 형태는 정확하지 않아, 유럽(歐羅巴)도 옆으로 긴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은 주먹모양으로 대륙에 붙어 있는 형상인데, 단순히 지리적 위치와 반도임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일본도 세로로 긴 고구마모

양의 발흥지와 수도인 ‘성경(盛京)’, ‘요동(遼東)’, ‘영고탑(靈古塔)’ 세 개의 지명만이 있어, 이 세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양이고, 태국, 베트남, 말라카, 버마도 국가명은 기록되었으나 형태는 이처럼 간략한 조선에 우뚝 솟은 백두산만이 표기되어 있어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아라비아반도 동남쪽 모퉁이에는 ‘천주탄강지(天主誕降地)’를 표시해, 기독교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동반구도’에 비해 ‘서반구도’는 더 간략하고 왜곡된 형태를 보인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서로 독립된 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자세하다.

VI. 세계지도 및 아시아 지도 속의 백두산

2

백두산과
아시아지도



도판 239

《동국여지도 東國輿地圖》 중 〈중국도 中國圖〉

여운(呂溫), 1849년, 목판본, 19.2×3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96).

《동국여지도》는 〈천하도〉, 〈중국도〉, 〈동국대총〉과 팔도의 지도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이 중 〈중국도〉는 중국과 조선, 유구, 일본을 간략하게 그린 지도로 《여지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주요도시의 지명을 표기했고, 대 하천과 주요 산들을 간략하게 그렸는데, 다른 하천은 모두 검은 데 황하만 음각하여 흰색으로 표현했다. 〈중국도〉의 특색은 역사부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왕조가 웅거했던 곳에 춘추전국시대의 나라 이름 등을 표시했는데, 우공의 구주·전국시대의 11국, 그리고 명대의 13성을 주요 지명으로 표시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주요 지명도 매우 흥미로운데, 제왕의 동생 전횡이 제나라가 망하자 산둥성 북방의 섬에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섬인

도판 240

《지도 地圖》 중 〈중화도 中華圖〉

19세기, 채색필사본, 50.0×25.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지도》는 아름다운 채색필사본 동람도형 지도책이다. 천하도, 각 도별지도, 중국지도, 일본지도, 유구국지도, 조선총도, 조선국팔도통합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중화도〉여백에는 ‘국國 11, 주州 9, 성省 13’, ‘동서 2만 8천리’, ‘남북 2만 6천리’ 라는 주기가 있다. 중국 부분에는 춘추전국시대의 국명이 해당 지역에 노란 원안에 표기되어 있어서 역사부도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북

도판 241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중 〈중국지형 中國地形〉

18세기 말, 채색필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동람도형 채색필사본 지도책 《조선팔도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지도로 역사부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역대 왕조가 웅거했던 곳에 춘추전국시대의 나라 이름 등을 표시했는데, 우공의 구주九州·전국시대의 11국, 그리고 명대의 13성을 주요 지명으로 표시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주요 지명도 매우 흥미로운데, 제왕의 동생 전횡이 제나라가 망하자 산둥성

전횡도田橫島가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과장하여 크게 그렸다. 그리고 연燕의 소왕昭王이 갈석궁碣石宮을 지어 추연鄒衍에게 사사師事받았던 갈석산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에는 ‘조선朝鮮’ 두 글자의 표기와 불꽃처럼 솟아있는 백두산만 있다. 매우 간략하게 그린 조선에서 백두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중국을 중심으로 그렸고 조선·일본·유구·몽골·서역 등의 주변 지역은 아주 간략하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한 윤곽과 안정적인 구도, 음각과 양각의 특색이 아름다운 이 지도는 소장하고 싶어지는 한 폭의 관화작품처럼 느껴진다.

은 원 안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표기되어 있고 조선 위에 흰색 봉우리의 백두산이 있고 중국 산해관 위에 백두산보다 크게 그려진 흰 색 봉우리의 장백산이 있다. 조선의 백두산과 중국의 장백산이 각각 묘사되어 있다.

북방의 섬에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섬인 전횡도田橫島가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과장하여 크게 그렸다. 그리고 연燕의 소왕昭王이 갈석궁碣石宮을 지어 추연鄒衍에게 사사師事받았던 갈석산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에는 ‘조선朝鮮’ 두 글자의 표기와 커다란 백두산만 있다. 매우 간략하게 형태만 그린 조선에서 백두산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도판 24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중 〈중국지도 中國地圖〉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 24.5×30.5cm,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61-6).

〈천하총도 天下總圖〉, 〈중국지도 中國地圖〉, 〈유구국 琉球國〉, 〈일본국 日本圖〉, 그리고 조선전도와 조선 팔도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여기에 수록된 〈중국지도 中國地圖〉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지도 地圖》, 《여지도 輿地圖》등 지도책의 〈중국지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조선 부분은 〈혼일역대국도강리도〉처럼 조선이 중국의 4분의 1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양을 붉은 색의 큰 원안에 표기하여 강조했고 백두산을 비롯한 중요한 산을 그렸다. 중국 부분은 김수홍의 《천하금대총편람도 天下古今大總便覽圖》와 유사하다. 장방형을 띠고 있는 중국의 전체적 윤곽, 양경과 13성省의 장방형 표현, 양경과 부정부에 소속된 지역과 직속된 지구 등에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의 수직으로 표현하고 부府·주州·군郡명 등을 표기한 점 등이다. 그리고 원형부호 안에 고대 구주

도판 243

《지도 地圖》중 〈중국도 中國圖〉

1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30.3×35.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3).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동람도형 채색필사본 지도책으로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도〉, 〈조선전도〉, 〈도별도〉 등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도책에 수록된 〈중국도〉는 역사부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대 왕조가 응거했던 곳에 춘추전국시대의 나라 이름 등을 표시했는데, 우공의 구주·전국시대의 11국, 그리고 명대의 13성을 주요 지명으로 표시했다. 중국과 표주박 모양의 조선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묘사하고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의 채색은 지도의 회화성을

도九州島명과 춘추전국시대 고대 국명 또는 28수 별자리의 명칭을 표기한 것도 유사하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중국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 북쪽에 중국의 ‘장백산 長白山’이 있다. 조선의 북쪽 경계는 ‘백두산 白頭山’을 중심으로 서쪽의 압록강, 동쪽의 두만강이다. 백두산 아래 함경도의 ‘장백산 長白山’도 그려져 있다. 백두산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져 동해바다로 흐르는 강계 江界 이남을 조선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을 돋보이게 한다. 특히 곤륜산과 백두산을 매우 강조하였다. 윤곽만 그려진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백두산 白頭山’이 크게 표기되어 있으며, 백두산 북쪽의 수계는 흑룡강이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그리지 않았다. 백두산을 곤륜산 다음으로 커다랗게 묘사하였다. 후에 소장자가 정보를 추가한 흔적이 보이는데, 조선을 중심으로 남동쪽 아래에 길게 일본을 그려 넣었고, 제주를 동해안에, 전횡도 田橫島를 서해안에 그렸다.

도판 244

《대한지리도 大韓地理圖》 중 〈천하중국도 天下中國圖〉

18세기, 채색필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대한지리도》는 〈천하중국도〉, 〈조선총도〉, 팔도의 도별지도, 〈성경도〉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책이다. 이 중 〈천하중국도〉는 동양적 방식의 세계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사실적 지명과 국가명, 그리고 원형 천하도에서 보이는 상상적 국가들 즉 여인국女人國·대인국大人國·소인국小人國 등 가상적인 국명이 혼재되어 있다. 남쪽 바다에는 참과占城, 말라카滿刺加, 태국暹羅 등이 섬으로, 또 중국

서쪽 하단에는 ‘서양국西洋國’도 쓰여 있다. 지도의 상하 여백에는 「대명일통지노정기 大明一統志路程記」와 「당두우통전노정기 唐杜佑通典路程記」가 기록되어 있다. 윤곽만 그려진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커다란 ‘백두산白頭山’만 표기되어 있다. ‘백두산白頭山’ 북쪽의 수계는 흑룡강이고 두만강과 압록강은 그리지 않았다. 백두산을 조선의 산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다.

도판 245

《중국전도 中國全圖》

1831년, 채색필사본, 68.0×44.7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7).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중국지도이지만 지도의 내용은 명대明代의 상황을 보여 준다. 호광성湖廣省이 청나라 강희제 때 호남성湖南省과 호북성湖北省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행정구역 상황이 그려져 있으며, 섬서성陝西省도 감숙성甘肅省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도의 우측에 있는 ‘매방오백리每方五百里’라는 기록으로 보아 원래 격자망인 방안方眼이 있었는데 이 지도에서는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상단에 중국의 제후국인 12국과 중국 역대 행정구역의 변천,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에 수록된 각 성省에서 수도인 북경까지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황하가 성수해星宿海에서 발원한다. 황하를 황색으로 강조하였고 북쪽의 고비사막도 회색으로 진하게 표현하였다. 지도

상단의 주기 부분에는 십이제후국十二諸侯國의 관官·도道의 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하단 주기 부분에는 ‘거장안리수距長安里數’가 기록되어 있다. 지도의 우측 여백에는 북경까지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으며, 지도의 우측 하단에도 『대명일통지』에 기록된 노정이 기록되어 있다. 지도의 우측에는 조선·일본·유구 등이 표시되어 있다. 윤곽만 그려진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백두산白頭山’만 크게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白頭山’ 북쪽의 수계는 흑룡강이고 두만강과 압록강은 그리지 않았다. 백두산을 조선의 산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다.

도판 246

《중국지도 中國地圖》

연대미상, 채색필사본, 40.6×58.8cm, 국립중앙박물관(M138).

표제는 『천하제도天下諸國』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그린 세계지도로, 서북쪽에는 영국英主黎(《여지전도》에는 영국英吉黎國으로 표기), 네덜란드荷蘭國, 대서양大西洋 등의 서양 지명도 기입해, 서양 세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도 하단에는 여인국, 소인국 등 산해경에 나오는 지명들도 기록되어 있다. 녹색의 산과 파란색의 수계와 바다, 붉은 색과 노란색 장방형과 원 안에 표기된 행정지명, 지도의 중심에 있는 노란색의 황해는 지도의 회화적 느낌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중국지도에는 춘추전국시

도판 247

《여지도 輿地圖》 중 〈중국지도 中國地圖〉

1789-1795년, 채색필사본, 82.5×91.0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여지도》 제1첩에 수록된 중국지도로 하천을 중심으로 산맥을 초록색과 연두색으로 연이어 그렸다. 중국 본토의 각 성은 분홍색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에 수록된 각 성에서 북경순천부까지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성숙해星宿海부근에서 발원하는 황하는 노란색이다. 이 지도가 수록된 《여지도》는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중국지도〉에 그려진 성경유조변은 1638년에 만들어졌고, 심양(성경 盛京)은 1625년부터 1644년 사이 청의 수도였다. 1677년부터 1681년 사이에 수축된 신변(신유조변)은 지도상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 지도만은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길죽한 형태의 조선은 ‘조선국朝鮮國’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중국의 4분의 1 정도로 그려져 상대적 크기가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소중화사상 이라기보다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느껴진다. 조선의 행정구역은 군현명이 아니라 관북, 관서, 해서, 영동, 영서, 호서, 호남으로 표시한 점이 독특하다. 한편 조선 남쪽에 그려진 일본은 그 위치와 모양이 매

대의 지명을 수록하고 있어서 역사부도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중국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진 조선은 비율적으로 중국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 소중화사상 이라기보다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조선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팔도의 이름을 간략하게 표기했다.

우 왜곡되어 있으며, 중국 남쪽에 여인국, 소인국, 대인국과 같은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의 나라도 그려져 있다.

■ 백두산 동쪽 수계유형 : ⑤ 백두산+두만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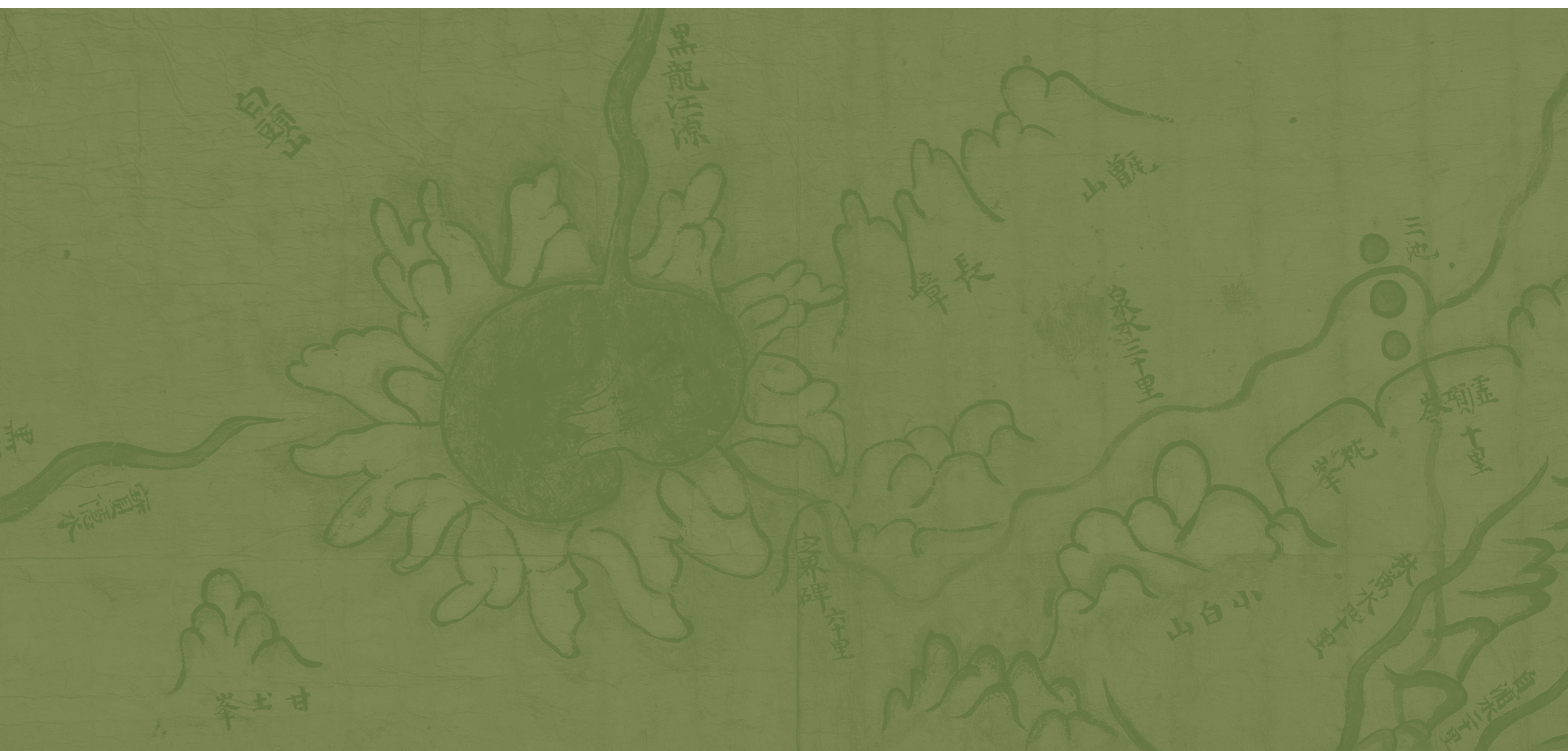
백두산을 중심으로 묘향산, 금강산, 지리산, 구월산, 태백산이 연이어 산맥을 이루는 모습이 유기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백두산 북쪽으로 흑룡강이 발원하여 흐르고 동쪽으로 명칭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두만강으로 보이는 강이 흐른다. 백두산 왼편으로 봉금지대를 표현한 성경유조변(노변 老邊)이 있고, 백두산 위로는 ‘영고탑’이 표시되어 있다.

도판 248

《지도地圖》중 〈중국도中國圖〉

19세기, 채색필사본, 33.0×39.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7).

《지도》는 채색필사본 동랍도형 지도책으로, 〈천하도〉·〈중국〉·〈일본〉·〈조선국〉·〈유구국〉 그리고 도별도의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795년에 개칭된 경기도 시흥始興, 1800년도에 개칭된 함경도 이원(利原) 등이 반영되어 있어, 1800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책임을 알 수 있다. 〈중국〉지도는 우공禹貢 구주, 춘추 전국시대의 11국, 명대의 13성을 중심으로 주요 산천이 그려져 있고, 13성 옆에는 북경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우측 여백에는 ‘사해최대십삼국四海最大十三國’이라는 제목으로 조선국, 일본국, 베트남 등 중국 주위의 13개 나라의 이름과 각 국의 행정구역수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북경과 남경의 양경이 붉은색 원으로 강조되어 있고, 황하는 다른 강의 푸른색과 달리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길고 둥글게 묘사된 조선에는 붉은 장방형안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표기되어 있고 그 위에 백두산이 ‘태백산太白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黑龍江源

正陽門

山龍

興

泉水三里

三池

塔項虛
十里

峯枕

文泉碑
六里

山白小

湖十裡

湖十裡

峯土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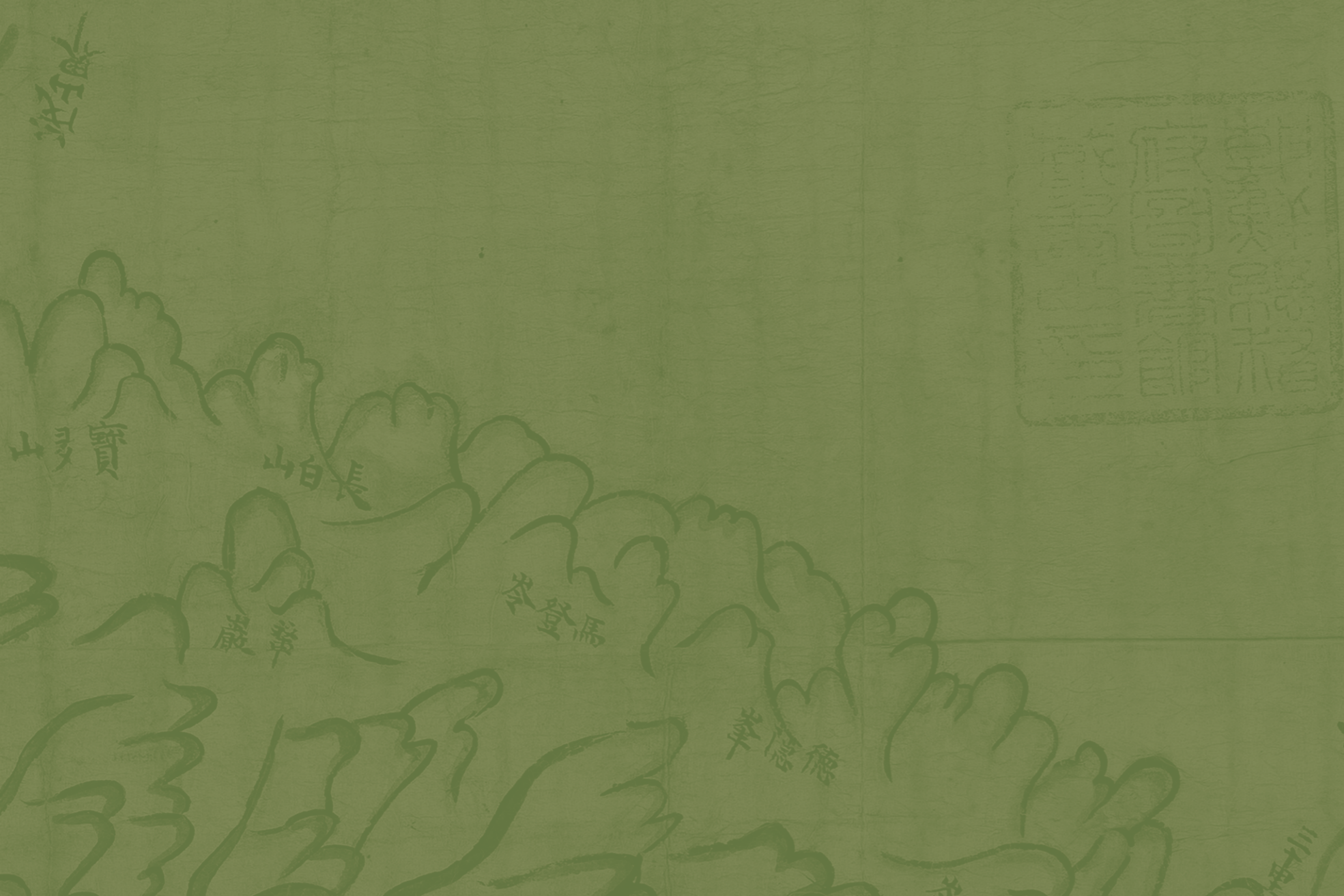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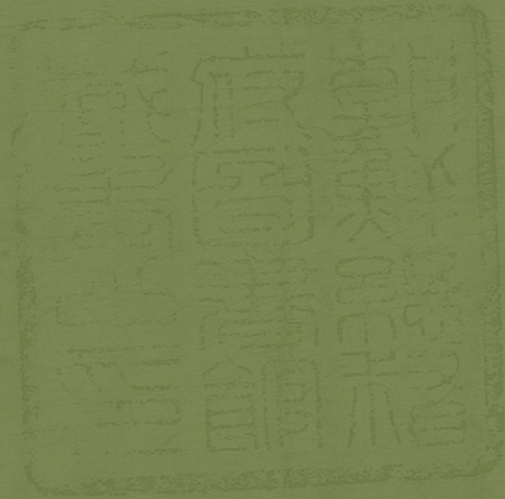
湖十裡

湖

1 甲山府形便圖

自本府 距茂山界二百十里
 東距吉州界一百六十里
 南距端川界六十里
 西距北青界一百二十里
 距三水界八十里

백두산 세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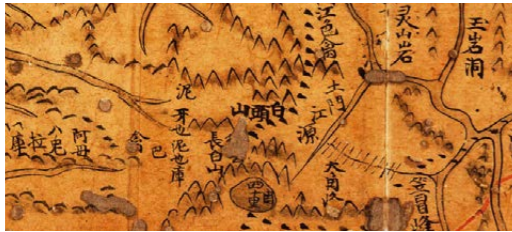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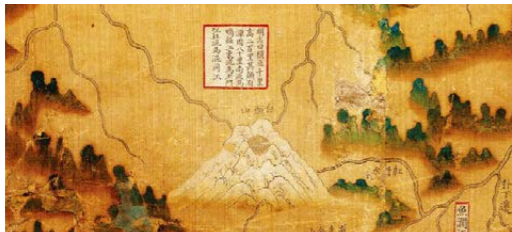
● 백두산 주변 지역 인공영상사진 | 동북아역사재단



도판 1 | 서북피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4-2 | 서북계도西北界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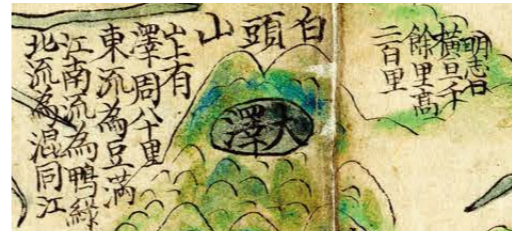
도판 5 | 오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7 | 전세보 傳世寶 | [조선·만주지도 朝鮮·滿州地圖]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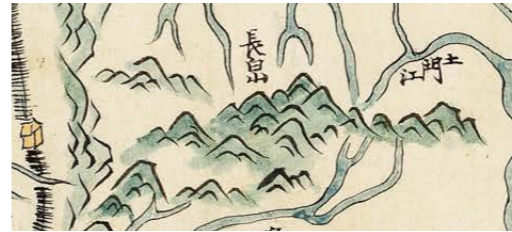
도판 10 | 해동지도海東地圖 | 서북피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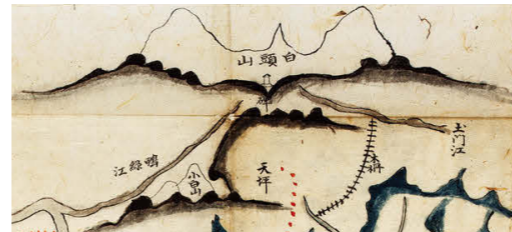
도판 11 | 각국도各國圖 | 서북피양계도西北彼我交界圖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12 | 영고탑총람도寧古塔總覽圖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17 | 화이지계華夷地界 | 성경盛京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25 | 북관지도北關地圖 | [관북지도關北地圖] |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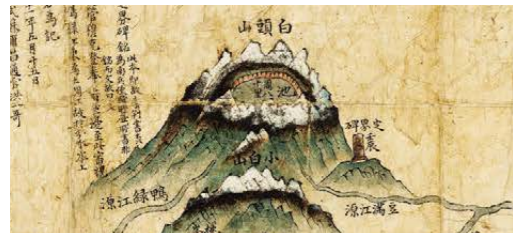
도판 26 |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 |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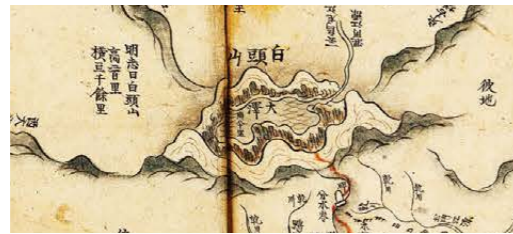
도판 27 | 북계지도北界地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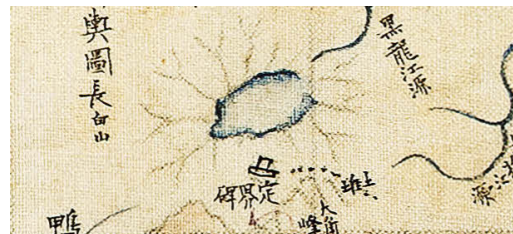
도판 28 | 양계지도兩界地圖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29 | 북방강역도北方疆域圖 |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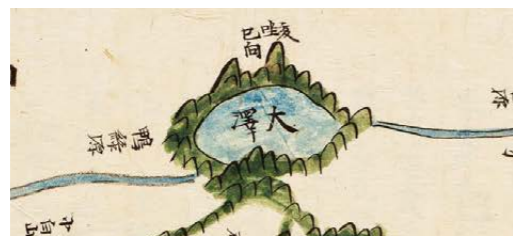
도판 32 | 서북양계지도西北兩界地圖 | 관북총람도關北總覽圖 |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판 41 | 관북전도關北全圖 | 영남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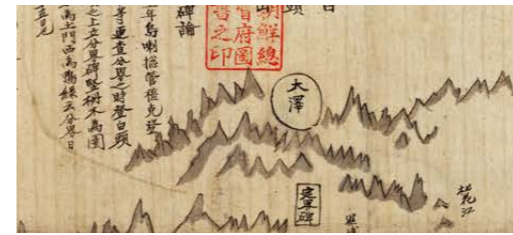
도판 47 | 백두산정계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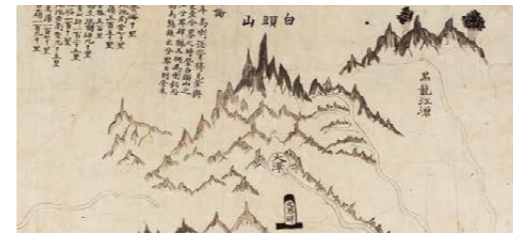
도판 48 | 동국여도東國輿圖 제 3책 함경도 | 백두산도白頭山圖 |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판 49 | 여지도輿地圖 | [임진정계지도壬辰定界地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50 | 조선정계비강역약도



도판 51 | 백두산정계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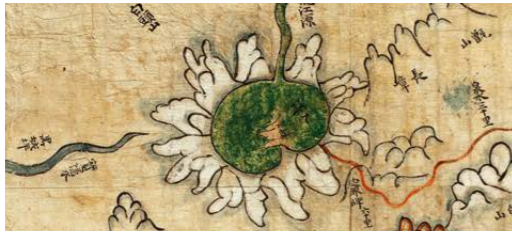
도판 52 | 장파지도長坡地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53 | 북관장파지도北關長坡地圖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54 | 장진지도長津地圖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55 | 갑산지도甲山地圖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57 | 조선국도朝鮮國圖 | 일본국립공문서관



도판 58 | 조선도朝鮮圖 | 일본국립공문서관



도판 61 | 팔도총도八道總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63 |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 | 해남 녹우당



도판 64 |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 고려대학교 도서관



도판 65 | 조선팔로지도朝鮮八路地圖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66 |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摺覽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69 |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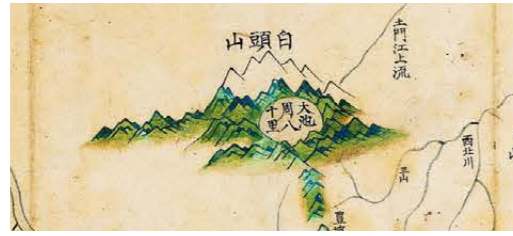
도판 70 |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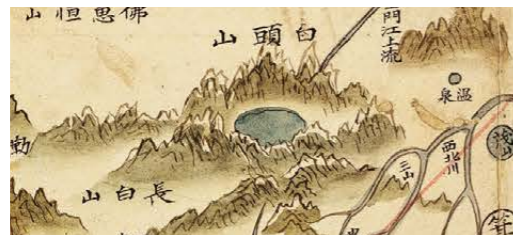
도판 71 | 조선팔역도朝鮮八域圖 |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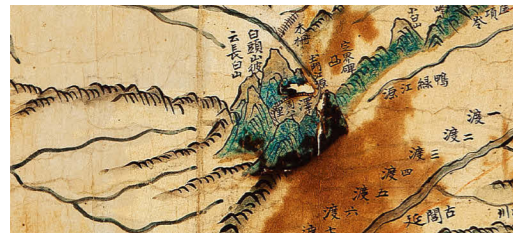
도판 72 | 조선전도朝鮮全圖 | 조선총도朝鮮總圖 |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판 73 | 각도지도各道地圖 | 조선전도朝鮮全圖
| 영남대학교 박물관



도판 75 |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 조선전도朝鮮全圖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76 | 청구관해방총도靑丘關海防總圖 |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77 | 조선지도朝鮮地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78 | 여도輿圖 | 영남대학교 박물관



도판 80 |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 동국대총서東國大總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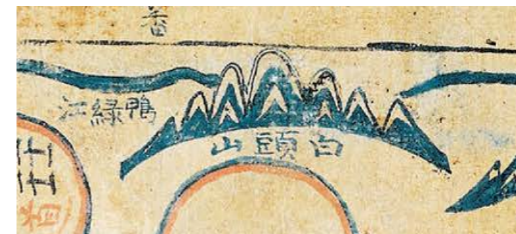
도판 81 | 지도地圖 | 조선국朝鮮國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83 | 해동총도海東總圖 | 조선총도朝鮮總圖
|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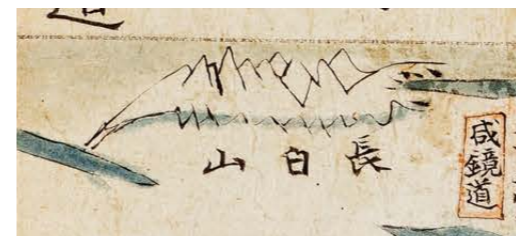
도판 84 | 지도地圖 | 조선총도朝鮮總圖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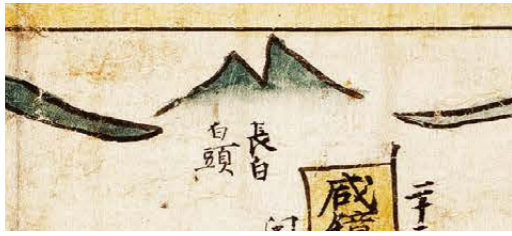
도판 85 | 지도地圖 | 조선도朝鮮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86 | 지도地圖 |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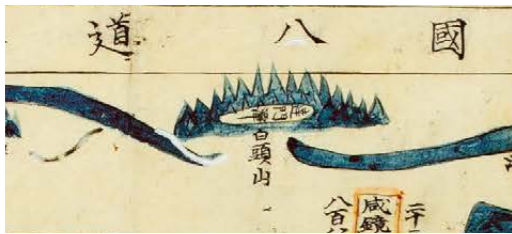
도판 87 | 여지도輿地圖 |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88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 조선팔도대총지형朝鮮八道大總地形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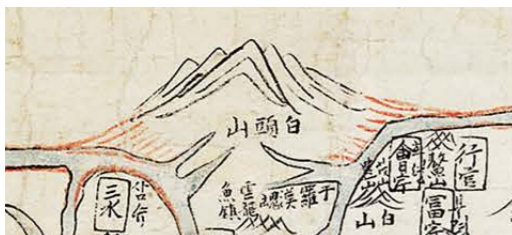
도판 89 | 천하도天下圖 | 팔도총도八道總圖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90 | 좌해어지도左海輿地圖
|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



도판 91 | 조선팔도朝鮮八道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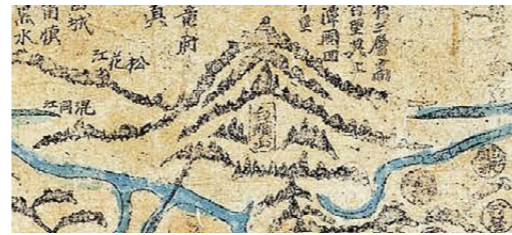
도판 92 | 동국지도東國地圖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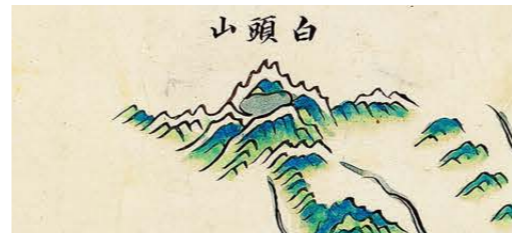
도판 94 | 지도地圖 |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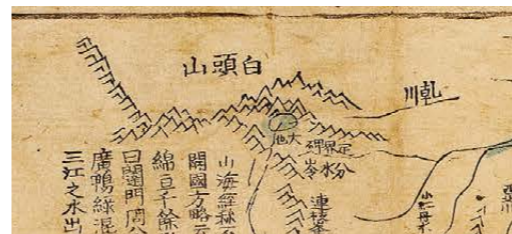
도판 95 | 조선팔도여지지도朝鮮八道輿地之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96 | 동국지도東國地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97 | 여지도輿地圖 | 아국총도我國總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99 | 좌해전도海左全圖 | 목판본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101 |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104 | 청구도靑邱圖 | 3층 8판 · 9판
| 고려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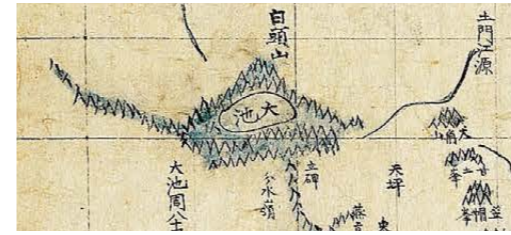
도판 110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제 2첩 백두산 부분 | 목판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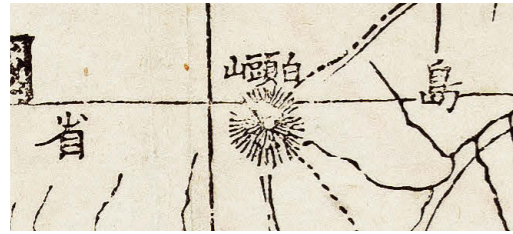
도판 127 | 동국지도東國地圖 | 함경남도咸鏡南道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120 |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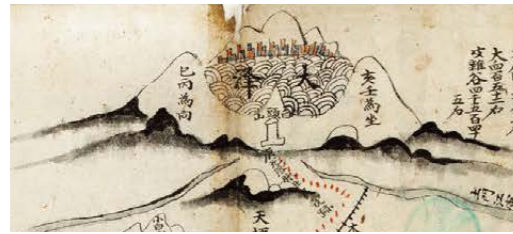
도판 132 | 동국지도東國地圖 | 관북關北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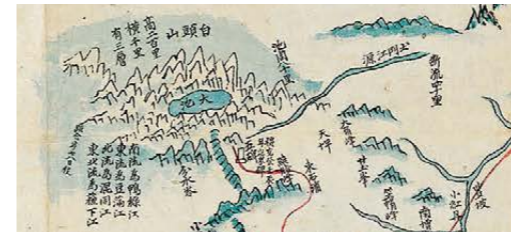
도판 121 | 대한전도大韓全圖 | 대한전도大韓全圖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141 | 팔도분도八道分圖 | 함경남도咸鏡南道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123 | 북관지도北關地圖 | 북도읍北道十邑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142 | 여지도輿地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124 | 여지도輿地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148 | 여지도輿地圖 | 함경도咸鏡道圖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125 | 조선전도朝鮮全圖 | 함경남도咸鏡南道
| 고려대학교 박물관



도판 150 | 대한전도大韓全圖 | 함경북도咸鏡北道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156 | 대한지리도大韓地理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157 | 지도地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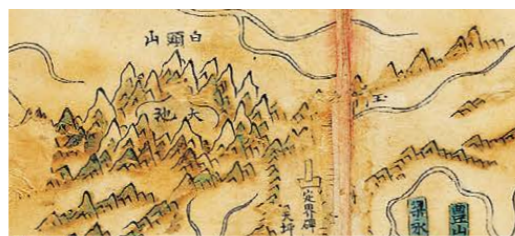
도판 160 |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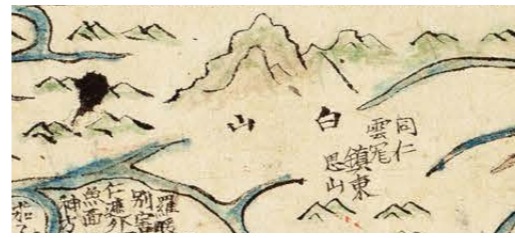
도판 161 | 천하도天下圖 | 함경도咸鏡道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판 162 | 삼한일람도三韓一覽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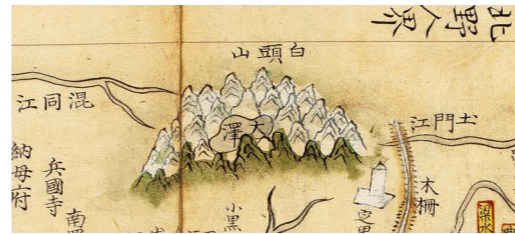
도판 163 | 지도地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164 |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 | 함경도咸鏡道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165 | 지도地圖 | 함경도咸鏡道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168 | 해동총도海東總圖 | 함경도咸鏡道 |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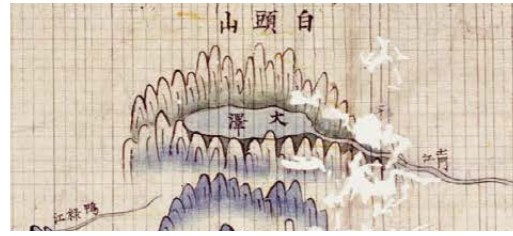
도판 174 |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 함경도咸鏡道 | 국립중앙도서관



도판 179 | 관북지도關北地圖 | 갑산부甲山府 | 일본 동양문고



도판 180 | 관북지도關北地圖 | 갑산부甲山府 | 고려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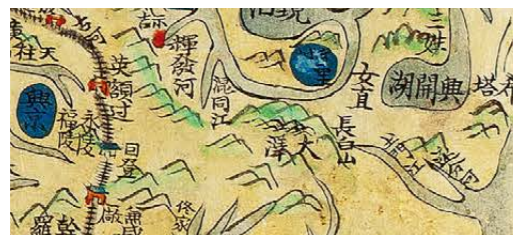
도판 211 |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 제 4책 무산부茂山府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212 | 무산지도茂山地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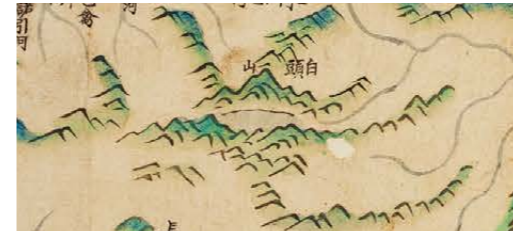
도판 224 |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230 | 각국도 일괄 | 천하전도天下全圖 |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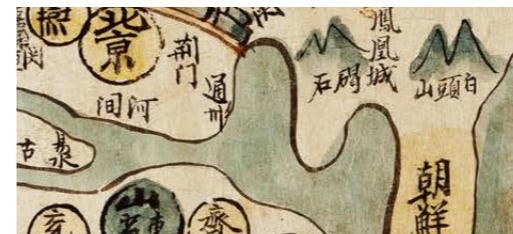
도판 233 | 축벽도畝圖 | 천하도天下圖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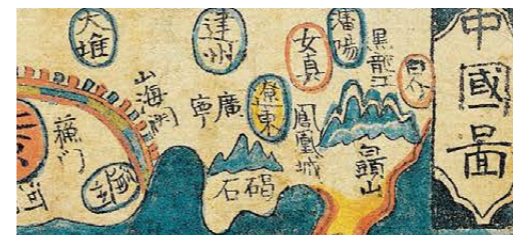
도판 236 | 해동삼국도海東三國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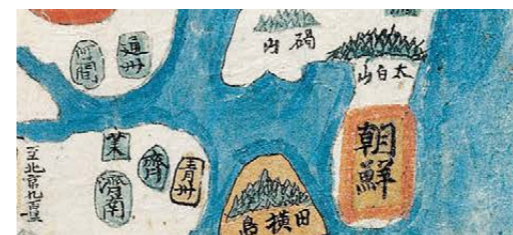
도판 240 | 지도地圖 | 중화도中華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241 |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 중국지형中國地形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243 | 지도地圖 | 중국도中國圖 | 서울역사박물관



도판 248 | 지도地圖 | 중국도中國圖 | 서울역사박물관



須彌山

黑水

崆峒山

雪山

崑崙山

臨洮

崑崙山

岷山

大平原

梁州

益州

蜀

泗水

漢中

巴蜀

關

馬嵬永安宮

白雲城

陳石

三峽

岳州宋王

屈原

夷陵

昭君村

襄陽

荊州

江陵

雍州

周

秦

西安府

長安

池

滌水

西陲

李

唐

五丈山

關

華山

函谷關

鴻溝

洛陽

郭子儀

平陽

山

關

郭子儀

平陽

洛陽

襄陽

江陵

塘

壘

壘

壘

壘

壘

壘

壘

도판 목록





도판 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162.2×191.4cm,
보물 제1537호,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 61-77).



도판 2
《서북양계도西北兩界圖》,
18세기, 채색 사본, 154.0×169.3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747).



도판 3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150.6×202.2cm,
보물 제153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22A).



도판 4
《서북계도西北界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23.5×17.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89).



도판 5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
이이명李頤命, 1706년, 채색 사본, 241.5×64.5cm,
보물 제154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9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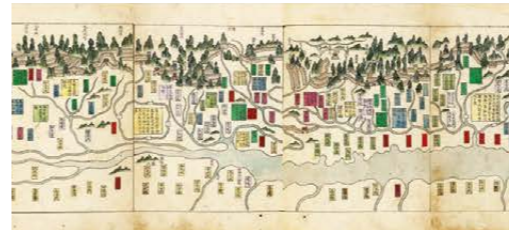
도판 6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47.5×30.0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7
《전세보傳世寶》중 [조선·만주지도朝鮮·滿州地圖],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26.3×15.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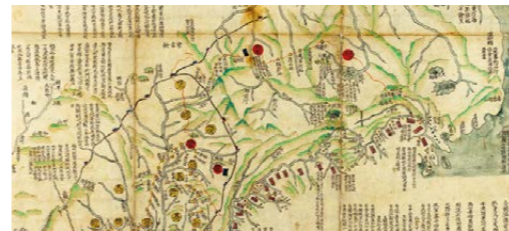
도판 8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9
《여지대전도輿地大全圖》중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
1725년, 채색 사본, 27.8×19.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4).



도판 10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서북피아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
1750년대, 채색 사본, 181.0×228.0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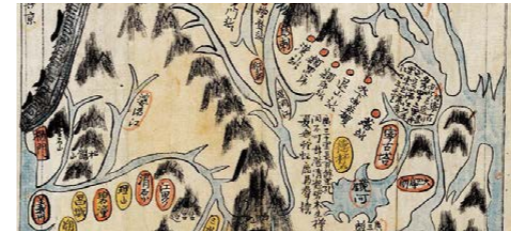
도판 11
《각국도各國圖》중 〈서북피아교계도西北彼我交界圖〉,
19세기, 채색 사본, 47.8×60.3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도판 12
《영고탑총람도寧古塔總覽圖》,
1741년, 채색 사본, 20.3×12.4cm,
국립중앙도서관(古2702-5).



도판 13
《여도輿圖》중 〈영고담도寧古塔圖〉,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43.3×63.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41).



도판 19
《대한지리도大韓地理圖》중 〈성경도盛京圖〉,
18세기, 채색 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도판 14
《여지도輿地圖》중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31.8×21.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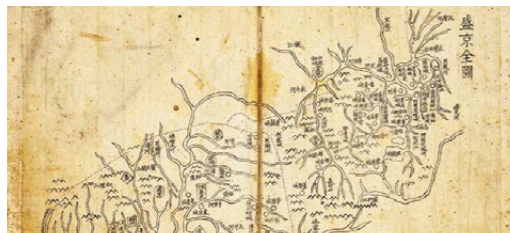
도판 20
《고지도첩古地圖帖》중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34.0×48.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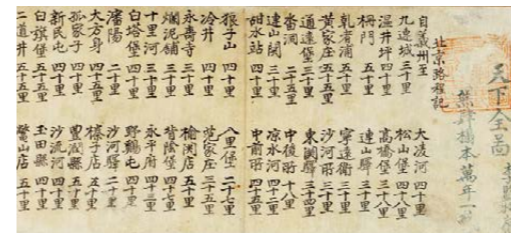
도판 15
《각국도 일괄》중
〈성경전도盛京全圖, 청일통지본 淸一統志本〉,
19세기, 채색 사본, 33.5×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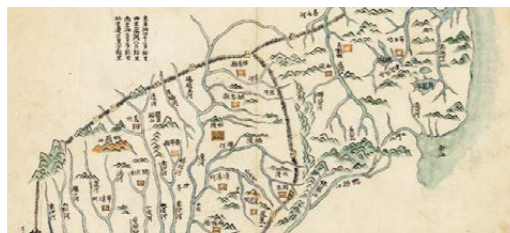
도판 21
《여도輿圖》중 〈성경전도盛京全圖〉,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43.3×63.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41).



도판 16
《중국고대각성별전도中國古代各省別全圖》중
〈성경전도盛京全圖〉,
연대미상, 사본, 27.0×17.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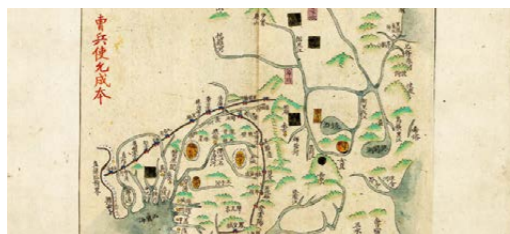
도판 22
《각국도各國圖》중 〈북경노정기北京程記〉,
19세기,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도판 17
《화이지계華夷地界》중 〈성경盛京〉,
연대미상, 채색 사본, 27.5×17.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281).



도판 23
《여지도輿地圖》중 〈의주북경사행로義州北京使行路〉,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59.0×75.0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도판 18
《각국도各國圖》중 〈성경전도盛京全圖〉,
조병사윤성본肅兵使允成本〉,
19세기, 채색 사본, 33.5×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도판 24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중
〈고구려북도급강외강역도高句麗北都及江外疆域圖〉,
18세기 반, 채색 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53).



도판 25
《북관지도北關地圖》중 [관북지도關北地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72.7×119.0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도판 26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중 <관서관북도關西關北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57.0×73.0cm,
국립중앙박물관(M82).



도판 27
《북계지도北界地圖》,
19세기 후반, 채색 사본, 93.5×13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86).



도판 28
《양계지도兩界地圖》,
18세기, 채색 사본,
국립중앙박물관(本10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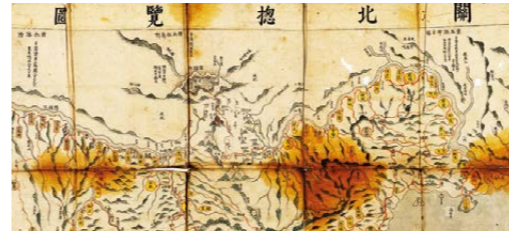
도판 29
[북방강역도北坊疆域圖],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111.0×73.5cm,
개인소장.



도판 30
《서관총람지도西關總覽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127.2×195.0cm,
국립중앙도서관(古2702-4).



도판 31
《서북양계지도西北兩界地圖》중 <서관총람도西關總覽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100.3×70.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6).



도판 32
《서북양계지도西北兩界地圖》중 <관북총람도關北總覽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87.5×88.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6).



도판 33
《청남도清南圖》중 <관서전도關西全圖>,
1776년 이후, 채색 사본, 94.7×71.2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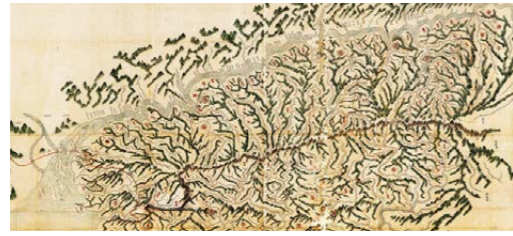
도판 34
《청북도清北圖》중 <청북전도清北全圖>,
1776년 이후, 채색 사본, 67.0×109.4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7.2).



도판 35
《여도輿圖》중 <압록강도鴨綠江圖>,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43.3×63.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41).



도판 36
《압록강변계도鴨綠江邊界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68.0×111.0cm,
국립중앙박물관(本館10049).



도판 37
《관서청북전도關西淸北全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151.3×235.5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36).



도판 38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
1780년대, 채색 사본, 43.1×224.5cm,
국립중앙박물관(本館10688).



도판 39
《폐사군국경수어도廢四郡國境守禦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129.5×181.5cm,
고려대학교 박물관(D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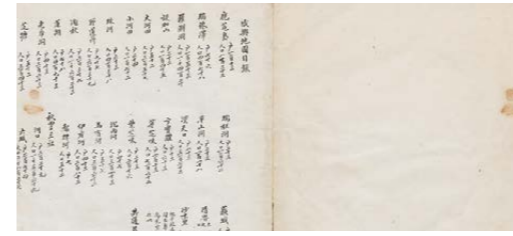
도판 40
《폐사군도廢四郡圖》,
19세기, 채색 사본, 115.5×194.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複軸4709-94).



도판 41
《관북전도關北全圖》,
1895년, 채색 사본, 84.0×81.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275).



도판 42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중 표지,
1885~1905년경, 채색 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도판 43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중 목록,
1885~1905년경, 채색 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도판 44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중 <녹둔도도鹿屯島圖>,
1885~1905년경, 채색 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도판 45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중
<연추영도延秋營圖·훈춘도琿春圖>,
1885~1905년경, 채색 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도판 46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중 <해삼위도海蔘葦圖>,
1885~1905년경, 채색 사본, 27.2×3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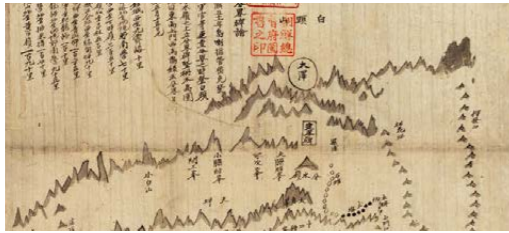
도판 47
《백두산정계비지도白頭山定界碑地圖》,
1887년, 채색 사본, 54.2×99.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軸26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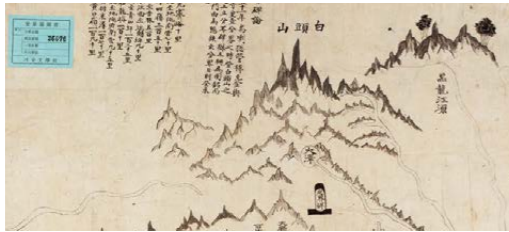
도판 48
《동국여도東國輿圖》중 제 3책 함경도咸鏡道
<백두산도白頭山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33.2×31.5cm,
고려대학교 박물관(2664 V.3).



도판 49
《여지도輿地圖》중 [임진정계지도壬辰定界地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31.8×21.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



도판 50
《조선정계비강역약도朝鮮定界碑疆域略圖》,
연대미상, 사본, 85.4×5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5504).



도판 51
《백두산정계비지도白頭山定界碑地圖》,
연대미상, 사본, 97.6×56.9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26676).



도판 52
《장파지도長坡地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71.0×108.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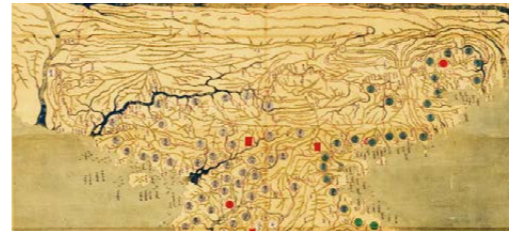
도판 53
《북관장파지도北關長坡地圖》,
1880년대, 채색 사본, 71.5×109.7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9).



도판 54
《장진지도長津地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116.0×75.1cm,
국립중앙박물관(古6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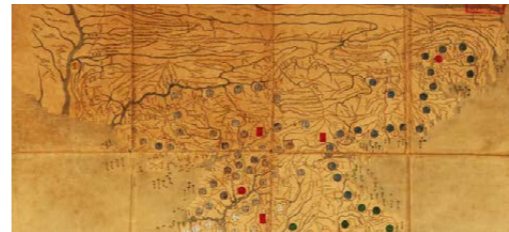
도판 55
《감산지도甲山地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74.4×69.7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7).



도판 56
《팔도지도八道地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91.0×35.7cm,
국사편찬위원회(貴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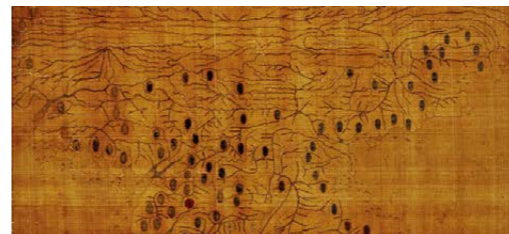
도판 57
《조선국도朝鮮國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일본 국립공문서관(178-449).



도판 58
《조선도朝鮮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일본 국립공문서관(史199-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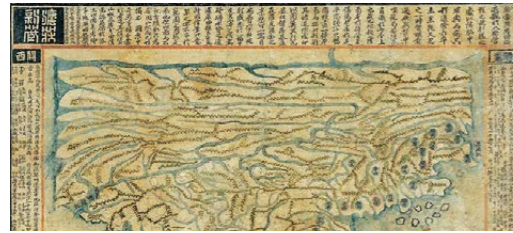
도판 5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중 조선부분
1402년의 모사본, 채색 사본, 158.5×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류코쿠龍谷대학 도서관 소장 모사본.



도판 60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16세기, 채색 사본, 132.0×61.0cm,
국보 제248호,
국사편찬위원회.



도판 61
 《팔도총도八道總圖》,
 1683년, 채색 사본, 124.0×90.5cm,
 국보 제24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판 62
 《동국팔도여지도東國八道輿地圖》,
 1819년, 채색 사본, 121.5×70.3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7).



도판 63
 《동국여지도東國輿地之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121.0×73.4cm,
 보물 제481호,
 해남 녹우당.



도판 64
 《해동팔도동화산약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17세기 후반, 채색 사본, 218.0×149.0cm,
 보물 제1533호,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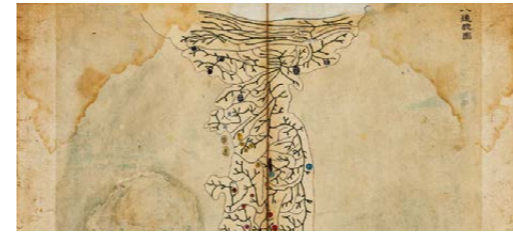
도판 65
 《조선팔로지도朝鮮八路地圖》,
 1707년, 사본, 126.0×83.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1).



도판 66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
 김수홍金壽弘, 1673년, 목판본, 141.8×107.0cm,
 보물 제1602호,
 서울역사박물관(서13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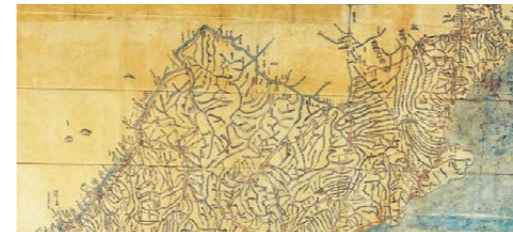
도판 67
 《조선팔도총람지도朝鮮八道總覽之圖》,
 17세기 후기, 목판본, 104.5×69.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115).



도판 68
 《팔도총도八道總圖》중 [조선전도朝鮮全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132.5×40.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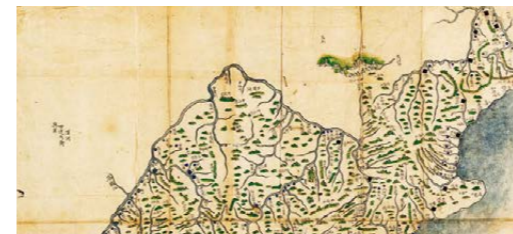
도판 69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8세기, 채색 사본(비단), 272.2×137.9cm,
 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德壽4396).



도판 70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19세기, 채색 사본, 252.5×139.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8).



도판 71
 《조선팔로지도朝鮮八域圖》,
 1822년 이후, 채색 사본, 241.3×99.0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2).



도판 72
 《조선전도朝鮮全圖》중 〈조선총도朝鮮總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98.5×57.5cm,
 고려대학교 박물관(D129).



도판 73
《각도지도各道地圖》중 〈조선전도朝鮮全圖〉,
19세기, 채색 사본, 99.0×56.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76).



도판 74
《동국지도東國地圖》,
최한기崔漢綺, 1846년, 채색 사본, 95.0×53.1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2).



도판 75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중 〈조선전도朝鮮全圖〉,
19세기 반, 채색 사본, 98.7×56.5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35).



도판 76
《청구관해방총도靑丘關海防總圖》,
1776~1787년, 채색 사본, 85.5×282.0cm,
보물 제1582호,
국립중앙박물관(本館11651).



도판 77
《조선지도朝鮮地圖》,
19세기 이후, 채색 사본, 84.0×62.3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6).



도판 78
《여도輿圖》,
18세기 전반, 채색 사본, 153.7×95.0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75).



도판 79
《동국지도東國地圖》중 〈총도總圖〉,
19세기, 채색 사본, 99.3×59.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3).



도판 80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중 〈동국대총東國大總〉,
여운묘溫, 1849년, 목판본, 19.2×3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96).



도판 81
《지도地圖》중 〈조선국朝鮮國〉,
19세기, 채색 사본, 32.3×38.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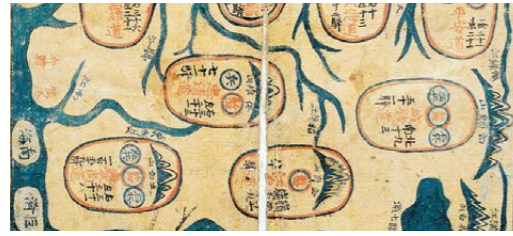
도판 8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중
〈조선전도朝鮮全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24.5×30.5cm,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61-6)



도판 83
《해동총도海東總圖》중 〈조선총도朝鮮總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42.5×32.3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2).



도판 84
《지도地圖》중 〈조선총도朝鮮總圖〉,
19세기, 채색 사본, 25.2×25.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도판 85
《지도地圖》중 〈조선도朝鮮圖〉,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28.4×34.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3).



도판 91
《조선팔도朝鮮八道》,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48.0×32.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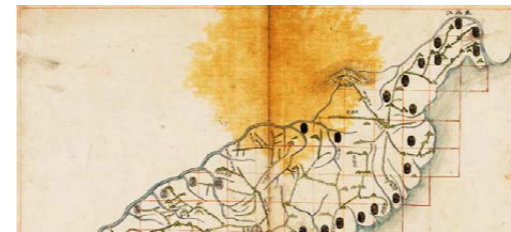
도판 86
《지도地圖》중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연대미상, 목판본, 25.8×32.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람古9125-J561).



도판 92
《동국지도東國地圖》,
18세기 전반, 채색 사본, 92.6×65.3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1).



도판 87
《여지도輿地圖》중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28.9×39.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



도판 93
《고지도첩古地圖帖》중 〈조선전도朝鮮全圖〉,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96.0×65.5cm,
영남대박물관(10137).



도판 8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중
〈조선팔도대총지형朝鮮八道大總地形〉,
18세기 말, 채색 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도판 94
《지도地圖》중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
19세기, 채색 사본, 50.0×25.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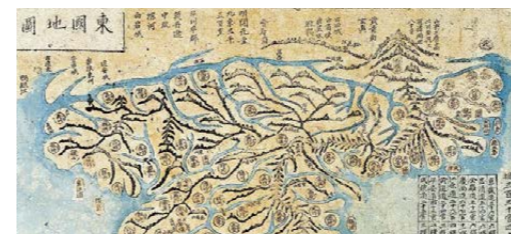
도판 89
《천하도天下圖》중 〈팔도총도八道總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28.6×33.9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17).



도판 95
《조선팔도여지지도朝鮮八道輿地之圖》,
16세기 후반, 목판본, 107.0×69.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44).



도판 90
《좌해여지도左海輿地圖》중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19세기, 채색 사본, 34.0×21.6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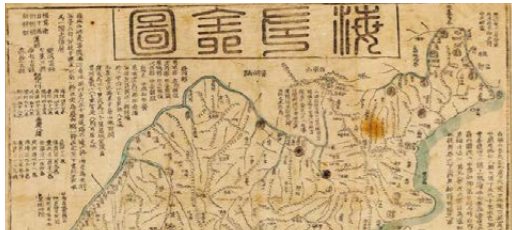
도판 96
《동국지도東國地圖》,
19세기 이후, 목판본, 78.4×48.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3).



도판 97
《여지도輿地圖》중 <아국총도我國總圖>, 18세기 말, 채색 사본, 152.5×82.5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도판 98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18세기 말, 채색 사본, 169.0×9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 4709-2).



도판 99
《해좌전도海左全圖》, 1857~1859년, 목판본, 98.4×56.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89).



도판 100
《해좌전도海左全圖》, 19세기 중엽, 사본, 106.5×56.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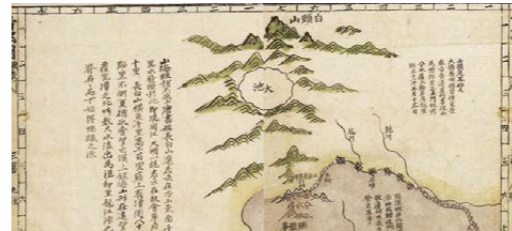
도판 101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19세기 후반, 목판본, 104.3×31.7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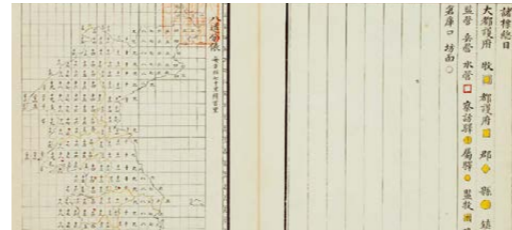
도판 102
《청구도靑邱圖》중 <본조팔도주현도총목本朝八道州縣圖總目>, 1834년, 채색 사본, 30.8×20.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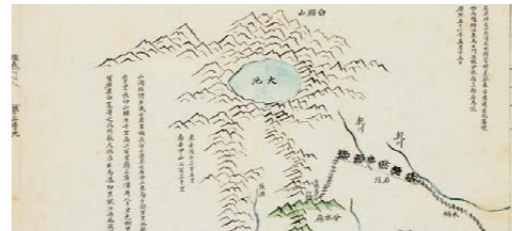
도판 103
《청구도靑邱圖》중 <본조팔도성경합도本朝八道盛京合圖>, 1834년, 채색 사본, 20.7×30.8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511).



도판 104
《청구도靑邱圖》중 제 3층 8·9판, 1834년, 채색 사본, 30.8×20.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511).



도판 105
《동여도東輿圖》중 <제표총목諸標總目, 팔도분표八道分表>, 채색 사본,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夕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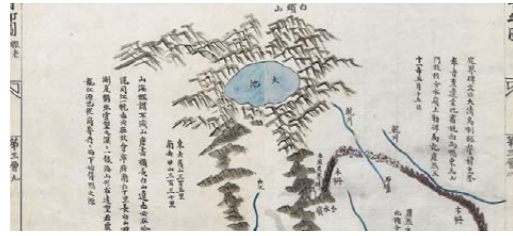
도판 106
《동여도東輿圖》중 제 3층 8·9, 채색 사본,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夕23).



도판 107
《청구도靑邱圖》중 표지, 채색 사본, 24.0×3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587).



도판 108
《청구도靑邱圖》제 1층, 채색 사본, 24.0×3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587).



도판 109
《청구도靑邱圖》중 제 3층 8·9,
채색 사본, 24.0×3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4587).



도판 110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1861년, 목판본, 30.2×20.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333).



도판 111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일본 국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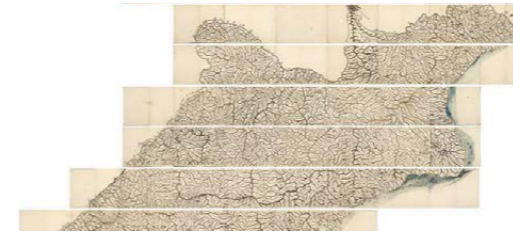
도판 112
《조선지방도朝鮮地方圖》중 제 1첩 백두산 부분,
채색 사본, 29.0×17.5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211).



도판 113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중 제 2첩 백두산 부분,
1861년, 사본, 30.2×20.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380).



도판 114
《해좌여도海左輿圖》,
1861년, 목판본, 29.8×19.8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971).



도판 115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년, 목판본, 30.6×20.1cm,
보물 제850-1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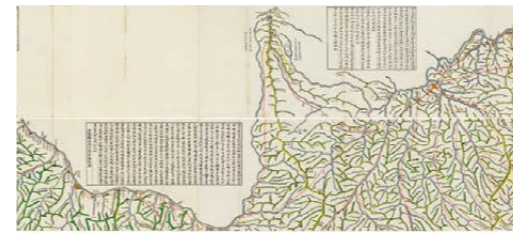
도판 116
《동여도東輿圖》,
19세기 중엽, 채색 사본, 30.5×20.0cm,
보물 제1358-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340).



도판 117
《동여도東輿圖》,
19세기 중엽, 채색 사본, 30.5×20.0cm,
보물 제1358-1호,
서울역사박물관(서3069).



도판 118
《동여도東輿圖》중 제 1첩·2첩,
19세기 중엽, 채색 사본, 41.0×26.5cm,
국립중앙박물관(M127).



도판 119
《동여도東輿圖》중 제 2첩·3첩,
19세기 중엽, 채색 사본, 30.5×20.0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3659).



도판 120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
1900년경, 동판본, 161.4×91.6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1).



도판 121
《대한전도大韓全圖》중 〈대한전도大韓全圖〉,
1905년 전후, 동판본, 40.5×31.1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8).



도판 122
《근역강산맹호기상도權域江山猛虎氣像圖》,
19세기 말~20세기, 채색 사본, 80.3×46.0cm,
고려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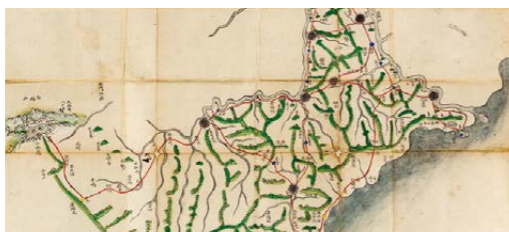
도판 123
《북관지도北關地圖》중 〈북도십읍北道十邑〉,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61.2×99.9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도판 124
《여지도輿地圖》중 〈함경도咸鏡道〉,
채색 사본, 91.8×59.8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도판 125
《조선전도朝鮮全圖》중 〈함경남도咸鏡南道〉,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97.0×58.5cm,
고려대학교 박물관(D129).



도판 126
《조선전도朝鮮全圖》중 〈함경북도咸鏡北道〉,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97.0×60.0cm,
고려대학교 박물관(D129).



도판 127
《동국지도東國地圖》중 〈함경남도咸鏡南道〉,
19세기, 채색 사본, 101.5×57.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3).



도판 128
《동국지도東國地圖》중 〈함경북도咸鏡北道〉,
19세기, 채색 사본, 83.5×57.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3).



도판 129
《도리도표道里圖標》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후반, 채색 사본, 99.0×6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23).



도판 130
《동국지도東國地圖》중 〈관서關西〉,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0).



도판 131
《동국지도東國地圖》중 〈관남關南〉,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0).



도판 132
《동국지도東國地圖》중 〈관북關北〉,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69.6×4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50).



도판 133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중 〈평안도平安道〉,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98.5×55.6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8).



도판 134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중 〈함경도전도咸鏡道全道〉,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100.7×55.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8).



도판 135
《아동여지도我東輿地圖》중 〈함경도관북咸鏡道關北〉,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77.4×57.4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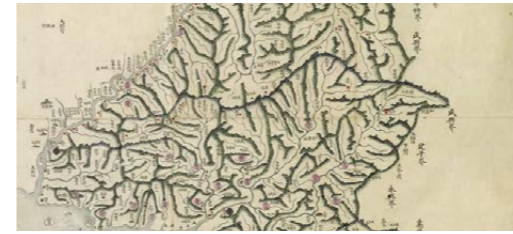
도판 136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채색 사본, 159.1×123.5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65).



도판 137
《기봉요도箕封瑤圖》중 〈함경북도咸鏡北道〉,
채색 사본, 100.3×62.3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153).



도판 138
《해동팔역여지도海東八域輿地圖》중 〈관북關北〉,
채색 사본, 74.0×61.2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131).



도판 139
《관서도지도關西都地圖》,
채색 사본, 70.0×65.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4544).



도판 140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채색 사본, 88.0×120.8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735).



도판 141
《팔도분도八道分圖》중 〈함경남도咸鏡南道〉,
19세기, 채색 사본, 107.2×64.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67).



도판 142
《여지도輿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전반, 채색 사본, 76.3×65.6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68).



도판 143
《좌해지도左海地圖》중
〈함경도남도 삼주咸鏡南道十三州〉,
1838년,
일본 동양문고.



도판 144
《좌해지도左海地圖》중 〈함경도북도구주咸鏡北道九州〉,
1838년,
일본 동양문고.



도판 145
《조선팔도여지전도朝鮮八道輿地全圖》중 〈평안平安〉,
18세기, 채색 사본, 64.7×47.8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72).



도판 146
《조선팔도여지전도朝鮮八道輿地全圖》중 〈함경咸鏡〉,
18세기, 채색 사본, 64.0×48.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72).



도판 147
《여지도輿地圖》중 〈평안도平安道圖〉,
19세기 말, 동판본, 27.6×35.9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9).



도판 148
《여지도輿地圖》중 〈함경도咸鏡道圖〉,
19세기 말, 동판본, 27.6×36.2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9).



도판 149
《대한전도大韓全圖》중 〈평안북도平安北道〉,
1905년 전후, 동판본, 28.6×32.2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8).



도판 150
《대한전도大韓全圖》중 〈함경북도平安北道〉,
1905년 전후, 동판본, 26.9×21.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58).



도판 151
《해동도海東圖》중 〈함경도지계리수咸鏡道境界里數〉,
17세기, 채색 사본, 18.7×32.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42).



도판 152
《해동도海東圖》중 〈함경도咸鏡道〉,
17세기, 채색 사본, 18.7×32.7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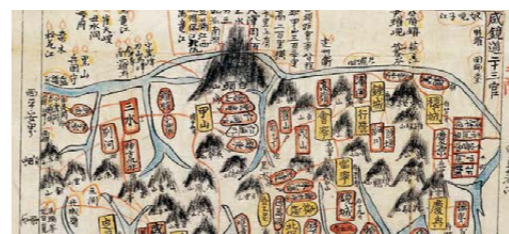
도판 153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8세기 말, 채색 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도판 154
《천하지도天下地圖》중 〈함경도咸鏡道圖〉,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31.0×38.8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9).



도판 155
《대한지리도大韓地理圖》중 〈평안도平安道〉,
18세기, 채색 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도판 156
《대한지리도大韓地理圖》중 〈함경도咸鏡道〉,
18세기, 채색 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도판 157
《지도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채색 사본, 25.2×25.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도판 158
《함경남북도읍전도咸鏡南北都邑全圖》중
〈함경전도咸鏡全道〉,
연대미상, 채색 사본, 23.4×31.0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81).



도판 159
《좌해여지도左海輿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채색 사본, 34.0×21.6cm,
천리대학 부속 천리도서관(292.1-夕43).



도판 160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중 〈함경도咸鏡道〉,
여운몽, 1849년, 목판본, 19.2×3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96).



도판 161
《천하도天下圖》중 〈함경도咸鏡道〉,
17세기, 채색 사본, 28.6×33.9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1017).



도판 162
《삼한일람도三韓一覽圖》중 〈함경도咸鏡道〉,
18세기 전반, 채색 사본, 65.1×52.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04).



도판 163
《지도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8세기, 채색 사본, 34.7×35.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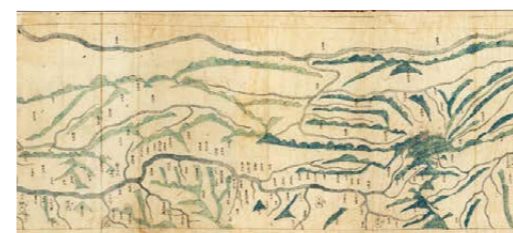
도판 164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24.5×30.5cm,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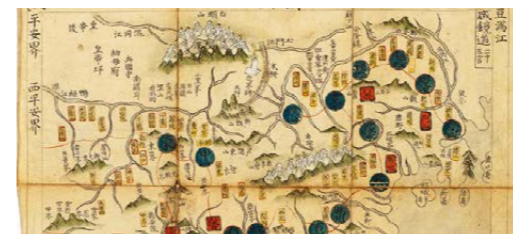
도판 165
《지도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채색 사본, 32.3×38.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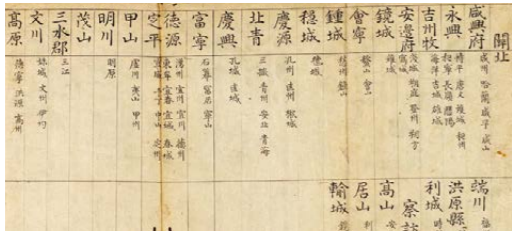
도판 166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중 함경도 세부도,
18세기 반, 채색 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53).



도판 167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중 함경도 세부도,
18세기 반, 채색 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53).



도판 168
《해동총도海東總圖》중 〈함경도咸鏡道〉,
18세기, 채색 사본, 42.5×32.3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2).



도판 169
《해동총도海東總圖》중 <관북關北>.
18세기, 채색 사본, 32.0×23.0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42).



도판 170
《북관지도北關地圖》중 [북관지도北關地圖].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84.7×121.5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도판 171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평안도전도平安道全圖>.
1750년대, 채색 사본, 49.8×38.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72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1750년대, 채색 사본, 49.8×38.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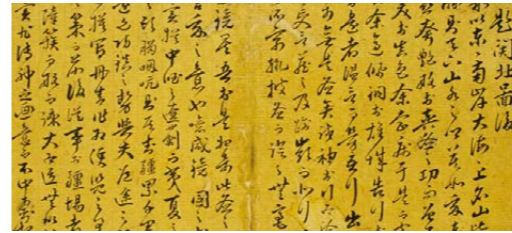
도판 173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중 <평안도平安道>.
19세기, 채색 사본, 80.1×57.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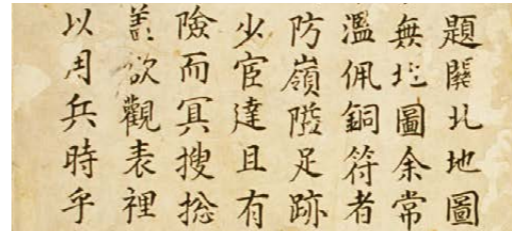
도판 174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중 <함경도咸鏡道>.
19세기, 채색 사본, 48.8×57.4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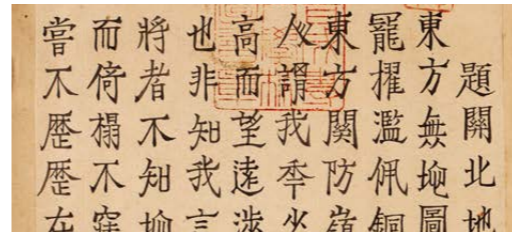
도판 175
《관북지도關北地圖》중 표지.
18세기, 채색 사본, 32.0×23.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76
《관북지도關北地圖》서문.
1723년, 채색 사본,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77
《관북지도關北地圖》서문.
18세기, 채색 사본, 32.0×23.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78
《관북지도關北地圖》서문.
1723년, 채색 사본,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79
《관북지도關北地圖》중 <갑산부甲山府>.
1723년, 채색 사본,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0
《관북지도關北地圖》중 <갑산부甲山府>.
18세기, 연대미상, 채색 사본, 106.7×59.6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81
《관북지도關北地圖》중 <삼수부三水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2
《관북지도關北地圖》중 <삼수부三水府>,
연대미상, 채색 사본, 113.2×60.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83
《관북지도關北地圖》중 <무산부茂山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4
《관북지도關北地圖》중 <무산부茂山府>,
연대미상, 채색 사본, 40.9×87.4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85
《관북지도關北地圖》중 <은성부穩城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186
《관북지도關北地圖》중 <은성부穩城府>,
연대미상, 채색 사본, 47.0×58.0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 706.3).



도판 187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갑산부甲山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88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삼수부三水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89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폐사군廢四郡>,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0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평안도 <강계부江界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1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평안도 <위원군渭原郡>,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2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평안도 <이산부理山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3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평안도 <벽동군碧潼郡>,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4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평안도 <창성부昌城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5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평안도 <삭주부朔州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6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2책 평안도 <의주부義州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7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무산부茂山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8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회령부會寧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199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종성부種城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200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은성부穩城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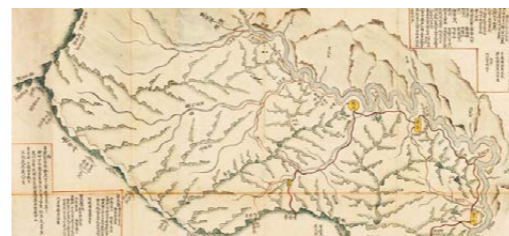
도판 201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경원부慶源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202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경흥부慶興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도판 203
《관북지도關北地圖》중 <무산부茂山府>, 일본 동양문고(VII-2-228).



도판 204
《관북지도關北地圖》중 <무산부茂山府>, 연대미상, 채색 사본, 40.9×87.4cm, 고려대학교 도서관(靑706.3).



도판 205
《관북지도關北地圖》중 〈무산부茂山府〉,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47.4×90.7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6.2).



도판 206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중 〈무산부茂山府〉,
연대미상, 채색 사본, 41.0×84.2cm
국립중앙박물관(국2152).



도판 207
《북관지도北關地圖》중 〈무산茂山〉,
1776~1784년, 사본, 74.7×77.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50).



도판 208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 3책 〈함경도 무산부茂山府〉,
1750년대, 채색 사본, 47.0×30.5cm,
보물 제159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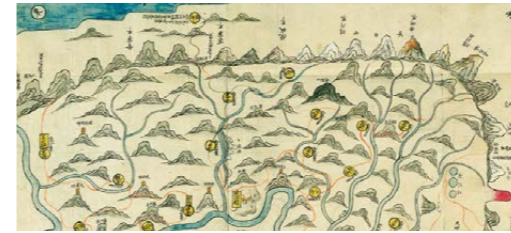
도판 209
《조선지도朝鮮地圖》중 〈제 1책 함경도 무산茂山〉,
1767~1776년, 사본, 74.7×77.2cm,
보물 제158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6030).



도판 210
《함경남북도도읍전도咸鏡南北道都邑全圖》중
〈무산전도茂山全圖〉,
1822년 이후, 채색 사본, 22.8×31.5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81).



도판 211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중 제 4책 〈무산부茂山府〉,
19세기, 채색 사본, 74.3×77.0cm,
보물 제158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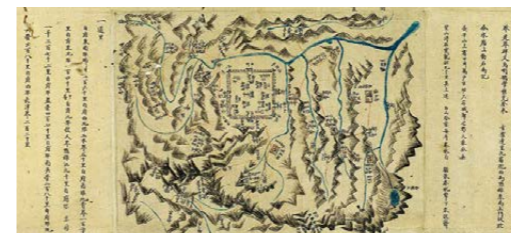
도판 212
《무산지도茂山地圖》,
1872년, 채색 사본, 36.6×25.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94).



도판 213
《청북도淸北圖》중 〈의주부義州府〉,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88.5×66.8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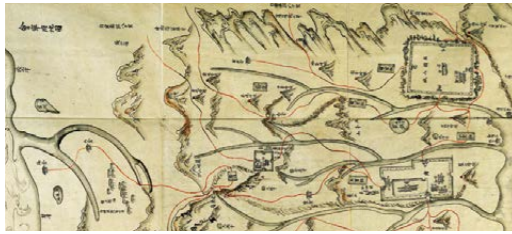
도판 214
《청북도淸北圖》중 〈강계부江界府〉,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67.4×99.6cm,
고려대학교 도서관(貴707.2).



도판 215
《갑산부지도甲山府地圖》,
1872년, 채색 사본, 36.6×25.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81).



도판 216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중 〈회령부會寧府〉,
19세기, 채색 사본, 74.3×77.0cm,
보물 제158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2156).



도판 217
《회령부지도會寧府地圖》,
1872년, 채색 사본, 36.6×25.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80).



도판 218
《함경남북도도읍전도咸鏡南北道都邑全圖》 중
〈함흥전도咸興全圖〉,
1822년 이후, 채색 사본, 23.4×31.3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81).



도판 219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중 〈함흥咸興〉,
연대미상, 채색 사본, 54.0×47.0cm
국립중앙박물관(구2152).



도판 220
《동국여도東國輿圖》 중 제 4책 함경도 〈함흥부咸興府〉,
1800-1822년, 채색 사본, 65.4×58.8cm,
고려대학교 박물관(2664.V.3).



도판 221
《동국여도東國輿圖》 중 제 3책 평안도
〈평양부성도平壤府城圖〉,
1800-1822년, 채색 사본,
고려대학교 박물관(2664.V.4).



도판 22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국립중앙박물관, 류코쿠龍谷대학 도서관 소장 모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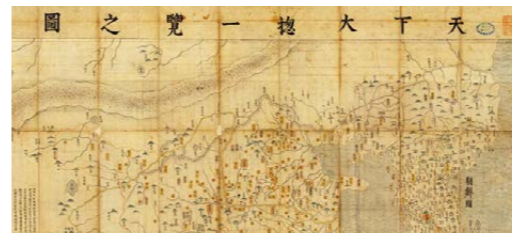
도판 223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
16세기 후반, 채색 사본, 180.0×197.0cm,
보물 제1590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114).



도판 224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
1666년, 목판본, 142.8×89.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4).



도판 225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
1666년, 채색 사본, 110.0×77.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5).



도판 226
《천하대총일람지도天下大總一覽之圖》,
1767년, 채색 사본, 128.5×151.2cm,
국립중앙도서관(古朝61-11).



도판 227
《여지전도輿地全圖》,
1824년, 채색 사본, 83.0×69.5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6).



도판 228
《여지전도輿地全圖》,
19세기, 목판본, 92.5×61.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48).



도판 229
《천하여지도天下輿地圖》,
1747년, 목판본, 122.6×111.0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32).



도판 230
《각국도各國圖》중 <천하전도天下全圖>,
1822년 이후, 채색 사본, 33.2×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도판 231
《고지도첩古地圖帖》중 <천하산천맥락도天下山川脈絡圖>,
19세기, 채색 사본, 36.4×59.8cm,
영남대학교 박물관(10137).



도판 232
《각국도各國圖》중 <천하총도天下總圖>,
1822년 이후, 채색 사본, 33.5×22.3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도판 233
《축벽도丑鬮圖》중 <천하도天下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23.4×19.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62).



도판 234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중 <천하지형天下地形>,
18세기 말, 채색 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도판 235
《각국도各國圖》중 <천지전도天地全圖>,
1822년 이후, 채색 사본, 33.2×44.0cm,
국립중앙도서관(古2802-1).



도판 236
《해동삼국도海東三國圖》,
1780년대, 채색 사본, 248.0×264.4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5506).



도판 237
《여지도輿地圖》중 <천하도지도天下地地圖>,
18세기 말, 채색 사본, 60.3×102.2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도판 238
《중국역대팔폭병풍中國歷代八幅屏風》,
1825년, 채색 사본, 118.3×456.0cm,
서울역사박물관(서13217).



도판 239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중 <중국도中國圖>,
여운묘溫,
1849년, 목판본, 19.2×3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96).



도판 240
《지도地圖》중 <중화도中華圖>,
19세기, 채색 사본, 50.0×25.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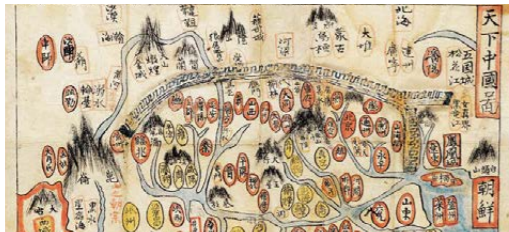
도판 241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중 〈중국지형中國地形〉,
18세기 말, 채색 사본, 19.8×31.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13).



도판 242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朝鮮地圖附八道天下地圖》중
〈중국지도中國地圖〉,
18세기 중엽, 채색 사본, 24.5×30.5cm,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61-6).



도판 243
《지도地圖》중 〈중국도中國圖〉,
18세기 후반, 채색 사본, 30.3×35.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3).



도판 244
《대한지리도大韓地理圖》중 〈천하중국도天下中國圖〉,
18세기, 채색 사본, 47.9×30.4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92).



도판 245
《중국전도中國全圖》,
1831년, 채색 사본, 68.0×44.7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27).



도판 246
《중국지도中國地圖》,
연대미상, 채색 사본, 40.6×58.8cm,
국립중앙박물관(M138).



도판 247
《여지도輿地圖》중 〈중국지도中國地圖〉,
1789~1795년, 채색 사본, 82.5×91.0cm,
보물 제159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4709-78).



도판 248
《지도地圖》중 〈중국도中國圖〉,
19세기, 채색 사본, 33.0×39.2cm,
서울역사박물관(서13187).

지도색인(도엽명 가나다 순)

도엽명/지도책명/도판번호

ㄱ

갑산부 관북지도 도판 179	210
갑산부 관북지도 도판 180	210
갑산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187	215
갑산부지도 도판 215	228
갑산지도 도판 55	88
강계부 제 2책 평안도 해동지도 도판 190	216
강계부 청북도 도판 214	227
경원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201	219
경흥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202	219
고구려북도급강의강역도 조선강역총도 도판 24	48
관남 동국지도 도판 131	170
관북 동국지도 도판 132	171
관북 해동팔역여지도 도판 138	175
관북 해동총도 도판 169	202
관북전도 도판 41	70
관북지도 북관지도 도판 25	50
관북지도 서문 도판 176	208
관북지도 서문 도판 177	209
관북지도 서문 도판 178	209
관북지도 표지 도판 175	208
관북총람도 서북양계지도 도판 32	59
관서 동국지도 도판 130	170
관서관북도 관서관북도 도판 26	56
관서도지도 도판 139	176
관서전도 청남도 도판 33	60
관서청북전도 도판 37	64
근역강산맹호기상도 도판 122	158~159

ㄴ

낙둔도도 아국여지도 도판 44	73
대동여지도 도판 115	146
대동여지도 제 2책 백두산 부분 도판 110	142
대동여지도 제 2책 백두산 부분 도판 111	143
대동여지도 제 2책 백두산 부분 도판 113	145
대동여지전도 도판 101	135
대한여지도 도판 120	156
대한전도 대한전도 도판 121	157
동국대지도 도판 69	105
동국대지도 도판 70	106
동국대총 동국여지도 도판 80	118
동국여지지도 도판 63	96
동국지도 도판 74	108
동국지도 도판 92	128
동국지도 도판 96	131
동국팔도대총도 지도 도판 86	123
동국팔도대총도 여지도 도판 87	124
동국팔도대총도 좌해여지도 도판 90	127
동국팔도여지도 도판 62	95
동여 제 2책(상) · 3책(하) 도판 118	152~153
동여도 도판 116	147
동여도 도판 117	147
동여도 제 2책(상) · 3책(하) 도판 119	154~155
동여도 제 3층 8 · 9 도판 106	139
동여도 제표총목, 팔도분표 도판 105	138

ㄷ

무산 북관지도 도판 207	222
무산 조선지도 도판 209	223
무산부 관북지도 도판 183	212
무산부 관북지도 도판 184	213
무산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197	218
무산부 관북지도 도판 203	220
무산부 관북지도 도판 204	220
무산부 관북지도 도판 205	221
무산부 관북여지도 도판 206	221
무산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208	222
무산부 함경도전도 도판 211	224
무산전도 함경남북도도읍전도 도판 210	223
무산지도 도판 212	225
백두산도 제 3책 함경도 동국여도 도판 48	80
백두산정계비지도 도판 47	78
백두산정계비지도 도판 51	82
벽동군 제 2책 평안도 해동지도 도판 193	217
본조팔도성경합도 청구도 도판 103	136
본조팔도주현도총목 청구도 도판 102	136
북경노정기 각국도 도판 22	47
북계지도 도판 27	53
북관장파지도 도판 53	85
북관지도 북관지도 도판 170	203
북도 읍 북관지도 도판 123	164
북방강역도 도판 29	56

人		연추영도·혼춘도 아국여지도 도판 45	74	조선지도 도판 77	113
삼주부 제 2책 평안도 해동지도 도판 195	217	영고답도 여도 도판 13	39	조선지방도 제 1책 백두산 부분 도판 112	144
삼수부 관북지도 도판 181	211	영고답총람도 도판 12	39	조선총도 조선전도 도판 72	107
삼수부 관북지도 도판 182	211	온성부 관북지도 도판 185	214	조선총도 해동총도 도판 83	121
삼수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188	215	온성부 관북지도 도판 186	214	조선총도 지도 도판 84	121
서관총람도 서북양계지도 도판 31	58	온성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200	219	조선팔도 도판 91	128
서관총람지도 도판 30	58	요계관방도 해동지도 도판 8	32~33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도판 66	100
서북계도 도판 4	23	요계관방지도 도판 5	30	조선팔도대총지형 조선팔도지도 도판 88	125
서북양계도 도판 2	20	요계관방지도 여지대전도 도판 9	32~33	조선팔도여지지도 도판 95	131
서북피야교계도 각국도 도판 11	37	위원군 제 2책 평안도 해동지도 도판 191	216	조선팔도지도 도판 98	132
서북피야양계만리일람지도 도판 1	20	의주부 제 2책 평안도 해동지도 도판 196	217	조선팔도총람지도 도판 67	101
서북피야양계만리일람지도 도판 3	22	의주부 청북도 도판 213	226	조선팔로지도 도판 65	100
서북피야양계전도 해동지도 도판 10	34	의주부경사행로 여지도 도판 23	47	조선팔역도 도판 71	106
성경 화이지계 도판 17	43	이산부 제 2책 평안도 해동지도 도판 192	217	증성부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199	218
성경도 대한지리도 도판 19	44	임진정계지도 여지도 도판 49	81	중국도 동국여지도 도판 239	261
성경여지전도 여지도 도판 14	40	ㅈ		중국도 지도 도판 243	265
성경여지전도 고지도첩 도판 20	45	장진지도 도판 54	86	중국도 지도 도판 248	270
성경전도 중국고대각성별전도 도판 16	42	장파지도 도판 52	84	중국역대팔폭병풍 도판 238	257
성경전도 여도 도판 21	46	조선·만주지도 전세보 도판 7	31	중국전도 도판 245	266
성경전도 조병사윤성본 각국도 도판 18	44	조선국 지도 도판 81	119	중국지도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도판 242	264
성경전도 청일통지본 각국도 도판 15	41	조선국도 도판 57	92	중국지도 도판 246	268
ㅇ		조선국팔도통합도 지도 도판 94	130	중국지도 여지도 도판 247	269
아국여지도 도판 42	72	조선도 도판 58	93	중국지형 조선팔도지도 도판 241	263
아국여지도 목록 도판 43	72	조선도 지도 도판 85	122	증화도 지도 도판 240	262
아국총도 여지도 도판 97	132	조선방역지도 도판 60	94	ㅊ	
압록강도 여도 도판 35	62	조선여진분계도 해동지도 도판 6	31	창성부 제 2책 평안도 해동지도 도판 194	217
압록강변계도 도판 36	62	조선전도 각도지도 도판 73	107	천지전도 각국도 도판 235	251
양계지도 도판 28	54	조선전도 해동여지도 도판 75	108	천하고금대총편람도 도판 224	241
여도 도판 78	108	조선전도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도판 82	120	천하고금대총편람도 도판 225	241
여지전도 도판 227	243	조선전도 고지도첩 도판 93	129	천하대총일람지도 천하지도 부 조선유구국 도판 226	242
여지전도 도판 228	244	조선정계비강역약도 도판 50	82	천하도지도 여지도 도판 237	254

천하산천맥락도 고지도첩 도판 231	247
천하여지도 도판 229	245
천하전도 각국도 도판 230	246
천하중국도 대한지리도 도판 244	266
천하지형 조선팔도지도 도판 234	250
천하총도 각국도 도판 232	248
청구관해방총도 도판 76	110~111
청구도 도판 107	140
청구도 제 3층 8판·9판 도판 104	137
청구도 제 1층 3 도판 108	141
청구도 제 3층 8·9 도판 109	141
청북변성도 도판 38	66~67
청북전도 청북도 도판 34	60
총도 동국지도 도판 79	116
천하도 축벽도 도판 233	248
ㅊ	
팔도지도 도판 56	92
팔도총도 도판 61	95
팔도총도 도판 68	102
팔도총도 천하도 도판 89	126
평안 조선팔도여지전도 도판 145	179
평안도 이동여지도 도판 133	172
평안도 대한지리도 도판 155	190
평안도 해동여지도 도판 173	206
평안도도 여지도 도판 147	180
평안도전도 제 3책 해동지도 도판 171	204
평양부성도 제 3책 평안도 동국여도 도판 221	234
평안북도 대한전도 도판 149	182
폐사군도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도판 189	215
폐사군국경수어도 도판 39	68
폐사군도 도판 40	69

ㅎ	
함경 조선팔도여지전도 도판 146	179
함경남도 조선전도 도판 125	166
함경남도 동국지도 도판 127	168
함경남도 팔도분도 도판 141	177
함경도 여지도 도판 124	165
함경도 도리도표 도판 129	169
함경도 동국팔로분지도 도판 136	174
함경도 여지도 도판 142	177
함경도 해동도 도판 152	187
함경도 조선팔도지도 도판 153	188
함경도 대한지리도 도판 156	190
함경도 지도 도판 157	191
함경도 좌해여지도 도판 159	193
함경도 동국여지도 도판 160	194
함경도 천하도 도판 161	195
함경도 삼한일람도 도판 162	196
함경도 지도 도판 163	197
함경도 조선지도 부 팔도천하지도 도판 164	198
함경도 지도 도판 165	199
함경도 해동총도 도판 168	202
함경도 해동여지도 도판 174	206
함경도도 여지도 도판 148	181
함경도도 천하지도 도판 154	189
함경도 관북 이동여지도 도판 135	173
함경도 남도십삼주 좌해지도 도판 143	178
함경도 북도구주 좌해지도 도판 144	178
함경도 지계리수 해동도 도판 151	186
함경도 세부도 조선강역총도 도판 166	200
함경도 세부도 조선강역총도 도판 167	201
함경도전도 이동여지도 도판 134	173
함경도전도 도판 140	176

함경도전도 제 2책 해동지도 도판 172	205
함경북도 조선전도 도판 126	166
함경북도 동국지도 도판 128	168
함경북도 기봉요도 도판 137	175
함경북도 대한전도 도판 150	183
함경전도 함경남북도도읍전도 도판 158	192
함흥 관북여지도 도판 219	232
함흥부 제 4책 함경도 동국여도 도판 220	233
함흥전도 함경남북도도읍전도 도판 218	232
해동삼국도 도판 236	252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도판 64	98
해삼위도 아국여지도 도판 46	75
해좌여도 도판 114	146
해좌전도 도판 99	134
해좌전도 도판 100	13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도판 222	239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조선부분 도판 59	94
화동고지도 도판 223	240
회령부도판 제 3책 함경도 해동지도 198	218
회령부 함경도전도 도판 216	230
회령부지도 도판 217	231

白石 番每結米一
斗升合夕
百二十七同 續田所八
百七十石 移入大同



Window to Mount Baekdu
Mount Baekdu in the Old Maps of Korea